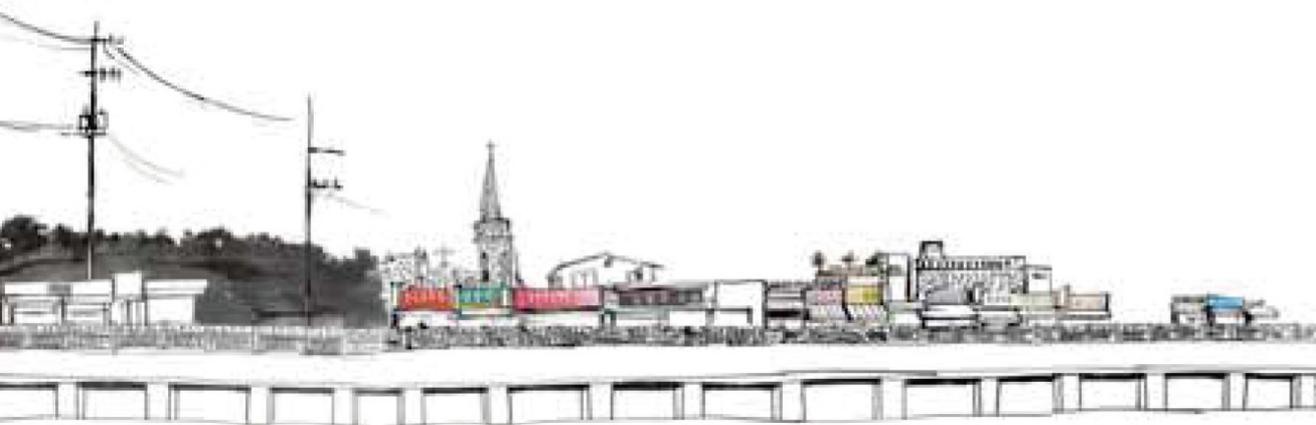


TheHistor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  
TheHistoryofSuwonCity  
TheHistoryof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TheHistory  
TheHistoryofSuwo  
TheHistoryofSuwo

TheHistory  
TheHistoryofSuwo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TheHistoryofSuwon

수원시사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 일리두기

## 기획 방향과 구성

□ 수원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1	수원의 지리적 환경	11	수원 토박이의 생애 경험과 정체성
2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12	수원 이주민의 정착과 정체성
3	수원의 통치체제와 지방세력	13	수원 여성의 생활과 정체성
4	수원의 정치 변동과 지방자치	14	수원 노동자의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5	수원의 토지 소유구조와 농업 경영	15	수원 아파트 주민의 생활과 문화
6	수원의 산업과 경제 성장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7	수원의 사회 변동과 주민생활	17	수원 화성
8	수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18	세월과 함께한 수원의 옛 문서
9	수원의 문화와 예술	19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상 : 1960~1970년대 수원
10	수원의 종교와 교육	20	수원 자료 목록집

- 제1~10권은 수원시의 지리적 환경과 공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 제11~15권은 수원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토박이, 이주민, 여성, 노동자,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였다.
- 제16권은 수원의 역사와 문화를 답사기의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제17권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다루었다.
- 제18~20권은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문서와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18권에서는 수원 지역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옛 문서를, 제19권에서는 1960~1970년대 사진 자료를 통해 수원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20권에는 수원시사 편찬 과정에서 조사된 주요 근현대 문서의 목록과 해제를 수록하였다.

##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수원시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하되, 역사적 연원을 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주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로 주제 및 특성에 맞게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권별로 주제와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수원시사의 전체적인 체제 통일과 내용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출 원고에 대한 윤문과 첨삭이 이루어졌다.

## 저작권과 출처 표기

- 이 책의 저작권은 수원시에 있다. 이 책에 사용된 도표와 사진 등의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와 원 저작권자를 표시해 두었으며,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원시가 제작·소장하거나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이다.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별도의 원 저작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

# Contents

# 1

일러두기

## 전설과 신앙을 따라서

### 제1장 태초부터 있었던 그곳, 수원의 진산 광교산

이달호

광교산이 아우르는 범위 / 13  
왕후장상에서 대도(大盜)까지 품은 넉넉한 산 / 25  
굽이굽이마다 역사가 숨 쉬는 산 / 30

### 제2장 수원향교 이야기

김자운

팔달산 아래에 세 번째 등지를 틀다 / 36  
수원향교를 지켜 온 사람들 / 40  
수원향교의 가르치고 제사 지내는 곳 / 41  
녹봉을 회사하여 명륜당을 증건한 수원부사 김려와 조정만 / 48  
18세기 수원향교 유생들의 강학활동 / 49  
정조의 특혜로 별시에 나아간 수원향교의 성묘집사 유생들 / 52  
수원향교의 오늘 / 56

### 제3장 봉녕사 불화에 담긴 불심(佛心)

어준일

비구니 강원(講院), 광교산 봉녕사 / 61  
「영산회상도」\_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석가모니의 법회를 그리다 / 65  
「칠성도」\_ 무병장수(無病長壽)와 자손창성(子孫昌盛)의 복(福)을 기원하다 / 67  
「현왕도」\_ 생전의 죄업을 심판받는 '현왕재(現王齋)'를 그리다 / 70  
「신중도」\_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호법신중을 그리다 / 72  
수원 지역 불화의 화기 / 75

### 제4장 전설을 따라 수원을 걷다

김용국

수원 사람의 뒤편이 \_ '수원 각쟁이'와 '수원 사람 발가벗고 삼십 리' / 82  
지지대고개에서 화산(華山)으로 거닐다 / 85  
광교산에서 유천(柳川)의 물길을 따라 흐르는 전설 / 94  
청명산에서 영통에 노닐다 / 101  
칠보산에서 미륵불의 이야기를 듣다 / 104

# 2

## 화성을 품은 수원

### 제1장 조선 후기 최대의 신도시 화성

김준혁

- 현릉원과 신읍치를 건설하다 / 115
- 화성유수부로 승격하다 / 119
- 화성을 축조하다 / 125
- 장용의영을 설치하다 / 129
- 새로운 농업의 혁신, 만석거 축조 / 134
- 화성의 상업 / 136

### 제2장 다 함께 돌아, 화성 한 바퀴

상대영

- 화성 답사는 팔달문에서 / 141
- 팔달산 오르기 / 145
- 화양루에 서서 / 148
- 성 밖에서 성벽 보기 / 153
- 서장대에 올라 / 164
- 화서문에서 장안문을 거쳐 북동포루까지 / 172
- 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화홍문에서 연무대까지 / 181
- 창룡문에서 팔달문까지 / 194
- 답사를 마치며 / 200

### 제3장 정조대왕의 그리움을 따라서

김종혁

- 정조의 능행 / 203
-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 207
- 화산과 현릉원 / 209
- 화성 가는 길 / 211
- 수원에 들어서다 / 221
- 행궁에서 현릉원까지, 정조로가 되다 / 225
- 용건릉 / 230

## 제4장 정조의 뜻이 담긴 수원 화성 편액

박철상

- 「장안문(長安門)」\_ 왕을 제일 먼저 맞는 문에 아끼는 신하의 글씨를 걸다 / 238  
「장남헌(壯南軒)」\_ 수도의 남쪽을 굳건하게 방비하다 / 241  
「득중정(得中亭)」\_ 활을 쏘아 과녁에 맞으면 제후가 될 수 있다 / 242  
「낙남헌(洛南軒)」\_ 천하의 인재를 등용하여 태평성대를 열리라 / 244  
「화성행궁(華城行宮)」\_ 심획(心畵)으로 쓰다 / 246  
「봉수당(奉壽堂)」과 「장락당(長樂堂)」\_ 혜경궁의 만수무강과 행복을 기원하다 / 249  
「화성장대(華城將臺)」\_ 굳건하게 화성을 지키다 / 252  
「화홍문(華虹門)」\_ 뛰어난 풍광에 걸맞게 화려한 멋을 부리다 / 253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_ 봄날 꽃과 버들을 찾듯 그리운 사도세자를 찾다 / 255

## 제5장 농업 생산력 향상의 기치를 들어라!

구자옥

- 농가의 이로움에 수리(水利)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 259  
둔전, 백성을 구휼하고 화성을 지키다 / 269  
서둔벌에서 태동한 근현대 농학 / 275

# 3

## 지배와 저항의 현장

### 제1장 새 세상을 꿈꾼 백 년 전 그들

성주현

- 농민들, 능참봉의 탐학과 토색에 저항하다 / 285  
동학군, 수원부 관아를 점령하다 / 289  
의병, '왜관찰사' 유기환의 집을 습격하다 / 292  
의병의 거점, 남양만 / 294  
발안장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하다 / 296  
남양 유지동에서 일제의 토벌에 맞서다 / 297  
운촌전투의 현장 / 298  
정주원 부대의 근거지, 고은포 / 299

## 제2장 제국의 도시, 식민의 도시

이동근

식민지적 도시 변화와 수원 화성 / 301  
새로운 종교의 유입 / 306  
일본인 거리와 마을, 일본을 만든다! / 313  
기차는 힘겨운 삶을 신고 달린다 / 319

## 제3장 그날의 함성은 잊지 못할 메아리로

이동근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에서 피어난 독립의 희망 / 327  
봉수당 진찬연의 꽃에서 의로운 기생으로 / 331  
그곳엔 소작농들의 울부짖음이 있었다 / 336  
장터는 말한다. 독립에 대한 열망을 ..... / 339  
독립을 위한 고결한 희생, 잊지 못할 메아리 / 343  
그날을 생각하면 오늘의 삶이 보인다 / 348

# 4

## 수원 인물을 기억하다

### 제1장 수원을 지킨 사람들

염상균

고려 효자 최루백과 사랑 이야기 / 353  
한림학사 이고와 팔달산 / 356  
김준룡과 광교산 / 359  
조심태와 봉돈 / 365  
우하영과 수원 실학 / 374

### 제2장 아픈 선각, 나혜석의 자취를 찾아

정수자

'나혜석'이라는 선각 / 379  
수원의 딸, 나혜석의 즐거운 도약 / 381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그 영예의 뒤편길 / 385  
'여성의, 여성에 대한, 여성을 위한' 글쓰기 / 396  
고향에서의 마지막 불꽃 / 403

그녀를 기리는 몇 가지 방식 / 405  
나혜석, 그 창의적 계승을 향해 / 407

### 제3장 근대 음악의 선구자 흥난파

민경찬

한국 근대 음악의 개척자 / 409  
흥난파라는 이름 앞에 붙은 '최초'라는 수식어 / 412  
조선의 음악계를 개척하다 / 415  
“더 배우기 위하여” / 418  
조선 최고의 음악가 / 421  
영욕(榮辱)의 세월 / 424  
아름다운 음악의 난(亂)이 피기 위한 언덕(城)을 만든 분 / 426  
‘민족의 노래’와 ‘동일의 노래’로 환생하기를 바라면서 / 428

### 제4장 기념물로 본 근대 수원인

염상균

미국인 여교사의 30년 수원 사랑 \_ 매향여고 내 「밀러 교장 기념비」 / 433  
수원 독립운동의 주인공, 김세환 \_ 수원중·고교 내 「김세환 선생 3·1운동 기념비」 / 439  
수원 기업인의 대명사, 최중건 \_ 신경도서관 내 「최중건 회장 동상」 / 445  
수원 정치인의 상징, 이병희 \_ 탄석공원 내 「이병희 선생 상」 / 451

# 5

## 전통을 잇는 사람들

### 제1장 화성재인청 춤으로 삶을 풀다, 송악 김복련

김현미

춤 추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 / 462  
춤에 ‘미쳐’ 산 세월 / 466  
춤을 지켜야 하는 사람 / 470  
춤으로 풀어낸 인생 / 477

## 제2장 하늘이 낸 '문쟁이', 소목장 김순기

김현미

머슴살이 대신 택한 목수의 길 / 483  
전통 창호 제작자로 자리 잡다 / 485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솜씨 / 487  
늙은 장인의 꿈 / 491

## 제3장 '선심정관(禪心正觀)한 김종욱의 단청 인생

김현미

단청이란? / 500  
혜각 스님, 그리고 단청의 거장들을 만나다 / 501  
단청장의 길을 걷다 / 504  
진정한 단청장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것 / 508  
탱화 앞에 앉은 노장 / 511

# 6

## 문화유산 둘러보기

### 제1장 문화유산 답사 길라잡이

염상균

동부권 문화유산 답사 길라잡이 / 520  
서부권 문화유산 답사 길라잡이 / 531  
남부권 문화유산 답사 길라잡이 / 536  
북부권 문화유산 답사 길라잡이 / 548

### 제2장 수원시 문화재 일람표 / 558

참고자료 / 582

집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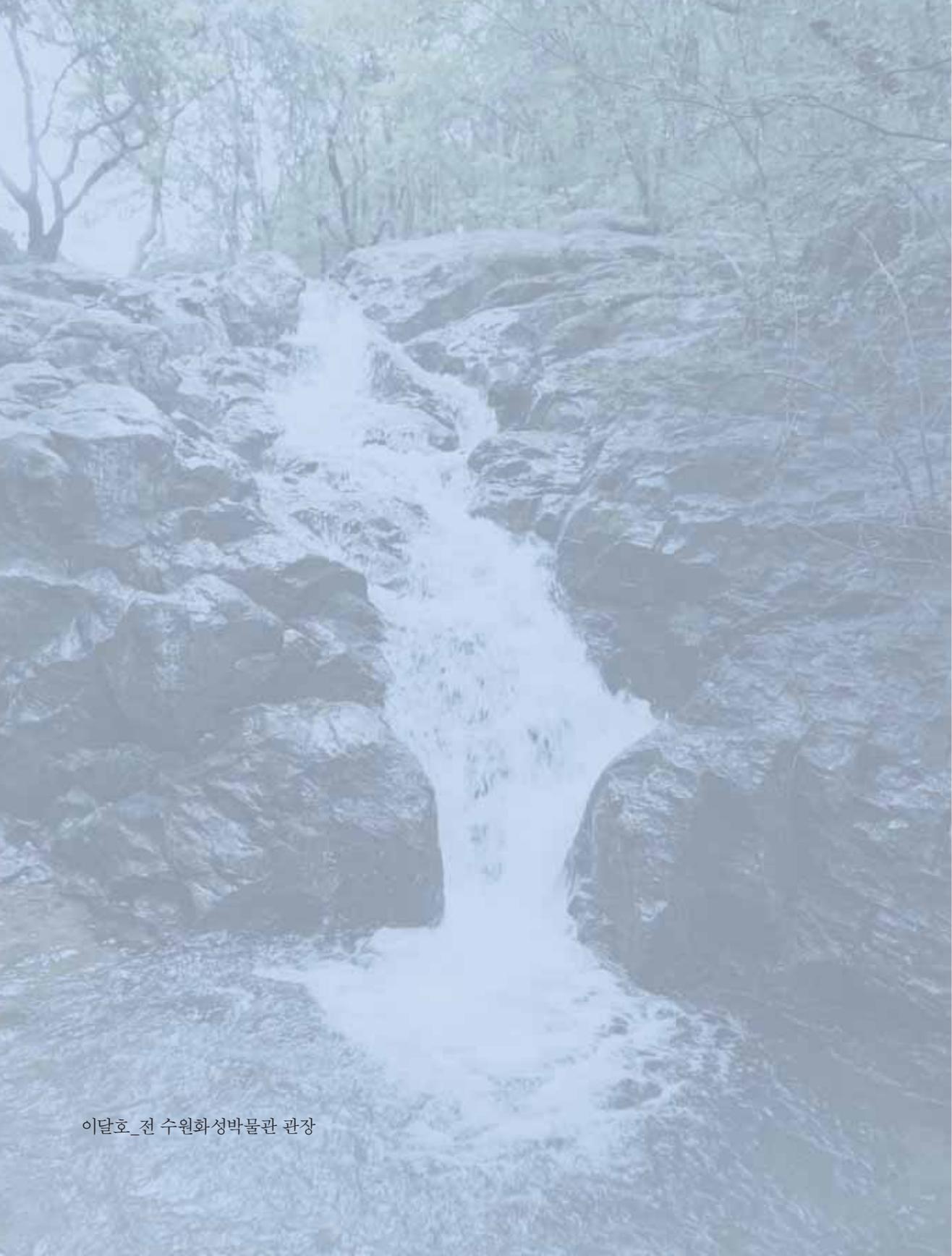
# 1부 전설과 신앙을 따라서

태초부터 있었던 그곳, 수원의 진산 광교산

수원향교 이야기

봉녕사 불화에 담긴 불심(佛心)

전설을 따라 수원을 걷다



이달호\_전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 01

,



광교산(光敎山)이란 명칭은 1530년(중종 25)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등장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수원도호부」 산천조에는 “수원부 북쪽 30리”, 「용인현」 산천조에는 “용인현 서쪽 20리”에 광교산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렇듯 광교산은 조선 중기에 이르러 역사서에 등장한다. 이는 이 시기에 조선 왕조가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 크고 작은 산천(山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즉 중앙정부는 당시까지 지방세력이 행하던 자연신에 대한 제사를 정부에서 보낸 지방관이 직접 실행하도록 하는 등 산천에 대한 일원적인 지배를 통하여 지방의 독자성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역사서에 광교산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는 것은 국가가 지방지배적 차원에서 이곳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광교산은 태초부터 지역 주민들의 터



\_광교산의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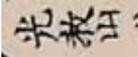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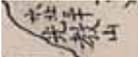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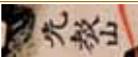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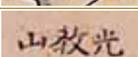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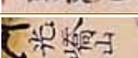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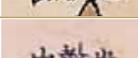


전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그 오랜 세월은 역사가 아닌 상상과 전설의 시간으로 남겨져 있다.

한편 지도류에서는 광교산이 1623년 『지나조선고지도』에 처음 등장하고, 『인조실록』에는 1637년(인조 15) 1월 5일 전라병사 김준룡 장군이 광교산에서 청병을 크게 이긴 전공을 치계한 내용이 전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광교산의 지명은 일관되게 ‘光教山’으로 표기되지만 지도류에는 한문 표기가 다른 것도 발견된다. 지도에 표기된 광교산 명칭과 그 주변 주요 지명 중 특징적인 부분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 산천조에 기록된 광교산

〈표 1〉 지도에 표기된 광교산의 명칭과 주요 지명

연도	명칭	주요 지명	지도명	소장처
1623	光敎山	 대천(大川) → 황구지천(沙斤川) → 서호천	지나조선고지도	국립중앙도서관
1628	光敎山		동여비고	양산 대성암
1700	光敎山	 팔탄산(八呑山) → 팔달산(八達山) 치악산(鷓岳山) → 칠보산	여지대전도	성신여자대학교
1735	光敎山		해동여지도(수원)	국립중앙도서관
1735	光嶠山	 광교산 옆에 서봉산(瑞峯山) 등장	해동여지도(용인)	국립중앙도서관
1750	光敎山	 서봉산	해동지도(수원부)	서울대 규장각
1750	光嶠山		해동지도(용인현)	서울대 규장각
1760	光敎山	 증악(曾岳), 유천(柳川), 후평(後坪)	팔도군현도(수원부)	서울대 규장각
1760	光敎山	 서봉사(瑞峯寺)	팔도군현도(용인현)	서울대 규장각
18세기 중엽	光敎山	 증악산(曾岳山)	경기도지도	국립중앙박물관
1767~ 1776	光嶠山	 서봉산	광여도(용인현)	서울대 규장각
1800	光敎山	 서봉사	동국여도(용인현)	고려대박물관
1800	光敎山		해동여지도	국립중앙도서관
1861	光敎山	 유천, 상류천(上柳川), 서둔(西屯), 증악	대동여지도	국립중앙도서관
1872	光敎山	 광교산·팔달산 유래, 김준룡 장군 전공, 독성의 역사, 89암자, 종루봉의 유래, 사직단, 봉녕사, 치악산, 고금산	수원부지도	서울대 규장각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동여지도』(용인, 1735)와 『광여도』(용인현, 1767~1776)에는 光嶠山으로 표기되었고, 『해동지도』(1750)에는 두 종류가 같이 표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원부지도」는 전부 ‘教’로, 「용인현지도」에만 ‘嶠’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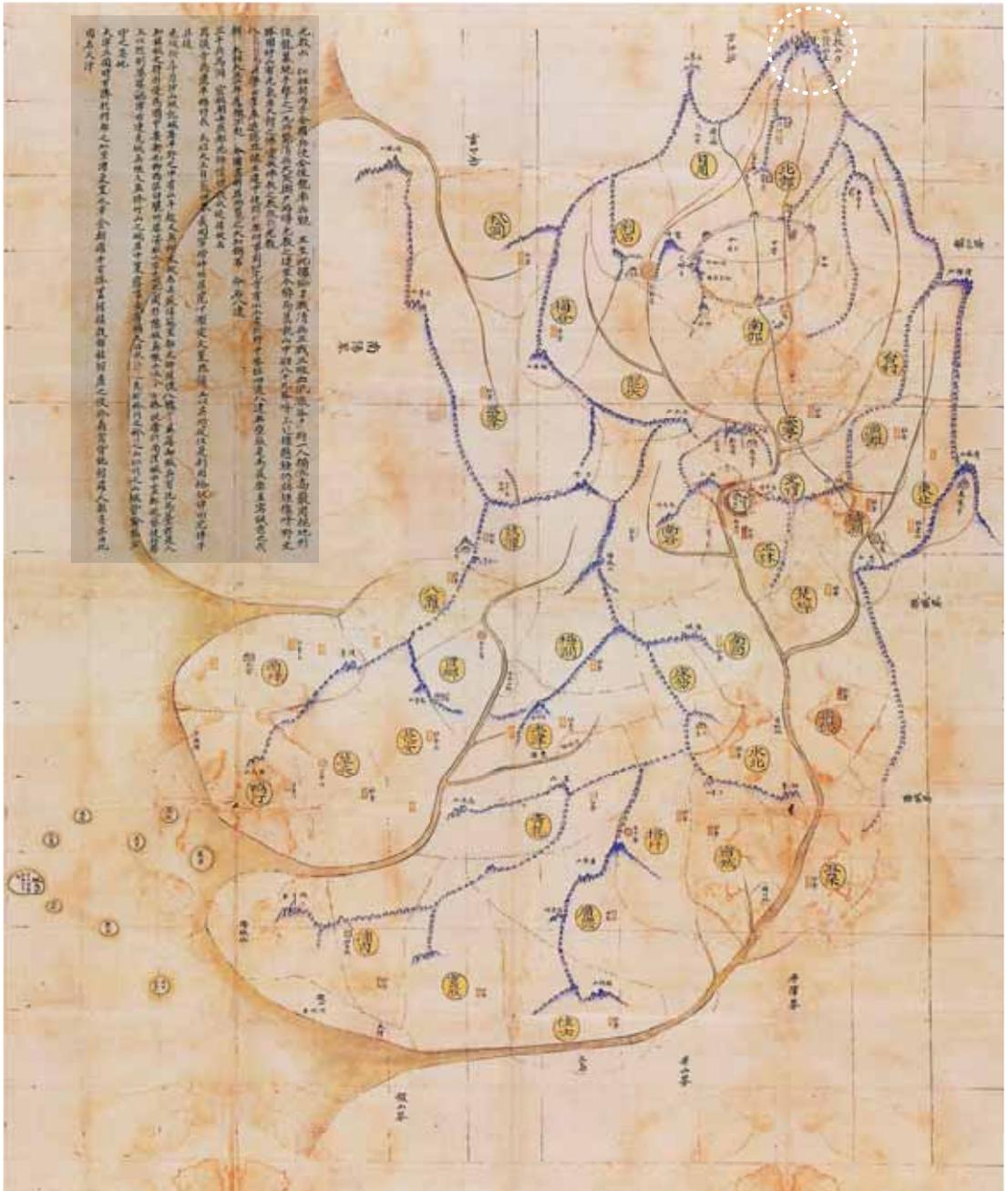
또한 광교산은 광악산(光岳山), 광옥산(光獄山) 등으로도 불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야사에 의하면 광교산의 원래 이름은 광옥산이었는데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광교산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928년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을 정벌하고 돌아가는 길에 광옥산 행궁에서 머물면서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었는데, 이 산에서 광채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는 산이라 하여 ‘광교(光敎)’라고 하였다.<sup>1</sup>

이와 관련된 내용이 1872년 「수원부지도」에 “野史 勝國時 山有光氣亘天 謂之佛靈取佛教之教 改稱光敎”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야사에 의하면 승국 시 산에서 광기가 하늘로 뻗었는데 그것을 일러 불교의 가르침이 모인 부처의 신령함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이름을 광교로 고쳤다.”는 것이다. 전해 오는 이야기와 「수원부지도」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승국’은 고려 왕건이 견훤을 정벌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산으로 광채가 솟아오르는 광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는 산”의 내용은 전해 오는 이야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원래 이름이 ‘광옥산’이었다는 내용이나 ‘광옥산 행궁’ 등의 명칭은 이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나중에 꾸민 이야기가 아니면 원 자료를 더 발굴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광교산(光敎山)’은 고려 초기에 개칭된 이후 광교산 주위의 사람들이 일관되게 부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용인현지도」에서 일부 ‘光嶠’로 표기된 예가 있지만 이는 잘못된 표기로 볼 수 있다.



\_1872년 「수원부지도」에 나타난 광교산(수원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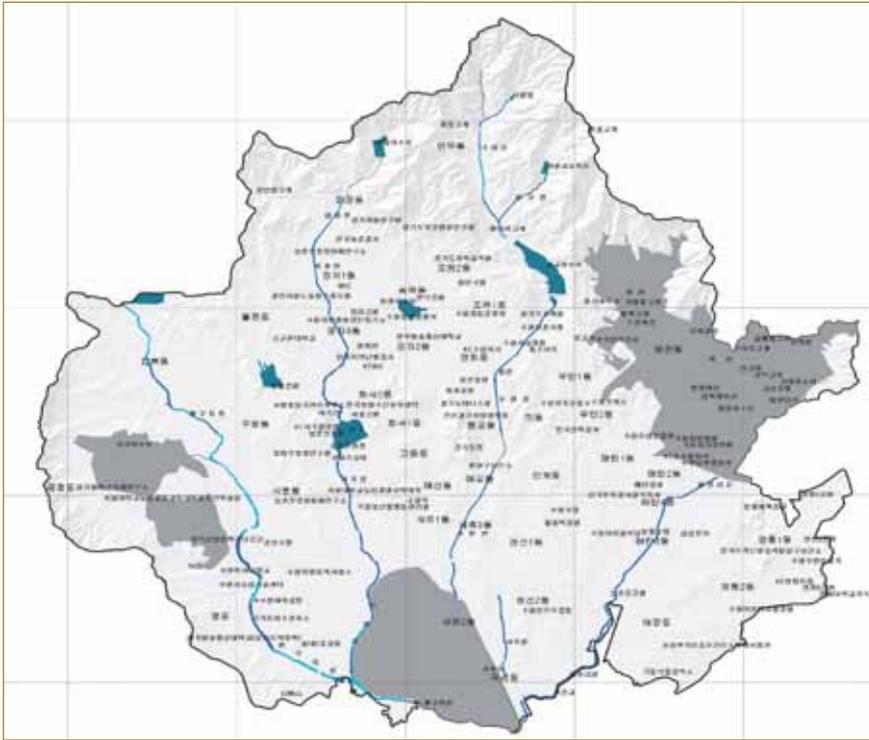
〈표 1〉의 지도를 살펴보면서 광교산 자락의 지명 중 몇 가지 특이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수원의 진산(鎭山)은 발점산(鉢岾山)이었다.<sup>2</sup> 광교산은 수원부 북쪽 30리 되는 곳에 있고, 용인현 서쪽 20리 지점에 있다<sup>3</sup>고 되어 있다. 그런데 1789년 수원의 새로운 읍치가 팔달산 동쪽에 자리 잡게 되면서 팔달산은 주산(主山)이 되고, 봉돈이 있는 화성의 동쪽 구릉은 안산(案山)이 된다. 이때에 광교산이 수원의 진산으로 되었다고 추정된다. 읍치를 넓고 평평한 지대로 이전하여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자 풍수의 변화도 아울러 가져오게 되었다.

뭇자리를 잘 잡아서 부귀영화를 누리하고자 하는 음택풍수(陰宅風水)는 허황된 것이지만 도시나 집자리를 잡는 양택풍수(陽宅風水)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새롭게 진산이 된 광교산의 산자락과 물줄기에 놓여 있는 수원 지역은 그 혜택을 지금도 무한히 누리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금의 수원천 또는 황구지천이 대천(大川 : 한내)으로 표기된 점이다. 그리고 서호천도 사근천(沙斤川)으로 표기되어 있다.<sup>4</sup> 이러한 표기는 1623년 『지나조선고지도』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이 사근천의 표기도 정조가 화성을 축성한 이후 사근(肆覲)으로 변동된다. 그리고 1760년대에 가서 유천(柳川)이 나타난다. 지금은 서호천·수원천·원천천 등이 모인 하천을 황구지천으로 부르는데, 언제 생긴 지명인지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팔달산과 칠보산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1700년 『여지대전도』에 따르면 팔달산은 팔탄산(八呑山)으로, 칠보산 지역은 치악산(鷓岳山)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1760년 『팔도군현도』에는 칠보산 지역에 증악(曾岳)이라는 명칭만 나타난다. 1863년경 편찬된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증악과 치악산 모두 등장하고,<sup>5</sup> 1872년 「수원부지도」에는 치악산(鷓岳山)만 표기되어 있다.

한편 광교산이 아우르는 범위는 어떠할까. 광교산 줄기와 여기서 발원한 물줄기를 살펴보자. 광교산은 백운산과는 구별되지만, 한남정맥의 같은 줄기에 놓여 있어 생태학적으로나 넓은 의미로는 의왕시의 백운산·바라산 등이 모두 광교산의



줄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수원(水原)의 산줄기의 갈래와 물 흐름을 살펴보면 광교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시루봉을 중심으로 비로봉, 형제봉이 흘러내려 청명산을 만들고 이 줄기가 수원의 동쪽을 감싸안는다. 서쪽으로는 지지대고개 방향에서 칠보산으로, 남쪽으로는 고금산 그리고 화산으로 수원을 둘러싸고 있다.

광교산 물줄기는 네 갈래로 뻗어 나가는데, 먼저 지지대고개로부터 뻗어 간 산줄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왕송저수지를 경유해서 황구지천을 만들고, 두 번째

┆左 광교산의 주요 수계(수원시, 『자연환경조사 및 도시생태현황 GIS구축을 위한 연구』, 2010)

┆右 광교산 계곡의 물줄기





과장저수지 방향의 물줄기가 모여 서호를 경유해서 서호천을 만든다. 세 번째 물줄기는 광교산 남쪽으로 광교저수지를 경유해서 수원의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수원천을 만들고, 네 번째는 광교산 동쪽 자락의 물을 모아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를 경유해서 원천천을 만든다. 이 네 개의 물줄기는 수원시 대황교동과 화성시 태안읍 황계리 언저리에서 황구지천으로 합쳐지고, 다시 진위천으로 흡수된 후 아산만 입구에서 안성천으로 흡수되어 서해로 흘러든다.

용인 지역은 광교산과 백운산에서 발원한 시냇물이 낙생저수지를 경유하여 동막천이 되고, 성북천이 동막천을 만나 탄천으로, 그리고 한강으로, 다시 서해로 흘러든다. 또한 의왕 지역은 백운산에서 발원되는 물줄기가 맑은내를 만들고, 백운저수지를 경유한 물줄기는 학의천을 만든다. 이 두 물줄기는 안양천으로 해서 한강으로, 다시 서해로 흘러든다. 따라서 광교산은 한강과 안성천의 분수령이 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어렸을 적 광교산의 산맥이름을 광주산맥으로 배웠다. 차령·소백·광

\_ 광교저수지

주산맥 등은 1903년 일본의 지질학자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郎)가 발표한 「조선산악론(朝鮮山岳論)」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는 1900년부터 1902년 사이에 2회에 걸쳐 우리나라를 방문해 14개월간 전국을 답사하면서 조선의 지형을 연구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산악론」 등 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sup>6</sup>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1908년 대동서관에서 『고등소학대한지지(高等小學大韓地誌)』를 발행하였는데, 일본인 지리학자 야스 쇼에이(失洋昌永)의 지리를 채용하여 산맥을 개정하였다. 이는 1904년 일본 도쿄의 환선주식회사에서 발행한 『한국지리(韓國地理)』와 그 편집체제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sup>7</sup>

이들 산맥은 일반 상식과는 달리 지질구조선, 즉 암석의 기하학적 형(形)을 기초로 하여 이것들의 삼차원적 배치의 층층을 기본선으로 한 것으로, 땅속의 맥줄기를 산맥의 기본 개념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근래에 사용되는 지리교과서의 내용은 고토 분지로의 이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sup>8</sup>

여기에서 광교산이 포함된 광주산맥은 금강산 북쪽 언저리에서 시작되어 북한강 상류를 서쪽으로 건너 북한산에 이르고, 다시 남쪽으로 한강을 건너 관악산·광교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강이나 내를 건너뛰고 능선과 능선을 넘나들고 있으나 산맥이라는 개념 자체가 땅 위의 어떤 선상을 기준하지 않고 땅속의 구조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sup>9</sup>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산줄기 개념은 이와는 전혀 달랐다. 1800년경 편찬된 『산경표(山經表)』<sup>10</sup>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맥 명칭과는 다른 1개의 ‘대간(大幹)’, 1개의 ‘정간(正幹)’, 13개의 ‘정맥(正脈)’ 등의 명칭을 쓰면서 백두산을 정점으로 하는 산줄기의 분포 등이 기술되어 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의 백두대간은 이 땅의 중심 산맥이 되며 모든 물줄기를 동서로 양분한다. 정맥은 대간에서 가지 쳐나온 이차적인 산줄기로 큰 강의 유역 능선이다. 특히 산맥의 이름은 강 이름과 연관하여 부여하였다. 이는 산이 강을 이룬 물의 산지(產地)이며, 산은 강을 넘지 못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인식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산줄기 개념에 따르면 광교산은 백두대간에서 속리산을 분기점으로 한남금북정맥(漢南錦北正脈)을 지나 칠현산을 기점으로 한남정맥으로 이어져 오는 줄기이다. 즉 백두대간의 시작인 백두산에서 시작해 원산-낭림산-금강산을 거쳐 태백산까지 내려와 속리산까지, 다음은 속리산 문장대에서 시작해 청주의 상당산성을 바라보며 동쪽으로 돌아 괴산과 음죽을 동쪽에 두고 죽산의 보개산까지 한남금북정맥, 다음은 칠현산에서 안성의 백운산, 북으로 용인의 부아산과 보개산·석성산, 수원의 광교산을 지나 지지대고개(사근현)를 지나 서쪽으로 수리산, 다시 서쪽의 소래산과 주안산을 거쳐 인천의 문학산 봉수를 남쪽에 남겨 둔 채 북쪽의 김포평야 구릉지대를 지나 강화도 앞 문수산에서 멈추는 한남정맥(漢南正脈)의 줄기에 있는 것이다. 또한 청계산과 관악산·대모산과 같은 산도 광교산 자락인 지지대고개에서 갈려 나가는 한남정맥의 한 부분인 것이다. 여기에서 한남금북정맥의 한남은 ‘한강의 남쪽’을, 금북은 ‘금강의 북쪽’을 뜻한다. 또한 이충환(1690~1752)의 『택리지(擇里志)』에도 광교산의 산줄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죽산 칠장산이 경기도와 호남의 경계에 우뚝 솟았고, 그 산에서 나온 맥이 서남쪽으로 가다가 수유고개에서 크게 끊어져서 평지로 된 다음, 다시 솟아나서 용인의 부아산, 석성산, 광교산이 되었다. 광교산의 서북편이 관악산이고, 바로 서쪽은 수리산인데 맥이 서해에서 끝났다.

『연려실기술』에도 광교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속리산 한 줄기는 서쪽으로 뻗다가 북으로 달려 거칠화령이 되고, 달천을 끼고 동쪽으로 꺾어져 서북쪽으로 가다가 삼생산·두타산이 되며, 죽산 경계에 이르러 칠장산이 된다. 칠장산으로부터 한강을 따라 서북쪽으로 오다가 흩어져서 한남의 여러 산이 되고, 양지를 따라 남·동·북쪽으로 가다가 여주의 영릉이 되고, 용인으로부터 곧장 북으로 뻗은 것은 남한산성이 된다. 광교산으로부터 남쪽으로

뺨어서 화성이 되고 북으로 뺨어 청계산·관악산이 되며, 서쪽으로 뺨어 수리산·소래산이 되고, 통진의 문수산에 이르러 바다를 건너서 강화부가 된다.<sup>11</sup>

이와 같이 우리의 지리개념은 산과 강을 하나로 인식하면서 백두산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국토를 남북으로 등뼈를 그려 넣고 1개의 정간과 13개의 정맥 사이에 강이 흐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일본인들이 연구한 지질구조선을 근간으로 한 지리적 개념은 ‘과학적’이고 ‘근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산줄기와 물줄기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지리개념은 환경친화적인 관점을 지닌 ‘탈근대적’이고 ‘미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大盜)

광교산 주변에는 ‘우성위보(禹成尉湊)’, ‘우성위평(禹成尉坪)’, ‘우평(禹坪)’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지명이 백제 온조왕의 사위인 우성위(禹成尉)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백제 온조가 하남 위례성에 도움을 정하고 사위 우성위와 딸을 광교산에 살게 하였는데, 우성위가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막아 도랑을 만들고 보를 막았다는 것이다. 또한 온조왕은 딸과 사위를 보기 위하여 이곳에 가끔 찾아왔는데, 이 때문에 온조왕을 위한 행전(行殿)을 지었으며 우물인 ‘정자산고정(亭子山古井)’도 만들었다<sup>12</sup>고 전한다.

광교산에는 종대봉(鐘臺峯)과 문암(文巖)이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는데, 신라 말기의 학자인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이 광교산 꼭대기에 종을 매달아 놓은 종루에 올라 사방을 조망하고, 이 산봉우리를 종대봉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

한다.<sup>13</sup> 이 설화도 1872년 「수원부지도」의 “峰上起樓懸鍾 仍稱 鐘樓峰”이라는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최치원과 관련된 기록은 없고, 봉우리 이름도 ‘종루봉’이다. ‘종루봉’은 최치원보다는 불교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하광교동에 있는 문암은 문암골 못 미처 개천을 건너면 보이는데, 신라 말 대학자인 최치원이 행전(行殿) 동문 밖에 있던 이 바위 세 군데를 즐겨 찾아서 바위 이름을 ‘문암’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또 문암은 고려 말 8학사 중의 한 사람인 이고(李皐)가 주유하면서 발을 씻고 머리를 감으며 즐겼다는 곳인데, 영험하다는 소문이 있어 지금은 시민과 무속인들의 산 기도처로 이용되고 있다.

광교산은 병자호란 당시 청병을 상대로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곳이다.

전라병사 김준룡(金俊龍)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들어와 광교산(光教山) [경기의 수원(水原)과 용인(龍仁) 사이에 있다.]에 주둔하며 전투에 이기고 전진하는 상황을 치계(馳啓)하였다. 당시 남한산성이 오래도록 포위되어 안팎이 막히고 단절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구원병의 소식이 잇따라 이르렀으므로 성 안에서 이를 믿고 안정을 되찾았다.<sup>14</sup>

전라병사 김준룡이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들어와 광교산에 주둔하며 전투에 이기고 전진하는 상황을 치계(馳啓)한 내용이다. 김준룡은 1608년(선조 41)에 무과에 급제해 여러 고을 관직을 역임한 뒤 전라병마절도사로 재임 중이었다.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 태종(太宗)이 13만 대군을 앞세우고 인조가 몽진해 있는 남한산성을 침공했다. 김준룡은 관하에 있는 친병(親兵)을 이끌고 올라오면서 연변(沿邊)의 군현병(郡縣兵)까지 합세시켜 10여 일 만에 수원 광교산에 이르렀다. 그는 이곳에서 격전을 벌인 끝에 수많은 적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청 태종의 사위 양고리(楊古利)와 장수 2명을 사살하여 병자호란에서 가장 큰 전과를 올렸다. 이때 적군의 시체가 이 골짜기를 덮었고 피가 내를 이루었으며, 청군은 장수와 동료들의 시체를 메고 퇴각하면서 소리 높여 통곡했다고 전

한다.

나만갑의 『병자록(丙子錄)』에는 “전라병사 김준룡은 빠르고 용감한 병사를 뽑아서 방진을 쳐 사면에서 밖을 향해 공격케 하고 양식은 진 가운데 두는 방법으로 적과 맞서 싸울 계책을 세웠는데, 그가 광교산에 웅거하자 남한산성과 거리가 불과 30리 정도밖에 안 되었다. 적이 날마다 공격해 왔지만, 그때마다 적을 수없이 죽이고 적의 명장도 죽였는데, 그 청장은 청 태종 한(汗)의 사위였다.”고 나와 있다.

청군이 항복한 골짜기라는 뜻인 호항골[胡降谷]은 하광교 소류지로부터 위쪽에 펼쳐져 있다. 골짜기의 위쪽에는 광교암(光教巖)이란 바위가 있고, 그곳엔 조선시대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의 글씨로 김준룡의 전공을 새긴 김준룡 장군 전승비가 있다. 『수원군읍지(水原郡邑誌)』에 따르면 화성을 축성할 때 성역(城役)에 필요한 석재를 구하러 광교산에 갔던 사람들에게서 병자호란

당시 김준룡 장군의 전공을 전해 들은 성역총리대신(城役總理大臣) 좌의정 채제공이 청군이 항복했다는 호항골의 꼭대기 자연 암벽에 ‘충양공김준룡전승지(忠襄公金俊龍戰勝地)’, 그 글씨 좌우에 ‘병자호란공제호남병(丙子淸亂公提湖南兵)’, ‘근왕치차살청삼대장(勤王至此殺淸三大將)’이라고 음각한 비문을 남겼다고 한다.

한남정맥상의 광교산은 청계산과 속리산을 잇는 중간지대로, 의병들이 웅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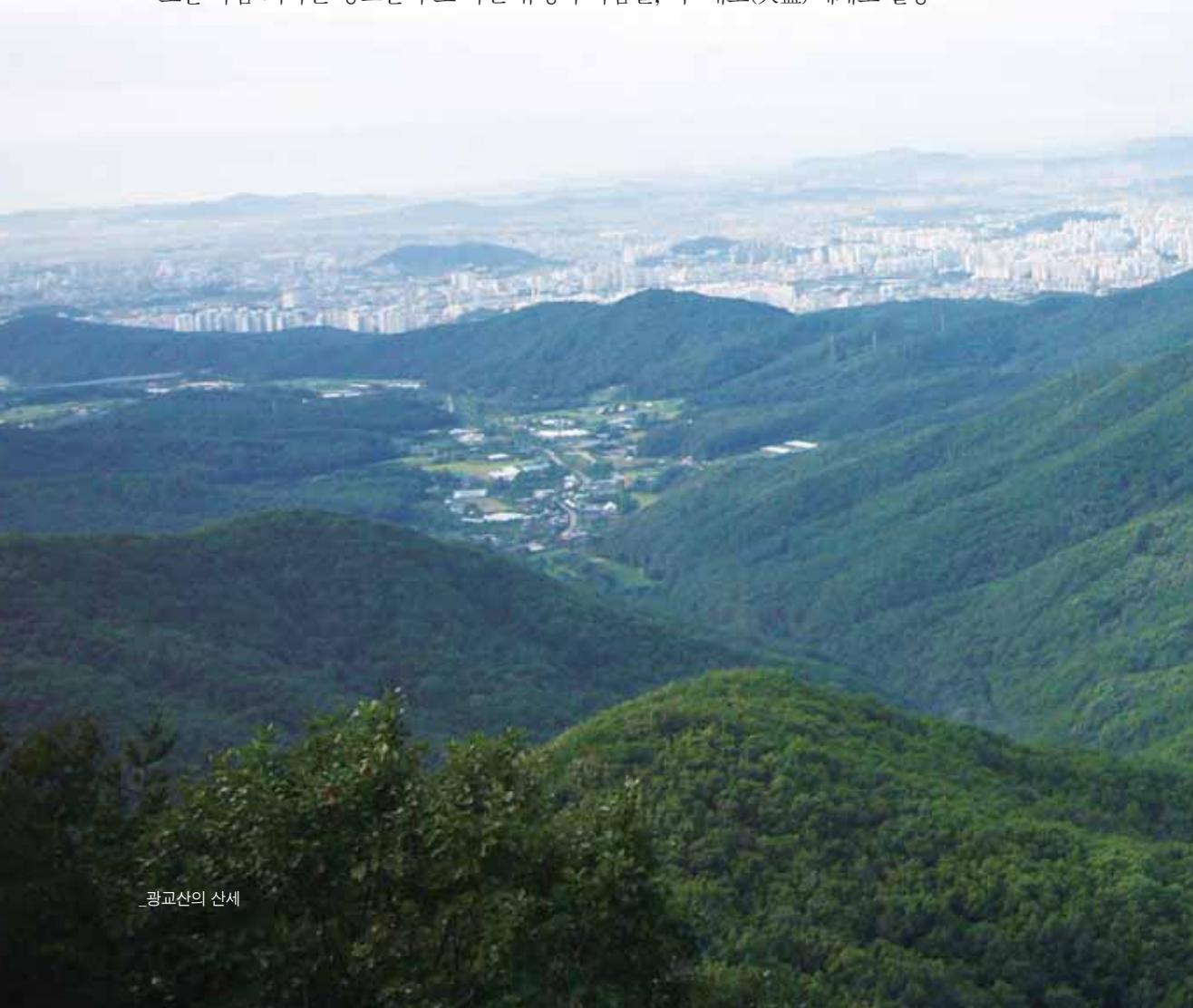
「충양공김준룡전승지비」

기에 좋은 지형이었다.<sup>15</sup>

참봉 김지순(金之純)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광교산(光教山)으로 들어가 일전(一戰)을 하고 나서 강화의 소식을 듣고는 통곡을 하고 돌아온 이후 두문불출로 생을 마쳤습니다.<sup>16</sup>

이 글은 정조 대 임진왜란·정유재란 등에 공을 세운 영광군수 김익복에게 증직을 요구하는 상소문으로, 광교산이 외적의 침략 시 도성방위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나타내 준다.

또한 다음 기사는 광교산이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 즉 ‘대도(大盜)’에게도 활용



되었음을 보여 준다.

신이 들으니 진위현(振威縣) 영신리(永新里) 및 과천(果川)의 광교산(光敎山) 등지에 종적이 수상한 자가 있다고 하니, 이는 대도(大盜)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청컨대 사람을 보내어 사로잡게 하소서.<sup>17</sup>

이는 성종 대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손순효(孫舜孝)가 진위 등지와 광교산에 수상한 무리가 있다고 왕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의병뿐만 아니라 도적질이나 ‘변혁을 꿈꾸는’ 대도들에게도 광교산은 웅거하고 일을 도모할 만한 곳이었다. 즉 청계산과 관악산 그리고 칠장산과 속리산 등 주변의 어디로도 연락과 도주가 수월



한, 오늘날로 말하면 유격전을 펼치기 좋은 산세인 것이다. 이렇듯 광교산은 전설과 역사 속에서 왕후장상에서 대도까지를 품은 넉넉한 산이었다.

## 가

창성사지는 상광교 시내버스 종점에 있는 다리를 건너지 않고 음식점을 거쳐 그대로 30분쯤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 예전에는 약수터인 미약절 터가 창성사지라고 잘못 알려졌으나 얼마 전 이곳 표지판을 옮겨 위치를 바로잡았다. 창성사는

고려시대 국사였던 진각국사(眞覺國師)가 수행하던 절이었다. 이곳에 있던 「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는 매향동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위 언덕으로 옮겨져 있는데, 보물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다.

진각국사는 1307년(고려 충렬왕 33)에 출생해 13세에 화엄종 반룡사에 들어가 일비대사에게서 삭발했으며, 19세에 상품선(上品選)에 오르고 20여 개 절의 주지를 거쳤다. 중국에도 다녀왔으며, 공민왕으로부터 국사를 임명받고 인장과 법의를 하사받았다. 진각국사는 1385년(우왕 11)에 입적했으나 세수로 79세, 법랍은 66세였다. 창성사의 건물은 남아 있지 않으나 축대와 건물기단, 주춧돌, 우물 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주



「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 1386년(우왕 12)에 창성사에 세워진 진각국사 친희의 탑비이다.

변에는 기와 조각이 술하게 발견되고 있다.

또한 광교산에는 89암자가 있었다[舊說 山中 卅八十九菴]는 기록이 1872년 「수원부지도」에 있다.

이와 관련된 지명으로 하창(下倉 : 하챙이)이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은 옛 광교산에 있었던 '89암자'의 보급 창고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한다. 하창은 하광교동 윗말 못 미쳐 왼쪽으로 약간 들어간 지역(윗말 북서쪽)으로, '밖하챙이'와 '안하챙이'로 나뉘어 있다. 상광교동 쪽에 있었던 것을 '밖하챙이'라고 했으며, 하광교 방향에 있었던 것을 '안하챙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창고 자리는 논과 밭으로 변화였다. 이 외에도 절터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미약절 터, 불당골, 지네절 터 등이 전해 오고 있으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혜소국사비」에는 혜소국사(972~1054)가 수행한 광교사(光敎寺)가 등장하는데, 바로 광교산에 있던 사찰로 추정된다. 이렇게 고려시대 대표적인 고승들의 비석은 예로부터 이어져 오는 설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광교산 자락인 하광교동 산51-1번지 일대는 여주 이씨 상당공파 종중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이고의 묘역이 있다. 이고는 본관이 여흥(여주)이고, 고려 말에 과거에 급제하여



절터약수터 주변에 널려 있는 기와 조각



대간을 역임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간관, 이조참의, 공안부윤(恭安府尹), 집현전 학사 등의 관직을 거치다가 71세에 사퇴하고 수원에 은거했다. 『수원군읍지』에 의하면 고려가 망하자 팔달산에 은거하며 태조 이성계가 벼슬을 권하였으나 이를 사양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팔달산’이라는 산 이름이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수원에 널리 전해진다. 이 밖에도 이고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하는 지명으로는 ‘권선리(勸善里)’, ‘학사정(學士井)’, ‘조대(釣臺)’, ‘망천(忘川)’ 등이 있다. 묘역은 이고의 묘를 가운데에 두고 그 위에 부친의 묘[嘉靖大夫同知中樞院司李允方]가 있고, 그 아래 이조참관을 지낸 아들 이심(李審)의 묘가 있다.

1789년 수원에 신도시가 건설된 이후에는 관개를 위한 물의 근원지로서 광교산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추적하려면 곡식을 생산해야 하고 곡식을 생산하려면 물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차(水車)로 물을 푸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물을 두고도 관개(灌溉)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sup>18</sup>

\_이고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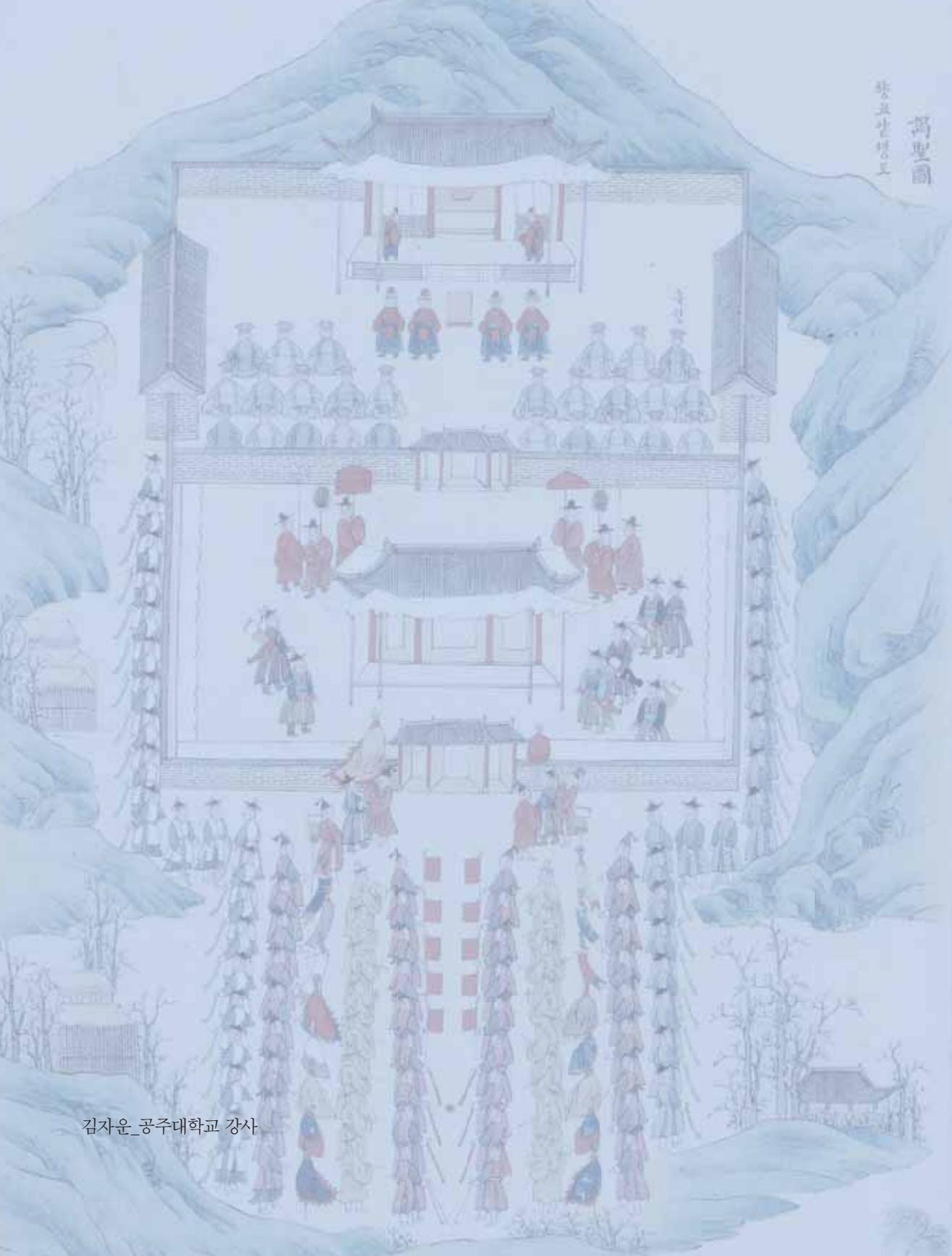
위 글은 전 좌랑 이우형(李宇炯)이 수차의 제도를 통용시켜 수원에서 관개사업을 벌일 것을 상소한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정조는 다음과 같이 광교산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은 예를 들고 있다.

수차의 제도야말로 어찌 그 이익을 이루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수리(水利)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근본을 삼았는데, …… 지난 겨울에 윤음(綸音)을 내려 수원산성(水原山城) 밖의, 대략 100포(包)를 파종할 수 있는 빈 땅을 개간, 광교산(光教山)의 물을 끌어들여 관개하게 했던 것도 수리사업을 일으켜 보려는 뜻에서였다.<sup>19</sup>

이와 같이 광교산은 수원에 신도시 화성이 건설되면서, 농업에서 이용후생을 위한 물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영화동 동북쪽 넓은 들인 관길야(觀吉野), 정자2동 지역으로 지금의 수성고등학교와 수원상공회의소·연초제조창 일대의 넓은 들인 대유평(大有坪), 화성 서쪽에 조성된 서둔(西屯)의 풍요는 광교산의 물줄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토신(土神)과 곡신(穀神)에게 제사 지내던 최초의 사직단은 팔달산에 있다. 화성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광교산 자락인 원호원 뒤쪽 산으로 옮겨지게 된다. 사직단의 위치는 1872년 「수원부지도」에 표시되어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또한 백운산 어딘가에는 화성을 축성할 때 벽돌을 구웠던 터가 남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수원 경내는 아니지만 광교산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 있다. 서봉사 터에는 1185년(명종 15)에 건립된 「현오국사비」(보물 제9호), 조선시대 대유학자인 조광조의 묘와 그를 배향한 심곡서원, 여말선초에 왜구를 물리치는 데 공을 세운 이종무 장군의 묘 등 산골짜기마다 수많은 역사의 굴곡을 말해 주는 문화유산이 있다.



## 02

---

42번 국도를 타고 가다 팔달문로터리에서 우회전하여 600m가량 직진하면 교동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교동사거리’의 ‘교동’은 전국 어느 시군에서나 한 번쯤 들어본 지명일 것이다. 이는 향교(鄕校)의 ‘교(校)’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바로 ‘향교가 소재한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전통시대에 향교가 있는 마을은 모두 교동이라 불렀다. 이 교동이라는 지명을 통해 향교란 바로 조선시대 고을마다 하나씩 설치되었던 지방학교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교동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400m를 직진하다 팔달산로 방향으로 다시 우회전하여 250m쯤 가면 팔달산 아래, 바로 수원향교가 위치해 있다. 수원시 팔달구 교동 43번지, 이곳은 수원향교가 건립된 이래 세 번째로 자리 잡은 곳이다.

수원향교가 처음 건립된 것은 1291년(충렬왕 17)으로 전해진다. 조선 초기에 건립된 대부분의 향교와 달리 100여 년이나 앞서 건립된 것은 고려 말기 수원 지역의 행정적 성격 때문이었다. 당시 수주사(水州使)였던 수원 지역은 1271년(원종 12)에 몽골군의 침략을 토벌한 공으로 수주도호부로 승격되었다.<sup>1</sup> 그런데 도호부는 계수관(界首官)에 해당하는 고을이었다. 계수관이란 도제(道制)가 확립되기 이전에 상급 지방행정기구의 구실을 하던 것으로, 경(京)·목(牧)·도호부(都護府)를 계수관으로 정하여 주위의 주현(州縣)을 통할하게 하던 제도이다. 계수관에는 반드시 향교를 두어 당시 과거시험의 첫 관문인 계수관시(界首官試)를 향교에서 치르도록 하였으므로,<sup>2</sup> 수주도호부 역시 계수관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향교를 건립했던 것이다. 이때의 수원향교는 읍치의 서쪽 3리에 지어졌다.<sup>3</sup> 현재의 건물이 위치한 곳이다. 처음의 건물 터는 지대가 낮고 웅색하다는 이유로 천룡하자는 여론이 있었는데, 1821년 정조의 왕비인 효의왕후가 서거하자 다시 천룡론이 제기되면서 결국 수원향교의 옛 터로 이전하여 효의왕후와 합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산맥의 형세가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수풀 사이에 아름다운 기운이 가득 차 지극히 좋고 흠이 없는 최상의 길지”로 손꼽히던 곳이다.

수원향교가 두 번째로 자리를 옮긴 것은 1661년(현종 2)이다.<sup>5</sup> 읍지에 따르면, “옛날에는 부(府)의 서쪽 3리에 있었으나 현종 2년에 부의 남쪽 2리 독울산(禿岫山)으로 이군하였다.”<sup>6</sup>고 한다. 독울산이라는 지명은 다른 문헌이나 고지도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해동지도』, 『광여도』, 『여지도』, 지승(地乘)의 「수원부지도」에 보이는 수원향교는 도고산(道高山) 아래에 위치해 있다. ‘독울산’과 ‘도고산’은 발음이 유사하므로, 아마 서로 음차하면서 한문 표기가 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즉 독울산과 도고산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 향교 자리는 현재 옮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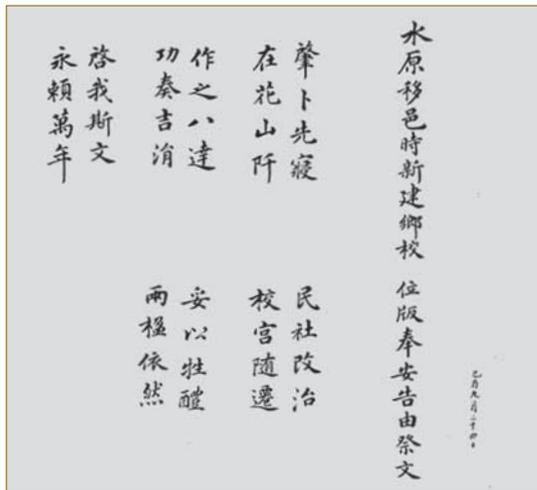
구읍치 시절 도고산 아래 위치한 수원향교(『광여도』, 『수원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릉 관리사무소에서 주말농장 방향으로 가다가 왼쪽에 위치한 야산 일대이다.<sup>7</sup>

수원향교가 세 번째 등지를 튼 곳은 바로 지금의 자리인 팔달구 교동 43번지이다. 1789년(정조 13) 정조가 양주 배봉산에 있던 사도세자의 원침을 당시 읍치가 자리하고 있던 수원 화산으로 이장하면서, 구읍치와 함께 수원향교도 팔달산 남쪽 기슭으로 옮겨 가게 된 것이다. 향교와 더불어 읍치 전체를 옮기는 것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국왕인 정조 자신에게도 매우 지난한 작업이었다. 수원향교 이진 과정에서 터를 정하는 첫 단계부터 백성들과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었다. 향교를 이진하기로 정한 자리에서 채 10발자국도 되지 않는 경계에 이운행(李運行)이라는 사람의 선산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운행은 100여 년간 모셔 오던 선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1789년 8월 5일, 이를 보고받은 정조는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일을 진행시키지 않고 “만일 합당한 곳이 있다면 다시 향교의 다른 터를 물색하라.”고 명함으로써 먼저 백성의 편에 서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뒤에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자 정조는 어쩔 수

없이 경기감사를 시켜 선산의 이장(移葬) 비용 300냥을 지급하고 이운행에게 관직에 등용하는 특혜를 줌으로써 이 문제를 일단락짓고 향교 이진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sup>8</sup>

그리하여 1789년 9월 13일 향교 이진공사 일부가 무사히 완료되고,<sup>9</sup> 9월 24일에 정조는 친히 제문을 지어 향교 대성전에 고



1789년 9월 24일 정조가 지은 「수원이읍시신건향교위판봉안고유제문(水原移邑時新建鄉校位版奉安告由祭文)」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유제를 지냈다.<sup>10</sup>

같은 해 9월 26일 정조는 행궁·객사·향교의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내렸다. 당시 향교 이건 공사에 참여하여 포상을 받은 사람은 수원에 거주하는 향교감동(鄕校監董) 신섬(申漣)과 향교간역(鄕校看役) 이종범(李宗範)으로, 신섬에게는 공석을 기다렸다 수원 변지(邊地)의 관직을 내리게 하고 이종범에게는 가자(加資)하였다.<sup>11</sup> 당시 건립된 수원향교의 규모는 51칸<sup>12</sup>이었으며, 명륜당은 다음 해인 1790년에 10칸 규모로 지어졌다.<sup>13</sup> 명륜당 공사가 끝난 이해 5월에 정조는 명륜당간역색리(明倫堂看役色吏) 서광겸(徐光謙)에게도 상전을 내렸다.<sup>14</sup> 이때 건립된 수원향교는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신섬처 조성 후 팔달산 아래 위치한 수원향교(「수원부지도」, 수원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수원향교의 임원조직은 도유사(都宥司)-유사(宥司)-장의(掌議)-색장(色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유사란 향교의 수장으로서 지금의 전교와 같은 것으로, 향교 내부에서 1명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다. 유사와 장의는 향교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으로 유사 1명, 장의 2명을 수령이 직접 임명하였으며, 색장 1명은 향교에서 선출하였다.<sup>15</sup>

그렇다면 임원이 되는 자격은 무엇이었을까? 순암 안정복에 따르면, “도유사 1인은 나이와 덕망이 뛰어나고 재주와 도량을 겸비한 사람, 장의는 생원과 진사 중 1인, 유학(幼學) 1인으로 하되 이름 있는 문벌 가운데서 인망(人望) 있는 사람, 색장 2인은 유학 가운데 나이가 적고 지체와 인망을 겸비한 사람”<sup>16</sup>으로 향교 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도유사 체제로 구성되었던 향교의 직제는 1907년(융희 2) 향교직원(鄕校直員) 체제로, 1911년 문묘직원(文廟直員)으로 바뀌었다가 1948년 대한향교제도 개혁에 의한 성균관 직제 변화에 따라 향교전교(鄕校典校)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수원향교에는 임원 명단을 기록한 선생안(先生案)이나 도유사안(都宥司案)과 같은 고문서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조선시대 수원향교의 실질적인 주도 세력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매일신보』와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에서 1910년과 1938년의 임원 일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1910년에 수원향교 직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윤태익(尹泰翊),<sup>17</sup> 1938년의 장의는 김헌주(金憲周)·이창복(李昶馥)·홍종후(洪宗厚)·박용기(朴容基)·정리섭(鄭理燮)·조재승(趙載承)·한성교(韓聲教)·김종철(金鍾喆)·김안수(金顔洙)·이근화(李根華)이다.<sup>18</sup>

## 가

향교 입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마비(下馬碑)와 홍살문을 만나게 된다. 하마비는 조선시대 종묘·궐문·향교 등의 입구에 세워 놓은 비석으로,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 예를 표하도록 하였다. 이는 중국의 고제(古制)를 따른 것으로, 1412년(태종 12) 11월 5일 예조에서 건의하여 다음 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sup>19</sup> 이를 어길 경우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 그 예로 1676년(숙종 2)에 강원도 양양향교(襄陽鄉校)에서 향교 앞을 지나면서 하마하지 않은 삼척영장(三陟營將) 류시성(柳時成)의 삭탈관직을 청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sup>20</sup> 임금도 예외가 아니었다. 1795년 알성례(謁聖禮)를 행하기 위해 수원향교에 도착한 정조도 하마비 앞에 이르자 어김없이 말에서 내린 뒤 수레에 올라 향교로 들어갔다.<sup>21</sup>

하마비와 홍살문을 지나 첫 번째로 마주치는 문이 외삼문(外三門)이다. 외삼문 안에 들어서면 비로소 향교의 공간이 펼쳐진다. 향교는 크게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의 두 영역으로 분리되는데, 외삼문으로부터 동재(東齋)·서재(西齋)와 명륜당(明倫堂)이 자리한 공간이 강학공간, 명륜당 뒤의 내삼문과 이를 둘러싼 담을 경계로 그 위쪽 동무(東廡)·서무(西廡)와 대성전(大成殿)이 자리한 곳이 제향공간이다. 동재와 서재는 향교 유생들이 머무는 기숙사이고 명륜당은 강학을 수행하는 강당이며, 동무·서무와 대성전은 공자 이하 중국



\_수원향교 하마비



과 조선 성현의 위패를 모시고 석전제를 행하는 공간이다.

외삼문 안으로 들어서면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명륜당, 우측에 보이는 건물이 동재, 좌측에 보이는 건물이 서재이다. 이 강학공간에서 수원 지역 유생들과 교수가 함께 모여 강학을 수행했을 것이나, 그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8세기의 강학활동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18세기 초반 명륜당 중건 당시 채중(齋中)의 유생이 6명이었으며, 18세기 말 정조가 수원향교를 방문했을 때의 강학유생은 20명이었다. 18세기 수원향교 유생들의 강학활동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언급하겠다. 현재 명륜당 내부에는 1949년의 대성전 중수기와 1958년, 1985년, 1990년의 중수 사실을 기록한 4개의 현판 및 중수 시 기부자 명단을 새긴 현판 1개가 걸려 있다.

명륜당을 지나 내삼문으로 들어가면 두 개의 단 위에 엄숙하게 서 있는 건물이

\_수원향교 명륜당과 동재·서재



대성전이다. 대성전은 다른 말로 문묘(文廟)라고도 한다. ‘문(文)’은 공자의 시호(諡號)인 ‘문선(文宣)’을 가리키며 ‘묘(廟)’는 사당 ‘묘’자이므로, 문묘란 바로 ‘공자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라는 뜻이다. 공자는 당나라 개원(開元) 27년(739)에 왕으로 봉해지고 ‘문선’이라는 시호를 받으면서,<sup>22</sup> 이때부터 공자의 사당을 ‘문선왕묘(文宣王廟)’라 불렀는데, 원(元)·명(明) 이후 ‘문선왕묘’를 생략하여 ‘문묘’라 부르게 된 것이다.<sup>23</sup> 공자는 그 후로도 두 개의 시호를 더 받았다. 송나라 때 받은 ‘지성(至成)’과 원나라 때 받은 ‘대성(大成)’이 그것이다.<sup>24</sup> 현재 수원향교 대성전의 공자 위패에 기록된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成文宣王)’은 이 세 개의 시호를 합한 것이다.

그런데 대성전에는 공자의 위패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모든 향교가 총 25위의 위패를 대성전 내에 한꺼번에 모시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각 고을의 읍격(邑格)에 따



「명륜당」 편역  
수원향교 대성전의 공자 위패

라 대성전과 동무·서무에 모시는 위패의 수 및 대성전의 규모에 차이가 있었다. 수원향교와 화성시에 있는 남양향교 대성전의 칸수가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정면에서 바라볼 때 수원향교는 5칸, 남양향교는 3칸이다.

즉, 조선시대에는 성군관(개성부)과 각 도 계수관의 문묘에는 대성전 5칸에 동무·서무를 두었고, 주군(州郡)의 문묘에는 대성전 3칸에 동무·서무를 두었으며, 현(縣)에는 대성전만 두고 동무·서무는 두지 않았다.<sup>25</su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은 계수관에 해당하는 고을이었으므로 남양향교와 달리 대성전을 5칸으로 지은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 수원향교 대성전에는 공자, 안자, 맹자, 증자, 자사의 5성(聖)과 공자의 제자 10철(哲)만 모시고, 나머지 송조 6현을 포함한 중국 및 조선의 유현은 동무·서무에 모시도록 되어 있었다. 『대전속록』에 규정된 고을 규모에 따른 향사위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표 1〉 고을의 규모에 따른 문묘 향사위와 건물의 규모<sup>26</sup>

읍격	개성부 및 제도계수관(諸道界首官)	주·부·군	현
대성전 규모	5칸	3칸	3칸
대성전 향사위	5성위 공문 10철	5성위 공문 10철	5성위 송조 4위 동국 18위
동·서무 향사위	중국 유현 105위 <sup>27</sup> (송조 6위 포함) 동국 18위	송조 4위(주렴계·정호·정이·주희) 동국 18위	동·서무 없음.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동무·서무에 있던 송조 6현을 대성전으로 승배하고, 1949년에는 전국유림대회 결정에 따라 대성전의 5성위와 송조 2현(주희, 정호)만 남기고 그 외 송조 4현을 포함한 중국 유현과 공문(公門) 10철의 위패는 매안하였으며, 동무·서무에 있던 동국 18위를 대성전의 종향위로 승중하여 오늘에 이르



\_左 정면 5칸의 수원향교 대성전  
\_右 정면 3칸의 남양향교 대성전(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_수원향교 동무  
\_수원향교 서무

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원향교 동무·서무에는 위패가 없으며 부속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춘계 석전제는 공자 기일인 음력 4월 11일, 추계 석전제는 공자 탄강일인 양력 9월 28일(음력 8월 27일)에 봉행하고 있으며,

수원향교 석전제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수원향교 대성전의 향사위는 다음과 같다.



\_수원향교 대성전 내 서종향위  
\_수원향교 대성전 향사위

명륜당은 신읍치로 이건하기 전, 18세기 초반에 수령들이 기금을 회사하여 대대적인 중건공사를 시행한 적이 있다. 당시의 정황이 이경원(李慶遠)<sup>28</sup>의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sup>29</sup>에 상세히 전한다. 이때 자신의 돈을 회사해 가며 명륜당 중건에 공을 세운 수원부사는 김려(金礪)와 조정만(趙正萬) 두 사람이었다.<sup>30</sup> 향교 건물의 유지와 관리는 교육과 더불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수령 7사<sup>31</sup>의 하나로, 지방관의 중요한 책무였기 때문이다.

중수기에 따르면, 1660년에 부의 서쪽에서 도고산 아래로 향교를 이건하였을 때 명륜당의 기초공사가 견고하지 못하여 점차 축대가 무너지고 지붕과 기둥이 허물어졌다고 한다. 그러다가 1725년(영조 1) 수원부사로 부임한 김려가 자신의 녹봉과 쌀 10말을 회사하여 공사비를 마련하였으나 곧 체직되는 바람에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 뒤 후임 부사 조정만이 유대재(兪大哉) 등 향교 유생들과 뜻을 모으고 돈 수백 꾸러미와 쌀 10여 섬을 마련하여 병오년(1726, 영조 2)<sup>32</sup> 9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 해 4월에 낙성식과 향음주례를 행하였다. 이날 향음주례에서는 부사 조정만이 주인이 되고 동중추부사 신정(申愷)을 빈(賓)으로, 장헌(掌憲) 최도문(崔道文)과 침랑(寢郎) 윤관주(尹觀周)를 개선(介僕)<sup>33</sup>으로 삼아 예를 행하였다. 이때 증건된 명륜당의 규모는 알 수 없으나, 1790년 신읍치에 건립된 명륜당의 규모는 10칸<sup>34</sup>이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신읍치로 옮긴 뒤 대성전과 동무·서무도 한 차례 증건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때의 증건은 수원부사가 아니라 정조가 시행한 것이었다. 1795년 2월 11일, 현릉원 원행을 마치고 알성례를 행하기 위해 수원향교 대성전을 찾은 정조는 “용마루

와 처마가 불뿔없이 허술하고, 단청이 지지분하게 바랬으며, 위패를 모신 의자와 상탁, 향로와 향합 등속이 모두 모양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지금 당장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대성전과 동무·서무를 증건하게 하였다.<sup>35</sup> 그리하여 1795년 5월 6일 공사를 시작하여 대성전을 옮길 터를 닦고, 5월 29일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워 상량하였으며, 3개월 만인 8월 6일 대성전과 동무·서무의 모든 공사를 마치고, 8월 9일 새로 지은 문묘에 위패를 이안(移安)하였다. 이때 목수는 서울에서 온 정복룡(丁福龍)이, 미장이는 수원부에 거주하는 김상득(金尙得)이 담당하였다.<sup>36</sup> 이후 100여 년 만인 1892년(고종 29) 3월 30일, 수원유수(水原留守) 민영상(閔泳商)은 대성전과 동무·서무에 물이 새자 또 한 차례 중수하였다.<sup>37</sup>

이후의 중수 사실은 현재 명륜당 안에 걸려 있는 현판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 기록에 의하면 1949년 대성전, 1958년 대성전·명륜당, 1985년 대성전·동서무·내삼문·외삼문을 중수하고, 1990년에는 화재로 소실된 서재를 복원하였다.

## 18

조선시대 수원향교 유생들은 어떻게 공부하였을까? 안타깝게도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교수(教授)나 훈장의 파견과 18세기 강화학동의 대강을 살필 수 있는 단편적인 기록이 있을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18세기 수원향교 유생들의 강화학동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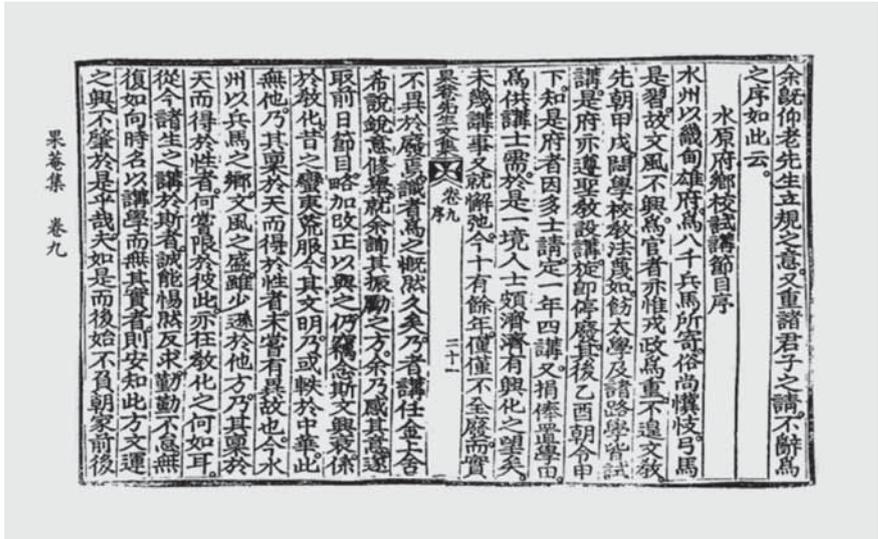
우선 읍지에 따르면, 수원향교의 교수는 조선 전기에 1명을 파견하다가,<sup>38</sup> 정조가 신읍치를 조성하고 수원을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킨 뒤 1798년에 훈장을 1명에

서 2명으로 증액하여 남당과 북당으로 분설하여 교육하도록 하였다.<sup>39</sup> 이들 훈장은 중앙에서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유수영에서 차출하였으며 급료도 지급하였다고 한다.<sup>40</sup>

1727년에 이경원이 쓴 「명륜당중수기」<sup>41</sup>에서는 당시 향교교육의 폐쇄상 및 동재, 서재에 머물던 유생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중수기에 따르면, 당시의 향교는 중앙에서 파견하는 교수제도가 철폐되고 수령이 교수의 책무를 겸하면서 문서행정과 소송 등의 업무에만 주력하여 교육과 예속은 시행되지 않으니 향교가 다투고 싸우는 장소가 되어 개탄스럽다고 하면서, 그 같은 상황에서 명륜당을 증건하여 교육을 급선무로 삼은 수원부사 조정만의 행정을 칭찬하고 있다. 또한 명륜당 증건에 뜻을 모은 당시 재중 유생으로 유대재, 윤재(尹再), 정대기(鄭大器), 이중찬(李仲燦), 민사익(閔士益), 윤대중(尹大伸)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즉 18세기 초반 수원향교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재중의 유생도 6명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쇠퇴했던 수원향교의 교육은 18세기 중반부터 여러 차례 부활하여 다시 활기를 띠게 된다. 이는 1727년에 이루어진 명륜당의 증건도 한몫하였을 것이고, 영조의 지방교육진흥책과 지역사회의 교육을 살리고자 했던 수원 유생들의 의지가 조우한 결과였다. 당시 수원향교의 교육 상황은 송덕상(宋德相 : 1710~1783)의 「수원부향교시강절목서(水原府鄉校試講節目序)」<sup>42</sup>라는 글을 통해 대강 살필 수 있다. 이 글에 따르면 18세기 초까지 폐지되었던 수원향교의 강학은 1754년(영조 30), 1765년(영조 41), 1780년 무렵 세 차례에 걸쳐 부활되었다.

1754년 관학교육의 부진으로 학교의 교법이 무너질까 근심하던 영조는 성균관과 전국 향교에 신칙하여 시강(試講)하게 함으로써 관학 진흥책을 펼치고자 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당시 수원향교에서도 강학을 설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의 강학은 얼마 못 가 폐지되었던 것 같다. 그 후 1765년에 역시 조정의 지방교육진흥책에 힘입은 수원 지역의 많은 선비들이 뜻을 모아 다시 강학을 재개하였다.



1년에 4차례씩 정기적으로 강학을 열기로 하고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전(學田)도 마련하여 강학유생들을 공궤하였다. 그러나 이때 재개된 강학도 몇 년이 지난 뒤에 흐지부지되어 거의 폐지되다시피 하였다.

그 후 10여 년 만에 당시 수원향교의 강임(講任)직을 맡고 있던 유생 김희설(金希說)이 어떻게 하면 향교교육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가를 강구하던 차에 송덕상을 찾아와 향교교육 진흥책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다. 송덕상은 우암 송시열의 현손으로, 당시 수원향교·매곡서원·만의사(萬儀寺) 등에서 수원 지역 유생들과 함께 강학을 주도했던 인물이다.<sup>43</sup> 송시열이 17세기 수원 만의사에 머물며 강학한 이래 이 집안 후손들은 이 지역에 별서를 두고 서울을 오가며 수원 지역사회에 꾸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다. 송덕상은 흥국영과 함께 모반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1781년(정조 5) 함경도 삼수부(三水府)로 유배되었으니,<sup>44</sup> 수원향교의 강학 절목을 작성한 해는 유배 가기 전인 1780년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18세기 수원향교의 강학활동을 보여 주는 송덕상의 「수원부향교시강절목서」

희설의 부탁을 받은 송덕상은 예전에 있던 절목을 수원향교의 형편에 맞게 보완하여 「수원부향교시강절목(水原府鄉校試講節目)」을 만들어 그에게 주었다. 그러나 이때 작성한 절목은 현재 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인 1791년(정조 15) 1월, 정조는 현릉원 원행을 마치고 행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원향교를 방문하였는데, 이날 『일성록』 기사<sup>45</sup>를 통해 당시 수원향교 강학유생들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정조가 향교에서 강학하고 있는 유생에 대해 묻자, 강학유생의 수는 총 20여 명이며 모두 응제를 위해 읍내에 나갔다고 하였다. 이때 유생들이 응제시에 응시했다는 것을 보면 당시 수원향교에서는 응제시에 대비한 강학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강학의 형태는 거접(居接)이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거접이란 향교나 서원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유숙하며 과거시험에 대비한 제술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조는 신읍치 조성 후 모민(募民)정책의 일환으로 1790년부터 매달 응제시를 설행하였으므로, 수원향교에서도 응제시에 대비한 제술교육이 어느 때보다 활발히 시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세기 초 명륜당 중건 당시 6명밖에 되지 않던 유생의 수가 이해에 20여 명으로 증가한 것도 볼 수 있다. 이는 18세기 이래 향교교육을 부활시키고자 했던 유생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신읍치 조성 후 응제시의 설행 등 정조의 수원 지역 인재 육성책에 힘입은 결과였다.

을묘년(1795)은 정조에게 매우 특별한 해였다.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가 회갑을 맞은 해이자 정조가 왕위에 오른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으며, 정조가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화성 성곽이 대략 완성된 해이기도 하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조는 이해 화성에 행차하여 현릉원에 참배하고 수원향교에 들러 알성례를 행하였으며, 화성행궁에서 별시 과거를 설행하고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대대적으로 베풀었다.

이해 정조의 방문으로 수원향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입게 된다. 첫째, 정조는 그날 별시 과거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수원향교 유생들에게 특별히 응시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고, 둘째, 수원향교를 방문한 기념으로 노비와 전결·서책을 하사하였으며, 셋째, 알성례를 행하면서 부실한 건물 상태를 친히 목격한 정조는 대성전과 동무·서무를 즉시 중건하도록 하였다.

1795년 윤2월 11일 현릉원 참배를 마치고 수원향교에서 알성례를 행한 정조는 향교 유생 중 당일 있을 별시 과거에 응시할 사람이 누구이며, 수원부의 호적에 입적되었으나 식년(武年) 기한에 미치지 못한 자가 있는지, 그리고 멀리 다른 고을 유생으로서 이날 반열에 참여한 자가 있는지를 물었다.<sup>46</sup> 여기서 식년 기한이란 당일 치러진 별시의 응시자격을 말한다. 이때 설행된 별시 과거는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한 경과(慶科)로, 수원부와 인근 고을에 거주하는 유생들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졌다. 그런데 수원부에 거주하는 유생이라고 해서 아무나 응시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거주 기간이 2식년(원칙은 3식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었다.<sup>47</sup> 즉, 정조는 알성례에 참석한 수원향교 유생 중 수원으로 이주한 뒤 거주 기간이 2식년을 채우지 못해 그날 별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유생이 있는지를 묻은 것이다.

이날 알성례에 참석한 유생은 총 36명으로 그중 2명은 용인, 나머지는 모두 수원 사람이었다. 그런데 수원에 거주하는 34명의 유생들도 모두 거주 기간이 3식년을 채우지 못해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sup>48</sup> 이에 정조는 출신지나 유적(有籍)과 무적(無籍)을 막론하고, 이날 알성례에 참석한 수원향교 유생 전부를 특별히 ‘성묘집사유생(聖廟執事儒生)’의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게 해 주었다.<sup>49</sup> 성묘집



「알성도(諷聖圖)」에 그려진 수원향교(『원행정리의계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방방도(放榜圖)」에 그려진 별시 합격자(『원행정리의례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알성례에 참석한 수원향교 유생 전부를 특별히 '성묘집사유생'의 자격으로 별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별시에서는 문과에서 최지성(崔之聖) 등 5명을 취하고 무과에서 김관(金寬) 등 56명을 취하여 미시(未時) 정삼각(正三刻)에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사유생이란 이날 ‘알성례에 집사로 참여한 유생’을 말한다. 별시 과거는 보통 식년시 과거와 달리 초시-복시-전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합격자를 뽑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유생들에게 매우 특별한 기회였다. 따라서 이때 정조가 내린 조치는 응시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던 수원향교 유생들에게도 굉장한 특혜였을 것이다. 이날 별시에서는 문과에서 최지성(崔之聖) 등 5명을 취하고 무과에서 김관(金寬) 등 56명을 취하여 미시(未時) 정삼각(正三刻)에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sup>50</sup> 3일 뒤 모든 문무과 합격자들에게 수원향교의 문묘에 가서 고유제를 행하도록 하였다.<sup>51</sup>

또한 정조는 국왕이 향교에 알성례를 행할 때 경전과 노비, 전결을 하사하던 전례에 따라 수원향교에도 이를 하사하였다. 윤2월 11일 규장각에 명하여 새로 인쇄한 사서·삼경에 옥새를 찍어 수원향교에 보내도록 하고,<sup>52</sup> 이틀 뒤 호조와 수원유수에게 분부하여 수원부 내에 있는 무토면세(無土免稅)<sup>53</sup> 5결을 지급하도록 하였다.<sup>54</sup> 그리고 5월부터 대성전과 동무·서무의 중건공사를 시작하게 하여 3개월 만에 새 건물을 모두 완성하였다. 이처럼 1795년 정조의 방문으로 대성전과 동무·서무를 새로 짓고 토지와 서책까지 하사받음으로써, 수원향교는 신읍치로 이진한 지 6년 만에 다시 한 번 새롭게 정비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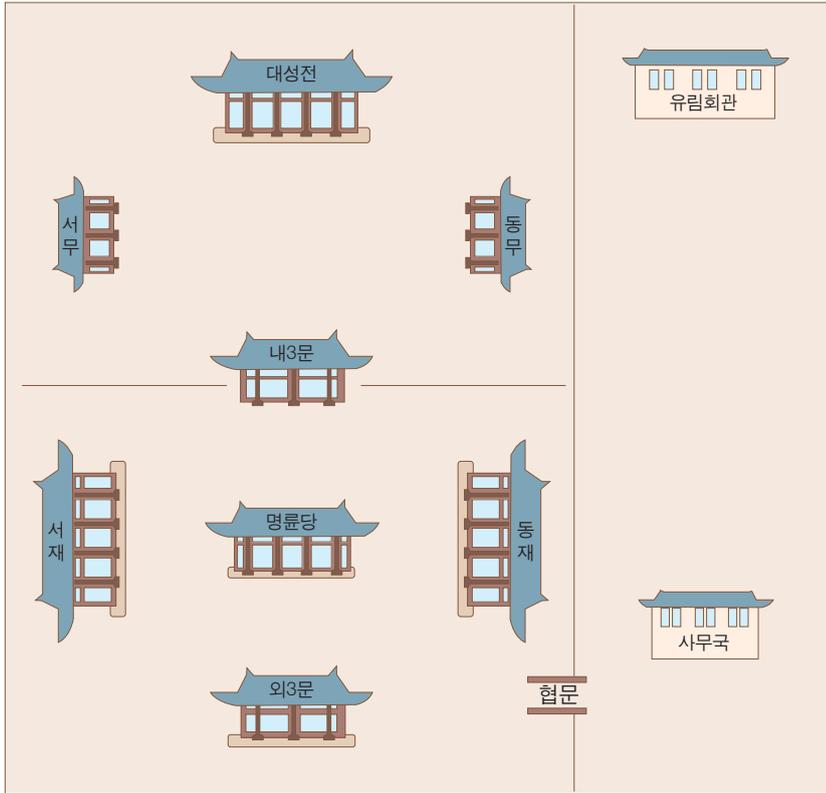
수원향교는 현재 석전제·분향례·기로연 등 조선시대 향교 의례를 계승하는 한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명륜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지역사회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 춘계 석전제는



공자 기일인 음력 4월 11일, 추계 석전제는 양력 9월 28일에 지낸다. 예전에는 추계 석전제를 공자 탄강일인 음력 8월 27일에 지냈으나, 2007년 양력 문화를 수용하여 석전 봉행일을 바꾼 성균관 제도를 따라 양력 9월 28일로 바꾼 것이다. 수원향교 석전제는 현재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 있다. 분향례는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며,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그 밖의 의례로는 기로연과 성년식이 있으며, 1993년 유림회관을 건립한 후에는 회관 안에 전통예식장을 마련하여 전통혼례도 치르고 있다.

명륜대학은 “성현들의 학문과 인격을 배움으로써 올바른 생활관을 정립하고 유도정신(儒道精神)을 회복하여 정의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자.”는 취지에 1990년 1월에 개설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매년 2월에 선착순

일제시기 수원향교



으로 접수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강좌를 개설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교육과정은 크게 유림과와 명륜대학 부설 클래스가 있다. 유림과는 남녀 총 80명 정원으로, 매주 논어·대학·중용·한국사·유학·제례·사회윤리·생활예절 등을 가르친다. 명륜대학 부설 클래스로는 한문(70명), 서예(40명), 한글(40명), 한시(20명), 다도(20명), 컴퓨터반(15명)을 운영하고 있다.

\_수원향교 배치도

수원향교는 1983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인근 유적과 함께 향교를 방문하고 싶다면, 정조가 수원향교에 와 알성례를 행하던 을묘년의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먼저 현릉원(건릉)에 참배하고 향교에 들러 알성례를 행한 뒤 화성행궁에서 별시를 설행하고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베풀었던 을묘년 윤2월 11일의 여정을 그대로 추적해 보는 것이다. 건릉에서 수원향교까지는 약 11km로 자동차로 30분쯤 소요되며, 수원향교에서 화성행궁까지는 1.5km로 도보로도 가능하다. 수원향교의 하마비 앞에 이르면 말에서 내려 가마로 갈아타는 정조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외삼문을 지나 명륜당에 이르면 녹봉을 회사하여 명륜당을 중건했던 수원부사 김려와 조정만의 리더십을 헤아려 보며, 대성전 뜰 앞에서는 「알성도」에 묘사된 성대한 행렬과 정조에게 특혜를 받고 기뻐하는 수원향교 성묘집사유생들의 미소를 한 번 떠올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어준일\_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 (佛心)\_

## (講院),

수원시 팔달구 광교산(光敎山) 남쪽 자락에 위치한 봉녕사(奉寧寺)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龍珠寺)의 말사(末寺)로 서울 삼선승가대, 공주 동학사, 청도 운문사, 김천 청암사와 함께 학승(學僧)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비구니 5대 강원(講院)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sup>1</sup>

광교산 봉녕사는 고려 중기에 해당하는 1208년(희종 4) 원각국사(圓覺國師)가 '성창사(聖彰寺)'라는 사명(寺名)으로 창건(創建)하였다. 그 후 조선 전기인 1400년경에는 '봉덕사(奉德寺)'로 개사(開寺)되었으며, 1469년(예종 원년)에 이르러 세조 대 왕사(王師)를 역임한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대사(信眉大師)가 '봉녕사'라는 이름을 짓고 크게 중수(重修)하였다.<sup>2</sup>

조선 후기 봉녕사의 사적(寺蹟)은 현전하는 문헌자료의 부족으로 당시 사찰과



\_수원 봉녕사 경내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 그렇지만 1872년 작성된 「수원부지도(水原府地圖)」와 사찰에 봉안되어 있는 여러 불화(佛畵)를 통해 봉녕사의 법등(法燈)이 19세기 중·후반까지 계속 밝혀졌으며, 나아가 1878년과 1891년에는 불화를 조성하는 대대적인 불사(佛事)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봉녕사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 후기 불화는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칠성도(七星圖)」, 「현왕도(現王圖)」, 「신중도(神衆圖)」로 총 4점이다. 이 불화들은 화면 하단에 기록된 화기(畵記)를 통해 1878년(고종 15)과 1891년(고종 28) 두 차례에 걸쳐 조성하여 봉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sup> 여기에서는 봉녕사에 봉안되어 있는 조선 후기 불화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작품 특징과 화풍, 제작에 참여한 불화승 그리고 불사에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1872년 「수원부지도」에 나타난 봉녕사(수원박물관 소장)

〈표 1〉 봉녕사에 소장된 조선 후기 불화목록

작품명	조성연대	재질	시주자	불화승
「영산회상도 (靈山會上圖)」	1878	면	박신규(朴信圭)와 그의 처 나씨(羅氏), 망자(亡子) 홍석(洪錫), 손자 주영(周泳) 외 7명	천기(天基), 약효(若效), 영문(永云), 완선(完先), 능호(能昊)
「칠성도(七星圖)」	1878	면	박신규, 그의 처 나씨, 손자 주영 외 10명	천기, 약효, 영운, 완선, 능호
「현왕도(現王圖)」	1878	면	박신규, 처 나씨, 망자 박홍석, 손자 박주영	완선
「신중도(神衆圖)」	1891	면	박신규, 처 나씨	현조(現照), 돈조(頓照)

## 「 봉녕사 영산회상도 」 가

「봉녕사 영산회상도」는 고종 즉위 15년인 1878년에 조성된 작품으로 세로 124.2cm, 가로 196.5cm 크기의 중형 불화이다. 불화의 내용은 석가모니가 마가타국(摩訶陀國) 왕사성(王舍城) 근처에 있는 영축산(靈鷲山)에 제자들을 불러 모은 후 『법화경(法華經)』을 설법하였던 장면을 도상화(圖像化)한 것이다.

화기에 따르면 이 불화는 무인년(戊寅年) 10월 10일 조성을 시작하여 열흘 후인 10월 20일 점안식(點眼式)을 행하고 봉녕사에 봉안되었으므로 제작까지 약 10일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화기에는 “주상전하임자생이씨수만세 왕비 전하신해생민씨수제년 세자저하갑술생이씨수천추(主上殿下壬子生李氏壽萬歲 王妃殿下辛亥生閔氏壽濟年 世子邸下甲戌生李氏壽千秋)”라 하여 왕실(王室)을 축원(祝願)하는 문구(文句)를 적어 놓았다. 이는 “숭정기원후오무인시월십일(崇禎紀元



後五戊寅十月十日”과 함께 「영산회상도」의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sup>5</sup>

이와 함께 재화(財貨)를 기부하는 시주(施主) 행위를 통해 조성 불사에 동참한 후원자는 “대시주(大施主) 박신규(朴信圭)와 처(妻) 나씨(羅氏), 죽은 아들(亡子) 박홍석(朴洪錫), 손자(孫子) 박주영(朴周泳)” 등 박신규 일가 4명이 주축이 되어 총 11명이 시주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관직명(官職名)과 같은 특별한 인적사항 없이 생년과 성명만 기록된 것으로 보아 박신규 외 10명의 시주자들은 수원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였던 일반 백성으로 파악된다.

나아가 연화질(緣化秩) 항목에 증명(證明), 송주(誦呪), 지전(持殿), 병법(乘法), 공사(供司), 조반(造餅), 공기(工哭), 정통(淨桶), 종두(鍾頭), 도감(都監), 별좌(別

「수원 봉녕사 영산회상도」(1878년, 면본채색, 124.2×196.5cm)





일체불정륜왕(攝一切佛頂輪王), 금륜보계치성광여래불(金輪寶界熾盛光如來佛), 광취불정(光聚佛頂)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또한 자연재해 및 전란(戰亂)과 같은 재앙을 소멸하여 길상(吉祥)을 얻게 하고 무병장수(無病長壽)와 자손창성(子孫昌盛)의 복(福)을 가져오는 부처로 여겨져 오랜 시간에 걸쳐 널리 신앙되어 왔다.<sup>10</sup>

1878년 「영산회상도」와 함께 조성된 「봉녕사 칠성도」는 조선 후기 칠성도의 변화 양상을 관찰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sup>11</sup> 「봉녕사 칠성도」는 주존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해와 달을 보살화한 일광편조소재보살(日光遍照消災菩薩),

<sup>10</sup> 「수원 봉녕사 칠성도」(1878년, 면본채색, 117.8×143.3cm)

월광편조식재보살(月光遍照息災菩薩)을 중앙에 배치하고, 운의통증여래(雲義通證如來), 광음자재여래(光音自在如來), 최승길상여래(最勝吉祥如來), 광달지변여래(光達地邊如來), 법해유희여래(法海遊戲如來), 약사유리광여래(藥師琉璃光如來) 등 북두칠성을 여래화한 칠성과 신선의 모습을 취한 삼태육성(三台六星) 및 보필성(輔弼星) 그리고 동자 모습을 취한 동두칠성(東斗七星)을 화면 가득히 채워 넣었다.<sup>12</sup>

이와 같은 화면 구성과 등장인물들의 배치는 이 시기 칠성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봉녕사 칠성도」가 다른 작품과 달리 주목되는 점은 원근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봉녕사 칠성도」에서 사용된 원근법은 음영법과 함께 서양 화법(畫法)을 대표하는 제작기법으로, 존격(尊格)과 비례하여 인물들의 크기가 정형화된 전통방식의 조선 후기 불화와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다.<sup>13</sup> 이러한 원근법은 같은 해 조성된 「영산회상도」에 동일한 방식의 원근법이 사용된 점에 비추어 불화 제작을 담당하였던 수화사 천기가 주로 사용하였던 화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봉녕사 불화에서 사용된 천기의 원근법은 1878년 불사에서 서열 2위에 이름을 올린 약효가 제작한 「마곡사 심검당 신중도」(1924년)와 약효의 제자로 20세기 전반 활약한 정연이 그린 「비암사 극락보전 신중도」(1924년)를 통해 세대를 이어 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봉녕사 칠성도」에는 총 3곳의 공간을 마련하고 화기를 적어 놓았는데, 시주자·제작자 등 인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은 같은 해에 조성된 「영산회상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봉녕사 칠성도」에는 「봉녕사 영산회상도」에서 볼 수 없었던 “경성중부원동거주 동자정축생 김준석보체 수부강녕 지대원[京城中部園洞居住 童子丁丑生 金俊錫保體 壽富康寧 之大願]”이라는 기록이 관심을 끈다. 이에 근거하면 1878년의 불사는 ‘대시주 박신규’ 중심으로 일괄 성사되었지만, 「봉녕사 칠성도」에 별도의 화기란을 만들어 ‘동자 김준석’을 축원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시주자 가운데 ‘김준석’의 부모 혹은 친인척이 추가로 시주를 했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sup>14</sup> 이는 곧 19세기 후반 봉녕사 불사가 조선 후기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불화승들의 공동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원과 서울 등 여러 지역의 인물들이 후원자로 동참하였던 불사였다고 할 수 있다.

「  
」 —  
, —  
(現王齋)

조선 후기 천도재의 성행과 함께 그려진 「봉녕사 현왕도」는 지옥에 떨어진 망자(亡者)가 사후 3일째 되는 날 생전의 죄업을 심판받는 ‘현왕재(現王齋)’ 장면을 묘사한 불화로, 화면 중앙에 위치한 염라대왕을 중심으로 판관·녹사·사자·동자 등 명부계(冥府界) 인물들이 주변에 배치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장시왕도」의 염라대왕 심판 장면과 동일한 구성을 보이지만, 지장시왕도의 염라대왕 심판 장면에서는 생생한 지옥의 모습을 배경으로 망자를 체벌하는 장면이 묘사되는 것에 반해 「봉녕사 현왕도」에서는 망자의 형벌장면이 생략된다는 것이 두 불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봉녕사 현왕도」는 세로 120.5cm, 가로 95.8cm 크기의 불화로 1878년 수화사 완선이 조성한 작품이다.<sup>15</sup> 「봉녕사 현왕도」는 적색·녹색·청색 안료를 주조색으로 다량의 호분(胡粉)이 혼합되어 화면의 명도가 낮고 전반적으로 탁한 느낌을 주는 데, 이러한 색감(色感)은 사중에 소장되어 있는 나머지 불화들뿐만 아니라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 무렵에 제작된 조선 후기 불화들에서 확인되는 보편적인 특징이다.<sup>16</sup>



「수원 봉녕사 현왕도」(1878년, 비단채색, 120.5×95.8cm,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2호)

신중도는 불법(佛法)을 따르는 다양한 호법신신들의 모습을 도상화한 불화이다. 조선 후기 기복신앙(祈福信仰)의 급속한 확산과 수많은 불교행사는 신중신앙의 저변을 확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신중도를 조성·봉안하였다. 조선 후기 불화 가운데 신중도는 정형화된 형식에 따라 그려지는 다른 불화들과 달리 도상의 표현방식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으로, 다양한 모습과 역동적인 자세를 취한 여러 신중들을 한 폭의 화면 안에 그렸다. 이는 각각의 개별도상을 그렸던 고려시대 신중도와 구별되는 조선 후기 신중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현재 봉녕사 약사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봉녕사 신중도」는 1891년에 조성된 작품으로 세로 161.5cm, 가로 171cm의 중형 크기이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봉녕사 신중도」는 화면 중앙의 위태천을 중심으로 상단 좌측에 범천, 우측에 제석천이 묘사되었으며, 이로부터 점차 바깥쪽을 향해 일궁·월궁천자, 사갈라용왕·염마라왕, 천동·천녀 등 총 19위의 존상이 배치되어 있다. 불화에 사용된 색채는 1878년 제작된 불화들과 비교할 때 원형의 후광(後光)을 제외하고 녹색의 사용을 자제하였으며, 채도가 높은 코발트색 계열의 청색을 많이 사용한 특징을 보인다.

또한 재질면에서 19세기 후반 조성된 「봉녕사 신중도」는 ‘면(綿)’ 재질의 바탕천 위에 그려졌다. 이처럼 바탕천에 면을 사용한 이유는 첫째, 고가(高價)의 비용이 소모되는 ‘비단’과 달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둘째, 화면(畫面)을 구성할 경우 가로 폭이 좁아 여러 장의 천을 서로 연결해야 하는 비단에 비해 면을 사용할 경우 공정 회수, 공정 기간, 투입 인력, 소요 비용 등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재질 선택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8</sup>

한편, 1891년 「봉녕사 신중도」를 조성한 금어 의암(義庵) 현조(現照) 스님은 「서울 성북구 미타사 삼성각 칠성도」(1874년) 화기에 “금어 경선응석 용계서의 비구봉간 사미현조(金魚 慶船應釋 龍溪瑞翊 比丘奉侃 沙彌現照)”라는 내용을 통해 ‘경선당 응석’을 스승으로 불화 수업을 시작한 사미 현조와 동일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조 스님은 1879년 「서울 개운사 괘불」을 조성할 때까지 사미 신분으로 응석 스님의 지도(指導) 아래 불모로서 기술과 역량을 축적하였으며,

『수원 봉녕사 신중도』(1891년, 면본채색, 161.5×171cm,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2호)

1885년 「서울 봉국사 명부전 지장시왕도」의 제작 무렵에는 구족계(具足戒)를 받고 비구가 되었고, 이후 「수원 봉녕사 신중도」(1891년)와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 석가모니불도」(1892년)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전개하였다.<sup>19</sup>

그리고 현조 스님을 보필하여 불화를 조성한 돈조(頓照) 스님은 1869년 「남양주 흥국사 팔상도(비람강생상)」, 1873년 「서울 미타사 대웅전 신중도」, 1878년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지장시왕도」, 1879년 「서울 개운사 괘불」, 1888년 「안성 칠장사 지장시왕도」 조성에 참여한 만파당(萬波堂) 돈조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sup>20</sup>

광교산 봉녕사는 고려 중기 원각국사가 최초의 법등을 밝힌 이래 수원 지역의 포교 활동과 학승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지역사찰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사중에 남아 있는 불화들은 1878년과 1891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성된 작품들로, 조선 후기 봉녕사의 사적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19세기 후반 봉녕사의 사세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봉녕사에 소장된 조선 후기 불화의 화기에는 제작자, 시주자 등 당시 불사에 참여하였던 수많은 인물들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1878년 「봉녕사 영산회상도」와 「봉녕사 칠성도」를 제작한 수화사 영명당 천기와 1878년 「봉녕사 현왕도」를 만든 완선, 1891년 「봉녕사 신중도」를 조성한 의암당 현조 등은 19세기 후반 승려 화단을 이끌어 나갔던 대표적인 화사로 봉녕사 불사에 인연을 맺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878년 조성된 「봉녕사 영산회상도」와 「봉녕사 칠성도」의 화기에서 서열 2위 화사로 기록된 약효 스님은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발한 불사활동을 전개한 불모 금호당 약효와 동일인물로 봉녕사 불사를 통해 승려 화단에 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봉녕사 소장 불화들은 약 13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조성되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조성 불사 모두 조선 후기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불화승들의 공동 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원에 거주하였던 일반 백성들이 주축이 되어 발원

(發願)된 지역적 성격의 불사였다는 사실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 수원 지역의 불교사를 이해하는 데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 수원 봉녕사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1878년, 면, 124.2×196.5cm, 1폭, 수장고

崇禎紀元後五戊寅十月十日神供繪靈山會一部二十日點眼奉安于水原府光教峯寧寺因茲奉祝主上殿下壬子生李氏壽萬歲王妃殿下辛亥生閔氏壽濟年世子邸下甲戌生李氏壽千秋大施主記乾命壬午生朴信圭坤命辛巳生羅氏亡子丁未生洪錫孫丙寅生周泳坤命丁巳生車氏乾命丁酉生朴命錫坤命庚子生嚴氏信女戊寅生姜氏坤命庚辰生姜氏乾命庚寅生金性萬乾命乙巳生車孝順緣化秩證明中奄忠禧瑞巖性琬大淵萬雨誦呪布明性擘金魚比丘天基比丘若效比丘永云比丘完先比丘能昊持殿比丘永教乘法比丘奉悅供司比丘法添儀法造餅比丘慧眞工哭比丘應點淨桶信士連月鍾頭比丘永植都監桂峯瑞長別座比丘錫眞化主比丘智賢幹童比丘慧印火臺金龍吉

### 수원 봉녕사 칠성도(七星圖)

1878년, 면, 117.8×143.3cm, 1폭, 수장고

崇禎紀元後五戊寅十月初十日神供繪七星幀一部二十日……府光教山奉寧寺大施主乾命壬午生朴信圭坤命辛巳生羅氏孫子丙寅生周泳坤命丁巳生車氏乾命庚子

生嚴氏」乾命乙巳生車孝順」乾命庚寅生金性萬」乾命甲戌生朴仁圭」乾命 ……」清信女  
 戊寅生姜氏□□」乾命甲申生羅永□」坤命庚辰生姜氏」京城中部園」洞居住」童子丁丑  
 生」金俊錫保體」壽富康寧」之大願」緣化秩」證明中庵忠禧」瑞巖性玠」大淵萬雨」誦呪布  
 明性擘」金魚比丘天基」比丘若效」比丘永云」比丘完善」比丘能浩」持殿比丘永教」乘法  
 亘虛奉悅」供司比丘法添」比丘義法」造餅比丘慧眞」熟頭比丘永碩」淨桶信士蓮月」鍾頭  
 比丘永植」都監桂峯瑞長」別座比丘錫眞」化主比丘智賢」幹董比丘慧印」

### 수원 봉녕사 현왕도(現王圖)

1878년, 면, 120.5×95.8cm, 1폭, 수장고,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2호

崇禎紀元後五戊寅十月初十日神供繪現王幀一」部二十日點眼奉安于」水原府光教山  
 奉寧寺」大施主秩」乾命壬午生朴信圭」坤命辛巳生羅氏」亡子丁未生朴洪錫」孫丙寅生朴  
 周泳」緣化秩」證明大淵萬雨」誦呪布明性擘」金魚比丘完善」持殿比丘永教」乘法亘虛奉  
 悅」供司比丘義法」造餅比丘慧眞」工哭沙彌應默」淨桶信士蓮月」鍾頭比丘永植」都監桂  
 峯瑞長」別座比丘錫眞」化主比丘智賢」幹董比丘慧印」負木金龍吉」

### 수원 봉녕사 신중도(神衆圖)

1891년, 면, 161.5×171cm, 1폭, 약사보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2호

光緒拾柒年辛卯二月日水原府□□」山峯寧寺奉安于神衆幀壹□□」緣化所秩都監  
 比丘□□」證明比丘大日鍾頭碩眞」誦呪比丘景霞供司□□」金魚比丘現照」頓照」化主比  
 丘性眞」別座比丘在善」大施主乾命壬午生朴信圭」坤命辛巳生羅氏」

### 수원 청련암 아미타회상도(阿彌陀會上圖)

1892년, 면, 132×234cm, 1폭, 극락보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6호

歲次光緒十八年壬辰七月十六日京畿左道水原光教山青蓮庵水月道場新畫成上檀  
獨聖神衆山神幀四軸」與改金重修彌陀熾盛光如來觀音尊像成就佛事畢」功安于本庵  
緣化所秩」證明龍化大日」龍雲淳一」應濟法昨」誦呪龍化大日」金魚翠庵勝宜」明應允  
鑑」義庵眩眺」比丘肯照」大施主秩」貞敬夫人辛亥生李氏」乾命戊午生閔氏」坤命壬午生  
金氏兩位」坤命壬寅生金氏」坤命癸卯生李氏」隨喜結緣等」當生極樂國」同見無量壽」皆  
功成佛道」昌秀」尙奎」信昨」昌昨」充暹」持殿應濟法昨」鍾頭比丘在善」供司比丘泰典」別  
供比丘學俊」沙彌在欣」淨桶趙得哲」都監比丘德會」化主桂庵乃隱」

### 수원 청련암 신중도(神衆圖)

1892년, 면, 143×200.8cm, 1폭, 극락보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7호

光緒十八年壬辰七月十六……」左道水原府光教山青蓮……」月道場空花佛事新畫  
成……」衆幀奉安于本庵緣化……」證明龍化大日」龍雲淳一」應濟法昨」誦呪龍化大日」  
金魚翠庵勝宜」明應幻鑑」義庵眩眺」片手肯照」比丘昌秀」尙奎」信悟」昌昨」胤暹」持殿  
應濟法昨」鍾頭比丘在善」供司比丘泰典」別供比丘學俊」沙彌在欣」淨桶趙得哲」都監比  
丘德會」化主桂庵乃隱」黃金大主」貞敬夫人辛亥生李氏」幀畫大施主」乾命戊午生閔氏」  
坤命壬戌生金氏兩位」引勸大施主」乾命丙戌生韓文奎」坤命癸卯生李氏兩位」長子甲戌  
生韓青龍」子婦庚午生李氏兩位」次子辛巳生性龍」次婦己卯生玄氏兩位」乾命丙申生李  
氏」坤命壬寅生金氏兩位」

### 수원 청련암(靑蓮庵)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1891년, 면, 123.5×448cm, 1폭, 극락보전,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21호

光緒拾柒年辛卯三月二十九日新畫成靈山一軸京畿左道水原府光敎山靑蓮庵奉安于證明比丘龍華大日金魚穢庵炫眺比丘昌秀比丘敬林供司太典鍾頭比丘在善化主桂庵乃隱都監比丘錦珠大施主秩乾命辛酉生閔氏坤命丁卯生鄭氏兩位引勸秩乾命丙戌生韓氏坤命癸卯生李氏兩位長子甲戌生靑龍次子辛巳生性龍

### 수원 청련암 독성도(獨聖圖)

1892년, 면, 123×131.5cm, 1폭, 독성각,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8호

歲次光緒十八年壬辰七月十六日京畿左道水原光敎山靑蓮菴水月道場新造奉安于獨聖幀化主桂庵比丘乃隱大施主秩乾命丙戌生韓文奎坤命癸卯生李氏兩位長子甲戌生靑龍坤命庚午生李氏兩位次子辛巳生性龍坤命己卯生玄氏兩位乾命丙申生李氏坤命壬寅生金氏兩位伏願生前壽福於死後往生極樂之大願

### 수원 청련암 산신도(山神圖)

1892년, 면, 122.5×111cm, 1폭, 칠성각,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9호

歲次光緒十八年壬辰七月十六日京畿左道水原光敎山靑蓮菴水月道場新造奉安于山神幀化主桂庵比丘乃隱大施主秩乾命丙戌生韓文奎坤命癸卯生李氏兩位長子甲戌生韓靑龍坤命庚午生李氏兩位次子辛巳生性龍坤命己卯生玄氏兩位乾命丙申生李氏坤命壬寅生金氏兩位伏願生前壽福於死後往生極之大願

### 수원 청련암 칠성도(七星圖)

1887년, 면, 141×199.4cm, 1폭, 칠성각,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0호

施主秩「……李氏」坤命戊寅生閔氏「坤命庚子生徐氏」三位「乾命丙戌生韓氏」坤命癸卯生李氏「兩位」長子甲戌生靑龍「子婦辛未生李氏」兩位「次子辛巳生性龍」光緒十三年「丁亥六月初口」日奉安于口「京畿左道」水原光教山靑「蓮庵」證明比丘幻隱「允定」誦呪比丘龍口「大一」持殿比丘戒菴「乃隱」金魚片手比丘「妙洽」比丘大虛「體訓」比丘奉法「鍾頭」比丘亘賜「供司」比丘應密「都監」比丘「東學」永善「化主」比丘坦善「信女」崔氏極樂花「坤命戊申生林氏」同生極樂願



김용국\_(사)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장

## 04

---

자연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는 문화가 발생하는데, 산천에 전하는 전설도 자연에 대한 인간의 소망이 인위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한다. 수원에도 자연환경과 인문지리적 환경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전설이 아직까지 전승되고 있다. 산천과 관련된 전설뿐만이 아니라 수원에서 태어났거나 정조와 같이 수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의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원 지역에서 전하는 전설을 따라 수원시를 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수원 사람의 생활태도 및 사람됨을 전하는 ‘수원 깍쟁이’와 ‘수원 사람 발가벗고 삼십 리’ 전설을 통하여,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수원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인식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네 갈래의 길을 따라 거닐며 수원에 전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수원의 북쪽 관문인 지지대고개에서 화산의 융·건릉으로 이어지는 노정을 따라 전하는 이야기를 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수원의 진산(鎭山)인 광교산에서 수원천의 물길을 따라 가면서 주변에 전하는 이야기와 함께 수원의 전설 속을 거닐어 보고자 한다. 이

두 갈래 길을 중심에 두고, 청명산을 둘러싸고 전하고 있는 수원의 동쪽인 영통 지역의 전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서쪽 지역은 칠보산을 중심으로 금곡동, 호매실동에 전하는 전설을 돌아보고자 한다.

수원에 전하는 전설을 모두 돌아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이 글은 독자와 함께 편안하게 나들이를 나선다는 느낌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가

우선 수원 사람에 대한 오랜 오해를 풀어내는 것으로 수원의 전설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흔히들 “수원 사람은 각쟁이”라 한다. 거기에는 “수원 사람 발가벗고 삼십 리 뛰다.”는 말까지 더해져 수원 사람은 ‘지독’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그러나 두 이야기의 맥락을 살펴보면 수원 사람에 대한 이해를 달리할 수 있다.

각쟁이는 “남에게 인색하고 자기 이익에 밝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수원 각쟁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정조의 상업 활성화 정책으로 만들어진 시전과 주변 상가 때문이다. 상업이 활성화되자 부자 상인들의 시전은 물론 상인들이 모여들어 작은 상가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런 상가들을 조선시대에는 ‘가가(假家)’라 불렀다. ‘가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열심히 일을 했고, 아껴 가며 돈을 모았다. ‘가가’에서 일하는 상인들을 ‘가가쟁이’라고 불렀는데, 이 가가쟁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각쟁이란 말로 변하였다.

“수원 사람 발가벗고 삼십 리 뛰다.”는 자고로 선비라면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여야 하는데,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어 발생



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곳은 화성시의 병점과 수원의 축만제(祝萬堤)이다. 두 지역 간의 거리가 약 삼십 리가 된다고 한다. 병점은 우리말로 풀면 떡전거리로, 이곳에 살던 한 양반이 발가벗고 뿔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이렇다.

옛날 수원 읍성에서 30리쯤 떨어진 떡전거리에 양반집 자손인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평소엔 조상의 산소를 잘 관리하고, 부모에게도 효성이 지극한 선비였다. 그러한 까닭에 비록 그의 부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아 오던 터였다. 엄한 가풍으로 생활에서도 절제를 하던 그였으나 언제부터인가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기방 출입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축만제 근처의 행화촌(杏花村 : 술집)에서 기생의 아리따운 자태에 취해 술을 마시다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잠결에 생각하니 그날이 선친의 제삿날이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못할 불효를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였다. 다급한 마음에 의관도 갖추지 못하고 뛰기 시작해 가까스로 자정을 넘기

일제시기 상점(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 수원군』, 1929) 조선시대 화성의 상업이 활성화되자 많은 사람들이 작은 상점인 가가(假家)를 열고 장사를 했다. 이때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아껴 가며 살던 상인들의 모습에서 '수원 각쟁이'란 말이 생겨났다고 한다.



지 않고 집에 도착하여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선비 된 자가 의관을 갖추지 못하고 뛰었으니 발가벗고 똬 꼴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설화의 내용으로 살필 때 각쟁이라는 말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와전되어 “간장 항아리에 파리가 빠졌다가 날아갔는데, 그를 잡기 위해 발가벗은 채 삼십 리를 뛰어갔다.”는 식으로 전하기도 한다. 결국 그 파리를 잡아 다리에 묻은 간장을 빨아먹었다는 것이다. 사실 “발가벗고 삼십 리” 이야기는 효의 실천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원 사람은 발가벗고 삼십 리를 뿔 정도로 독한 각쟁이라 한 것은 내용을 살피지 못하고 구전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이다.

수원 사람들의 뒤편이와 관련되어 전하는 전설은 오히려 수원 사람들의 알뜰함을 드러낸다. 수원 지역의 설화를 검토해 보면 ‘수원 각쟁이’에 관한 두 편의 이

축만제(1960년대, 수원박물관 소장) “수원 사람 발가벗고 삼십 리 뿔다.”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야기를 찾을 수 있다. 두 편 모두 개성 사람과 수원 사람의 비교를 통하여 어느 지역 사람들이 더 알뜰한지를 다루고 있다.

어떤 일이건 양면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한편에서 생각하면 각쟁이라 하겠으나, 달리 생각해 보면 어려운 시절을 견디며 살아가는 지혜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수원 사람이 지독한 각쟁이가 아니라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임을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증명해 보이면 어떨까?

## (華山)

지지대(遲遲臺)고개는 수원의 북쪽 관문이다. 지지는 “더디고 더디다.”는 의미이다. ‘지지’는 공자의 일화에서 차용된 것이지만, 수원에서 지지대의 의미는 그 일화와는 사뭇 다르다. 공자는 “부모님이 계신 노(魯)나라를 떠나가는 안타까움에 걸음이 더디기만 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화산의 현릉원으로 향하는 길이 더디다고 하였다. 빨리 아버님을 뵙고 싶기에 거동길이 더디다고 재촉한 것이며, 서울로 향하는 길에는 자꾸 뒤를 돌아보아 환궁 길이 지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원 사람들은 그러한 맥락과 의미에서 “지지, 지지”라고 하였다.

지금은 1번 국도가 된 산업도로를 개설할 당시 없어졌다고 하는 ‘정3품 당상 소나무’에 얽힌 전설은 정조의 심정을 전하고 있다. 화산을 향할 때에도, 환궁 길에서도 지지대고개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자기의 행차를 계속 바라보면서 호위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 기특하다고 정3품의 벼슬을 내렸다고 전한다.

한편 지지대고개는 서울네미, 서울넘이, 슬내미 등으로 불리다가 미륵뎡이로 불리었다. 서울네미는 지지대고개를 이용하기 전 수원에서 서울로 넘나들던 고개



로, 이목리 버스종점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 파장저수지와 병문안을 지나 범고개와 봉암 중간에 난 길이다. 지금은 광고산 등산로 6번 코스이고, 「프랑스군 참전기념비」에서 20분 정도면 다다를 수 있다.

이제 화산을 향하여 걸음을 재촉하기로 한다. 「프랑스군 참전기념비」에서 옛길을 따라 내려가면 괴목정교가 있다. 괴목정교가 세워지기 전 이곳에는 통행세를 받는 의적(?)이 있었다고 한다. 통행세를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이틀 걸러 하루씩 한 냥의 통행세를 받았다. 그래서 이곳을 ‘한냥골’이라 하였다. 이들은 거두어들이는 통행세를 자신들의 봉창을 채우는 데 쓰는 날강도가 아니라, 당시 파장동에 살고 있던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괴목정교에서 조금 내려가면 버스 종점이다. 그 앞에 법화당(法華堂)이 있고, 법화당 안에는 미륵불이 모셔져 있다. 그런데 법화당의 미륵불은 육안으로 확인

\_1960년대 지지대비각(수원박물관 소장)

\_1970년대 「프랑스군 참전기념비」



되지는 않으나 목이 부러졌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의왕시 내손동 갈미마을에 있는 미륵불은 왜놈들에게 조선군의 행방을 알려 주지 않았으나 뱃골[梨木里] 범화당의 미륵불은 조선군이 간 곳을 알려 주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선의 군사들은 범화당 미륵의 목을 부러뜨렸고, 갈미의 미륵은 그대로 두었다고 전한다.

지지대고개에서 남쪽으로 향하다 이목리 노송지대로 들어서면 삼풍가든이 보인다. 삼풍가든의 맞은편은 도깨비터인데, 부를 가져오는 천하의 길지라고 한다. 전설에 등장하는 도깨비들은 장난스러우면서도 셈이 많고, 재주도 많다. 화성시 정남면 새봉재에서도 도깨비를 모시는 가정을 만날 수 있었는데, 도깨비를 위하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고 한다. 도깨비는 일반적으로 티주를 모시는 방식과 같이 벗짚을 묶어 세운 기둥에 짚주저리를 엮은 형태로 신체를 삼는다.

\_1930년대 거송지대(조선총독부 입업시험장, 『조선의 입수』, 1938)

이목리에서 파장동을 지나 정자동에 이르면 ‘송충이를 깨문 효자’의 이야기가 전한다. 혹 정조로 생각할지 모르나 조존용의 효행담이다. 공의 휘는 존용(存庸)이요, 자는 백상(百常)이며, 본관은 평양이다. 조존용은 1823년 5월 17일 수원부 일형면 정자동에서 태어났다. 친품이 단정돈후하고 다정하여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고 효성도 극진하였다고 한다. 어려서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에게 수학하였고, 성현의 학(學)과 예(禮)에 관한 강을 받고 돌아와 몸을 닦고 집안을 다스림에 성실하고 화목하였으며, 청렴결백하고 곧고 굳으며 표리가 없고 거짓이 없었다.

부모를 섬기고 봉양함에 조석문안과 밖에 나갈 때에 반드시 고향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뵈는 예의와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는 등 효도에 대한 모든 방도를 다 하셨다. 1858년 선친의 병환이 위독하여 약과 인분(飶)을 맛보았으며, 돌아가신 뒤에는 3년간 시묘하였고, 1871년에 어머님 상을 당하시니 새로 산소자리를 40리 밖 동탄면(東灘面) 오산임좌(鰲山壬坐) 언덕에 아버님과 면례(緦禮) 합폄(合窆)하고, 한 달에 세 번씩 꼭 성묘하시고, 손수 가래나무와 소나무를 심으시니 제법 무성하고 울창하였는데 송충이가 해치므로 진달래 꽃가지를 꺾어 집어 삼

\_노송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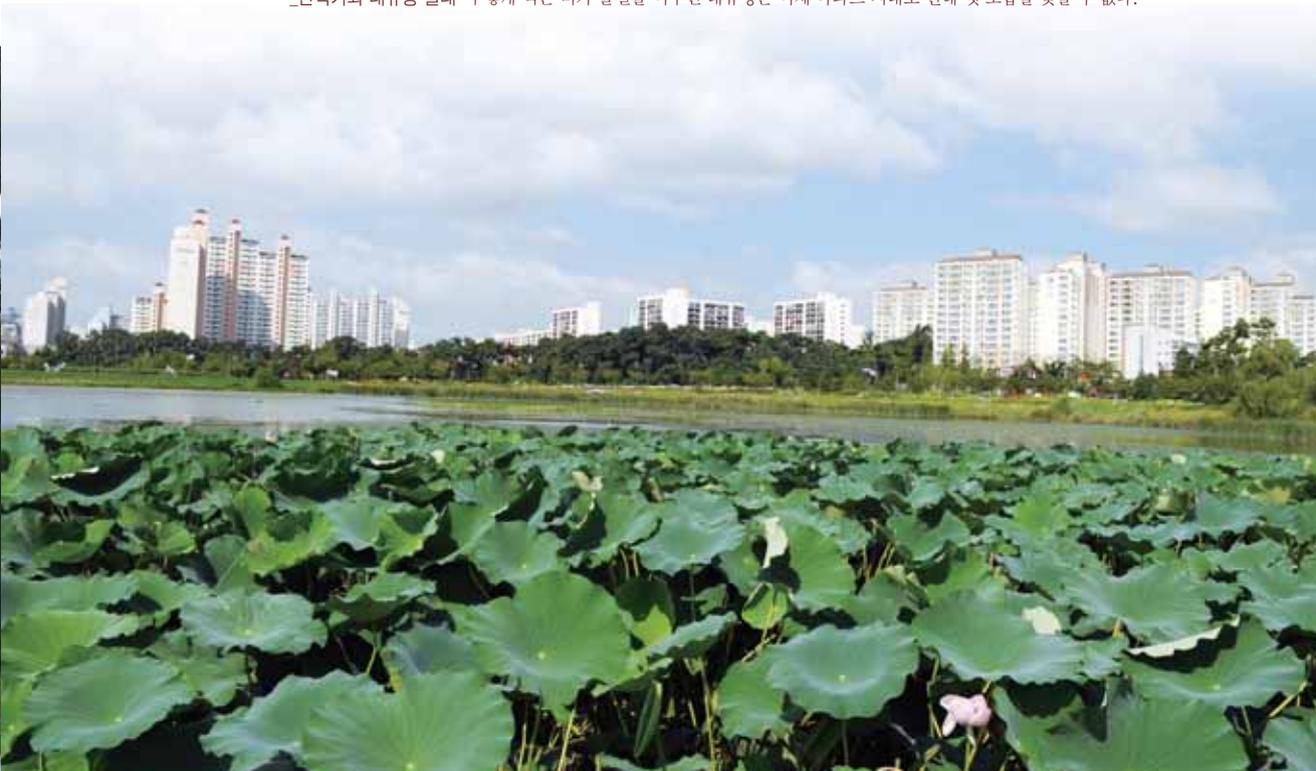


키고 또 삼키니 필경 다 소멸되어 사람마다 다 효성에 감동되었다 하였으며, 스스로 소나무를 안고 통곡하시었다. 광무(光武) 9년 1904년 7월 27일에 82세로 별세, 본면(本面) 지소동(紙所洞) 신좌(辛坐)에 모셨다.

정자동에서 수성고등학교를 향하여 걷다 보면 좌측으로는 만석공원, 우측으로는 대유평(大有坪)이 나타난다. 이 지역은 수원 화성을 축성한 뒤에 그려진 화성의 춘8경 가운데 ‘하정범익(荷汀泛鷓)’, ‘대유농가(大有農歌)’와 추8경 ‘석거황운(石渠黃雲)’의 배경이 되는 곳이다. 하정범익은 연꽃이 만발한 만석거에서 물새인 익조(鷓鳥)가 한가롭게 노니는 정경을 말한다.<sup>2</sup> 대유농가의 대유는 대유평을 말하는데 수성고등학교 주변의 들판이다. 대유평의 북쪽엔 인공수리시설인 만석거가 있어 가뭄에도 큰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그러니 농부들은 더욱 신명이 났을 것이고 농요소리 또한 우렁차고 활기가 넘쳤을 것이다.

『표롱을침(縹纒乙幟)』<sup>3</sup>에서는 ‘대유농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화봉 백성의 태평스러운 즐거움이 지금 또 이와 같지 않은가? 이 그림을 화봉 땅을 다

만석거와 대유평 일대 누렇게 익은 벼가 물결을 이루던 대유평은 이제 아파트 지대로 변해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스리고 화봉 백성을 돌보는 자의 자리 곁에 걸어 두었으면”이라 하였다. 그리고 추8경인 석거황운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규모의 농장인 대유둔의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가 천 이랑 만 이랑의 황금물결을 이루는 정경을 이르는 것이다.

장안문을 향하는 길에 관길야(觀吉野)를 만난다. 관길야는 장안문과 영화역 사이의 지명이다. 관길야에 심어진 뽕나무 숲의 아름다움이 추8경 ‘길야관상(吉野觀桑)’이다. 예나 지금이나 의복은 중요한 생필품이다. 그러니 옷감을 생산하기 위해 양잠(養蠶)을 하는 일은 긴요한 것이다. 무성한 뽕잎을 보는 것은 그만큼의 설렘을 담보하였을 것이다. 상전(桑田)이 곧碧海(碧海)인 듯 아름답지 않았겠는가?

이제 장안문으로 향한다. 장안문은 서울에서 수원으로 들어오는 정문이다. 필자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수원 화성의 4대문인 장안문(북문), 창룡문(동문), 화서문(서문), 팔달문(남문)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하였다. “북문은 부서지고, 동문은 도망가고, 서문은 서 있고, 남문은 남아 있다.” 이는 수원 화성이 복원되기

부서진 장안문(수원박물관 소장)



전인 1970년대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화서문과 팔달문 사이에 수원의 주산(主山)인 팔달산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 중에는 팔달산 때문에 수원의 교통체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선거철이면 팔달산에 터널을 뚫겠다는 공약이 나오고는 하였다. 어찌면 그렇게 해서 교통난이 해결될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수원 시민들은 당장의 편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공약에 현혹되지 않았다.

위대한 수원 시민의 승리로 지켜 낸 팔달산! 팔달산이라 명명된 유래가 전한다. 본관이 여주(麗州)인 이고(李臯)는 호가 망천(忘川)으로,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학사로부터 대사성·집현전제학이 되었다. 그러나 장차 고려가 망할 것을 예견하고 낙향하여 수원의 광교산 남쪽에 있는 탑산(塔山) 밑에서 살았다고 한다. 이고는 팔학사의 한 명으로, 이때 조건·이집 등과 왕래하며 광교산 아래 개울에 발을 담그고,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는 등 세상을 잊고 소요하며 세월을 보

\_광교산에서 바라본 팔달산 그 모양이 독립된 봉우리로 보여 원래는 '탑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냈다. 그 개울을 후세 사람들은 ‘망천’이라 일러 왔다고 한다.

팔달산은 정상에서 보면 어느 산과도 연결되지 않은 독립된 산으로 보이고, 평지에 탑을 세워 놓은 듯 다른 산과는 똑 떨어져 있다 하여 탑산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당시 공양왕은 이고에게 사자(使者)를 보내 근황을 물었다. 선생은 “집 뒤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사운데, 들 가운데 있는 산으로서, 산에 올라가서 사방을 살펴보면 어디고 막히는 데가 없어 사통팔달하여 내다보는 시야가 탁 트이고, 또한 아름답기 이를 데 없는 산이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라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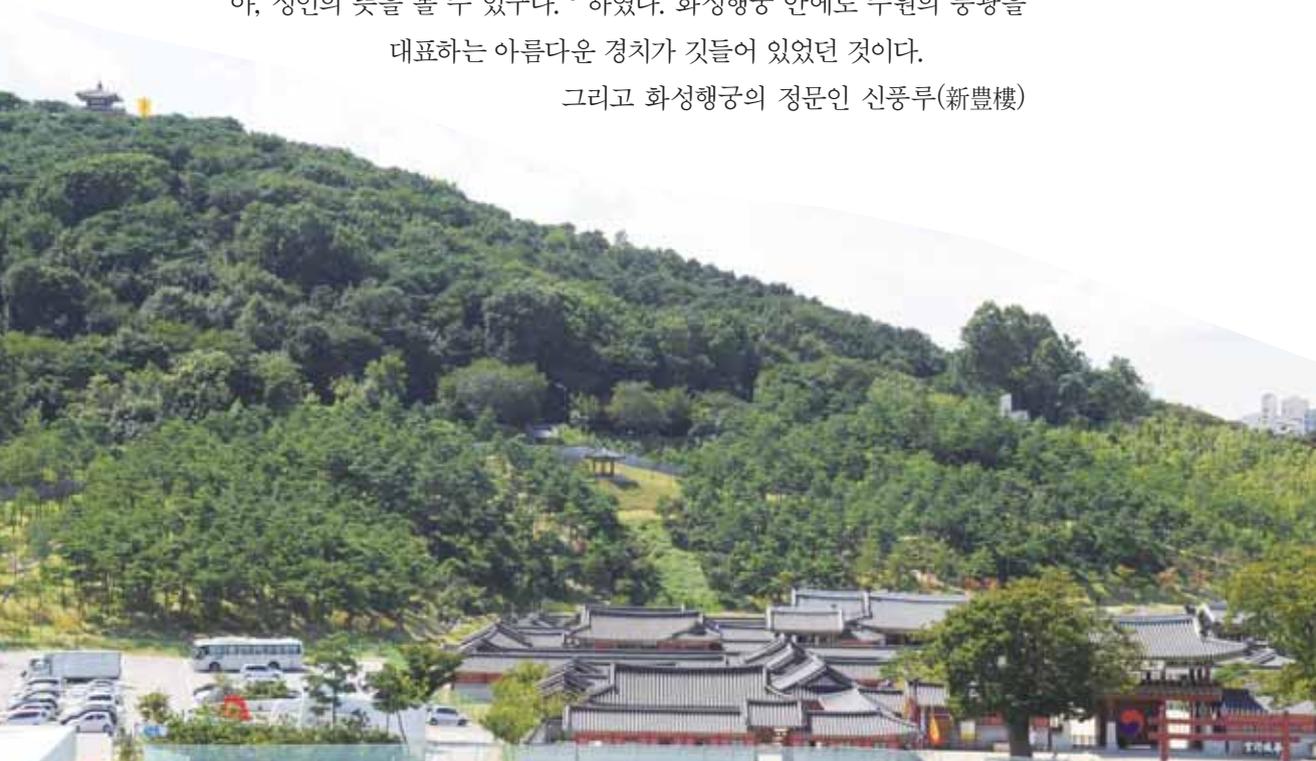
그 후 조선왕조를 세운 이성계가 경기우도 안렴사의 벼슬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으나, 이고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성계는 할 수 없이 화공(畵工)을 시켜 이고가 살고 있는 산이 얼마나 좋은지 그려 오게 하였다. 화공이 그린 탑산을 본 이성계는 “역시 아름답고 좋은 산이구나.” 하며, 팔달산(八達山)이라 부르게 하였다고 전한다.

팔달산에서 화성행궁으로 내려오는 길에 화성 추8경의 하나인 ‘한정품국(閒亭品菊)’을 만난다. 『표룡을침』에서 저자인 홍길주는 “「화봉팔관도」 여덟 폭 가운데 감상용 작품은 겨우 두세 개뿐인데 그중에 매화와 국화를 꼭 그려 넣었으니,

아, 성인의 뜻을 볼 수 있구나.”<sup>5</sup> 하였다. 화성행궁 안에도 수원의 풍광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경치가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평루(新豊樓)



를 향한다. 화성 춘8경의 하나인 ‘신평사주(新豊社酒)’는 신평루 누각에서 유생들이 향음주례(鄉飲酒禮)를 행하는 광경을 말한다. 향음주례는 온 고을의 유생들이 모여 향약(鄉約)에 따라 예를 실천하는 행사로, 백성의 교화에 대단히 중요한 행사였다. 홍길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선왕께서 노닐지 않으신다면 백성들이 어찌 쉴 수 있겠으며, 선왕께서 즐기지 않으신다면 백성들이 어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 한 번 노닐고 한 번 즐기시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법도가 될 터”<sup>6</sup>라 하였다.

이제 행궁도 지나고 세류동의 장승백이도 지나 비행장 남쪽 간촌(間村)으로 향한다. 간촌은 황계동 근처로, 이곳에 살던 이 생원이라는 이에 얽힌 전설이 전한다. 정조가 잠행을 하다 현릉원 근처에서 농부를 만났다. 현릉원을 가리키며 누구의 묘인지를 물었다. 농부가 말하기를 “여보, 당신 차림새로 보아 하니 선비가 틀림없는데 그것도 모르느냐?”며 “억울하게 뒤주에 갇혀 돌아가신 분으로 추존을 하여 왕이 되셔야 하는 분인데 신하들이 반대를 해서 왕이라고 못 하고 애기 능이라 부른다.”는 것이었다.

신하들도 자신의 말을 반대하고 나서는 때에 일개 농부의 이야기는 정조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정조는 간촌의 농부를 설득하여 과거를 보게 하였다. 과거는 ‘어느 간촌 이 생원과 어느 선비의 대화 내용’을 쓰라는 식으로 간촌의 농부만이 알 만한 내용이 나온 것이다. 그러니 간촌의 이 생원만이 과거에 합격한 것이다. 그래서 ‘간촌 이 생원의 벼락과거’란 말이 생겨났다.

또 곡반정동에는 벼락감투를 쓴 박씨의 이야기가 전한다. 정조가 잠행을 하다가 반제라는 곳을 지날 때 원두막에서 쉬게 되었다. 원두막 주인인 박씨가 정조를 보니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아 참외도 대접하고 집에서 밀개떡도 찌서 대접하였다. 정조는 다 먹고 난 뒤에 “어디 사는 누구요?”라고 물었다. 원두막 주인은 “골반제에 사는 박 서방입니다.”라 하였다. 그 뒤 고마움을 잊지 않고 벼슬을 내려 반제 박씨들이 벼락감투를 썼다고 한다.

\_수원의 주산인 팔달산

## (柳川)

경주에 남산이 있다면 수원에는 광고산이 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수원의 진산(鎭山)인 광고산의 본래 이름은 ‘광옥산’이었는데, 태조 왕건이 부처의 가르침이 있는 산이라는 의미로 광고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광고산 일대는 많은 학자와 고승이 학문에 힘쓰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다. 학사공 이고, 송산 조건, 고운 최치원 등이 머물면서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다.

상광고 버스종점에서 갈대밭으로 가는 등산로에 약수터로 더 이름난 미학사지(美鶴寺址)가 있다. 미학사는 여승들이 수도하는 절집이었다고 한다. 어느 날 여승이 학의 꿈을 꾸고는 태기가 있어 아이를 낳았다는 전설이 전한다.

미학사지에서 물길을 따라 내려오면 상광고동이다. 이곳에 세종 때의 학자 정인지(鄭麟趾)의 후손 되는 정 선생의 지혜가 전한다. 정 선생은 학식이나 도량(度量)과 기지(奇智)가 뛰어나서 인근 사람들은 이인(異人)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였다. 한번은 하광고동에 살고 있는 홍씨네 집 며느리가 별안간 배가 아프다고 펄펄 뛰었다. 집안사람들은 윗마을 정 선생에게 사람을 보냈다. 정 선생은 홍씨 집에서 달려 온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듣더니 대뜸 하는 말이 “관격이 들었구먼. 그럴 때는 배 흠이불에다 여인을 누어 놓고 장정 넷이 사망에서 흠이불을 들고 이리저리 굴리라고 하슈.” 하고 일러 주었다. 비록 죽이었지만 급히 먹어 체한 탓이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서울에 살다가 수원유수로 부임하여 온 사람이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모시고자 함께 수원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부친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들더니 백약이 소용없었다. 유수는 정 선생의 지혜를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터였기에 사람을 보냈다. 정 선생은 노인의 증세를 한참 동안 진지하게 듣고 나더니, 글자 두 자를 써 주는 것이었다. “내가 가 볼 필요도 없네. 이것만 갖다 드리면 아시네.” 유수가 보니 ‘귀향’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수가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다 드렸더니 오래지 않아 병은 거뜬히 나왔다.

정 선생 이야기를 뒤로 하고 광교저수지의 중간쯤에 오면 문암(文巖)골이 있다. 문암이라 불리는 바위에 이고와 최치원의 전설이 전한다. 이곳은 이고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세월을 잊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라고도 하고, 신라학자 최치원이 즐겨 찾던 바위라 문암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문암골과 광교저수지 즈음에 이고가 즐겨 찾았다는 망천(忘川)이라는 지명도 전하고 있다.

문암골 백년수약수터 정상에 일명 ‘꽃묘’라고 불리는 묘가 있다. 여기에는 조한복의 효행담이 전하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조한복은 부친인 조철호(趙哲鎬)가 1934년 별세하자 장안구 하광교동 문암골 백년수약수터 위 정상(하광교동 산 36번지)에 모시고, 모친인 진주 류씨(晉州 柳氏)가 1947년 별세하자 부친 묘에 합장하였다. 이 묘지는 문암골 입구로부터 약 4km 거리에 있다. 처음에는 묘소 앞

\_수원의 진산인 광교산의 비로봉과 시루봉

이 깊은 계곡이었으나 조용이 7년에 걸쳐 손수 흙으로 메우고, 약 15평의 계단식 화단을 만들어 각종 화초를 심었다. 이 묘지 옆에는 큰 고무통 두 개를 묻었는데, 한 개는 물통(잔디, 꽃에 주는 물)으로 쓰고 다른 한 개에는 취사도구(라면 조리용)와 작업용 농기구를 담아 두었다. 근무시간 외에는 거의 매일 묘소에 와서 묘역을 정화하였다. 그날의 작업을 마치지 못할 때(특히 때 심는 작업)에는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고 밤에는 망주석에 매 놓은 파라솔을 펴고 침낭에서 잤는데, 묘지에 가는 날은 일찍 귀가할 때가 드물었다. 날이 저물 때까지 작업을 하고 귀가하기에 항상 전등을 준비하지만 길이 어두워 넘어지기 일쑤였다. 겨울철에는 부모님이 쓸쓸하다 하여 조화를 사다 묘지 사방에 꽂아 놓았다. 이 묘는 인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이 났고, 꽃묘로 불리게 되었다.

이 묘지의 바로 뒤가 광고산 형제봉으로 가는 등산로이다. 조한복의 효행이 알



\_형제봉 가는 길

러지면서 서울에서 부·자·손 3대가 찾기도 하고, 수원에서는 동리 청소년들을 인솔하여 견학을 오기도 한다. 그래서 이 묘지는 효의 산 교육장이 되고 있다.

다시 문암골로 내려와 광교저수지를 내려서면 종이를 생산하여 ‘지소동(紙所洞)’으로 불리던 마을이 있다. 현재 연무동(鍊武洞)이 지소동을 포함하면서 그 이름이 사라졌다.

지소동에서 방화수류정과 화홍문을 향하다가 우측으로 가면 아기 갖기를 소원하던 부부의 애뜻한 전설이 깃들어 있는 할미통소바위와 할아버지통소바위가 있다. 할미통소바위는 북중학교 뒤편의 마장산에 있고, 할아버지통소바위는 창룡문 지하도의 북동쪽에 있는데 할미통소바위와 마주보고 있다. 건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사랑을 키웠듯이 부부는 수원천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안부를 통소로 확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백일치성을 며칠 남겨 두고 부인의 통소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아내가 무탈하기만을 바라면서 백일치성을 마친 남편은 싸늘한 아내의 주검을 마주하고 이내 목숨을 끊었다. 그 이후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하고 있다.



연무동 할아버지통소바위  
조원동 할미통소바위

한편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와 북중학교에서 한일타운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다. 이곳은 거문고 혈에 해당한다는 지역으로, 백제 왕의 사위였다고 하는 ‘우성위’와 얽힌 이야기가 전한다. 조원동 갓모봉 바로 밑에는 우성위라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가뭄이 극심해 마실 물조차 부족했던 때라 논밭에 물을 대는 것은 생각도 못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성위의 집에 스님이 찾아와 시주를 권하였으나 우성위는 스님에게 물조차 주지 않았다. 이에 스님은 돌아가면서 마장산(馬場山) 줄기의 가운데를 파서 광고천에서 물을 끌어오면 가뭄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우성위는 그 말을 옳게 여겨 물을 끌어오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이곳은 광고천보다 지형이 더 높아서 공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도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공사를 계속하다 가세가 기울어 망하고 말았다. 스님이 일러 준 자리는 마장산의 중간 부분으로 거문고의 혈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거문고의 혈이기에 부자로 살게 되었던 것인데 스스로 혈의 중간을 잘라 화를 자초하였던 것이다.

다시 길을 나서 용연 앞에 다다르니, 용의 형상을 한 용두암이 용연에 깃들여 있다. 화홍문 일곱 수문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정월 나혜석의 「넛물」이란 시를 읊는 듯하다.

졸졸 흐르는 저 넛물/ 흐린 날은 푸르죽죽/ 맑은 날은 반짝반짝/ 캄캄한 밤 흑색  
 같이/ 달밤엔 백색같이/ 비 오면 방울방울/ 눈오면 녹여 주고/ ……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춥든지 더웁든지/ …… / 언제든지 쉬임없이/ 외  
 롭게 흐르는 넛물/ 넛물! 넛물 / ……

그렇게 넛물이 흐르고 흘러 구천동을 지나고 매교동을 지나 세류동의 유천(柳川)에 다다른다. 유천에 이르는 길에서는 화성을 축성한 뒤 그려진 춘8경 가운데 ‘오교심화(午橋尋花)’를 만날 수 있다. 오교는 화성행궁에서 창룡문을 향하면서 건너는 다리인 매향교를 말한다. 다리 주변엔 매화나무를 심어 놓아 봄철 꽃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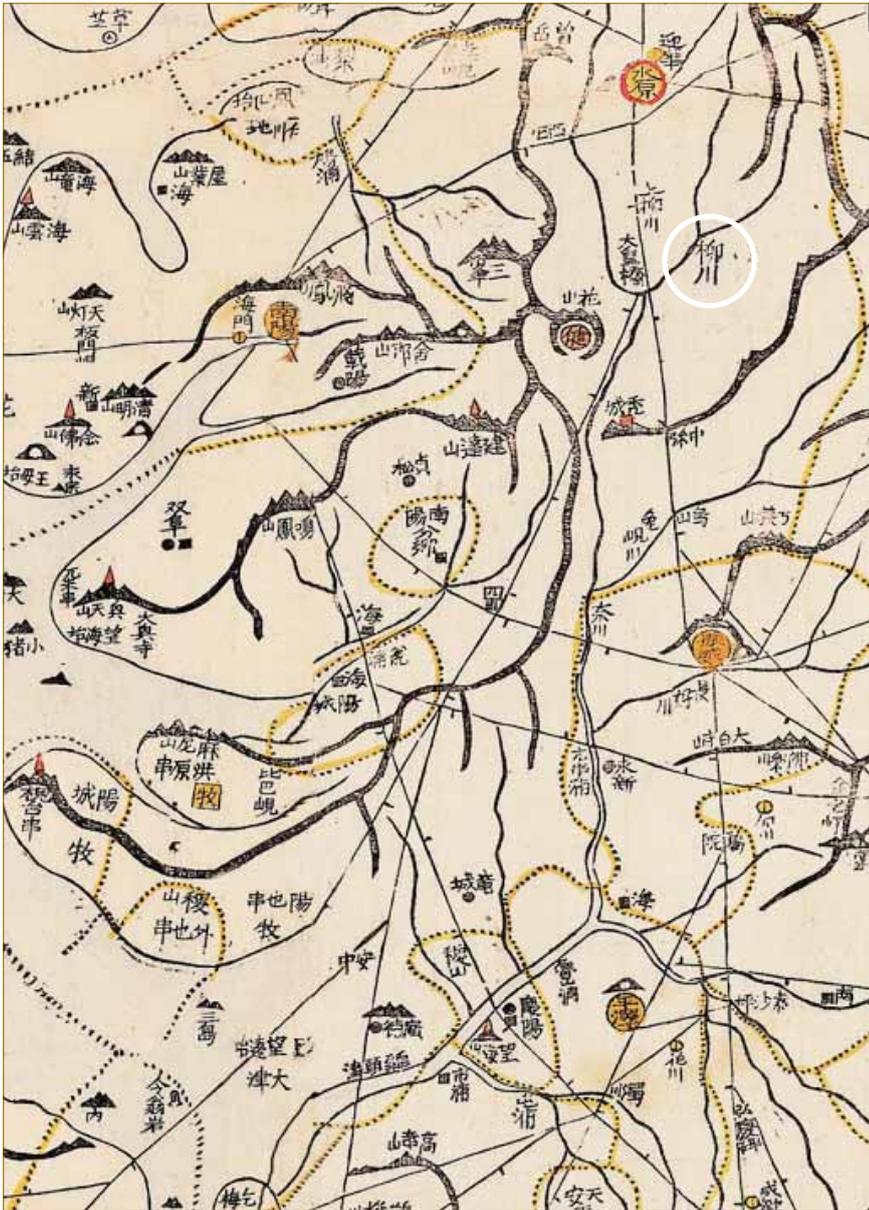


장소로 각광을 받았던 듯하다.

물길을 따라 내려가면 추8경의 하나인 ‘구암반조(龜巖返照)’의 장소에 이른다. 구암반조는 저녁의 햇빛이 비치는 거북바위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1794년(정조 18) 1월 15일 행차 시 “오른쪽은 구봉이고 왼쪽은 용연이어서 거북과 용이 마주하고 있으니 그 이름 역시 우연하지 않다.”고 한 기록이 있다. 또한 1872년 「수원부지도」에 구산(龜山)이 표기되어 있음을 보아 거북바위는 이 산의 거북모양 봉우리를 말했을 것이다. 거북산은 현재 녹산빌딩 부근으로 추정된다.

이제 매교동을 지나 세류동이다. 유천이 흐르는 세류동은 정조사거리 버드네 대장군과 여장군이 세워진 사연과 이 마을까지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거북산(윤한홍 그림,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중동사거리에서 동수원사거리로 가는 길가에 있던 거북산을 그린 그림이다. 안개 낀 날 팔달산에서 거북산을 바라보면 거북이가 광교산으로 올라가는 형상처럼 보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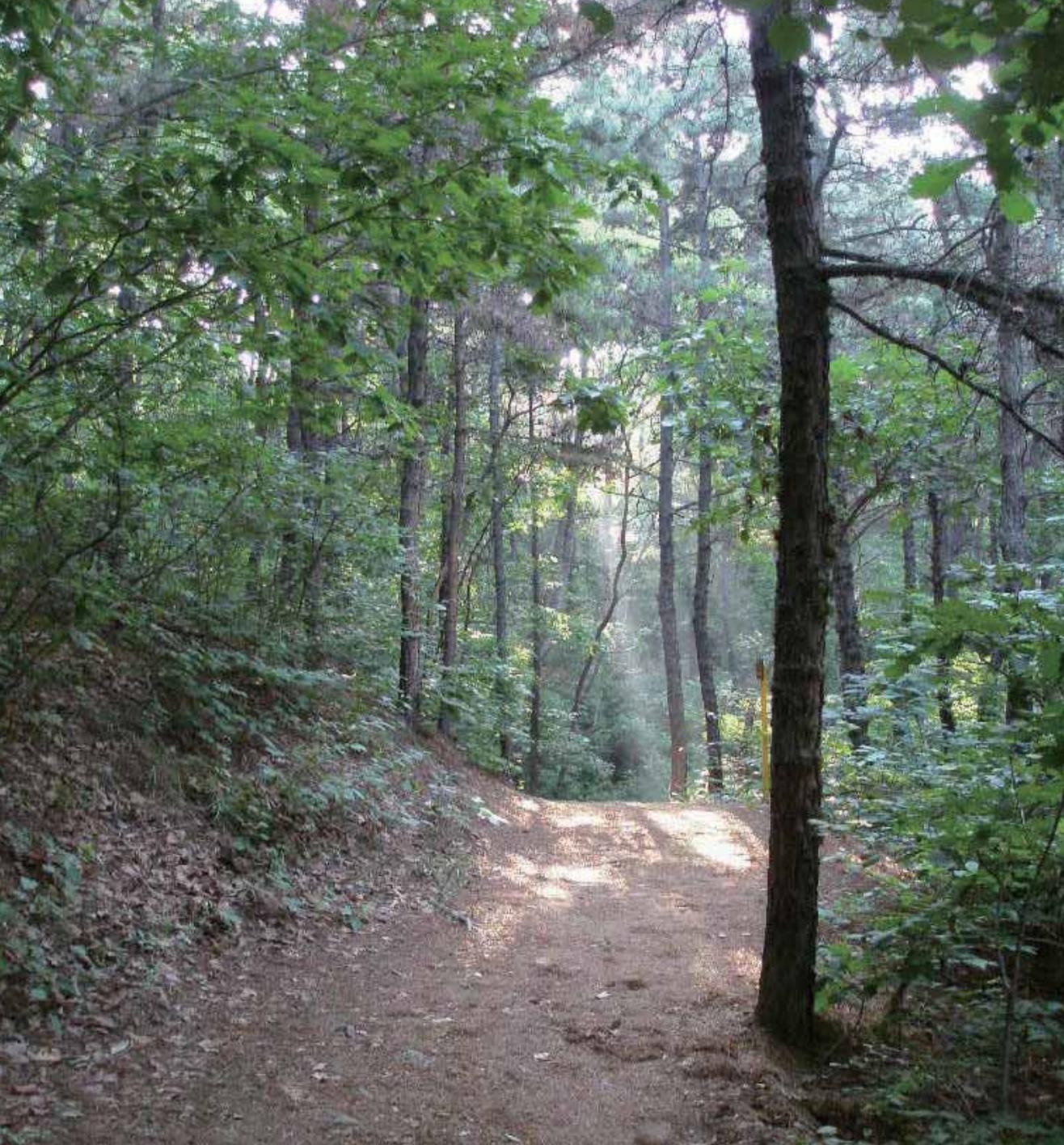
\_광교산에서 발원하여 황구지천을 지나 서해로 흘러드는 유천(『대동여지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다음으로 남제(南堤)를 향한다. 남제는 나라에서 경영하던 농토인 둔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축조된 저수지이다. 북둔(대유둔), 서둔과 같이 세류동에는 남둔이 설치되었고 여기에 제방을 쌓아 남제라 불렀다고 하는데, 전하는 지명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춘8경의 하나인 ‘유천청연(柳川晴烟)’은 봄의 빛깔을 한껏 머금은 버드나무가지가 봄바람에 하늘거리고 맑게 갠 날 물 안개와 어우러진 풍경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그런데 유천은 그 경계가 어디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광교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화홍문의 수문을 거쳐 수원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세류동을 지나 황구지천에 이르는 물줄기를 유천이라 하나, 중간에 구천(龜川)이라 이름도 전하고 있기에 혼란스럽다. 그러나 상류천(上柳川)과 하류천(下柳川)의 표석이 모두 세류동 관내에 있으니 유천청연의 근거지가 세류동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 없는 억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유천은 흘러 비행장을 지나고 황구지천을 지나 서해로 든다.

영통(靈通)은 영(靈)과 통하는 신령스러운 곳이기에 명명된 곳이라 한다. 영통에는 주산(主山)격인 청명산(淸明山)이 있다. 청명산에는 많은 전설이 전하고 있는데, 먼저 그 이름의 유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명산의 본래 이름은 천명산(天命山)이었다고 한다. 과히 높지는 않으나, 위낙 숲이 울창하고 산의 형세가 뛰어나 하늘의 정기가 어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 하늘의 명이 서 있는 명산인 것이다. 그런가 하면 나라의 큰 번고가 생겨 백성이 피난을 해야 할 때에는 어림잡아 천 명의 사람을 숨길 수 있는 산이



\_청명산의 숲길(<http://blog.naver.com/kap7777777/60069195020>)

었다 해서 ‘천명산(千名山)’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또한 이 지역에서 군사들이 훈련을 받고는 천 명이 살았다 하여 천명산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와전되어 청명산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청명산에는 용인 방향으로 절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오늘날에도 이 절터에서 기와조각과 주춧돌이 발견된다고 하니 신빙성이 있다. 1999년 이 지역을 답사할 당시 영통사의 혜천 스님에게 들은 ‘중의 우물’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옛날 원효대사가 이곳을 지나다가 산정에 우물을 팠다. 이 우물은 신통력이 있어서, 어느 날 다리가 부러진 학이 이곳을 찾아 며칠 동안 이 우물물을 먹고 다시 날아올랐다고 한다. 또 이곳은 천상의 선녀들이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목욕을 하는 우물이라고도 전하고 있다. 한편 청명산의 우물에는 고려 말의 보물이 있으며, 우물 속 보물의 효험으로 청명산은 신령과 통하는 산이 되었다고 전한다. 가뭄이 들면 이 지역의 천석꾼인 해주 오씨가 커다란 통돼지를 잡아 기우제를 지냈으며, 기우제를 지내고 나면 틀림없이 비가 내렸다고 하니 청명산의 신령스러움에 자연 경건해진다.

한편 청명산 중턱에 암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고려 말엽, 이 암자에는 젊은 스님이 나이 어린 동자와 기거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공을 드리러 온 젊은 처녀와 속세의 인연을 맺고 말았다. 그러던 중 스님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도 생시처럼 마을에 내려가 처녀와 만나고 돌아와 법당에서 불경을 외우고 있었다. “너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뜻을 받들어 모든 중생들을 구원해야 함에도 어찌하여 속세의 여인과 인연을 맺고 사느냐? 이제 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이곳을 떠나 속세로 돌아가거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다음 날 스님은 동자승을 마을로 보내고 암자에 불을 지르고는 그곳을 떠나고 말았다고 한다.

함경북도,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에도 칠보산이 있다. 칠보(七寶)란 물론 일곱 가지의 보물을 말한다. 그러나 보물이라고 하여 값비싼 보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지역은 산의 봉우리가 일곱이어서 칠보산이라 명명하였고, 실제로 일곱 보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지점에 위치한 경기도의 칠보산은 본디 팔보산(八寶山)이었던 것이 칠보산이 되었다고 한다.

용화사는 칠보산에 있는 절로, 꿈에 나타난 미륵불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선몽(先夢)하여 모셔지는 미륵불은 민중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는 기복적인 성격을 지니면서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용화사 미륵불의 조성 시기는 조선 중엽이나 말엽쯤으로 추정될 뿐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이곳은 여느 마을과 다른없는 자그마한 마을로, 사람들은 나무를 하거나 연자방아나 돌절구·맷돌을 만들 돌을 얻기 위해 산을 오르내리며 미륵골에 서 있는 미륵을 향해 합장을 하는 정도의 경의를 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미륵의 받침돌에 작은 돌을 문지르면 죄가 있는 사람은 돌이 들러붙고, 죄가 없으면 붙지 않는다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실개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들어왔다. 그녀의 꿈에 이곳에 가면 미륵불이 계시니 치성을 다하라는 선몽이 있어 와 보니 정말로 미륵불이 있었다 한다. 김실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성을 다했으며 비가 오는 날에도 치성을 드렸다. 대수롭지 않게 미륵을 대하던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지극정성에 미륵의 영험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 허름하게나마 움막을 지어 그녀의 치성을 도왔다. 그녀가 죽자 마을의 유지들이 합심하여 절을 짓고 미륵에 칠을 하였는데 미륵의 눈에 칠을 하던 이가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다 한다. 그리하여 두려움을 느낀 마을 사람들은 미



—용화사 대웅전에 모신 미륵불

특의 칠을 벗기고 지금 전하는 바와 같은 미륵의 모습을 유지하게 되었다 한다.

또한 용화사의 미륵불에는 이러한 이야기도 전한다. 약 70년 전(1999년 채록할 당시) 용화사에서 한문을 수학하던 한상훈(당시 80세)에 따르면 용화사 미륵당 뒤뜰에서 돌부처를 캐다고 한다. 함께 공부하던 이도 돌부처를 캐으며, 그날 밤 당시 한상훈에게 한문을 가르치던 주지스님의 꿈에 또 하나의 돌부처가 있다는 선몽이 있어 다음날 그 자리를 캐어 보니 정말로 돌부처가 나왔다. 그리하여 세계의 돌부처를 캐내었다 한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돌부처의 밑에 구멍이 있어 보니 돌부처의 내력과 어느 날 이 돌부처가 발견될 것이라는 쪽지가 나왔다고 한다. 당시 발굴된 돌부처는 용화사 너머 어느 암자로 옮겨졌다 하는데 그 암자가 어디 인지는 알 길이 없다.

용화사 밑에 있는 밀양 박씨의 집성촌에는 대대로 장사(壯士)가 많이 났다고 한다. 칠보산에 돌이 많아 이 마을에는 집집마다 맷돌과 돌절구, 연자방아가 있었다. 빙판(氷板) 위에서 나막신을 신고 커다란 연자방앗돌을 새끼로 묶어서 이빨로



\_칠보산 맷돌화장실

\_연자방아 모양의 식수대 마을 사람들이 칠보산의 돌을 이용해 맷돌이나 연자방아 등을 만들어 살았다는 구전을 응용한 조형물이다.

끝 정도의 장사가 있었다고 하며, 심지어는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친 장사가 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된 까닭인지 당(堂)을 지어 노방(路傍)의 미륵불을 모시면서부터는 더 이상 장사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마을의 토박이인 밀양 박씨들은 장사가 나지 않는 이유가 절을 지으면서 땅의 기운을 막았고 그러면서 칠보산의 정기를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한편 칠보산의 북쪽에 있는 칠보사(七寶寺)는 삼존불을 모시고 있다. 이 참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인 칠보산 자락을 오를 때 갑자기 넘어지게 되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자신이 넘어질 이유가 없어 이상하게 여긴 이 참봉은 넘어진 자리를 파 보았다. 그러자 이곳에서 세 구의 불상이 나왔다. 이 참봉은 부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여 지금의 칠보사를 창건하였다 전한다.



# 2부 화성을 품은 수원

조선 후기 최대의 신도시 화성  
다 함께 들자, 화성 한 바퀴  
정조대왕의 그리움을 따라서  
정조의 뜻이 담긴 수원 화성 편액  
농업 생산력 향상의 기치를 들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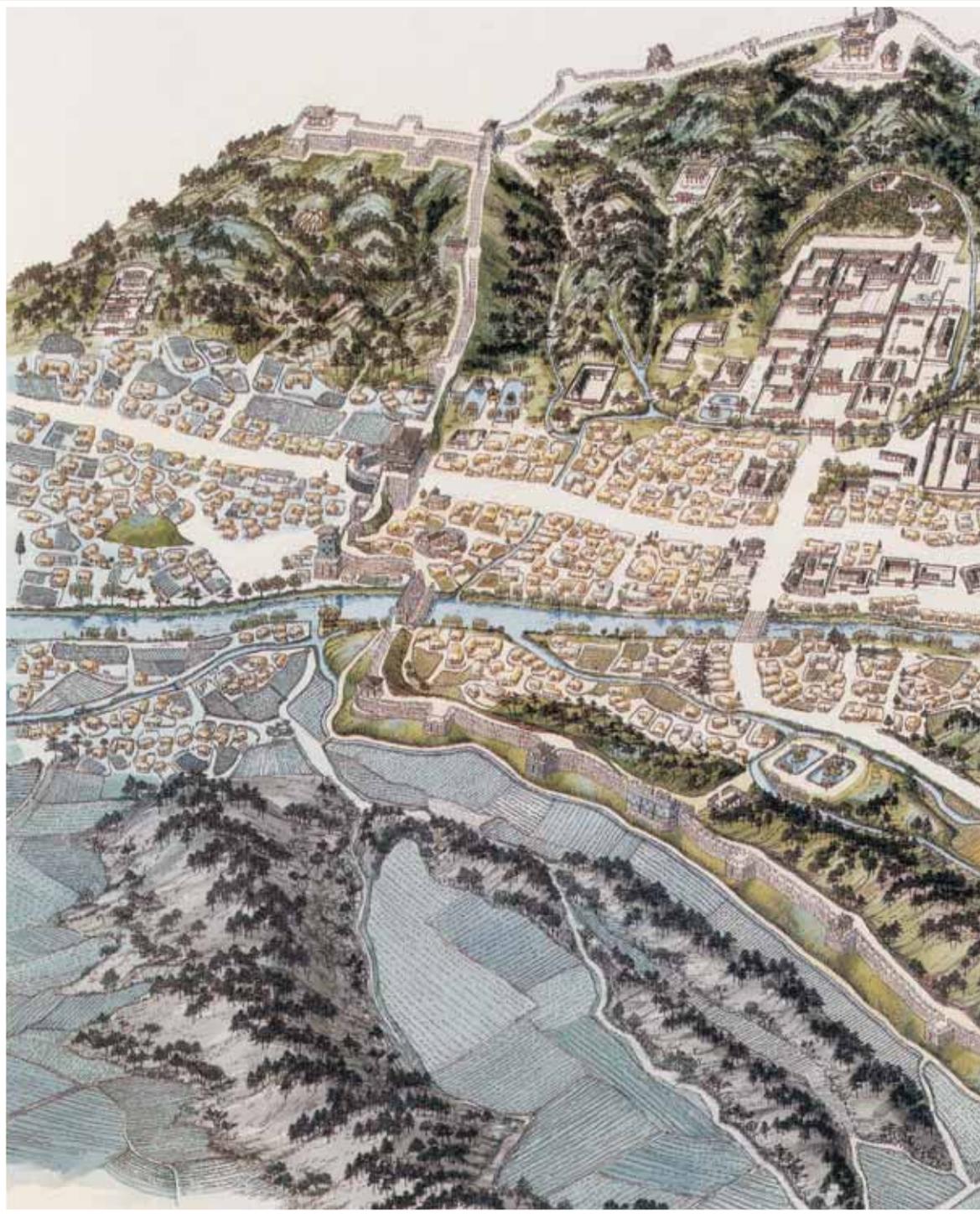
김준혁\_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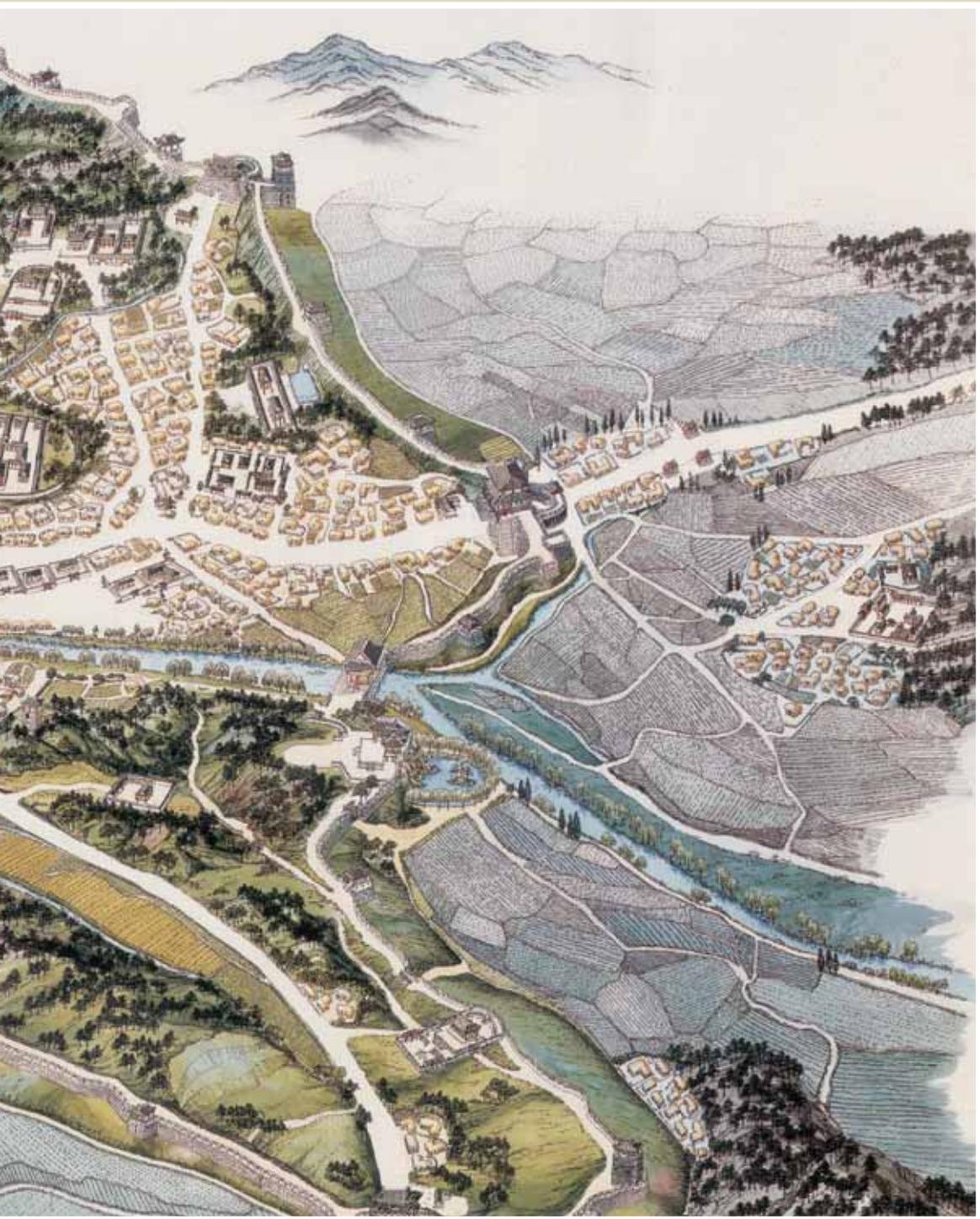
---

정조는 왜 화성을 건설하였을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이다. 정조와 화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양 도성이 이미 노론 신하들의 도시였기에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신도시 화성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다. 정조는 분명 한양 도성이 국왕인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장한 수원 지역을 자신의 새로운 고향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는 기간 중에 신하들에게 “화성은 사도세자의 원침을 호위하고 행궁(行宮)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다시 말해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릉원을 보호하고, 자신이 개혁정치를 펼치다가 노론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 자신을 보호할 공간으로 화성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정조가 수원을 마음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을 갖춘 자신의 친위도시로 조성하고자 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조의 화성 신도시 건설의 본뜻은 여기에 그



\_화성 축조 당시 모습을 현대기법으로 재구성한 전경(수원시,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2003)



치지 않고 수원 지역을 새로운 혁신도시로 만들고자 한 데 있다.

정조는 1800년 6월 1일에 화성유수 서유린을 창덕궁으로 불러 화성 신도시를 건설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정조는 백성들이 모두 부유해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외세의 침입이 없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학문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규장각을 설치하고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하여 조선 최강의 군영이라 평가받는 장용영을 창설하였다. 정조는 국가 개혁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고, 국방이 안정되어 외세의 침입에도 침탈당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화성 신도시였다. 정조는 화성 신도시에 상업과 농업이 활성화되어 백성들 모두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장용영 외영을 설치하여 강력한 군사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1년에 한 차례씩 과거시험을 개최하여 수원 및 인근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여 새로운 도시 건설과 국정 운영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화성 신도시를 만들어 경제와 국방 그리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확실히 갖춘 이후에 전국에 화성 신도시의 도시 건설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즉 전국의 모든 도시들을 화성 신도시처럼 경제가 안정되고 외세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도시로 만들고자 하였다. 결국 화성 신도시는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혁신도시의 개념이었던 것이다. 혁신도시 수원,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혁신도시 화성은 조선 후기 최대의 신도시이며, 조선의 개혁과 위민정책의 상징이었다.

1789년 7월 15일 정조는 수원도호부의 읍치를 20여 리 떨어진 팔달산 동쪽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렇다면 정조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수원 사람들을 왜 이전하게 하였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자신의 생부(生父)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였다.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죽은 인물이었다. 뒤주에 갇혀 죽었다는 것은 그가 대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대역죄인의 아들은 국왕이 될 수 없었기에 영조는 세손이었던 정조를 자신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효장세자의 아들로 삼게 하였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조를 큰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왕실의 족보를 수정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식적으로는 효장세자가 정조의 아버지이고 사도세자는 생부가 될 뿐이었다.

그래서 정조는 즉위 첫날 공식적인 아버지인 효장세자를 진종(眞宗)으로 추존하여 자신의 정통성을 확립하였다. 하지만 정조는 늘 친아버지인 사도세자에 대한 애끓는 사부곡(思父曲)이 있었기에 큰아버지이자 족보상의 아버지였던 효장세자를 추존하듯이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국왕으로 추존하고 싶어 하였다. 하지만 이는 자신이 국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살아생전에 영조가 세손인 정조가 국왕으로 있는 한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조는 그 대안으로 사도세자의 묘소를 당대 최고의 뒷자리에 이장해 주는 것이 최선의 효도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명당자리에 잠들고 있는 사도세자는 역적이 아닌 국왕의 아버지라고 하는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청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도세자의 묘소였던 양주 배봉산의 수은묘(垂恩墓)를 처음 방문하게 된 정조는 큰 충격을 받았다. 너무도 작고 초라한 무덤이었

기 때문이다. 말이 세자의 묘소이지 일반 왕자의 예법대로 만든 작은 무덤일 뿐이었다.

영조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하여 참으로 묘한 이중행동을 했다. 사도세자가 죽은 날 그에게 세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고 세손이었던 정조를 불러 자신이 세자를 죽인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세손과 채제공 앞에서 사도세자가 죽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김상로와 홍인한 등 노론 주도세력의 간악한 사주로 일어난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세자의 장례식에 직접 묘소까지 찾아가서 제문을 읽는 등 죽은 아들에 대하여 몹시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의 묘소였던 수은묘의 규모와 위상을 일반 왕자의 예에 따르게 하였다. 세자가 죽어 묻힌 곳은 ‘원(園)’이라고 칭하여야 함에도 영조는 끝내 일반 왕자의 무덤에 붙이는 ‘묘(墓)’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하였다. 아마 자신을 몰아내고자 했다는 말이 터무니없는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껄뻐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조는 대리청정을 하던 시기 수은묘를 방문하고 나서 참혹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자신이 국왕으로 즉위하면 반드시 아버지의 묘소를 조선 땅에서 가장 좋은 길지(吉地)로 옮기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국왕이 되었어도 사도세자의 묘소를 옮길 수가 없었다. 『정조실록』에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소를 즉위년부터 옮기려고 했는데 ‘운(運)’과 ‘때[時]’가 맞지 않아 옮기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정조의 즉위년인 1776년부터 묘소를 옮기기로 결정한 1789년까지 모두 사도세자의 ‘운’이 무덤 천장의 때와 들어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 ‘운과 때’보다는 정조가 아버지의 묘소를 옮길 수 있을 만큼 국왕으로서의 힘이 없었고 국가 재정도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정조가 수원도호부 읍치를 사도세자의 새로운 묘소 자리로 선택한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사실 수원도호부 관아가 있는 화산(花山)은 천하명당이라고 소문이 나 있던 지역이다. 조선시대 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

부」를 보면 수원도호부 관아 앞에 ‘국릉치표(國陵置標)’라는 풋말을 세워 놓았다고 한다. 이는 왕릉을 세울 자리라고 하는 풋말이었는데 그만큼 천하명당이었다는 것이다.

정조의 명으로 사전에 수원도호부 읍치로 내려간 영의정 김익을 비롯한 신하들은 현재의 화성시 안녕동 일대가 모두 천하명당인데, 그중에서도 수원도호부가 있는 화산이 최고 명당이라고 하였다.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반룡농주(盤龍弄珠)’라는 것이다. 실제 이 지역은 충청도 보은의 속리산에서 ‘지기(地氣)’가 시작되는 ‘한남금북정맥’의 혈(血)이 마지막에 모인 그야말로 천하명당이다. 그런데 참으로 신묘한 것은 이 지역의 오랜 지명이 용복면(龍伏面)이라는 점이다. 즉 용이 엎드려 있는 지역이란 의미였는데, 결국 용과도 같은 존재인 사도세자와 정조가 문혔으니 선현들의 땅 이름 만들기는 신령스럽기 그지없다.

신하들은 수원도호부에 사도세자의 봉분이 들어설 자리를 확정하고 도성으로 올라와 7월 15일에 보고를 하였다. 이 보고를 받자마자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도호부 관아 뒤편으로 이전하고 수원도호부 관아와 중심지역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민가를 팔달산 동쪽의 넓은 들판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조선 최초로 신도시 건설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조가 수원도호부로 사도세자의 묘소를 이전한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가 단순히 억울하게 돌아가신 부친을 위한 개인적인 효심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이전한 것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였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정조는 즉위 후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상태가 “혈맥이 막혀 죽어 가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인가! 오랫동안의 당파 싸움과 천재지변이 나라의 형편을 너무도 어렵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조는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였지만 한양을 기반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인 노론 벽파의 힘은 너무도 컸다. 그래서 정조는 국왕을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위도시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부친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릉원으로 향해 가는 발인 반차도(『영우원천봉도감의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789년 배봉산에 위치한 사도세자의 묘소 영우원을 수원부 화산으로 천봉하는 과정을 그린 반차도이다.

이전하면서 충청, 전라, 경상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교통로에 위치한 팔달산 동쪽의 넓은 들판을 주목하였고, 바로 이 지역에 신도시 화성을 건설한 것이다.

결국 정조의 사도세자 묘소 이전은 단순히 국왕 정조의 효심 때문만이 아닌 국가 전체를 살리고 백성을 부유하게 하자는 개혁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사도세자의 현릉원 조성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최근 수원시와 화성시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화성시와 수원시가 문화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랫동안 역사를 함께해 왔기 때문이다. 수원과 화성이라는 이름을 공유하고 역사적으로 하나의 뿌리에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날 다양한 교류를 하더라도 어색함이 없이 형제와 같은 친숙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원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무엇이고, 화성이라는 이름은 무엇인가? 그 연원을 알아보고 이 도시가 정조시대에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진 도시였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조는 1789년(정조 13)에 수원도호부 관아 일대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천봉하고, 관아를 비롯한 읍치 전체를 현재의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일대의 팔달산 동쪽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도시를 옮긴 지 4년이 지난 1793년(정조 17) 1월 정조는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면서 화성유수부에 장용영외영(壯勇營外營)을 신설하였다.

화성유수부의 승격은 1년 뒤에 있을 화성 축조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었다.



화성 축성은 왕권을 강화하여 민생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조에게 장기적인 정국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정조는 화성유수부를 강력한 정치적·군사적 배후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화성유수부 승격과 더불어 장용외영을 신설한 것이다.

1789년(정조 13)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릉원으로 이전하고 수원 신읍치를 건설한 후부터 화성 축성의 준비는 시작되었다. 현릉원 천봉 이듬해인 1790년(정조 14) 6월에 부사직 강유가 수원 신읍치에 성곽을 축성하여야 한다고 상소하였다. 성곽을 쌓아 도시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유는 수원 신읍치에 성을 쌓아 구읍치를 방어하던 독산성과 상호 방어체제를 구축하면 어떠한 적이라도 감히 쳐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지역에 군사들을 불러들여 집을

팔달산 동쪽으로 수원도호부의 읍치 이전을 결정하다.

짓게 하고 복호(復戶) 500결 내에서 그 절반을 군병에게 떼 주어 살아갈 길을 삼게 하며, 또 각 군문이 새 읍 부근에 둔전을 설치하여 군병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군문에서 그 세를 징수하게 한다면 토지 없는 군사들이 반드시 앞을 다투어 모집에 응할 것이라 하였다. 강유의 수원 신읍치 축성론에 이어 1791년(정조 15) 정월에 부사직 신기경 역시 수원 신읍치에 축성을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이와 같은 강유와 신기경의 상소는 수원 신읍치에 성곽을 축조하고 강력한 군병을 설치하여 현릉원과 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는 다름 아닌 정조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했다. 정조가 수원으로 장헌세자의 원침을 천봉한 것은 이 지역을 친위지역화하고 개혁의 진원지로 삼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는 수원 읍치 이전과 상권부양책의 추진, 장용외영 주둔, 화성 축조로 구체화되어 갔다.

정조는 화성 축성에 대하여 “현릉원을 보호하고 행궁을 호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곧 국왕 자신을 변란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시해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추구하는 왕권 강화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변란을 막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수원 신읍치를 건설하여 자신의 배후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부친인 장헌세자를 추존하기 위한 포석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조는 1804년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줌으로써 왕위를 물려받은 순조가 조부(祖父)인 장헌세자를 국왕으로 추존케 하고 자신은 수원에서 상왕(上王)으로 국정을 경영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키고 화성을 축성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정조가 수원을 자신의 정국 구상의 핵심거점으로 선택한 데는 두 가지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첫째, 수원이 삼남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군사적 요지라는 점이다. 수원은 방비를 튼튼히 하고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삼남의 튼튼한 배후지를 바탕으로 서울 이북의 가상의 적에 대

해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지역이었다. 둘째, 수원이 교통상의 요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업이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단순한 군사거점 이상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하삼도(下三道)의 곡창과 군사를 보호하고, 군사적으로 주요한 거점이 되며, 장기적으로 거점의 안정화를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수원이 가장 유리하였다. 따라서 군사력의 중추를 수원에 집결시키고 왕의 거처로서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조는 수원에 자신의 친위부대를 반드시 주둔시킬 필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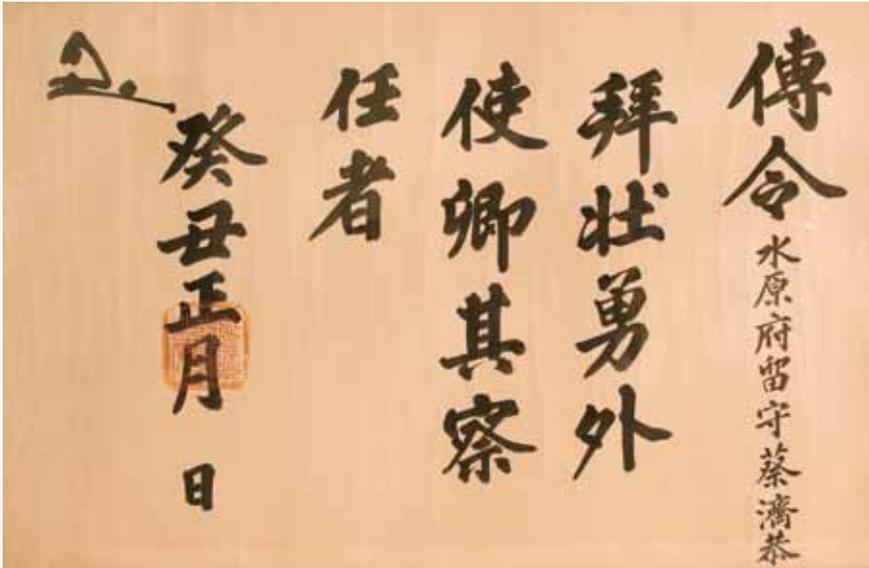
정조는 1793년 1월 12일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하고 화성유수부에 장용외영을 설치하여 화성유수로 하여금 장용외사를 겸하도록 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는 조선 정치사에서 매우 파격적인 일로, 지방의 일개 고을이 국왕의 친위도시로 거듭나는 일이기도 했다. 정조는 화성유수부를 신설하면서 수원 지역이 자신을 비롯한 왕실의 고향과 같은 곳이고 국방상 매우 중요한 곳이므로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국방에 대한 강조는 다른 아닌 자신의 친위군영인 장용외영을 설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

정조는 수원도호부가 왕실과 관방으로 소중한 지역이라는 판단하에 수원부사를 유수로 승격시켜 장용외사(壯勇外使)와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를 겸임하게 하였다. 화성유수는 대신이나 무장으로 국왕의 특지를 받아 임명하기로 하였으며, 정5품 관관이 보좌하게 하였다. 정조는 신설된 화성유수 및 장용외사의 지위를 강화·개성의 종2품의 유수와 격이 다르게 정경(正卿) 2품 이상으로 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고, 초대 화성유수만은 더욱 특별하게 임명하였다.

정조는 초대 화성유수로 1790년부터 좌의정으로 독상(獨相)체제를 유지한 채 제공을 임명하였으니 화성유수부와 장용외영의 신설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국왕을 제외한 최고의 고위관료를 특지로 화성유수에 임명한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조 자신이 추진하는 왕권을 강화하여 새로운 경장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화성유수부의 수장



초대 화성유수 체제공(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이 조정 내에서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만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정조는 앞서의 설명과 같이 장차 자신이 국왕의 지위를 물려주고 화성유수부에 상왕의 지위를 가지고 내려와 살고자 하였다. 이는 곧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가 실시하였던 한성과 함흥을 양경체제(兩京體制)로 두는 것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자 한 것이었다. 곧 주상(主上) 순조가 임어하는 한성부와 상왕(上王) 정조가 임어하는 화성을 양경체제로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정조는 이와 같은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성곽 축성을 계획하였다. 이 계획을 주도하기 위하여 화성유수 체제공을 영의정으로 승진시키고 이명식을 신임 화성유수로 임명하였다. 이명식은 5번의 관찰사와 3번의 관방을 지휘한 최고의 행정가였다.

이명식의 뒤를 이은 화성유수는 조심태로, 정조 즉위 이후 함경북도병마절도

정조가 수원부유수 체제공에게 보낸 전령(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수원부유수가 장용외사를 겸직하게 하라는 내용이다.

사·삼도수군통제사·포도대장·총융사 등 주요 무반직을 역임하였던 인물이다. 조심태의 능력을 인정한 정조는 그를 1789년 장헌세자의 묘소인 영우원 천봉과 수원부 읍치 이전을 통한 신도시 건설의 책임자인 수원부사로 임명하였다.

조심태는 무장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원부 읍치를 조성할 때 시전(市廛)을 설치하여 상업을 활성화시키는 기초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조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조심태는 이후 훈련대장과 총융사·금위대장 등 주요 군영대장을 모두 역임하였다. 정조는 군제 개혁과 관련된 주요 정책 대부분을 조심태와 상의할 정도였는데, 1793년 화성유수부를 신설하며 화성유수부에 있는 군영제도의 개선에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군제 복식 개선방향 등이 그것이다. 특히 조심태는 1794년 화성유수로 임명되어 정조가 훗날 상왕으로 머물 화성 건설의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등 정조의 최측근으로 평가받았다. 결국 화성유수부는 정조의 개혁정치의 기반이 되는 곳이자 새로운 국가 건설의 모델도시라고 할 수 있었다.

정조의 지시로 본격적인 화성 축성이 시작되었다. 정조는 축성 1년여 전인 1792년 12월에 은밀히 사람을 보내 정약용에게 화성의 기본 설계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정조는 정약용이 보다 효율적인 성곽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책을 내려주었다. 그래서 정약용은 중국과 일본의 축성 방식을 검토하여 조선시대 최고의 성곽을 설계하였고, 이를 「성설(城說)」이라 이름 붙여 정조에게 보고하였다.



정조는 정약용이 올린 「성설」을 바탕으로 『어제 성화주략』이라는 이름으로 화성 쌓기에 필요한 기본 지침서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화성의 축성이 시작된 것이다.

정약용이 정조에게 화성 축성을 위해 기본 설계안으로 만들어 바친 글은 모두 7편이다. 곧 「성설(城設)」, 「옹성도설(甕城圖說)」, 「현안도설(懸眼圖說)」, 「포루도설(砲樓圖說)」, 「누조도설(漏槽圖說)」, 「기중도설(起重圖說)」, 「총설(總說)」 등이다. 이 글들은 화성의 기본적인 형태와 규모, 각종 방어시설 그리고 축성공사와 관련된 공사 방법 등을 적은 것이다. 이 가운데 「성설」은 성의 전체 규모나 재료·공사방식 등 전반에 걸친 내용을 기술한 것이고, 「옹성도설」이나 「포루도설」·「누조도설」 등은 성벽에 설치하는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설명이며, 「기중도설」은 석재를 들어올리는 기계장치인 거중기에 관한 설명이다.

화성의 전체 길이는 5.7km로 정조시대 기준으로는 4,600보였다. 처음 정약용이 생각한 화성의 길이는 3,600보였다. 오늘날의 4km에 해당되는 것이다. 정약용이

\_화성을 축조하다  
\_화성의 관문, 팔달문

화성의 길이를 4km로 생각한 것은 정조가 매우 뛰어난 임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조가 늘 닦고자 했던 인물은 바로 중국의 요 임금이었다. 중국에서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하는데, 그중의 한 명이 바로 요 임금이다. 요 임금이 살던 시대의 왕성이 바로 4km이었기 때문에 정약용은 화성을 요 임금시대의 왕성과 같게 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화성을 축성하면서 백성들의 집 밖으로 성곽을 쌓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여 성곽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화성의 전체 길이가 처음과 다르게 5.7km가 된 것이다.

화성은 조선시대 일반적인 성곽과 다른 중국의 성곽 쌓는 방식을 받아들여 새로운 시설물이 만들어졌는데, 치성·옹성·공심돈 등이 그것이다. 성곽을 보다 튼튼하게 하고 외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만든 것이다. 치성은 성벽을 돌출시켜 적의 동태를 감시하거나 공격하기 쉽게 만든 것이고, 옹성은 성문을 방어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공심돈은 적의 동태를 감시하면서 외적을 공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조선시대에 처음 만들어졌다. 특히 성곽 축성에서 높은 언덕과 산지 부분에서 성벽을 쌓을 때 성의 바깥 면을 깎아내려 3분의 2는 아랫돌과 위에 쌓는 돌을 같은 방식으로 쌓고, 그 위의 3분의 1은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도록 쌓았다. 이를 당시에는 규형(圭形) 쌓기라고 하였는데, 성벽의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 위와 아래 부분이 똑같은 표면으로 쌓은 일자형(一字形) 성벽 쌓기의 나쁜 점을 극복하여 과학적 축성방식을 도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화성을 쌓을 때 축성 능률을 올리기 위해 과학기기가 사용되었다. 거중기는 여러 개의 도르레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체를 적은 힘으로 들어올리도록 고안한 기계이다. 다산은 독일인 테레스가 지은 『기기도설(奇器圖說)』에 실린 서양의 기구 그림들을 보고 조선에서 만들어 사용할 만한 새로운 기구를 고안한 것이다. 거중기와 함께 11m 높이의 크레인인 녹로를 만들었다. 또한 유형거는 11량이 만들어졌는데, 이 수레는 짐을 싣고도 경사지에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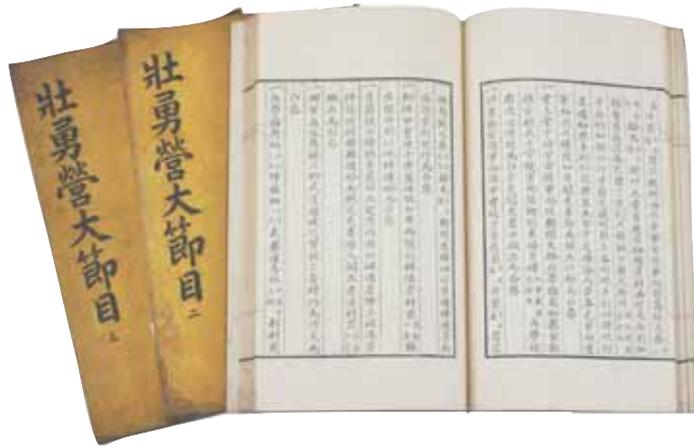
목재 등을 운반하는 데 편리하고, 바퀴 또한 튼튼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와 같은 유형거와 거중기는 축성 기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4만 냥의 비용 절감을 가져와서 이를 고안한 정약용은 정조의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_화성 건설 모습을 재현한 전시 모형(수원화성박물관 소장) 거중기, 녹로, 유형거, 석저 등의 기구를 이용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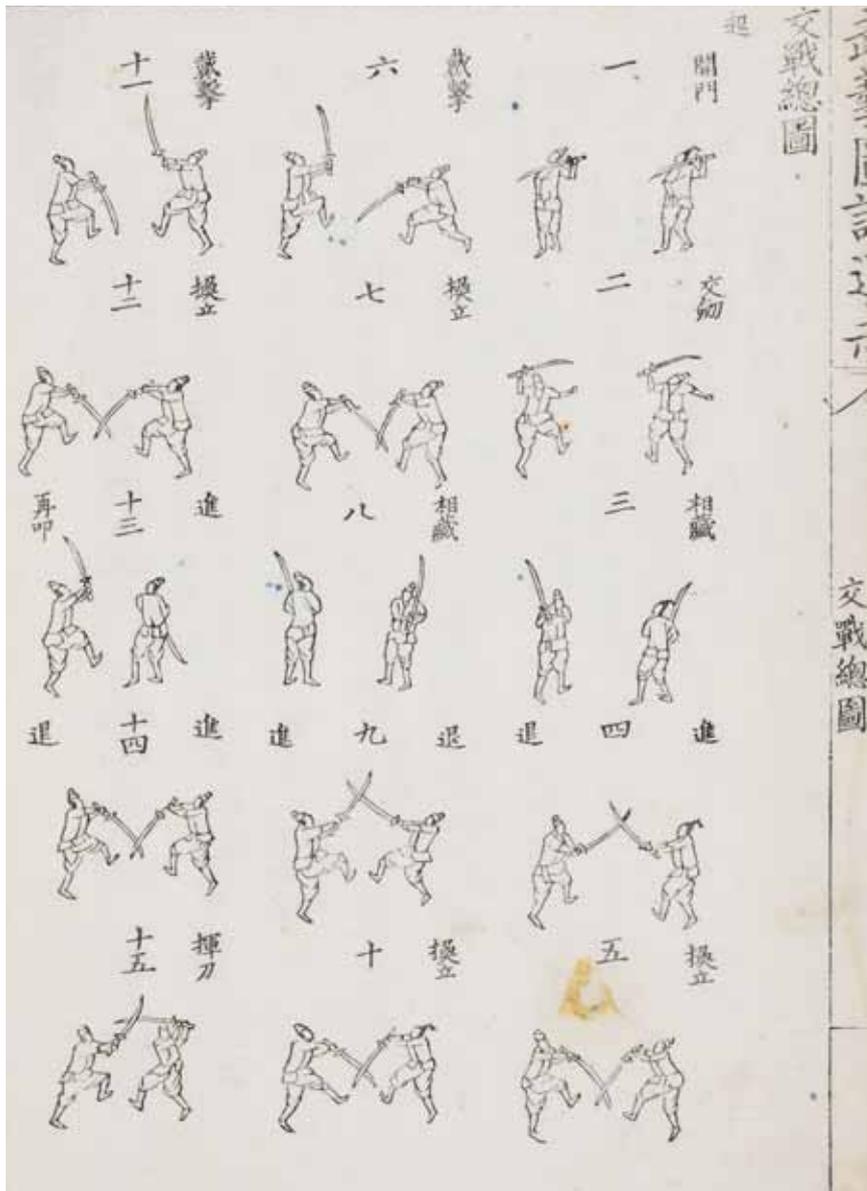
\_여기산 채석장 전시 모형(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정조가 개혁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인재 양성과 군사제도의 개혁이었다. 인재 양성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규장각 설치와 초계문신제도의 운영이다. 물론 서얼허통 역시 인재 양성의 일환이기도 하다. 규장각을 통한 국정 이념의 정립과 각종 연구 및 출판사업 등은 조선의 문화를 한 단계 올리며 문예부흥시대를 열었다.

정조는 문(文)에 대한 무(武)의 차별이 외세의 침입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어력을 침해한다는 인식 속에, 문무(文武)가 하나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문치규장(文治奎章) 무설장용(武設壯勇)’을 내세우면서 무를 문과 병행 발전시키려 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정조는 무를 통한 국방 개혁의 중심처로 장용영을 선택하였다.



\_1793년 간행된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장용영의 제원을 기록한 요람 형식의 책으로, 장용영 제조 이하 관원들의 체제와 군제를 기술하여 중앙 오군영과 지위체제가 다른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더불어 장교들의 승진에 대한 사항, 국왕을 알현할 때 복식, 장용영 내영 군사들의 집단거주지역과 그들이 청계천을 청소하는 업무 등 생활사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지고 있어 조선 후기 군제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무예도보통지』(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국왕이 올바른 정치사상과 운영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정책을 추진하고 국왕 자신을 보호할 군사적 힘이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할 따름이다. 따라서 정조는 장용영 창설을 통해 강력한 군권(軍權)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기존 오군영을 축소하여 민생 안정을 추진하였다. 당시 국가 재정 지출의 56%가 각 군영에 지출되는 비용이었기에 군제 개혁 없이는 여타의 개혁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기존 오군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용영을 창설한 것이다. 하지만 정조의 장용영 창설은 단순한 국방 개혁정책만이 아닌 국가 전반의 개혁을 위한 핵심 선결요건이었다.

현재까지 정조의 장용영 창설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왕권 강화 차원에서만 이해되고 있다. 물론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용영을 창설하였다. 군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국왕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정조는 자신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군권을 장악해야 했다.

장용영 창설은 또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는데, 민생 안정이 그것이다. 정조는 장용영을 기반으로 조선 초기 군제를 오위제(五衛制)로 복구하여 군정(軍政)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 반계 유형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실학자들은 오위제의 복구를 촉구하였는데 이는 병농일치를 목표로 한 사회 개혁의 한 방편이기도 했다. 정조는 기존의 중앙 오군영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군영을 창설하여 오위체제를 실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둔전 개발과 민생 안정을 추구하려 하였다.

장용영 창설은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의 뜻을 이은 자신의 생부 장헌세자에 대한 정치적 복권의 시도이기도 하다. 장헌세자는 무(武)를 중요하게 여겼고, 이를 위해 기존의 무예를 모아 『무예신보』를 편찬하였다. 정조는 1789년 장헌세자의 묘소를 수원읍치로 옮긴 직후 그가 편찬을 주도했던 『무예신보』에 마상무예 6기를 추가하여 『무예도보통지』를 장용영 주관으로 편찬하고, 이 무예를 장용영의 근본 무예로 삼았다. 결국 정조는 장용영을 통해 장헌세자의 비원이었던 북벌을 계승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사도세자의 국왕 추존의 기반을 닦음으로써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장용영 군사들을 강도 높게 훈련시켜 조선 최강의 군대로 성장시켰다.

\_무예24기 시범 무예24기는 장용영에서 편낸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24가지 기예를 말한다.

\_장용외영 성조(城操) 재연



“바람으로 머리 빗고, 빗물로 목욕하라.”는 정조의 명령은 스스로 책임을 과시했던 장용영 군사들의 훈련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장용영 군사들은 정조의 기대에 부응하며 들판에서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며 더위를 먹고 추위를 견디며, 거센 바람과 폭풍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울러 1793년 수원도호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킨 뒤 장용영 내외영제를 확립하여 장차 자신이 1804년 왕위를 이양하고 상왕으로 거처할 화성에 대한 강력한 군사체제를 준비하였다. 정조는 자신의 친위근거지인 화성에서 상왕의 권한인 인사권과 사법권 그리고 군대통수권을 통하여 오랫동안 추진해 온 개혁정책을 완수하고자 하였다. 장용영은 정조의 개혁정책 추진의 실질적인 추진력이었던 것이다.

\_장용외영 야조(夜操) 연거(演炬) 재연 야간훈련 당시 장용영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성을 에워싸고 화성 안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등불을 밝혔던 것을 연거라고 한다.

정조는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화성에서 치르면서 잔치 비용을 절감하여 그중 1만 냥으로 만석거라는 저수지를 만들고 토지를 매입하여 ‘대유둔(大有屯)’ 혹은 ‘대유평(大有坪)’이라고 하는 국영농장을 만들었다. 토지 없이 길거리를 헤매는 유·이민을 받아들여 이곳에서 농사를 짓게 하여 경제적 자립을 꾀하게 하였고, 그들이 농사 지은 수확량의 30%를 세금으로 내게 하여 화성에 주둔한 장용영 외영의 군비로 사용하였다. 수확량의 거의 대부분을 조정과 향리들이 착취하던 시절에 30%만 거두어 갔던 것은 정조의 위민정책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_농지에 물을 대는 수차(수원화성박물관 전시모형)

만석거는 1795년(정조 19) 1월 축조공사가 시작되어 5월 18일에 5,960냥을 들여 완성되었다. 만석거의 수로 입구에는 수문을 설치하여 닫을 수 있게 하였다. 물이 많이 고이면 수문을 열어서 물을 빼고, 물이 모자라면 수문을 닫아서 물이 빠져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둘레가 1,022보, 요즘 수치로 하면 약 1,226m의 넓은 저수지를 만들었다. 가장자리 수심은 7척(210cm), 가운데 수심은 11척(330cm)이고 물은 광교산에서 내려오는 광교천을 사용하였다. 이 저수지의 건설로 장안문 밖의 대유평이라는 나라 소유의 대규모 논은 농사가 제대로 안 되던 땅에서 농사가 잘되는 땅으로 바뀌어 엄청난 풍년을 이룰 수 있었다.

만석거를 건설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1797년(정조 21)과 1798년(정조 22)에 연이어 발생한 재해를 거치면서 나타났는데, 당시 수원 지역은 이를 통해 극심한 가뭄을 이겨 냈던 것이다. 만석거를 통해 가뭄을 극복하자, 정조는 이에 힘입어

공원으로 바뀐 만석거 만석거의 남쪽과 동남쪽(사진의 왼쪽)으로 수문의 흔적이 남아 있다.



다른 저수지들도 건설하였다. 그래서 서호라 불리는 축만제와 현릉원 입구의 만년제를 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저수지 축조와 둔전 설립정책은 균역법을 통해 거두어들인 백성들의 한 맺힌 군포 대신, 국영농장에서 생산된 수확량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군대를 운영하여 조선 후기 백성들의 원성이 가장 높았던 군정(軍政)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한 정조의 깊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국영농장으로 찾아온 이들에게 토지 구역을 나누어 주는 ‘마름’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름에 대한 인식은 천편일률적으로 소작인들을 착취하는 지주들의 앞잡이였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마름은 저주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정조는 만석거를 중심으로 하는 국영농장의 마름을 선정할 때 그 지역 거주민들과 유·이민들 중에서 토지를 불하받아 농사짓는 모든 이들이 투표로 가장 신망이 높은 사람을 선발하게 하였다. 화성유수부의 관리나 서리들 혹은 장용외영의 장수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마름을 선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농사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직접 마름을 선발하게 하였으니 정조 대에 민주적인 방식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 정조시대는 실학의 시대였다. 이용후생과 경세치용의 정신으로 무장된 관료 실학자와 재야 실학자들이 곳곳에 넘쳐났다. 정조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결과 1789년 7월 수원부 읍치를 팔달산 일대로 이전하고 새로운 수원시전을 형성하면서 정조는 새로운 시장을 구축하였다.

새로운 시장을 건설하여 화성의 경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체제공과 비변사는 서울의 부호 20호를 선발하여 수원으로 이주시킨 후 중국과 무역하는 품목인 관모(官帽)와 인삼의 유통권을 독점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절목(오늘날의 법)을 입안하였다. 상인들의 자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영남감영의 남창에 속한 5만 냥과 평양감영의 5만 냥을 화성 이주 상인들에게 지원하여 밀천을 삼도록 하였고, 이 상인들에게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화성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삼게 하였다.

모자와 인삼이 주된 무역 품목이지만 만약 더욱 중요한 물품이 생기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무역의 품목에 넣어 마음대로 무역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당시 수원으로 이주하여 상업행위를 하려는 이들이 대부분 한양의 상인들이었고, 그중에서도 의원과 역관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의원들 역시 조선 후기에 상업행위에 뛰어들었고, 역관들은 조선 무역의 중추였다. 이들이 자신들의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수원에서의 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준 것은 조선의 상업을 움직이는 서울의 대상(大商)을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은 정조의 결정은 화성을 하루 속히 대도회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였다. 하지만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좋은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한양의 부호들은 서로 수원으로 내려오려고 신청을 하였다. 20호만이 내려올 수 있다고 하였지만 모자와 인삼의 유통권을 독점시켜 주고, 시전 설치비용을 조정에서 대여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려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과도한 열기가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 정조가 총애하는 좌의정 이병모가 수원의 시전 설치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정리하여 정조에게 6가지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였다. 첫째 서울의 부호가 수원으로 내려갈 경우 서울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둘째 모자와 인삼만으로 수원을 발전시키기 어려우니 다양한 품목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셋째 서울의 부호들이 정작 수원에 완전히 거주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원의 경제권을 장악하여 가난한 수

원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즘으로 치면 1%가 99%를 장악할 수 있기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20호의 상인들이 1만 호에 이르는 수원 백성들의 경제권을 장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넷째 특정상인 20호가 인삼을 독점하게 되면 나머지 상인들이 인삼 유통을 할 수 없고, 다섯째 서울의 특정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원 시전 건립을 허가해 줄 때 나머지 상인들이 소외될 수 있으며, 여섯째 새로운 수원 시전 육성정책은 독점상인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왕도정치의 근본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특정세력에게 독점권을 주면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여 상업이 흥하게 할 수 있지만 이는 백성을 모두 이롭게 하고자 하는 왕도정치의 근본이념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조는 이병모의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불편한 6가지의 진실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병모의 의견에 우의정 채제공 역시 동의를 하였다. 비변사에서 제안한 화성 상업 육성법이 그대로 시행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므로 철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이었다.

이에 화성유수 조심태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한양의 부상(富商)도 일부 받아들이지만 실제 수원의 상인들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수원에 거주하는 전체 백성들 중에 상업에 종사하고 싶은 이들에게 조정에서 총 6만 냥을 지원하여 시전을 설치하고 장사를 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다. 비록 외부에서 대형 상인들이 온다고 하여도 수원 출신들이 함께 장사를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절충의 의견에 따라 수원은 새로운 상인세력이 공존하게 되었다.

한양의 부상과 수원의 상인 그리고 전국 경향 각지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특정의 독점권 없이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조선의 무역을 주름잡는 역관 상인들의 일부가 수원으로 와서 인삼과 모자를 유통하여 수원 지역 경제를 활성화도록 용인해 주어 다양한 모습으로 상업이 발전되었다.

장안문과 팔달문을 연결하는 남북대로에 시전을 설치하면서 거대한 기와집이



들어섰다. 정조는 남북대로의 시전은 반드시 기와집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다른 그 어떤 시장보다 규모와 위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국왕이 기획한 시장은 일반 도시에 만들어진 5일장, 7일장의 정기시장과는 다른 시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앞서의 이야기처럼 많은 논의 속에서 수원 상인과 한양의 상인 그리고 각 지역의 상인들을 모집하였다. 이들 부상들은 단순히 조선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이 아니라 중국과 교통할 수 있는 거대한 상업체계를 꾸리고 기존의 상업패턴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수원은 조선의 상권을 좌지우지하는 신흥 상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

\_그림으로 표현된 증로거리(윤한홍 그림,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상대영\_(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전임교수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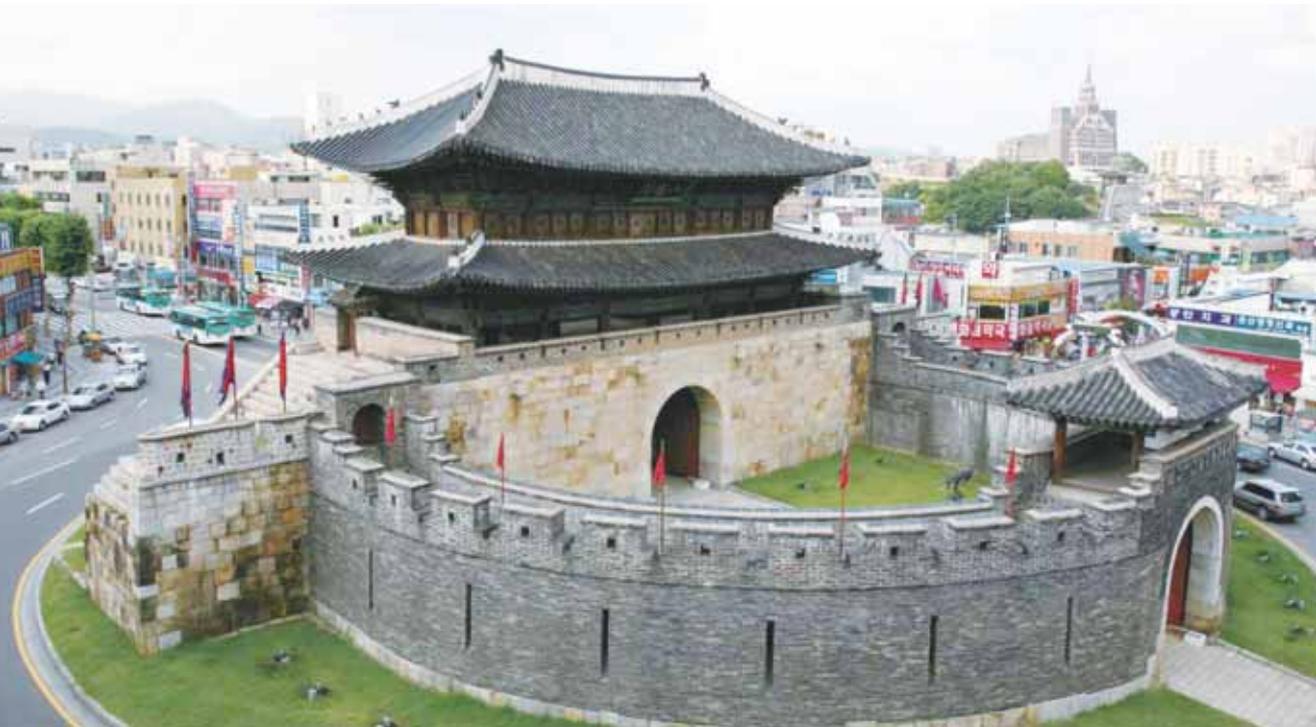
,

—

화성을 한 바퀴 돌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팔달문에서 시작하기를 권한다. 시간이 없어서 일부 구간만 볼 때는 화서문이나 창룡문에서 출발해 적당한 곳에서 끝내야 하겠지만, 한 바퀴 돌 때에는 팔달문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화성 전체의 국면을 먼저 본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화성 전체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곳은 수원의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팔달산의 정상이다. 팔달산은 해발 128m밖에 되지 않는 낮은 산이지만 주변이 평야지대이고 산들은 저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화성을 둘러보는 데 이보다 좋은 곳이 없다.

그런데 팔달산 정상으로 바로 올라가 그곳에서 답사를 시작하지 왜 팔달문에서



시작할까? 정상에서 시작하면 정상에서 끝내야 하니 마지막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평지에서 시작해 평지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팔달문을 화성 한 바퀴 돌기의 출발점으로 권하고 싶다.

화성은 평지와 산지에 걸쳐 쌓은 평산성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하자면 지형에 따라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팔달산 능선을 따라 쌓은 구간으로 팔달문에서 화서문까지, 둘째는 평지에 쌓은 구간으로 화서문에서 화홍문까지, 셋째는 야트막한 구릉 위에 쌓은 구간으로 화홍문에서 팔달문까지이다. 이 중 팔달산 능선을 따라 쌓은 산성 구간부터 화성 한 바퀴 돌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팔달문에서 팔달산으로 오르려면 오른쪽으로 난 사잇길로 접어들면 된다. 사잇길이 시작하는 지점은 원래 남서적대가 있었던 곳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화

\_화성 답사의 출발점 팔달문

성이 수원을 성내와 성외로 갈라놓아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파괴되어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화성 건축물이 복원된 현재에도 이곳의 적대는 복원될 가망이 거의 없다. 주변에 건물들이 들어차 있고 이곳을 터전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중요하니까 말이다.

길을 따라 팔달산 방향으로 조금 가다 보면 이내 평지와 산자락이 만나는 곳에 이른다. 팔달산으로 오르는 시발점이기도 한 이곳을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가는데, 사실 이곳은 과거의 은구(隱溝) 자리이다. 은구란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만든 도랑이란 뜻이다. 성을 쌓을 자리에 벽돌을 깔고 그 위로 짧은 돌기둥을 3줄로 세우고 4개의 도랑을 만들었다. 도랑 위에는 돌을 얹어 성을 쌓고, 그 안쪽은 화성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흙을 두텁게 채우는 내탁(內托) 방식을 사용하였다. 팔달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작은 내를 이루어 화성행궁부터 이곳



..팔달문 관광안내소  
..팔달문에서 팔달산으로 오르는 길

까지 흐르다가 이곳에서 가는 물줄기가 되어 성 밖으로 빠져 나갔다.

그런데 정조는 이곳을 단지 물이 빠져 나가는 곳으로만 만들지 않았다. 성 안 쪽 개천 옆에 두 개의 못을 파게 한 것이다. 성벽에서 먼 곳은 상남지(上南池)라 부르고, 성벽에 가까운 곳은 하남지(下南池)라고 불렀다. 상남지에는 중앙에 섬을 두고 하남지에는 두 개의 섬을 두고서 그 가운데에 정자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두 연못에는 하얀 연꽃과 붉은 연꽃을 심고, 못 주변으로는 버드나무를 에둘렀다.

상상해 보았는가. 모두가 더위에 지친 뜨거운 여름날, 붉고 흰 연꽃이 못 한가득 피어 있고 축축 가지를 늘어뜨린 버드나무가 바람 따라 이리저리 춤추는 장관을 말이다. 답사의 즐거움은 남아 있는 것을 보는 데만 있지 않다. 이처럼 남아 있지 않아도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흔적만 있거나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곳에서도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할 때 즐거움이 몇 배로 커진다.

—팔달문~서장대 구간



자,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산 쪽으로 움직여 보자. 이곳부터 서남암문까지는 화성 성곽 중 가장 경사가 급하고 험한 곳이라 오르는 데에 힘이 들고 숨이 찰 것이다. 그래도 오르고 나면 왜 이곳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알게 될 것이니 눈 딱 감고 올라가 보자.

조금 가다 보면 남치(南雉)가 나온다. 치(雉)는 평을 말하는데, 평은 제 몸을 숨기고 밖을 엿보기를 잘하는 새이므로 그 모양에서 취한 것이다. 치는 성면(城面)에서 ‘ㅁ’ 모양으로 밖에 붙인 것인데, 높이는 성과 같고 바깥쪽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현안(懸眼)이라는 구멍이 한 개 있다. 만약 적이 쳐들어와 성벽에 붙게 되면 아군은 화살이나 총탄을 쏠 수 없게 되고, 적군은 갈고리나 몽둥이로 성벽의 밑부분을 허물 것이다. 그러나 좌우로 마주하는 치에서 탄환과 화살을 번갈아 쏘고 현안으로 뜨거운 기름이나 물을 붓는다면 적이 쉽사리 성을 허물거나 타넘을 수 없다. 화성 건설 이전에 지어진 성에도 치성이 있기는 하였지만, 흉내를 내는



남치 내부

「홍남파노레비」 남포루 근처 팔달산 회주도로와 성곽 둘레길이 만나는 곳에 세워져 있다.

정도였지 화성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치밀하게 구성된 곳은 없었다.

남치를 보면서 숨을 고르고 다시 성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팔달산 중턱을 가로 지르는 도로가 나오는데, 오른쪽으로 「고향의 봄」 악보가 새겨진 「홍난파노래비」가 보인다. 친일 경력이 알려지면서 큰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원수가 노랫말을 쓰고 홍난파가 곡을 붙인 「고향의 봄」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잘 표현한 명곡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아파트에 둘러싸여 사는 세대들은 과연 「고향의 봄」 가사를 이해하고 곡에 스며 있는 정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의문이다. 예전처럼 담장이 둘러쳐져 있고 울타리 안에 작은 텃밭이나 화단이 있는 집에서 살았던 세대라면 모르지만.

그런데 이 노래비 뒤에는 화성 건설 당시의 흔적을 보여 주는 유물이 있는데 화성을 찾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곳을 그냥 지나친다. 자! 노래비의 뒤를 보자. 무엇이 보일까? 노래비를 감싸듯 서 있는 큰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화성 건설의 전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화성의 영화와 오욕을 지켜본 산 증인이다.

바위를 돌아보면 바위 옆면과 윗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인다. 이 구멍은 바위에서 돌을 어떻게 떼어 내었는지를 보여 주는 흔적이다. 이 구멍에 팽창력이 강한 나무토막을 박고 물을 부으면 물을 머금은 나무의 팽창하는 힘에 바위가 쪼개진다. 그러면 적당한 크기로 잘라 필요한 곳으로 운반해 사용한다. 화성은 주로 돌로 쌓았기 때문에 많은 돌이 필요하였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돌이 발견되지 않아 예전처럼 흙으로 쌓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돌맥이 발견되었다. 인근의 숙지산과 여기산, 그리고 바로 이곳 팔달산에서 말이다. 얼마나 기뻐할까, 정조는?

이 바위도 잘려져 화성의 어딘가에 자리할 뻔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구멍만 뚫린 채 남게 되었다. 어쨌든 이 바위는 성벽의 돌이 되어 버린 다른 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다시 성벽 옆으로 난 길을 잡아 오르면 아담하게 지어진 건물이 나온다. 자세



히 보면 조금 전에 보았던 남치처럼 성 밖으로 튀어 나간 치성 위에 세워져 있다. 포를 배치한 남포루(南砲樓)이다. 화성은 이전에 만든 성들과는 달리 총과 포를 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화성을 쌓았던 정조 대는 화약무기가 발달한 시기이다. 이전에는 멀리 있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 활이나 노(弩)를 이용하였지만, 이 시기에는 총이나 대포와 같은 화약무기로 적을 제압하였다.

화성에는 포를 쏘기 위한 포루가 다섯 곳 있는데, 아쉽게도 모두 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안을 볼 수 없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듯이, 보지 않으면 잘 와 닿지 않는 법이다. 속을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에 그저 속절없이 문고리만 흔들어 보고는 단힌 문을 원망할 따름이다. 다섯 포루 중 하나쯤 개방하면 어떨까?

\_남포루(南砲樓)

숨 가쁘게 올라왔지만, 힘들게 올라온 김에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조금만 오르다 보면 평지가 보인다. 숨이 턱에 차도록 힘들게 올라온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쉬는 곳이다. 일부러 힘든 곳으로 이끌었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에게 이곳에서 뒤를 돌아보게 하자. 몰아쉬던 숨을 멈추고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를 괜히 힘들게 했겠어.” 하며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웃음을 보여 준다. 화성 일주에서 고생 끝이자 즐거움이 시작되는 곳이다. 이제부터는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평지에 올라서면 왼쪽으로 서남암문(西南暗門)이 보인다. 암문은 우리 군사들이 적군 모르게 안에서 성 밖으로, 또는 밖에서 성 안으로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은밀한 문이다. 그러다 보니 적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자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서남암문 밖은 이상하게도 성 밖이 아니라 용도(甬道)라는 길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남쪽과 서쪽의 모서리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누각이라는 이름의 서남각루, 즉 화양루(華陽樓)가 우뚝 서 있다.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욱이 암문 위에는 “이보쇼! 나 여기 있소.”라고 하듯 멀리서도 보이는 포사라는 건물까지 올라 있으니 더더욱 그렇다. 왜 그랬을까?

화성을 처음 설계한 사람은 잘 알다시피 정약용이고, 마지막으로 손을 본 사람은 정조 임금이다. 지금이야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자가 현장을 둘러보고 정밀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량한 정확한 지형도를 바탕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만, 예전에는 설계자가 직접 가 보지 않고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올린 지형도를 바탕으로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화성에서는 바로 이 지역이 그런 경우이다. 정약용과 정조도 설계 전에 이곳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

암문 앞의 능선을 따라 만들어진 용도나 그 끝의 화양루에 서서 보면 성 안의 남쪽과 동쪽 일대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따라서 이곳을 적에게 내주면 성 안의 움직임이 살살이 드러나고 남동쪽 일대를 적이 내려다보며 공격하게 된다. 그래서 이 구역은 처음 설계와는 다르게 축성되었을 것이다.

앞에서도 잠시 말했듯이 암문 위에는 안팎으로 설치한 평평한 여장 사이에 서남포사(西南舖舍)가 있다. 서남포사는 암문 위 높은 곳에 자리하여 멀리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군졸을 두어서 경보를 알리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포사에는 온돌을 놓고 사면에 판문(板門)을 설치하고, 그 바깥쪽에 위협감을 주기 위하여 무서운 형상의 짐승 얼굴을 그렸다.

암문 밖 용도 구간은 화성에서 유일하게 협축 기법으로 쌓았다. 협축이란 성의

서남암문과 포사





안팎 모두를 돌로 쌓아 올린 형태인데, 용도는 물자 운반이 편하도록 수레 2대가 엇갈려 지나다닐 수 있게 그 위에 만든 길이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협축 기법으로 쌓았고, 그 위로 용도가 나 있다.

용도의 끝에는 화양루가 있는데,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높고 경치 좋은 곳에 우뚝 서 있다. 치성처럼 성 밖으로 튀어 나와서 성벽 밑으로 붙는 적을 공격하기 쉽고, 별안간 높이 솟아 동쪽과 남쪽·서쪽의 들을 멀리까지 내려다볼 수 있다. 만약에 이곳을 지키지 못해 적군이 차지한다면 성의 허실이 모두 드러나게 되므로, 화성 방어의 요충지라고 하겠다.

화양루에서 용도를 따라 걷다가 암문을 지나면 왼쪽으로 돌아보자.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데 ‘팔달위후부미국(八達衛後部尾局)’이라고 새겨진 돌을 볼 수 있다. 부대 간의 경계를 표시한 돌인데, 남쪽을 지키는 팔달위의 후부 미국이 관할한다는 표시이다. 화성을 지키는 장용영 외영의 군사들은 5위로 나뉘었는데, 5위란 화



左 서남암문을 지나 긴 용도 끝에서 있는 화양루  
右 화양루



성 중앙의 신평위, 북쪽의 장안위, 남쪽의 팔달위, 동쪽의 창룡위, 서쪽의 화서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경계석은 화성 전역에 걸쳐 있었을 터이지만 지금은 방화수류정 부근, 창룡문과 봉돈 부근에만 몇 기 남아 있을 뿐이다.

서삼치를 지나면 성 밖으로 통하는 길이 나 있다. 원래는 성벽으로 막혀 있어야 하지만, 관람의 편의를 위해 위로는 사람들이 성벽을 따라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밑으로는 성 안팎을 드나들 수 있도록 더 놓았다. 이곳을 통해 밖으로 나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화장실이다. 팔달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화장실이다. 수원은 화장

실이 깨끗하기로 소문난 곳이다. 예전의 한 수원시장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화장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수원의 화장실들을 개선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별별 얘기를 다 들었지만, 수원을 찾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원의 화장실이 도대체 어떻게?”라며 보고 배우러 왔다. 그래서 요사이 대한민국의 웬만한 공중 화장실은 깨끗하다. 그것이 수원에서 시작하였으니, 새로운 화장실 문화를 탄생시킨 수원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 않을까?

이 화장실에서는 화성의 서쪽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지금은 고층아파트들이 앞을 가리고 수많은 건물들이 들어차 있지만, 정조 임금이 군인들을 위한 둔전(屯田)으로 이곳을 개발했을 때에는 드넓은 논과 들판이었다. 눈을 감고서 마음의 눈으로 그 정경을 상상해 보자. 벼가 자라는 푸른 들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질 것이다.

팔달산을 걸어서 오르기 힘든 사람들은 경기도청 쪽으로 난 길을 따라 이곳까

\_화서위 경계 표석 서남암문 옆에는 팔달위후부미국(八達衛後部尾局)과 화서위전부두국(華西衛前部頭局) 표석이 있다.



지 올라가 보자. 차가 올라올 수 있으니 이곳에서 서장대까지라도 꼭 가 보기를 권한다. 팔달산 정상의 서장대를 오르지 않았다면 수원 화성을 봤다고 할 수 없으니 하는 말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성 밖으로 돌아보자. 성 안으로 돌면 건물은 잘 볼 수 있지만 정작 성벽은 보지 못한다.

화성은 안쪽으로도 길이 나 있지만, 성 밖으로도 성벽을 따라 길이 나 있다. 화성을 둘다 보면 많은 수원 시민들이 성 밖 길을 따라 걷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

\_팔달산 화장실



\_서쪽 성벽 외부



다. 건강을 위해 걷겠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돌다 보면 자연스레 화성에 대한 애정이 생기지 않을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데, 그 반대로 눈에서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질 것이다.

화성은 바깥으로는 큰 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안쪽으로는 이 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과 작은 돌들로 다지는 내탁(內托) 기법으로 쌓았다. 큰 돌은 다시 대·중·소로 나뉘어 큰 돌은 아래에, 중간 돌은 중간에, 작은 돌은 위에 쌓았다. 그리고 그 위로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돌인 사고석으로 여장을 만들었다. 성 안쪽에서는 이 여장만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성벽과 여장 사이에는 검은색의 벽돌이 끼워져 있는데, 구간에 따라서는 돌을 벽돌 크기로 잘라 끼운 곳도 있다. 이 돌의 이름은 미석(眉石)인데, 여기에는 과학정신이 깃들어 있다. 성벽 안쪽의 흙은 판축기법으로 다졌기 때문에 웬만한 비에 끄떡없지만, 성벽의 틈을 타고 안으로 빗물이 들어가면 안쪽에 다져 놓았던 흙과 작은 돌들 사이에 틈이 벌어져 약해지기 쉽다. 이를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 미석을 놓은 것이다.

사람의 얼굴에는 눈 위에 눈썹이 있어서 이마를 타고 내려오는 땀이나 빗방울을 막아 준다. 미석도 마찬가지이다. 성벽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야 어쩔 수 없지만, 여장을 타고 내려오던 빗물이 미석을 만나면 성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얼마나 훌륭한 생각인가?

성벽의 돌은 대개 사각형이지만 네모반듯하지 않아 틈이 있다. 그 틈에는 돌을 끼워서 돌들이 엇나가는 것을 방지하였다. 그런데 중간중간 돌들이 툽니바퀴처럼 서로 엇물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폐 한 장을 꺼내서 그 틈으로 밀어넣어 보자. 너무 정교하게 물려 있어서 엇물린 돌들 사이로는 지폐 한 장 들어갈 틈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모든 돌들을 정교하게 잘라 물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공력이 많이 들어 축성 기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정조 임금과 축성에 참여한 신하들은 중간중간에 정교하게 자른 돌들을 끼워 넣고 나머지 돌들은 엇나가지 않

도록 그 사이에 돌을 끼워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영성하게 잘라 틈이 벌어진 돌들로만 쌓았다면 ‘돌을 다루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생각하였겠지만, 이처럼 정교하게 잘려진 돌들과 함께 보고 있노라면 우리 선조들이 돌을 얼마나 잘 다루고 돌의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성벽 한쪽으로는 소나무들이 뻗뻗하게 늘어서 있다. 성을 쌓은 후 팔달산에 소나무를 심으라는 정조의 명령이 있었지만 성 밖에도 소나무를 심었는지 궁금하다. 나무가 자라면 시야를 가리고 쳐들어온 적들이 몸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소나무들은 그때의 소나무들이 아니고 근래에 조경을 위해 심은 것들이다. 한 쪽은 색깔이 다른 돌들로 쌓인 성벽이고 다른 한쪽은 사철 푸른 소나무이니 그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것 같다.



\_서포루(西砲樓)



이런 행복한 느낌으로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앞을 가로막는 성벽이 나온다. 앞에서도 보았던 치성으로, 이름은 서삼치인데 화성의 서쪽 문인 화서문에서 세 번째로 나오는 치성이란 뜻이다.

서삼치에서 서장대를 향해 가다 보면 넓적한 바닥돌이 눈에 띈다. 200여 년 전 화성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이 애타게 찾던 돌맥 흔적이다. 돌맥을 찾지 못해 일부 구간만 돌로 쌓으려 했던 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이곳에는 성벽의 기반으로 아예 자연석을 이용한 곳도 있다. 성벽을 따라 걷다가 이같이 색다른 곳을 발견하면 왠지 모를 쾌감이 있다.

서삼치 다음으로 만나는 곳이 서포루(西舖樓)이다. 성 안쪽으로 돌 때는 포루의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데, 성 밖으로 도니 포루의 위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포루(舖樓)는 포를 쏘는 포루(砲樓)와 발음이 같아서 많은 사

\_성 안에서 본 서포루(西舖樓)



\_서포루 내부 포루의 내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_서포루에서 바라본 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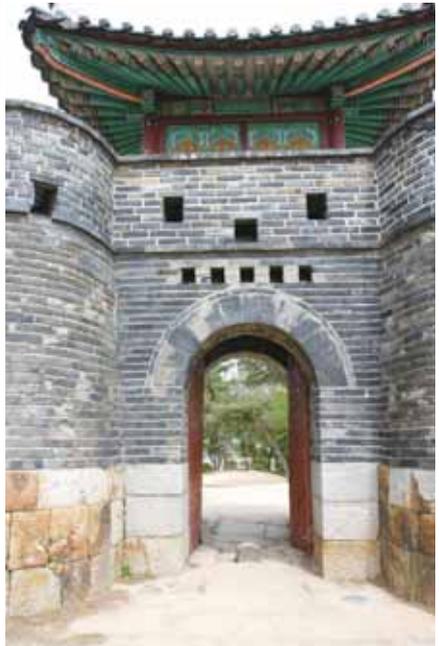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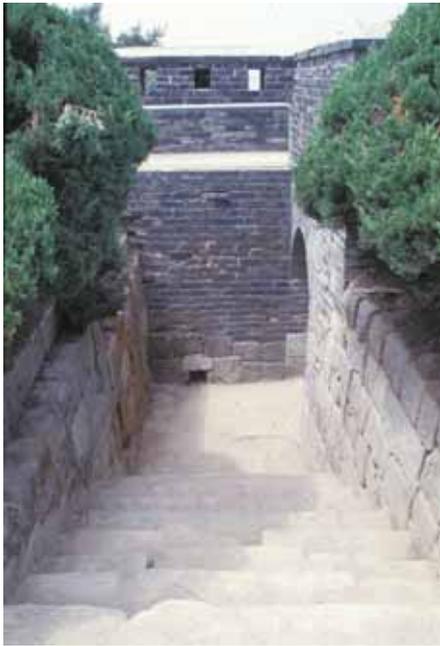


람들이 헛갈려 하는데, 밖에서 보면 두 포루의 외형이 달라서 금방 알 수 있다.

포루는 치성에 있는 군사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지었다. 성벽의 여장과는 달리 포루의 여장은 3면 모두 벽돌을 사용하였고, 총구멍과 액체를 흘려보내는 구멍을 뚫어 놓았다. 누각 위 4면에는 널찍한 판문을 설치하였는데, 바깥으로 보이는 3면에는 총을 쏠 수 있도록 조롱박 모양의 구멍을 내어 놓았다. 성 안쪽에서는 누각과 누각으로 오르는 벽돌 층계, 여장을 보강하기 위해 하단에 이중으로 쌓은 벽돌을 볼 수 있을 뿐인데, 성 밖에서는 이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다 보면 지금까지의 성벽과는 색다른 모습이 연출된다. 화성의 성벽 대부분은 돌로 쌓고 그 위의 여장은 사고석을 이용하였는데, 이곳은 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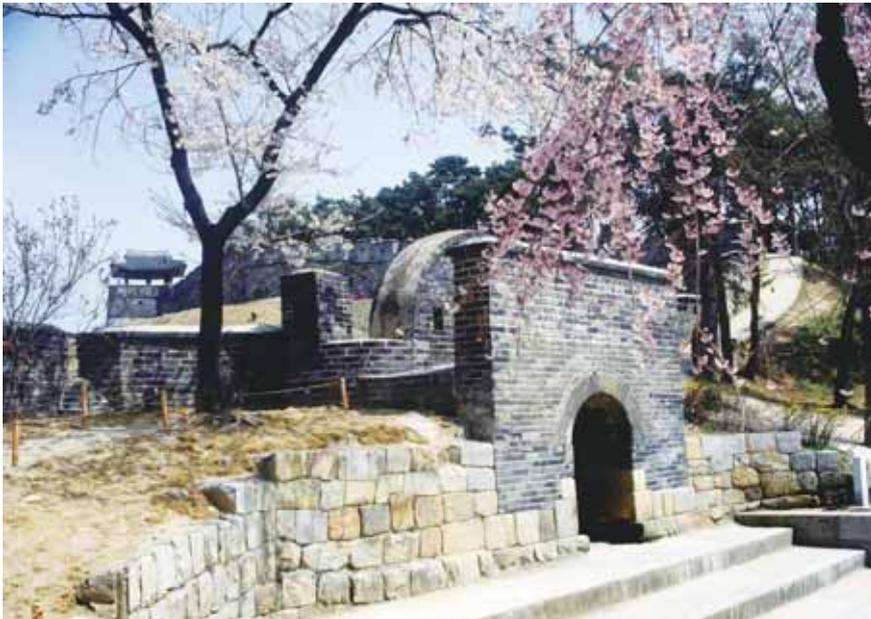
\_누각의 판문을 들어올린 북포루



\_서암문 다른 암문들과 달리 출구가 옆으로 비틀어져 있어 밖에서는 문이 보이지 않는다.

\_서암문으로 가는 통로

\_성 안에서 본 서남암문 서남암문은 팔달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적을 감시하기 위한 포사를 두었다.



동암문 각건대와 동장대 사이에 위치한다.  
성안에서 바라본 북암문



의 하단부만 돌로 쌓고 중단부 이상과 여장은 벽돌로 쌓았다. 왜일까?

예전에 성 안쪽으로 화성을 돌 때는 ‘아, 여기에 작은 문이 있었네.’ 하며 별 생각 없이 서암문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고작이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곳은 다른 곳과 무엇인가 다른 게 느껴졌고, 성벽을 따라 밖으로 건다 보니 확실히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왜 이곳의 성벽을 벽돌로 쌓았는지를 알게 되자, 세심한 곳까지 입을 줄 아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사가 절로 났다.

이곳을 돌이 아닌 벽돌로 쌓은 것은 서암문의 존재 때문이다. 서암문은 성벽이 안쪽으로 꺾여 들어간 후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문을 더욱더 감추려는 시도가 바로 성벽을 벽돌로 쌓는 일이었다. 가까이에서

성 밖에서 본 북암문 북암문은 방화수류정 근처에 있으며, 화성에서 유일하게 좌우 성벽을 벽돌로 쌓았다.

는 벽돌과 돌로 쌓은 부분이 확연히 구분되지만, 적은 코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아래 밑적이 떨어져 있다. 먼 곳에서 이곳을 보면 성벽의 하단부가 건너편의 성벽과 이어진 것처럼 보여서 문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또한 벽돌로 쌓은 검은색의 성벽과 여장이 흰 돌 위로 하늘 높이 솟아서 성이 더 높게 느껴진다. 만약 적이 암문의 존재를 알고 공격해 오면 미리 준비해 둔 돌과 나무 등을 암문으로 밀어 넣어 문을 봉쇄하면 된다.

이제 암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자. 계단을 올라가면 왼편으로 팔달산 정상에 우뚝 솟은 서장대가 보인다. 서장대가 자리한 팔달산은 해발 128m밖에 되지 않는 낮은 산이지만 동서남북으로 시야가 탁 트여 주변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곳에 오르지 않으면 화성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곳에 올라야만 화성을 왜 이곳에 쌓았는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 설명이 필요 없다. 힘들다고 투덜대던 사람들도 이곳에 서는 순간 “올라오길 참 잘했어!”라고 한 마디씩 한다. 이곳을 안내해 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이곳에 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힘이 불끈 솟는 느낌을 받는다. 200여 년 전인 1795년 2월, 이곳에서 자신이 내린 군령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던 정조도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

오늘날에는 성 안팎으로 건물이 들어차 있어서 시야를 가리지만, 이곳에 서면 ‘벼들잎’ 모양의 화성이 한눈에 들어오고, 화성 주위 백 리 안쪽의 모든 동정은 앉은 자리에서 다 알 수 있다. 산성의 나라답게 우리나라 곳곳의 산에는 성이 축



\_서장대 주변의 장용영 군사(『화성능행도병』의 「서장대성조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_서장대(화성장대)



일제시기의 쇠락한 서장대(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쟁 직후 주춧돌만 남은 서장대

성되었는데, 왜 이곳에는 일찍이 성을 쌓지 않았는지 궁금해진다. 중층의 누각(層閣)에는 정조 임금의 쓴 서장대의 또 다른 이름인 「화성장대(華城將臺)」 편액이 있는데, 큰 글씨에 힘이 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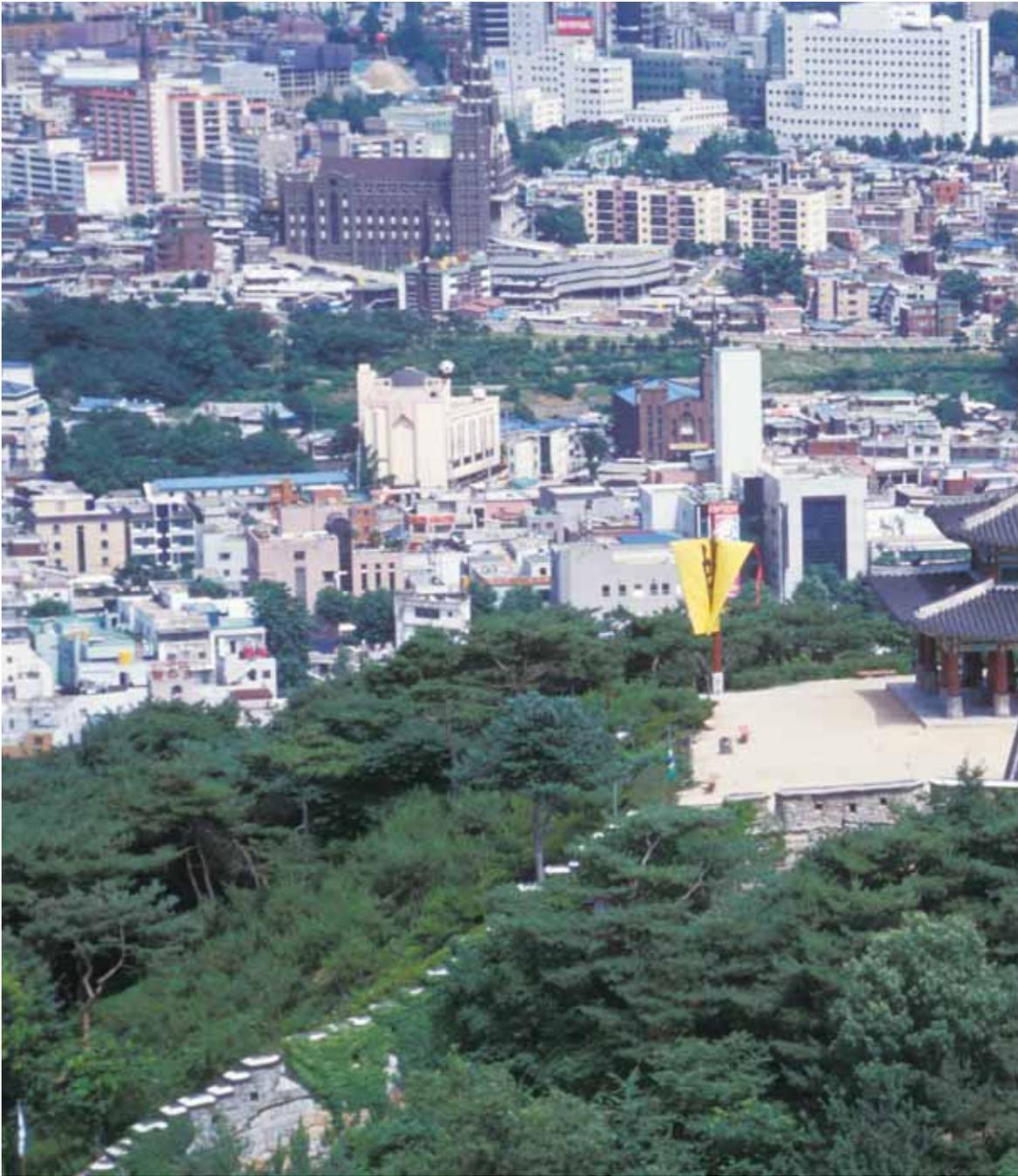
서장대 뒤로는 8면으로 된 서노대(西弩臺)가 있다. 노(弩)는 여러 개의 화살을 잇달아 쏠 수 있는 큰 활로, 중국 전국시대에 나타나 한(漢)나라 때 위력을 떨친 이래 무기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신라시대에는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노를 잘 만들어 화살이 3,000보나 나간다 것을 듣고서 이를 바치게 하였다고도 한다.

사실 정조 임금 시절에는 화포나 소총의 출현으로 무기로서의 효용가치가 현저히 줄었지만, 화성은 화약무기와 재래무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하였기에 두 곳에 노를 쏠 수 있는 대가 마련되었다.

서노대에 올라 서쪽을 바라보면 멀리 수면이 보이는데, 수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서호이다. 수원의 서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본래 이름은 축만제이다. 만석거의 성공에 힘입어 새로 조성한 농경지에 공급할 물을 저장하기 위해 1799년에 완공한 인공저수지이다. 과거 여름이면 제방 너머로 시원스럽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면서 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다. 또한 이곳에서 보는 낙조는 ‘수원팔경’의 하나로 꼽을 만큼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또한 저수지 건너의 나지막한 산은 돌맥이 발견된 여기산이다.

이처럼 팔달산 정상에 오르면 가 보지는 못해도 먼발치에서나마 화성과 관련된 곳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니 오를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이다. 올라올 때보다야 쉽겠지만 경사가 가파른 돌계단이어서 조심해야 한다. 팔달산 정상에서 화서문 방향으로 뺀은 능선은 굴곡이 거의 없어서 경사를 따라 중간에 서이치와 서일치의 치성 두 곳과 치성이자 화포와 총을 쏠 수 있는 서포루(西砲樓)를 지나게 된다. 그리고 경사가 잠시 멈추는 곳에서 서북각루를 만나게 된다.



\_서장대와 서노대



서북각루에 왔으면 꼭 신발을 벗고 누각 위로 올라가 보기를 권한다. 이곳에 오르면 이 건물이 왜 이곳에 지어졌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서북각루는 팔달산의 서북 능선이 평지와 맞닿을 만큼 낮은 구릉 위에 있지만, 그 앞으로는 시야가 탁 트여 적의 동태를 수월하게 감시할 수 있는 천혜의 요처이다.

그리고 그 앞의 너른 들판이 바로 대유평(大有坪)이다. 지금은 이 너른 들판을 빼곡하게 건물이 뒤덮고 있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집들이 듽성듬성 있었다. 누각에 앉아 눈을 감고 그 광경을 상상해 보라.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 지평선만이 아련히 보이는 광경을 말이다.

대유평은 정조 임금이 화성을 지키던 장용영 군인들을 위해 둔전으로 개발한 땅이다. 그리고 이 대유평에 물을 대기 위해 축조한 인공저수지가 만석거(萬石渠)이다. 대유평에서 생산된 1년 수확량이 1만 석에 달해 ‘만 석을 생산하게 만든 저



\_左 서장대 앞에서 수원 시내를 바라보는 사람들(김현락 제공)

\_右 서장대~장안문 구간

수지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군인들에게 급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군인들이 민가로 몰려다니며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다. 정조는 개간한 둔전을 장용영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군인들은 이 땅을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어 수확물을 나누어 가졌다. 그 결과 군인과 농민 모두 생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조 임금의 효과 만점의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은 누각의 문들이 없지만 본래는 관문을 설치하였다. 특히 바깥으로 난 3문에는 모두 짐승의 얼굴을 그리고, 호리병 모양의 구멍을 뚫어 총포를 쏠 수 있도록 하였다. 누 아래의 동남쪽 1칸은 벽돌로 담을 둘러치고 온돌을 설치하여 수직하는 군사가 겨울철에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능선을 타고 조금 내려가면 화성의 서문인 화서문과 서북공심돈이 한눈에 들어오는 지점이 나온다. 이곳은 화서문과 공심돈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 데 가장 좋은 장소이다. 조금 더 내려가면 산과 평지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한 화서문을 만나게 된다.

화서문은 단층 건물로 규모가 크지 않다. 문 밖으로 드넓은 경작지가 펼쳐지고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으므로 굳이 크게 지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화서문 앞으로는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옹성을 둘렀는데, 한쪽을 비우고 쌓는다는 옛

\_화서문과 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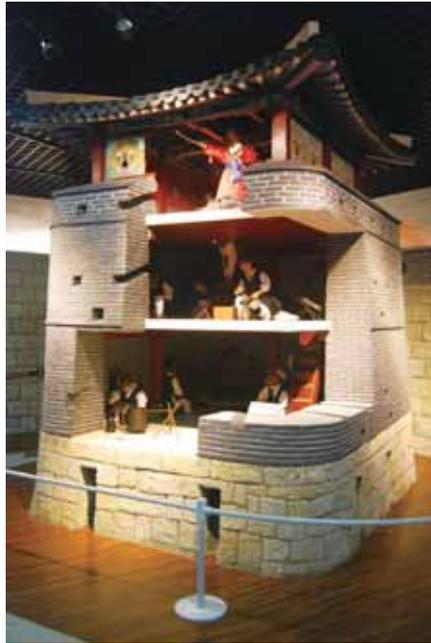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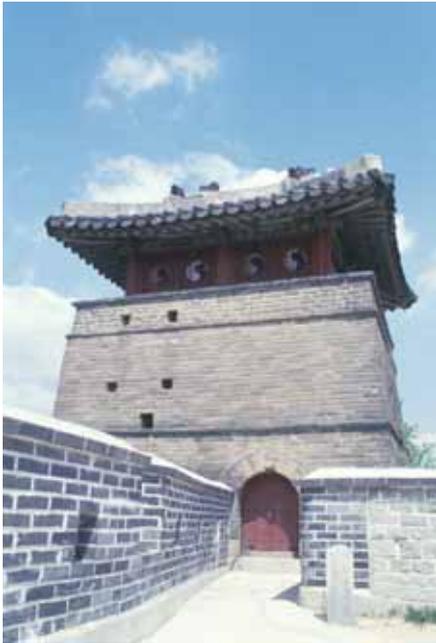
제도에 따라서 웅성의 왼쪽은 비우고 문도 달지 않았다. 서울 도성의 동쪽문인 흥인문의 웅성도 이와 같은 모양이다. 적이 성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성문을 공격하기 마련인데, 웅성은 그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 앞을 둥글게 감싸 적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한 시설이다. 성문을 공격하기 위해 웅성 안으로 들어왔다가는 영락없는 ‘독 안에 든 쥐’ 꼴이 되고 말아 움짱달짝하지도 못하고 갇히게 된다.

웅성의 안쪽은 돌로 쌓고 바깥쪽은 벽돌로 쌓았는데 아래가 위보다 두껍고, 바깥쪽에는 웅성 밑으로 붙는 적에게 뜨거운 기름이나 물을 붓는 시설인 현안이 셋이나 위에서 아래로 길게 뚫렸다. 웅성 위에는 평평한 여장 4첩을 설치하였는데 벽돌로 쌓았다.

사람들은 자주 “화성에서 전쟁이 실제 벌어졌느냐?”라고 묻곤 한다. 그러면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럼 화성이 잘 지어졌는지는 검증이 안 되었네.”라고 하면서 웃는다. 사실 화성에서 전투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화서문은 그 흔적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화서문 성벽 여기저기에서 총탄을 맞은 흔적들이 눈에 띈다. 바로 민족 상쟁의 비극인 한국전쟁 때이다.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고자 만든 화성이 엉뚱한 전쟁에 휘말린 것이다. 그래서 화서문을 지날 때면 웬지 가슴이 쓰라린다.

다시 성 밖으로 나가서 성벽을 따라 걸어 보자. 화서문을 지나고 웅성을 빠져 나와 오른쪽으로 돌면 웅장한 건물이 앞을 가린다. 화서문 북치(北雉) 위에 설치한 서북공심돈으로, 동북공심돈·남공심돈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설한 공심돈이다. 공심돈은 내부가 비어 있는 돈(墩)이라는 뜻이다.

서북공심돈은 벽돌로 3면을 쌓았는데, 그 가운데를 2층으로 구분하여 널빤지로 누를 만들고 나무 사다리를 사용하여 위아래로 오르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구멍을 많이 뚫어서 바깥을 엿보는 데 편리하며, 이 구멍으로 불랑기(佛狼機)와 백자총(百子銃)을 발사하면 적은 화살이나 총탄이 어느 곳에서 날아오는지 알



수 없다.

성 안에서 보면 누각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위용을 제대로 보려면 성 밖에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이 건물이 얼마나 높고 큰지, 그리고 적을 공격하기 위해 성벽과 관문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를 확연히 볼 수 있다.

서북공심돈을 보기 위해 성 밖으로 나왔으니 아예 장안문까지 성벽을 따라 걸어 보자. 이 구간의 성 밖에는 장안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놀이를 하거나 산책을 즐긴다. 장안공원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논이었는데, 논이 성벽 밑까지 바짝 붙어 있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연무대에서 팔달산까지, 왕복으로 운행되는 화성열차를

\_서북공심돈 입구

\_서북공심돈 내부(수원화성박물관 전시 모형)



만나기도 한다. 화성열차를 타면 편안히 앉아 화성을 감상할 수 있지만, 중간에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들을 자세히 볼 수는 없다.

서북공심돈에서 장안문까지는 거의 일직선이다. 그래서 중간중간 성벽의 일부를 밖으로 돌출시키고 그 위에 누각을 세웠는데,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북포루(北舖樓)이고 그 다음이 북서포루(北西砲樓)이다.

그런데 성 안쪽의 북포루 뒤로는 북지(北池)라고 불리는 연못을 조성하였는데, 성 밖 도랑의 물을 끌어 대었기 때문에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연못을 만든 방식이 앞서 말하였던 남지와 비슷하였다고 하므로, 이곳에도 정자가 세워졌고 여름에는 연꽃이 연못 가득 피었을 것이다. 더운 여름날 정자에 올라

서북공심돈과 화서문을 지나는 화성열차



북서포루  
북포루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연못 가득 핀 붉고 흰 연꽃을 감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상상만 해도 얼굴 가득 미소가 번진다.

장안문은 화성의 북문이자 정문이다. 보통 우리나라 성의 정문은 남문이고 북문은 닫아 두거나 아예 없기도 하지만, 화성만큼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임금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장안문을 정문으로 삼았다. 그래서 여느 북문들과 달리 화려하고 장엄하게 지어졌고, 서울 도성의 남문인 숭례문보다도 규모가 크다.

1795년 윤2월,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화성행궁에서 거행하려 내려올 때, 황금으로 장식한 갑옷을 입고 이 문을 통과하였다. 이처럼 장안문은 사람들이 드나들던 문이었지만, 한때는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출입이 불가능하였던 적도 있었다. 지금은 출입이 자유로워져서 더욱 친숙하게 다가온다.

장안문 왼쪽의 돌출된 성벽이 북동격대이다.



화성은 장안문에서 팔달문 사이의 도로를 기본 축으로 건설하였는데, 상품 유통을 위해 통행로를 가로막지 않도록 행궁을 북쪽에 짓지 않고 서쪽에 치우쳐서 동쪽을 바라보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다 보니 팔달문과 장안문의 웅성도 기존의 방식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길을 내지 않고, 성문 정면으로 길을 내고 웅성에도 문을 달았다. 팔달문을 통과한 사람과 물자가 장안문을 나갈 때까지 단 한 번도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수원을 상업의 중심지로 키우려는 정조 임금의 의지가 웅성의 건축 방식을 바꾸게 하였다.

장안문은 오랜 세월을 거치다 보니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다. 1846년(헌종 12) 여름 수원에 내린 비로 장안문 안의 동쪽 돌계단이 무너지고 웅성이 피해를 입었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부터 1937년까지는 장안문을 해체하여 수리 복원하고 전체를 도색하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 장안문은 또 다시 파괴의 수모를 겪었는데,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의 와중에 중층의 누각과

\_장안문의 단청과 현판  
\_장안문 성벽의 총탄 흔적



성체의 동남측이 부서졌으며 웅성의 문루도 타 버리는 등 처참한 형상이었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터인가 수원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문(창룡문)은 도망가고, 서문(화서문)은 서 있고, 남문(팔달문)은 남아 있고, 북문(장안문)은 부서졌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았다. 1958~1960년에 동남쪽 성벽을 보수하고 1965년에는 홍예의 석축을 쌓았으며, 1970년 성체의 기단과 석축을 보수하였다. 그리고 1975년에 『화성성역의궤』를 참고하여 성체의 중층 누각과 웅성의 누각이 다시 지어지면서 장안문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웅성을 다시 보자. 사실 화성 건설 초창기에는 웅성 문 위에 누각이 없었다. 웅성 위에 누각을 세우면 장안문에서 보는 시야를 가려서 적의 움직임을 살필 수 없기 때문이다.

웅성의 누각은 1824년(순조 24)에 만들어졌다. 장안문은 능행을 위해 거동하는 임금이 화성을 드나드는 문이다. 능행은 왕실의 위엄을 보이는 행사이고 화성



은 능행을 위해 임금이 머무르는 행궁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순조는 이 문을 드나들면서 성문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일까?

그리고, 화성을 설계한 정약용은 훗날 수원을 지나가다가 장안문의 웅성을 보고 자신의 설계대로 건설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만들어진 웅성의 오성지(五星池)는 단순히 밖으로 난 구멍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약용의 의도는 웅성 문 위에 구유 같은 저수조를 두고 거기에 5개의 구멍을 뚫어 적이 문을 불태우려 할 때 물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한 시설이었다. 처음 보는 시설이라 화성을 건설한 사람들이 다르게 지은 것이다.

장안문의 좌우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적대라는 시설이 있다. 적대는 성문으로 접근하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성문 좌우로 돌출시킨 치성을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다. ‘ㅁ’ 모양의 여장으로 둘러서 화포를 쏘기에 적합하다.

북동적대에서 성곽은 갑자기 꺾이면서 북수문을 향해 내달린다. 그런데 장안

북동치 타구에서 본 북동포루 맨 앞이 북동포루이고 그 뒤로 방화수류정과 각건대가 보인다.

문의 위치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자리가 아니다. 처음에는 화서문에서 화홍문을 직선으로 잇는 중간지점이 본래의 장안문 자리이다. 그런데 축성을 시작하면서 자리가 바뀌게 되었다.

정조 임금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옛 수원부 관아 자리로 옮기면서 그곳에 살던 백성들은 1789년 새로운 수원부 관아 부근으로 이사 오게 되는데, 그들이 자리 잡은 새 터전이 장안문 안이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화성을 건설하게 되자 그들은 다시 터전을 잃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조 임금은 그들을 가엾게 여겨 성의 위치를 바꾸어 장안문을 본래 계획보다 밖으로 내 지어 그들을 성 안 주민으로 만든 것이다. 정조 임금의 애민정신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런 애민정신은 장안문에서 동장대 사이의 성곽이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데서도 드러나는데, 백성들의 집이 파괴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였다.

북동적대와 이어져 있는 북동치를 지나면 북동포루(北東砲樓)가 나온다. 화포를 쏘는 시설인 점에서는 다른 포루와 다를 게 없으나 건물의 안쪽 지붕이 짓다가 만 것처럼 잘려져 나갔다. 『화성성역의궤』에는 이와 관련된 설명이 없고 포루의 그림도 지금 모습과 다르다.

## 가 ,

이제 화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간을 만날 차례이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그리고 용연이 어우러진 이곳을 화성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한다.

화홍문은 북수문의 다른 이름인데, 수원의 중심을 관통하며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수원천의 범람을 막아 주는 동시에, 바깥쪽에 쇠살을 설치하여 적의 침투를 방어하는 기능까지 갖추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중반 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조선을 개화시키러 온 것이라며 발전된 조선을 보여 주겠다고 관광객을 모집하여 조선으로 데려왔는데, 그중의 한 곳이 수원이었고 그중에서도 빼놓지 않은 곳이 바로 화홍문이었다. 그 유명세는 이 시기 1원짜리 지폐의 도안으로 활용될 정도였다.

하지만 화홍문은 물줄기를 타고 닳았기에 화성의 건축물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다. 정조 임금도 화성을 건설하면서 여름 장마 때에 물난리를 겪는 수원 백성들을 위해 수원천을 먼저 정비하라고 지시하였지만, 화홍문은 여러 차례 물난리를 겪었다.

1846년(헌종 12) 6월 9일부터 이틀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져 화홍문은 물론이고 남수문과 매향교가 무너지고 성곽 곳곳이 피해를 입었다. 화홍문은 2년 만인 1848년에 수문과 누각이 복원되었다. 1885년(고종 22)에도 여름 장맛비가 하천을 흘러넘칠 정도로 내리면서 화홍문 누각이 심하게 위태로웠으므로 이듬해 누각을



\_左 1원권 도안으로 등장한 화홍문(수원박물관 소장)

\_右 화홍문~창룡문 구간

수리하였다.

화홍문이 또다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1922년이였다. 7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내린 폭우로 수원 시가지가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때 화홍문의 석문 일부가 파괴되었고, 8월 23일 또다시 내린 폭우로 석문이 전부 파괴되었다. 1924년 12월부터 1925년 사이에 7개의 수문이 완공되었고, 누각은 1933년에야 복원되었다.

그런데 복원된 화홍문은 1922년 수해 전의 화홍문과는 다른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 1922년 수해 전의 화홍문은 7개 수문의 안쪽 바닥이 매우 넓었던 데 비해 복원된 화홍문은 이곳이 좁게 지어졌다. 공사를 진행하였던 조선총독부는 왜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추측해 보건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수원팔경의 하나인 '화홍관창(華虹觀漲)'의 극적인 연출이고, 다른 하나는 화홍문 아래의 풀장 건설이다.

'화홍관창'을 보다 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는 수문을 통과한 물이 곧바로 폭포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훨씬 장관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1926년 화홍문 안쪽에 풀장이 건설된다. 풀장은 많은 물을 가둘 수 있어야 하는





데, 그렇게 하려면 수문 아래에서부터 땅을 깊이 파서 만드는 것이 공사비도 덜 들고 물을 가두기도 쉬웠을 것이다. 결국 총독부는 수원팔경의 제1경인 ‘화홍관창’을 멋들어지게 연출하고 풀장 개설의 공력을 덜기 위해 화홍문 안쪽의 바닥 구조를 변경한 것이 아닐까?

화홍문 위로 보이는 방화수류정은 동북각루의 별칭이다. 이 외에도 용연(龍淵) 곁에 있다고 하여 용연정, 풍수지리상 용두에 해당하는 자리에 자리 잡았다고 하여 용두각 등의 이름으로도 불린다.

정조는 능행을 위해 수원에 행차하면 신하들과 자주 이곳에 들러 활도 쏘고 시를 읊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잠시나마 풍광을 즐기면서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이다. 이곳에 앉아 있으면 멀리 광교산이, 가까이는 팔달산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아래로는 잔물결 이는 용연과 세찬 물줄기를 내뿜는 화홍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 화홍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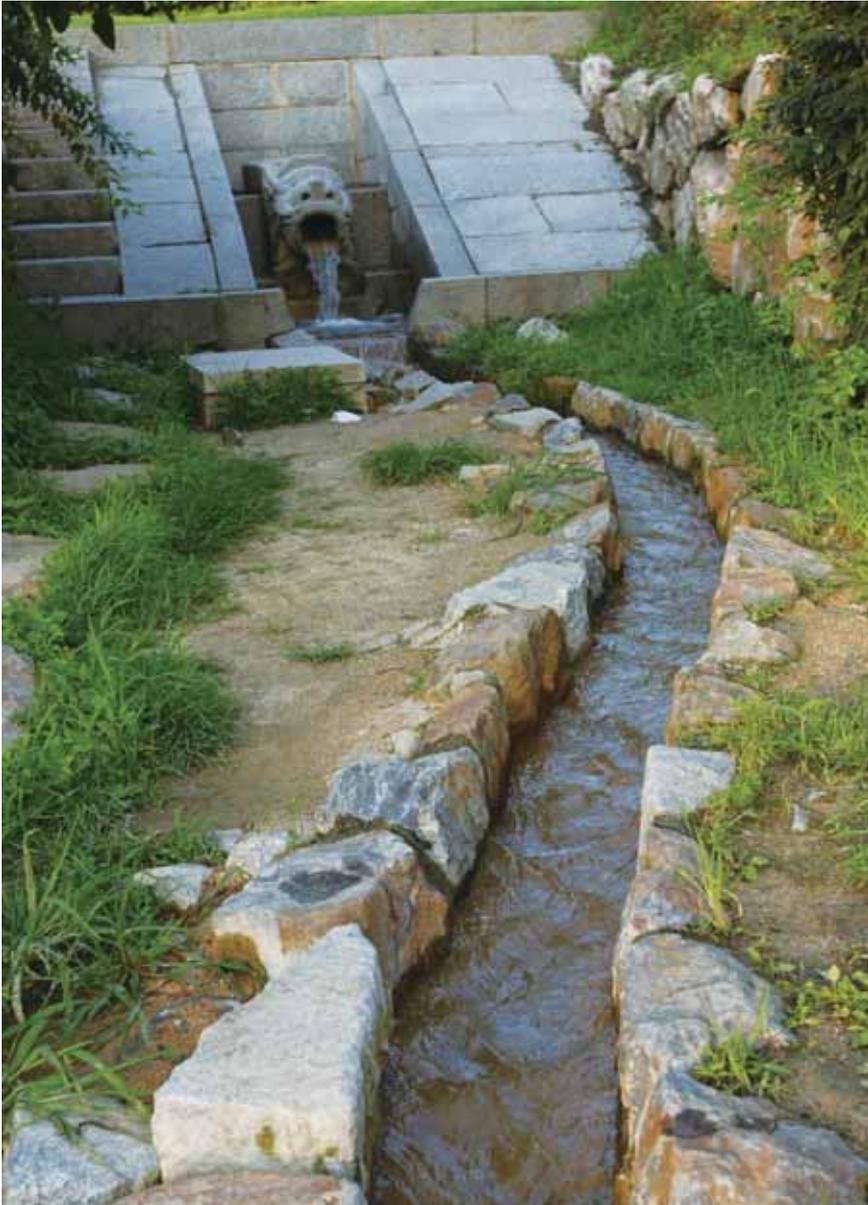
오늘날에도 수원 시민들은 봄에는 꽃 구경하러, 여름에는 더위를 잊으러, 가을에는 단풍 감상하러, 겨울에는 눈 구경하러 이곳을 찾는다.

앞서 서북각루에서는 꼭 신발을 벗고 올라가 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곳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이곳을 오르지 않고서는 화성의 아름다움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수원팔경의 하나인 ‘용지대월(龍池待月)’도 용지에서 달을 맞이한다기보다는 실상 이 정자에 올라 하늘에 뜬 달과 용지에 비친 달을 동시에 감상할 때의 감흥을 말하는 것이리라.

계단을 올라 정면 끝에 보이는 곳이 정조 임금의 앉았던 자리라고 한다. 그 자리에 앉아 200여 년 전 정조가 그랬듯이 세상을 경륜할 포부를 품어 봄 직하다.

방화수류정은 주변 감시와 지휘라는 군사적 목적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선시대 정자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고, ‘ㄱ’자형의

진각국사비각 앞에서 바라본 방화수류정



\_이무기의 입을 통해 수원천으로 흘러가는 용연의 물줄기



평면을 기본으로 북측과 동측은 ‘凸’형으로 돌출되게 만들어서 다른 정자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평면과 지붕 형태를 지녔다.

방화수류정은 1848년(헌종 14)에 중수되었고, 일제강점기에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수리되었는데, 이때 정자의 마루로 올라가는 목제 계단이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었다.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정조 때의 설계와는 분명 다른 모습으로 복원된 것이다.

방화수류정 밖에는 용연 또는 용지라고 불리는 작은 못이 있다. 물길을 끌어들이다가 물이 차면 못의 서쪽에 돌로 조각한 이무기상의 입을 통해 수원천으로 뿜어내게 설계되어 있다.

위낙 방화수류정에서 바라보는 풍광에 취했던 터라 방화수류정 바로 옆에 있

는 북암문은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지만, 자세히 보면 범상치 않다. 암문 위의 여장은 지금까지 보아 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 반달처럼 둥글다. 여장의 모양을 일률적으로 만들지 않고 변화를 준 것이 재미있다. 같은 것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만들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식상하겠는가. 변화를 준 선조들의 기지가 엿보인다.

바깥으로 나가서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방화수류정의 자태를 보고 가자. 이를 보려면 북암문을 통해 성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계단이 놓여 있어 자세히 보니, 성 안은 높고 성 밖은 낮은 지대라 안에서 시작한 계단이 밖에까지 이어져 있다. 암문 밖 잔잔한 용연 옆에서 방화수류정을 올려다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방화수류정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려면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좋다.

다시 들어가려니 북암문 주변 성벽이 예사롭지 않다. 북암문 양쪽 성벽은 돌로 쌓은 다른 곳의 성벽과는 달리 하단부만 돌로 쌓고 그 위로는 벽돌로 쌓았으며, 그 사이에 낀 북암문 역시 아래 부분만 돌로 쌓고 그 위로는 벽돌로 쌓았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북암문으로 들어와 동장대 방향으로 오르막길을 가다 보면 화성의 북쪽 지역을 담당하는 장안위의 좌부(左部)가 지키는 구역이라는 표지석을 만나고, 조금 더 가면 멀리서 보아도 화성의 다른 포루들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누각이 눈에 들어오는데, 동북포루(東北舖樓)이다. 주변보다 우뚝 솟은 높은 지대 위에 네모 반듯한 모양이라 기품이 느껴진다.

그곳을 향해 가는 도중에 동북포루의 바깥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금 전 보았던 북암문처럼 하단부만 돌로 쌓고 중단 이상과 여장은 벽돌로 쌓았으며, 성벽에 총을 쏘거나 뜨거운 액체를 부을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다. 동북포루는 지붕 모양이 궁중 잔치 때 무동(舞童)이 머리에 쓰는 모자와 비슷하다고 하여 각건대(角巾臺)라고 불리기도 한다.

북암문과 비슷한 구조의 동암문을 지나면 동장대가 나온다. 동장대는 선암산



줄기의 높고 험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성 안은 물론이고 성의 동쪽과 북쪽 밖이 시원스레 눈에 들어온다. 정말로 서장대와 더불어 성 중에서 가장 좋은 자리요, 군사를 지휘하는 대장이 차지하고 있어야 할 만한 곳이다. 누각에는 동장대 대신 연무대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화성의 동쪽을 담당하는 장수가 지휘하는 곳이자, 화성을 지키는 장용영 군사들이 무예를 닦고 전술을 훈련하는 곳이기에 연무대로도 불렸다.

연무대는 3단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단과 중단 사이에는 비스듬히 흙을 메운 와장대(臥長臺)를 설치하고 중단에서 상단으로 오르는 길은 좌우측으로 여러 단을 두어 말을 탄 채로 대 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단에서 상단으로 오르는 중앙 돌계단 양 옆의 소맷돌에는 구름무늬를 새겼다. 그래서 연무대에 서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연무대의 중앙에는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온돌이 마련되어 있다.

연무대



그런데 연무대 뒤에는 돌을 쌓아 단을 높이고 그 위에 기와를 엮갈려 쌓은 담장이 있다. 담장의 이름은 영룡담이고 그 뒤는 총을 쏘는 사대(射臺)인데, 이곳에 왜 이런 시설을 하였을까? 정조는 즉위 초부터 암살 위협에 시달렸는데, 정조가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참관할 때에 그의 시위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몸을 숨긴 채 동태를 살피던 곳이다. 이 영룡담을 볼 때마다 처연한 느낌을 감출 수 없다.

연무대 주변에는 활쏘기를 체험할 수 있는 국궁장이 있다. 활쏘기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단련하는 운동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화성을 건설한 정조는 활쏘기를 강조하였다. 정조는 독서와 활쏘기는 모두 집중을 요한다면서 초계 문신들에게도 활쏘기를 통해 집중 훈련과 심신 단련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활쏘기를 시켜 보고 잘 쏘지 못하는 사람은 군인을 붙여서 연습시키기도 하였다.

\_연무대 뒤 영룡담



연무대는 화성을 한 바퀴 도는 화성열차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열차를 타면 방화수류정과 화홍문을 지나 장안문, 화서문을 거쳐 서장대 밑까지 가므로, 서장대를 오르기를 주저하는 사람이나 허약한 사람은 이 열차를 타기를 권한다. 그리고 서장대를 꼭 올라가 보기 바란다.

연무대에서 활 쏘는 사람들을 보면서 걷노라면 이내 동북공심돈에 닿는다. 동북공심돈은 중국 요동(遼東)에 있는 계평돈(薊平墩)을 본떠서 벽돌로 둥그렇게 쌓아서 돈(墩)을 만들었는데, 겹으로 둘렀다. 서북공심돈처럼 밖으로 내어 쌓는 방식이 아니라 성벽 안쪽에 지었다. 빙빙 돌아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소라각이라고도 불리는데,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하며 꼭 돈대 위에 올라가 보자. 올라가면 연무대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성 안이 잘 보인다. 그런데 성 밖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 것이다. 앞쪽에 공심돈보다 높은 산이 솟아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 오르면 성이 훤히 들여다보여서 성곽의 방어 기능이 무색해진다. 정조 당시에 도성을 쌓다가 이 문제가 불거졌지만 정조는 공력이 많이 들고 백성들을 힘들게

동북공심돈  
동북공심돈의 내부



\_연무대 활터



한다며 원래의 계획대로 지으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화성의 모습이 되었다. 만약 방어 기능을 중시하여 이 부근의 성벽을 동북공심돈 앞의 산까지 내어 쌓았다면 공심돈 앞의 1번 국도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 있을 것이다.

노를 쏘는 동북노대를 지나면 화성의 동문인 창룡문이 나온다. 문의 안팎으로는 무지개 모양의 홍예를 설치하고, 밖으로는 화서문처럼 왼쪽이 터져 있는 옹성을 둘렀다. 이 창룡문에서는 꼭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벽에 새겨진 글씨이다.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해미읍성에도 일정 거리를 두고 1m 남짓 높이의 돌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 글씨는 축성에 동원된 사람들이 살았던 고을 이름이다. 동원된 한 고을 사람들이 일정 구역을 함께 쌓았음을 알 수 있는데, 감독자나 동원된 사람의 이름은 없다.

그런데 창룡문에는 감동(監董)과 패장(牌將) 직함의 고위 감독자나 중간 관리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건설에 참여한 기술자의 이름도 새겨져 있다. 화성 축성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이 작지 않았음을 성벽에 새겨진 글씨가 말해 주고 있다. 기술자는 물론 평민이었는데, 정조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신분이나 직위로 그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말라고도 하였다. 화성의 다른 건축물에도 분명 건설에 참여한 감독자와 기술자들의 이름이 새겨졌을 테지만, 건설된 이후 여러 차례 중건되면서 돌들이 교체되어 현재는 이곳에만 남아 있다.



창룡문부터 동남각루까지는 지형이 거의 일직선의 언덕이다. 그래서 정조 당시에는 이곳을 일자문성(一字文星) 또는 일자사(一字砂)라고 불렀다. 화성은 동쪽을 향하여 열려 있는 형국으로, 팔달산이 뒤로 높이 솟아 있고 그 앞을 남북으로 큰 냇가 흐르는데, 풍수지리상 그 너머의 일자문성 언덕이 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주는 안산(案山)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이것을 확인하려면 서장대가 있는 팔달산 정상에 올라야 한다. 화성을 제대로 보려면 서장대에 올라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창룡문을 나서면 일정 간격을 두고 동일포루(東一舖樓), 동일치, 동포루(東砲樓), 동이치가 차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봉돈을 만나게 된다. 봉돈은 멀리 떨어진 육지나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불과 연기로 알리는 봉수와 적의 침입을 방어하는 진지인 돈대를 합친 시설물이다. 성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여 치성처럼 보이

창룡문의 안쪽 전경



\_봉돈  
\_봉수 거화(炬火) 재연

지만 그보다 크게 지었고, 안쪽에 불이나 연기를 피우는 5개의 화두(火竈)를 설치하였다. 화두는 밑이 넓고 위는 좁으며, 허리쯤 높이에 불이나 연기를 피우는 아궁이가 있다.

5개의 화두 사이에는 석가퀴를 붙였고 양쪽 끝은 안쪽으로 휘어지게 하였는데, 3면에 포 쏘는 구멍 18개와 총 쏘는 구멍 18개, 그리고 뜨거운 액체를 흘려보내는 구멍 1개를 내었다. 양쪽 가장자리에는 각각 벽돌로 지은 한 칸짜리 집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것은 온돌로서 균줄이 거처하는 곳이고 북쪽 것은 물품 따위를 넣어 두는 곳이다.

화성의 봉돈은 동쪽으로는 용인 석성산(石城山)의 봉수와 응하고, 서쪽으로는 본부(本府)의 서쪽 30리에 있는 서봉산(棲鳳山) 봉수와 응한다. 봉수는 평상시에는 하나를 올리고 외적이 국경이나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나타나면 두 개, 외적이 국경이나 해안 가까이 접근하면 세 개, 외적이 국경을 넘거나 해안에 상륙하면 네 개, 전쟁이 벌어지면 다섯 개를 올렸다.

이제 화성 답사의 종착역이 가까워졌다. 다시 길을 나서 동이포루(東二舖樓)와 동삼치를 지나면 동남각루가 나온다. 동남각루는 일주문성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으로, 성 위로 쭉 나와서 멀리 평야를 바라보고 있다. 이곳에서 수원천을 향해 가파르게 뚝 떨어지고, 수원천과 만나는 곳부터 끊어진다.

수원천 위에는 화홍문과 마주하여 9개의 수문을 가진 남수문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1900년대 초에 발생한 홍수로 붕괴되었다. 2012년 복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기계로 무 자르듯이 깎은 돌에서는 영 맛이 나질 않는다. 남수문을 건너 팔달문 쪽으로는 본래 남공심돈과 남암문, 그리고 남동적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시장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났기 때문이다.

팔달문은 정조가 화성을 건설한 이후 사람들로 가장 북적거리던 곳이다. 팔달문을 사이에 두고 시장이 형성되어, 오가는 사람들이 이 문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동쪽의 용인이나 이천 등지로 가는 사람들도 동문인 창룡문을 이용하지 않고



\_동남각루 동남각루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벽은 수원천에서 멈춘다.



복원된 남수문  
팔달문시장

시장을 이용하려고 팔달문으로 출입하였다. 그것은 서쪽의 안산 등지로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였다. 지금은 상권이 이동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활기차다.

팔달문이 비운을 겪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일제는 팔달문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서 팔달문의 웅성 홍예를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 웅성의 일부를 걷어냈다. 또 성벽이 수원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팔달문 주변의 성벽을 헐어 버렸다. 이때 오늘날 복원되지 못한 성벽과 건물이 다 헐려 나갔다. 그래서 팔달문은 짝 잃은 외기러기처럼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다. 다시 복원될 날을 기대하지만 그런 날이 오기는 힘들 것 같다. 오늘날 이 시장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정조가 사랑했던 백성들의 후예가 아니던가?

화성은 5.74km의 길이를 가진 큰 성이다. 그래서 화성을 제대로 보려면 4~5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아도 놓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간혹 한 번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화성을 답사한 횟수가 수십 번이지만, 갈 때마다 새롭다. 화성은 웅장하지 않되, 아기자기하면서 은근한 멋이 있다. 그것은 화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재 전반에 걸친 특징이기도 하다. 그런 멋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잘 살펴봐야 보인다. 대충 훑어보아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답사를 제대로 하려면 한 곳을 적어도 계절별로,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아야 제대로 멋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하곤 하는데, 정말 그렇다.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며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다.

화성을 한 바퀴 도는 방식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팔달산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취향에 따라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도 『화성성역의궤』의 서술 순서대로 화홍문에서 시작하여 장안문-화서문-서장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이렇게 돌면 가장 높은 서장대를 바라보면서 걷게 된다. 또 주차장을 고려하여 연무대에서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다 보면 본인에게 잘 맞는 방식을 얻게 된다. 또 시간이 모자라면 구간을 정해 2~3차레로 나누어 한 바퀴 돌아봐도 좋을 것이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애정을 가지고 자주 찾아보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정조와 화성을 품게 될 것이다.

화성 한 바퀴 돌기



김종혁\_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 03

---

윤2월이니 날씨는 따뜻했을까. 1795년 윤2월 9일 조선의 국왕 정조는 어머니를 모시고 화성행차길에 올랐다. 이 행차는 아버지 묘를 찾는 성묘길이기도 했지만 화성에서 어머니의 환갑잔치를 열어 드리는 길이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계신 가까운 곳에서 잔치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두 분이 동갑이었으니 심정적으로는 동반 회갑연을 연 것이었으리라. 그래서 화성이어야 했으리라.

1795년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화성행차는 정조의 재위기간 중에 다녀왔던 어떤 행차보다 성대하였다. 아마 조선 전 시기에 걸쳐서도 가장 성대한 행차였을 것이다. 행차를 마치고 돌아와 편찬한 8책 635장의 『원행을묘정리의궤』를 보더라도 정조가 얼마나 이 행사를 중시했는지 알 만하다. 이 의궤는 분량도 분량이지만 수백 쪽의 도설(圖說)이 실려 있어 현장감이 생생하고, 활자로 찍은 첫 의궤이기도 하다. 8일간의 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을묘원행 8일간의 일정

날짜	출발	활동	숙박지	비고
9일	출궁	용양봉저정(점심)	시흥행궁	배다리 및 만안교 통과
10일	시흥행궁	사근행궁(점심)	화성행궁	지지대고개
11일	화성	화성 성묘(聖廟) 참배	화성	공식행사 시작
12일	화성	현릉원 참배	화성	서장대 방문
13일	화성	혜경궁 연회	화성	봉수당
14일	화성	양로연(낙남헌), 화성 관람	화성	위민행사, 장안문과 방화수류정 등 관람
15일	화성	사근행궁(점심)	시흥행궁	지지대고개
16일	시흥행궁	용양봉저정(점심)	환궁	배다리 철파(17일)



정조는 9일 창덕궁을 출발하여 용양봉저정(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6호, 동작구 본동 10-30)에서 점심을 먹는다. 많은 수행원이 배다리를 건너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보통 이곳에서 쉬면서 점심을 먹었다고 한다. 첫날은 시흥행궁에서 묵었고, 둘째 날 화성에 도착한 후, 셋째 날 화성 성묘를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였다. 넷째 날 어머니와 함께한 현릉원(顯隆園) 참배는 회갑연과 함께 이번 행차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어머니 혜경궁 홍씨는 성묘 중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정작 묘 앞에 이르러서는 대성통곡을 했다. 혜경궁 홍씨는 배봉산 수은묘에서 이곳 화산 아래로 천장(遷葬)한 후 남편

\_현릉원으로 가는 과천길과 시흥길



정조의 능행(『화성능행도병』중 「시흥환어행렬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을 처음 찾아온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행궁 내 봉수당(奉壽堂)에서 이번 행차의 최대 이벤트인 회갑연을 벌였으며, 여섯째 날에는 봉수당 옆에 있는 낙남헌(洛南軒)에 거둥하여 행차를 따라온 영의정 홍낙성 등 노인 15인과 일반 서민 노인 374명에게 양로연을 베풀고, 옹성과 장안문, 방화수류정을 관람함으로써 화성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쳤다. 일곱째 날에는 왔던 길을 그대로 되밧아 사근행궁에서 점심을

먹고 밤에 시흥행궁에서 유숙하였으며, 여덟째 날에도 올 때와 마찬가지로 용양봉저정에서 점심을 먹고, 배다리로 한강을 건너 환궁하였다.

정조는 1789년 천장 당시를 포함하여 그가 죽은 1800년까지 12년 동안 모두 13번 화성을 방문한다. 1월과 8월 두 차례 방문한 1797년(정조 21)을 제외하면 매년 한 번씩 다녀왔다. 행차는 1월에 7회, 2월에 2회, 윤2월에 1회, 8월에 2회, 10월에 1회(천장) 이루어졌다. 열 차례의 능행길이 1~2월이었던 것은 농번기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_용양봉저정(문화재청 제공)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을 때 정조는 이제 열한 살의 어린아이였다. 사도세자 이선(李愷 : 자 允寬, 호 毅齋)은 1735년에 태어나 1762년에 죽었다.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 27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였다. 정조는 1752년에 태어났으니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가 죽은 것이다. 열한 살짜리 꼬마는 노론과 소론을 알았을까? 알면 얼마나 알았을까?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살려 달라고 애원하지만 결국 비참하게 죽어 가는 아버지의 끝을 목도한다. 필자는 내 아버지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중학교에 가서 알았던 것 같다. 열두어 살 때까지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도 없는, 위인전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존경스러운 인물이었다. 사도세자도 정조에게 이런 아버지였을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어릴 적 아버지는 그런 존재인 것이다.

아버지가 죽고 14년이 지난 1776년 할아버지 영조(1696~1776년)가 죽는다. 그리고 어느 덧 스물네 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자란 손자는 조선의 제22대 왕으로 즉위한다. 어린 손자가 크기를 기다렸을까, 할아버지 영조는 조선의 제21대 왕으로 1725년 29세에 즉위하여 1776년 80세까지 51년간 왕위를 지켰다. 영조는 조선의 왕 27명 가운데 재위기간과 수명이 가장 길다.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1735~1815)는 17세에 정조를 낳고, 10년이 지난 27세에 동갑인 남편을 잃었다. 마음고생이 많았을 혜경궁 홍씨는 드디어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나이 마흔한 살 때였다.

사도세자의 묘는 양주 배봉산 아래에 있었다. 배봉산은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전농동 일대에 걸쳐 있는 산이다. 봉호를 수은묘(垂恩墓)라 하였는데, 서울시립대학교 부근에 있었다. 사도세자의 2년상이 끝난 1764년(영조 40) 5월에 영조는 사도세자의 사당을 세우라고 지시한다. 처음에 북부 순화방에 짓고 사도묘(思



悼廟)라 했는데, 뒤에 창경궁의 동문인 홍화문 밖 동부 숭교방에 옮겨 새로 짓고 수은묘(垂恩廟)라 하였다. 지금의 서울대학교병원 원내이다. 영조는 이해 7월에 수은묘(垂恩廟)에 가서 아들을 위해 술을 따르고 왔으며, 다음 해에는 왕세손(정조)에게 수은묘(垂恩墓)에 가서 배알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영조는 1774년에도 수은묘(垂恩墓)에 다녀왔고, 왕세손은 1776년 2월에 수은묘(垂恩墓)에 가서 배례를 행하고 목메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정조실록』에 나온다.

정조는 1776년 3월 10일에 즉위하는데, 열흘이 지난 3월 20일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세자(莊獻世子)로 추숭(追崇)하고 수은묘(墓)를 영우원(永祐園)으로, 그리고 수은묘(廟)는 경모궁(景慕宮)으로 승격시켰다. 정조는 아버지의 묘 이장을 결심할 때까지 영우원을 10여 차례 참배한다. 1789년(정조 13) 10월에는 아버지 묘를 배봉산에서 한강 너머 수원부의 치소였던 화산(花山) 아래로 천장하고, 이릉도 현릉원으로 바꾸었다. 정조가 24세에 즉위하고 13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천장 후에도 정조가 아버지 묘를 부지런히 찾은 것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이

『장조상시봉원도감의궤(莊祖上諡封園都監儀軌)』(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정조는 즉위 직후 아버지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莊獻)'이라 추존하고 본격적인 추숭작업을 실천하였다. 이 의궤는 1776년(정조 원년) 3월 봉원도감(封園都監)을 추숭도감(追崇都監)에 합쳐 설치하도록 명령한 후 수은묘의 봉호를 '영우원'으로, 사당을 '경모궁'이라 존봉하였던 일체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전과 달라진 것은 수원이었다. 왕의 아버지 묘를 천장하는 일은 일반인의 이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더구나 새로운 원소가 기존 군현의 치소(治所)였다는 것은 단순한 이장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지역사적 관점에서 어쨌든 수원은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공간이동이라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19세기 후반 배봉산 아래 영우원 능행과 화산 아래 현릉원 능행의 어마 어마한 차이는 한강에 있었다. 한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 더구나 일반인이나 군인, 외국 사신도 아닌 국왕이 교량이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그만큼 번거로움이 수반되는 능행이었음에도 정조는 천장 이후 매년 현릉원을 찾았다.

새로운 원소(園所) 화산 아래는 본디 수원부의 중심지인 치소가 있었다. 치소란 지방행정 관아가 집중된 곳으로 오늘날 시청 소재지를 일컫는다. 이장하기 전에 그려진 『해동지도』의 「수원부」 지도를 잠깐 보자.

『해동지도』는 사도세자가 죽기 전 1740년대에 만들어졌다. 이 지도집에는 전국의 군현도가 망라되어 있는데, 「수원부」 도엽을 보면 수원의 치소가 동쪽으로 트인 성황산-꽃산-도고산-남산 줄기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화성시 안녕동 일대로, 이 ‘읍내’ 자리는 융릉과 건릉이 차지하고 있다. 수백 년 이상 수원의 중심지로 기능했던 치소는 1789년 7월 정조가 이장을 결심하면서 새로운 자리를 물색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의 이전을 넘어 화성 건설이라는 문화 창달로 이어졌다. 화성은 일찍이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오랜 기간 수원 읍내에 살고 있던 주민 중에는 마음속으로 천장을 원망한 이도 있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정조는 그만한 보상을 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당대의 걸출한 인물 정약용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은 정조에게 분명 행운이었으며, 여러모로 화성은 품 나게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약용은 사도세자가 죽은 1762년에 태어났다.

1789년 10월 5일, 드디어 천장을 위한 상여가 영우원을 출발하였다. 상여는 뚝섬에서 배에 올라 한강을 건넜고 과천에서 하루를 묵은 다음 날 10월 6일에 수원의 새 원소 정자각에 도착하였다. 정조는 5일 뚝섬에서 하직 인사를 하고 환궁한 후, 다음 날 6일에 과천을 경유하여 저녁에 수원에 도착하였다. 7일에 원소에 나아가 공사를 감독하였고, 다음 날인 8일 하직 인사를 하고는 수원향교와 행궁을 방문하고, 과천에서 하루를 묵은 후 9일 환궁하였다. 현릉원은 이렇게 사도세자가 죽고 27년이 지나 조성되었다.



『해동지도』(1740년대)에 나타난 수원부 구읍치 일대

## 가

화성 건설 이전에 서울과 수원을 잇는 대로는 동작진-(한강)-남태령-과천-지대고개로 이어지는 제주로(해남로)였다. 김정호가 펴낸 『대동지지(大東地志)』의 「정리고(程里考)」에 수원까지의 제주로 경로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 제주로는 신경준(申景濬 : 1712~1781년)이 『도로고(道路考)』(1770년)에서 조선의 큰 길 여섯 개를 정리할 때부터 제5로로 중시했던 길이다.

한성(漢城)-동작진(洞雀津)-승방평(僧房坪)-남태령(南太嶺)-과천(果川)-인덕원(仁德院)-갈산점(葛山店)-사근평(肆覲坪)-지지대(遲遲臺)-수원(水原)-하류천(下柳川)-중미현(中彌峴)-오산점(烏山店)-진위(振威)-대백치(大白峙)-갈원(葛院)-가천(加川)-소사점(素沙店)-아교(牙橋)-홍경비(弘慶碑)-성환역(成歡驛)-수월원(愁歇院)-직산(稷山)-병장승우(并長承隅)-비토리(坵土里)-천안(天安)-삼거리(三巨里)-김제역(金蹄驛)-덕평점(德坪店)-원기(院基)-차령(車嶺)-인제원(仁濟院)-광정역(廣程驛)-궁원(弓院)-모로원(毛老院)-금강진(錦江津)-효가리(孝家里)-판치(板峙)-경천역(敬天驛)-노성(魯城)-초포교(草浦橋)-사교(沙橋)-은진(恩津)-황화정(皇華亭)-여산(礪山)-탄현(炭峴)-삼례역(參禮驛)-금구(金溝)-원평교(院坪橋)-태인(泰仁)-대교(大橋)-정읍(井邑)-천원(川原)-노령(盧嶺)-원덕리(院德里)-단암역(丹巖驛)-장성(長城)-선암역(仙巖驛)-나주(羅州)-부소원(夫所院)-영암(靈巖)-월남점(月南店)-석계원(石梯院)-별진역(別珍驛)-해남(海南)-남리역(南利驛)-우수영(右水營) …… 제주

수원까지의 제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동작대로-국도 47호선(과천-군포)-국도 1호선(군포-의왕-수원-오산)으로 계승되었다. 송례문을 벗어난 제주로는 청과3거리-청과로-삼각지로터리를 경유한 후 동작대교 서쪽 바로 아래 동작진에서 한강을 건넌다. 이후 승방평까지의 노선은 오늘날 동작대로와 거의 같다. 승방평은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와 일제시기 지형도 및 1970년대 이후의



지형도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사당사거리에서 남태령 쪽으로 조금 올라와 있는 마을이다. 승방평이라는 이름은 마을 뒷산에 관음사라는 절이 있어, 그 앞에 있는 들이라는 뜻에서 붙었다고 한다.

남태령을 넘으면 바로 과천에 닿는다. 과천치소(과천시 관문동)를 지나 계속해서 국도 47호선을 따라 내려가면 곧 인덕원에 다다른다. 과천시 내에서는 지하철 4호선 노선이 대체로 옛 제주로와 비슷하다. 갈산점은 의왕시 내손동 갈피마을이다. 인덕원에서 벌말(평촌동)을 지나 갈피마을(내손동·갈산동)과 덕현동(호계동)까지 제주로는 대체로 안양시와 의왕시의 경계를 따라 놓여 있다. 갈피마을을 지난 제주로는 국도 47호선을 벗어나 의왕시 오전동의 진달래아파트·신원수선화아파트·의왕초등학교·동남아파트를 관통하고, 의왕시에서 지정된 효행길로 이어진

남태령 옛길(과천문화원 제공)



후 국도 1호선과 만나 수원으로 진입한다.

사도세자 묘를 천장할 때에도 뚝섬에서 한강을 건너 과천을 경유하여 지지대고개를 넘었으니, 과천부터는 제주로 길을 따라 이동하였다. 그런데 잘 알려진 대로 정조의 13번 능행 중 과천을 경유하는 것은 천장할 때와 그 이듬해인 1790년 두 번뿐이다. 정조는 이 과천을 경유하는 길 대신 시흥과 안양을 거쳐 지지대로 가는 새로운 능행로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한다.

정조가 현릉원 전배를 마치고 돌아오던 도중에 냉정리(冷井里 : 과천시 갈현동) 고개에서 쉬고 있을 때 고개 너머 묘소가 하나 눈에 들어왔다. 신하들에게 누구의 묘소인지를 묻자, “김상로(金尙魯 : 1702~?)의 형 김약로(金若魯 : 1694~1753년)의 묘입니다.” 아뢰니, 정조가 “김약로야 허물이 없지만, 그래도 보기 싫으니 노정을 바꾸라.”고 하교하였다고 한다. 즉 김약로 묘를 보면 사도세자의 죽음에

김약로 묘역(과천문화원 제공)

깊이 관여한 그의 동생 김상로가 생각나기 때문에 과천이 아닌 시흥과 안양을 거치는 노정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정을 바꾼 실제 이유는 시흥로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그중 가장 큰 장점은 행차의 편리함이었다. 과천로에 비해 시흥로는 교량이 적고 고개도 낮아서 원행에 어려움이 적었다. 이는 길을 닦기 위한 백성들의 노동력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정조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경기감사 서용보가 아뢰기를, “현릉원에 거동할 때의 연도에 있는 지방 가운데 과천 지역은 고갯길이 험준하고 다리도 많기 때문에 매번 거동할 때를 당하면 황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또 길을 닦을 적에 백성들의 노력이 곱절이나 들어가므로 상께서 이런 폐단을 깊이 염려하여 여러 차례 편리한 방도를 생각해 보라는 명이 있었기에 전후의 도신(道臣)들이 모두 금천으로 오는 길이 편하다는 내용을 이미 전달하였습니다. 신이 이번에 살펴본 바로는 비단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지대가 평탄하고 길이 또한 평평하고 넓으니 이 길로 정하는 것은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거동 때에 거행할 여러 절차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전교를 받았으므로 관아의 수리와 길을 닦는 등의 일은 지금 당장 착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서(關西)의 남당성(南塘城)을 쌓고 남은 돈이 아직 1만 3,000여 냥이 남았다고 하니 우선 가져다가 쓰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어쨌든 정조는 현릉원 능행의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른바 ‘수원로’이다. 이 수원로는 오늘날 국도 1호선이라는 상징성도 갖고 있다. 정조의 ‘신작로’는 동작진 대신 노량진에서 한강을 건너고, 과천 대신 시흥을 경유한다. 19세기 중반까지 문헌에 나오는 조선의 대로는 9대로 체제였는데, 『대동지지』(1864년) 단계에 이르러 수원로가 열 번째 대로로 등장함으로써 조선의 간선도로 체제가 10대 도로로 확대되었다.

『비변사등록』 1791년(정조 15) 1월 21일 기사에 암행어사 정동관이 과천·금천

(시흥)·수원·광주 등지를 잠행한 후 보고하기를 “작년 겨울에 노량진에서 수원까지 새로 길을 닦은 일에 부역한 백성들의 삶이 균등하지 못하였음”을 논의하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르면 수원로는 아버지를 천장한 다음 해인 1790년 겨울에 신작로로 정비한 듯하다. 만약 1790년 11~12월경에 정비한 것이라면 두 번째 능행(1790년 2월 9일) 때 신작로 정비를 결심한 듯하다. 결국 이장 후 약 1년 만에 신작로를 건설하고 세 번째 현릉원 참배(1791년 1월 17일)부터는 과천이 아닌 시흥을 경유하였다.

2011년 봄에 필자도 정조의 길을 따라가 보았다. 그동안 자동차로 술하게 다녀본 길이지만 이번에는 정조처럼 걸어서 가 보았다. 2011년 6월 초, 약간 더웠지만 걷기 좋은 날씨였다. 수원로를 대로의 반열에 올려놓은 김정호의 『대동지지』에는 서울에서 건릉까지의 경유지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경도(京都)-노량진(露梁津)-문성동(文星洞)-시흥(始興)-안양행궁(安養行宮)-  
사근평행궁(肆覲坪行宮)-수원행궁(水原行宮)-건릉(健陵)

비록 문헌에는 신작로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길이 전에 없던 새로운 길은 아니다. 전근대는 물론 20세기에든 완전히 새로운 길이란 별로 없었다. 이 수원로 역시 기존의 길을 직선화하고 노퍽을 넓히고 노면을 고르고, 다리도 새로 놓는 등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을 뿐이다. 앞에서 언급한 『도로고』(1770년)에 제주로의 별로(別路) 격으로 소개된 ‘자경성유노량진저별사근천일로(自京城由鷺梁津抵伐沙斤川一路)’가 바로 이 길이다(노량진-마장내현(馬場內峴 : 서울 시 신대방동)-시흥-안양리-갈산전로-별사근천). 현릉원 천장보다 20여 년 앞선 기록이니만큼 수원로를 오로지 정조가 연 것은 아닐 것이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과천을 경유하는 제주로는 70리 길이고, 시흥을 경유하는 수원로는 80리 길이다.

서울에서 노량진까지는 남대문-이문동(里門洞 : 서울역 부근)-주교(舟橋 : 용산구 서계동)-청과역(靑坡驛 : 청과2·3가동)-석우참(石隅站 : 남양동과 원효로

의 경계)-당현(堂峴 : 용문동)-만초천(蔓草川 : 무악천·육천)-습진기(習陣基)를 경유한다. 만초천은 서대문구 무악재에서 발원하여 의주로-청파로-원효로를 따라 남류하다가 현 원효대교 북단에서 한강으로 들어간다. 앞의 배다리[舟橋]가 만초천에 놓인 다리이다.

문성동은 독산동 일대의 큰 취락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기 어렵다. 지금은 문성초등학교(독산본동), 문성골길(독산3동-문성터널-신림동) 등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 노량진에서 문성동까지의 경로는 노량진본동-동작세무서 진입로-장승백이길-장승백이삼거리-상도동길-신대방삼거리 남향 후 서향-동작우체국-대방로-대림삼거리-구로공단역(서울 지하철 2호선)-시흥I.C.(남부순환로)로 이어지는데, 대림삼거리부터 수원행궁까지의 수원로가 옛 국도 1호선이다.

당시 시흥의 치소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이다. 지금은 정확한 위치조차 잘 가늠할 수 없는데, 금하로와 은행나루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있는 은행나루와 그 옆에 세워 둔 시흥현령 선정비만이 원 시흥의 치소임을 항변하는 듯하다. 현재의 시흥5동과 시흥2동 일대가 옛 읍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 같다.

안양행궁이 『도로고』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정조의 능행 이후에 만들어진 까닭인 듯하다. 경도에서 안양행궁까지는 40리에 불과하지만 한강을 건널 때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부지런히 움직여야 첫날을 이곳에서 묵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안양행궁은 보통은 둘째 날 잠시 쉬어 가거나 점심 식사를 위해 들렀던 것 같다. 이 행궁 터 역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다. 『대동지지』에 “만안교 남쪽에 있다.”고 부기하였고, 『대동여지도』에는 안양천 북안 시흥군 땅에 ‘안양’이 기재되어 있다. 이로부터 추정해 보면 오늘날 석수동 어느 곳이거나 안양교사거리 부근으로 생각된다. 정조 사후에 편찬된 『경기지』(1842~1843년)와 『경기읍지』(1871년)에도 시흥군 공해조(公廩條)에 104칸 규모의 행궁이 소개되어 있다.

안양행궁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현 안양역 앞쪽의 이른바 ‘안양1번지’ 일대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곳은 당시 과천현 소속인데, 앞의 경우와 달리 과천현

조에서 행궁을 소개하는 지리지는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동여지도』에 기재된 ‘안양’과 ‘안양행궁’이 과연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안양1번지’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 일제시기에 발행된 「1:5만 지형도」에는 지금의 석수동과 안양역 두 곳에 모두 ‘안양리’라는 지명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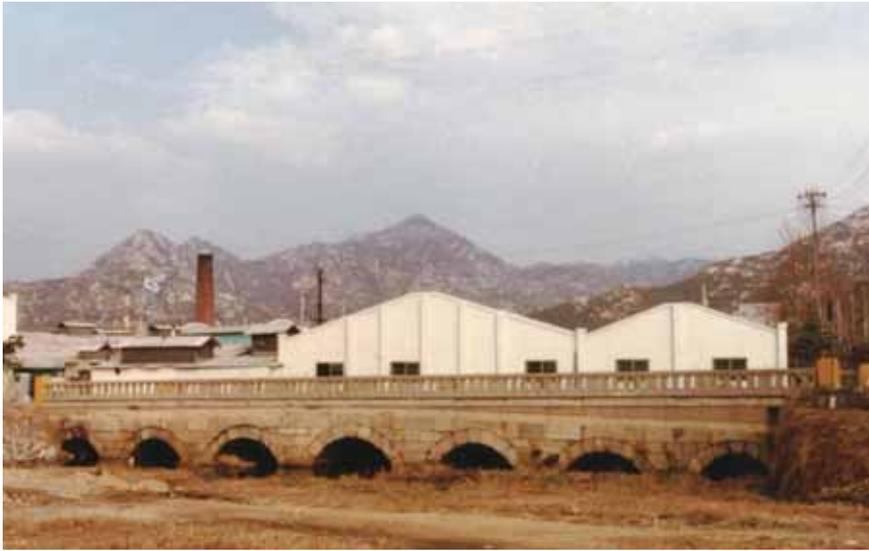
만안교는 1795년(정조 19) 수원성 축성과 더불어 건설되었다고 하나, 이전부터 있던 것을 정조 대에 크게 수축한 것 같다. 『동국여지지』(1660년대) 금천현 교량조에 “안양교(安養橋) : 현남십육리(縣南十六里)”로, 『경기지』와 『경기읍지』 시흥현에 “안양교(安養橋) : 현남십리(縣南十里) 과천계(果川界)”로, 『대동지지』에는 “만안교(萬安橋) : 재남십리(在南十里) 안양천통수원대로(安養川通水原大路)”로 기록되었으니,

안양교가 곧 만안교이다. 다만 이 안양교는 돌다리가 아닌 나무다리가거나 쉼다리를 썼을 것이다. 석교의 경우 지리지는 대체로 석교임을 표시하는데, 안양교는 그렇지 않다.

만안교는 길이가 31.2m, 폭이 8m에 달하고, 7개의 홍예수문을 갖추고 있어, 지방에 놓인 다리치고는 상당히 규모가 큰 것이었다. 현재의 만안교는 1980년에



『대동여지도』에 나타난 ‘안양’의 위치  
\_수원로와 만안교 위치



\_1970년대 중반 만안교와 현재 이전·복원된 만안교(안양시청 향토사료실 제공)

삼성천 위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해체하여 옮겨 온 것이다. 원래 있던 자리에는 만안삼성교가 놓여 있다. 일제시기 지형도에도 비록 이름은 없으나 만안교가 표시되었다. 18세기 말에 세워진 돌다리 만안교는 20세기 후반까지 근 200년 동안 그 역할을 담당하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국가의 지상과제였던 시절 만안교는 수인산업도로 건설에 골치 아픈 애물단지가 됐다. 요즘 같으면 이전(移轉)에 앞서 노선 변경을 고려했음직도 하지만 당시로서는 200년 전 돌다리보다는 8차선 아스팔트도로가 더 먼저였다. 만안교는 이전할 때까지 화물차 두 대를 교행시킬 정도로 거뜬하였다.

서울에서 현릉원까지 능행길에 정조가 건너야 하는 강은 한강 외에도 적지 않았다. 도림천·삼성천은 물론 안양천 본류도 두어 번 건너야 했을 것이고, 지지대 고개 밑에서는 사그내천을, 수원행궁을 지나서는 황구지천을 건너야 했다. 아파 행차 시에는 모두 임시방편적인 다리를 놓았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다리를 견고하게 건설하지 않았다. 웬만큼 견고하지 않고서는 한여름 집중호우 시 내려오는 거센 물살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교량 건설에 굳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았다. 교량 건설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교량 건설을 일종의 연중행사처럼 여길 정도였다. 더구나 증수기(增水期)만 지나면 하천 유량은 다시 급격히 줄어들어 대부분의 소하천은 걸어서 건너다녔기 때문에 교량 건설의 필요성은 더욱 약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것은 만안교가 안양천 본류가 아니라 그 지류인 삼성천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안양천 본류만 해도 석교를 놓기에 부담스러운 하폭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만안교 위로 차가 다니지 못한다. 옮겨 간 위치도 그렇지만 문화재(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8호, 1973년 7월 10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보 또는 자전거 통행은 가능하다. 관악역을 이용하여 통학·통근하는 석수2동 주민들에게 만안교는 특히 요긴하다. 정조는 이 다리를 스무 번 이상 넘었다. 내가 매일 넘나드는 다리를 220여 년 전에 나랏님도 넘었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

하는지 새삼 궁금해진다.

사근행궁은 현 의왕시 고촌동사무소 자리에 있었다. 동사무소 앞에는 이곳이 행궁터임을 알려 주는 표지석이 있다. 이 표지석에는 “억울하게 돌아간 선왕의 원혼을 달래고자 머나먼 능행을 했던 정조의 큰 뜻을 교훈삼아 의왕(儀旺)의 행정 중심지인 이 자리에 효행을 몸소 실천한 정조의 거룩한 뜻을 후세에 기리기 위해 우리의 뜻을 모아 이 돌에 새긴다.”라고 적혀 있다. 사근평(肆觀坪)이란 이 일대를 흐르는 사근천 연안의 충적지를 일컫는 것 같다. 사근천은 안양천 본류의 상류에 해당한다. 수원로는 이곳 사근평에서 제주로[해남로]와 만나 지지대고개를 넘는다. 1914년까지 이 고개 북쪽은 광주 땅이었다. 지지대고개는 한남정맥상에 있다. 고개를 넘으면 한강 유역권(안양천)을 넘어 황구지천 유역권으로 접어든다. 황구지천은 진위천의 상류이다.



사근행궁(1939년 고천공립학교 제1회 졸업앨범) 일제시기에 사근행궁은 이미 사라지고 문만이 남았다.

지지대고개에 올라 수원 쪽으로 내려가는 고갯마루에도 다리가 하나 있는데, 괴목정교(槐木亭橋)이다. 지금 자리도 원 자리는 아닌 듯 부근에 괴목정교의 위치를 알려 주는 표지석이 있었다. 지지대고개를 다 넘었다고 생각될 즈음에 다시 국도 1호선 큰길을 만난다. 수원로는 이 국도변 LPG충전소 앞에서 남서쪽으로 갈라지는 장안로 346번길로 이어진다. 지금은 2차선의 작은 길이지만 일찍이 1910년대에 신작로로 개수되어 1등도로가 되었다.

초입에 ‘노송지대’라는 고동색 안내판이 있다. 도로변에 설치된 안내문에는 “지지대고개 정상으로부터 서울-수원 간 국도변에 노송이 성장하는 5km 구간을 일컫는다. 조선시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의 나무를 심은 관리에



괴목정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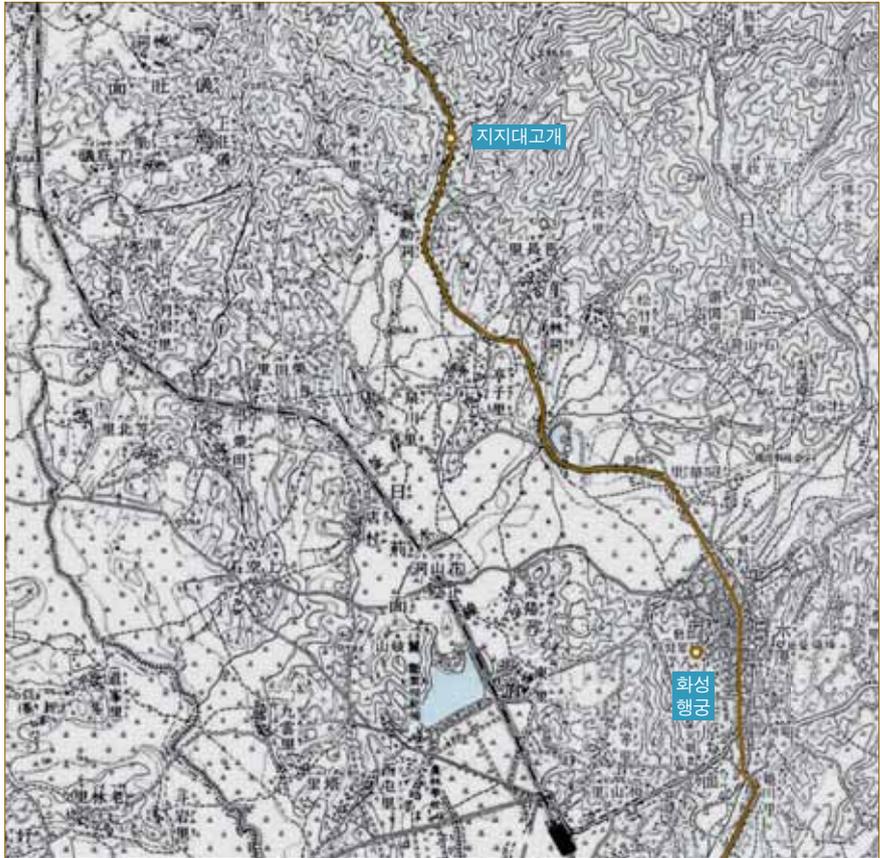


계 1,000냥을 하사하여 이곳에 소나무 500그루와 능수버들 40그루를 심게 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대부분 죽고 일부만이 보존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일제시기에 1등도로였고, 국도 1호선이었던 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동쪽 파장동 산록을 깎아 새롭게 국도 1호선을 내면서 가로수로 심어진 소나무도 보존될 수 있었다. 일제시기 1등도로의 규모가 아마 이 정도였을 것이다.

이 길가의 나무들은 일제시기 지형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부 소나무의 모습으로 보아서는 정조 때 심었다는 그 소나무일 듯하다. 지형도에 가로수들은 의왕시 골사그네 마을에서부터 시작되고 영화리 일대에도 표시되어 있다. 지금 장안구 정자동의 송정로인데, 이 길에도 새로 소나무를 심어 가로수로 조성해 놓았다. 일제 때 제작된 지형도에 근거하여 추정해 보면 지지대고개부터 행궁까지의 능행길 노선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지금은 수원박물관으로 옮겨진 괴목정교 표석  
수원로 노송지대(장안로 346번길)



장안로 346번길-(노송삼거리)-장안로(4차선)-(노루마당사거리)-과장로-만석로159번길-(만석삼거리-송죽치안센터-만석공원 내부 산책로-SK청솔노인복지관)-송정로-(운동장사거리)-정조로-장안문-행궁

왕복 2차선의 장안로 346번길은 노송삼거리에서 장안로와 만나 넓어진다. 장안로를 따라 내려오다가 노루마당사거리에서 약간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과장

\_지지대고개에서 행궁까지



로로 접어든다. 파장로는 2차선으로 노퍽이 줄고 노선도 구불구불하여 장안로에 비해 훨씬 옛스럽다.

옛길은 농협 복수원지점(파장동 599번지) 앞에서 파장로를 벗어나 만석로 159번길로 이어진다. 파장로와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소나무가 파장로보다 좋다. 만석로 159번길이 만석로 본선과 만나는 지점에 다다르면 만석공원(장안구 송죽동) 내의 일왕저수지가 보인다. 화성 축성 시 인근 주민의 농업용수원으로 1795년에 저수지인 만석거(萬石渠)를 축조하였는데, 1998년에 이를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만석거는 1910년대에는 물론 1970년대까지도 농업용수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만석’이라는 이름은 쌀을 1만 석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붙였다고 한다. ‘만석’은 공원 이름이 되었고, 실체였던 저수지는 일왕저수지가

\_일왕저수지(만석거)

되었다. 1936년에 수원군 일형면과 의왕면이 일왕면이 되었는데, 저수지 이름은 이 이후 붙였을 것이다. 웬지 만석저수지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만석공원 내에는 영화정이라는 건물 한 채가 단아하게 자리 잡고 있다. 1795년 9월 화성 축조공사가 한창일 때에 완공된 정자이다. 이듬해 봄 정조가 어머니 회갑연을 위해 화성을 방문할 때 “이 정자에 들러 꽃을 맞는다.”는 뜻으로 영화정(迎華亭)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본래 위치는 송원중학교 안이나 그 부근이었던 듯하다.

수원로 노선은 만석삼거리에서 송죽치안센터 서쪽으로 난 공원 내 산책로를 따라 내려간다. 왼쪽에 저수지를 끼고 가다 보면 청솔노인복지관 뒤쪽에 다다르고, 이어서 다시 큰 길을 만나는데 송정로이다. 수령이 많지 않아 드러나는 위엄은 작지만, 장안로에 이어 송정로에도 소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다. 송정로로 계승된 수원 옛길은 운동장사거리(장안구 조원동)에서 정조로로 이름을 바꾼 후 장안문을 통과하여 행궁 앞 종로사거리까지 이어진다.

## , 가

『대동지지』에 행궁 다음은 바로 종점인 건릉이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그리 짧지 않음에도 아무런 경유지가 없어 노선을 비정하기가 쉽지 않다. 김정호는 『동여도』에서는 두 지점 사이에 상·하류천(上·下柳川)과 대황교(大皇橋)를 표기하였다. 행궁에서 건릉까지는 다른 어떤 구간보다 옛길을 찾기가 어렵다. 일찍이 수원 시가지 개발계획이 적용된 지역일뿐더러 일부가 군사시설(수원비행장) 내부로 편입되면서 길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동여도』를 단서로

삼고 일제시기 1:50,000 지형도에 근거하여 노선을 비정하면 다음과 같다.

행궁-팔달문-교동사거리-매교삼거리-팽나무고개삼거리-정조사거리-세류사거리-(수원비행장 : 대항교)-태안로(황계교 서단)-화산교 서단-월계남로(또는 화산초등학교-원송산길)-용주로-용주사-현룡원

행궁을 나와 종로사거리에서 남쪽으로 난 길이 정조로이다. 이 길은 현룡원까지 이르는 여정의 근간을 이룬다. 능행길은 화성의 남문인 팔달문을 지나 교동사거리-매교삼거리-팽나무고개삼거리로까지 이어진다. 매교삼거리와 팽나무고개삼거리 사이를 흐르는 하천이 수원천이다. 팽나무고개삼거리에서 정조로는 수원천의 유로 방향과 같이 남서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정조로 536번길과 접하는 교차로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튼다. 일제시기의 지형도에 따르면 이후 능행길은 경부철도를 넘어 대항교에 이르렀으나 수원비행장 건설과 철도선의 변경 등으로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다. 경부철도가 능행길을 가로지른 지점이 하류천 마을이 있던 곳인데, 세류역 북쪽 500~600m 지점 즈음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수원비행장 내부로 편입되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비행장 안쪽에 편입되어 옛 능행길이 소멸한 구간은 여기서부터 황계교(화성시 황계동) 서쪽 끝부분까지이다.

『동여도』에 표시된 상류천과 하류천은 하천명이 아니라 취락명일 것이다. 일제시기의 지형도에는 상류천리와 하류천리로 표기되어 있다. 지금은 권선구 세류동에 속한다. 『동여도』에 그려진 물줄기 중 가장 서쪽의 것은 황구지천 본류일 것이다. 황구지천은 황구지리(평택시 서탄면)에서 진위천에 합류하는 지류로 분류되지만 유로연장이 진위천보다 더 긴, 큰 강이다. 그러나 실제 상류천 마을과 하류천 마을은 수원천 주변에 위치해 있다. 『동여도』급 축척에서 수원천은 표시될 만한 규모가 아니기도 하지만, 수원로가 수원천을 따라 놓여 있기 때문에 수원천을 더욱 그럴 수 없었을 것이다. 수원천은 황계교 아래에서 황구지천에 합류한다.



『동여도』에 그려진 수원로  
 \_1910년대 상·하류천리와 대황교  
 \_상류천 표석  
 \_하류천 표석



『동여도』에도 잘 드러나듯이 대황교는 황구지천 본류에 놓인 다리이다. 대황교는 현재에도 권선구 대황교동에 남아 있지만 본래의 것은 아니다. 이 대황교는 정조로를 이어 주는 다리로, 원천리천 위에 있다. 본래의 것은 1970년에 수원비행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없어졌다. 대황교를 건넌 수원로는 황학리까지 황구지천 서안을 따라 내려간다. 이 황구지천 서안길은 오늘날 태안로로 명명되었다.

수원로는 태안로를 따라 화산교(화성시 송산동) 앞에까지 이어진다. 이후 용주사까지의 노선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가 월계남길을 따라 용주사로 이어지는 길이고, 둘째는 월계남길로 접어든 후 화산초등학교까지 더 내려와 마을길(원송산길, 화산중앙로 78번길)을 따르다가 용주사로 이어지는 길이다. 용주사 이후 현릉원까지의 능행길은 용주로와 같다.

—일제시기 대황교(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 - 수원군』, 1929)



만약 용주사를 경유하지 않았다면 정조는 화산교에서 더 남쪽으로 송산교까지 내려와 효행로(84번 도로)를 이용했을 것이다. 이 길은 일제시기에 2등도로로 정비되어 지역 내에서는 일찍부터 주요 도로로 기능하였다. 이처럼 효행로가 능행길로서의 가능성이 있지만 좀 더 이른 시기에 제작된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1895년경)에는 효행로의 구간이 되는 현릉원과 오산화성고속도로 진입로(만년로와의 교차로, 신한미지아파트 앞) 사이에 길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만 이 구간에 만년제(萬年堤)가 있어 능행길로서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만년제는 1798년(정조 22)에 완성한 저수지 제방을 일컫는다.

만년제를 완성하였다. 만년제는 현릉원의 동구(洞口)에 있다. 상이 연신(筵臣)에게 이르기를, “이번 화성의 만년제 공사는 백성 한 사람의 힘도 쓰지 않고서 며칠 만에 완성했으니 참으로 큰 다행이다. 원침(園寢)의 수구(水口)에 이 방죽

\_일제시기 용주사(수원박물관 소장)

물을 저장해 두면 현릉원 밑의 백성들 토지에 이것으로 물을 대게 될 것이니, 이것이 마치 저 장안문 밖에 만석거를 만들고 여의동(如意洞)을 쌓고 대유둔(大有屯)을 설치한 것과 같은 뜻이다.”

정조는 화성 건립과 함께 주변 지역에 여러 저수지와 둔전을 개발한다. 그중 하나가 만년제이다. 관개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생 안정을 도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역으로 그만큼 보상심리가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만년제는 며칠 만에 완성했다고 하니 규모가 크지 않았던 모양이다. 만년제가 ‘원침의 수구’ 자리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특이하다. 풍수 논리에서 유수가 빠져나가는 수구는 지기(地氣)가 빠지는 곳이라 하여 대표적인 비보(裨補)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수구 부근에 나무를 심거나 돌을 쌓아 수구막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조도 만년제가 이러한 기능도 병행하기를 기원했던 것일까. 사실 여부를 떠나 현릉원에 대한 애절함이 여기서도 묻어난다. 앞의 기사 다음에는 정조가 제언 축조 등의 공사에 대해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잘 몰라 준다며 “뒤에 나의 고심을 알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기사 중에 만년제는 백성 한 사람의 힘도 쓰지 않고 완성하였다 하니 정조는 현릉원 참배 전후에 이곳을 들렀을 지도 모르겠다. 만년제는 1996년에 경기도 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되었다. 지금도 물을 채워 놓고 농업용수로 사용한다.

융건릉은 화성시 안녕동에 있다. 융릉과 건릉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융릉은 사도세자와 그 부인 혜경궁 홍씨의 합장묘이고, 건릉은 정조와 그 부인 효의왕후

의 합장묘이다. 현릉원은 110년이 지난 1899년에 융릉으로 격상되었는데, 사도세자가 고종의 고조부가 되기 때문에 그를 장조로 추송했기 때문이다. 수은묘, 영우원, 현릉원에 이어 네 번째 이름이다. 1735년에 태어난 혜경궁 홍씨는 1815년에 80년의 생을 마감하였다. 홍씨가 다시 남편 옆에 눕는 데에는 5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800년에 정조가 죽었으니 효자 왕 없이도 15년을 더 살았다. 효의왕후는 1821년에 건릉에 합장되었다.

능 입구에 들어서면 동쪽에 융릉이 있고, 그 서쪽으로 조금 높은 곳에 건릉이 있다. 처음에 건릉은 융릉의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 있었다. 효의왕후가 승하하고 건릉 부근에 안장하려다가 풍수가 좋지 않다 하여 건릉을 현재의 위치로 옮기고 합장한 것이다. 이장처로 경기도 교하가 물망에 오르기도 했으니 융건릉이 사라질 뻔도 하였다. 두 왕릉 사이에는 작은 골짜기가 하나 있다. 이는 건릉의 동쪽과

..융릉(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_용릉과 건릉의 위치 위성이미지에 1910년대 지형도를 맞춘 것이다.  
\_아버지 사도세자의 곁에 묻힌 정조(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용릉의 서쪽에는 각기 하나씩의 산줄기가 흘러내려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릉이 교하로 옮기지 않았으니 부자가 한 울타리 안에 계속 살게 되었지만 이 산줄기에 가려 두 왕은 서로 볼 수가 없다.

용건릉은 1970년 사적 제206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왕릉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용건릉은 수원 화성과 함께 세계유산으로서의 수원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수원 시민을 포함하여 매년 수십만 명 이상이 용건릉을 찾는다. 한 개인으로서의 정조는 참으로 매력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 정조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의 매력에 빠진다고 하고, 정조를 알면 알수록 그 매력은 더욱 커진다고 한다. 실제 정조는 소설이나 영화·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했고, 언제나 인기를 얻었던 것 같다. 그만큼 정조는 우리에게 그리움의 대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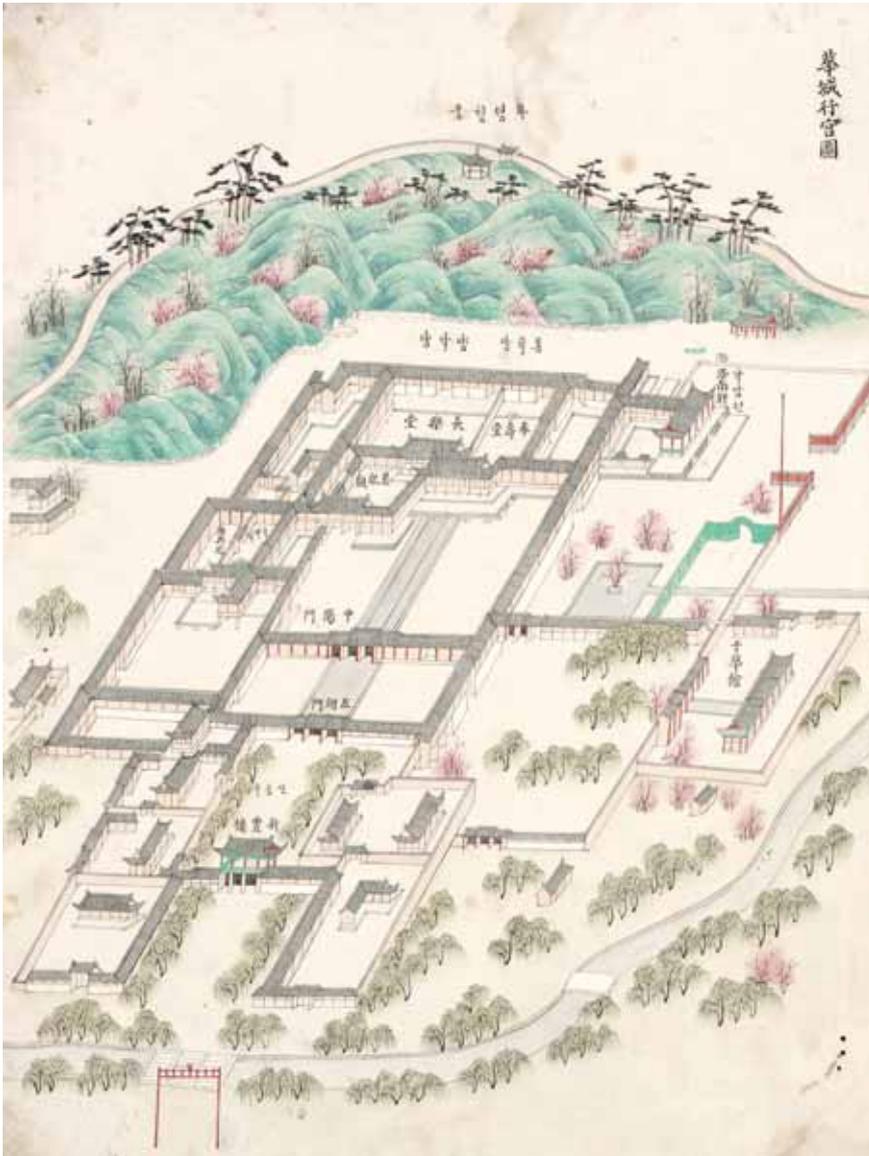


## 04

편액(扁額)은 건물이나 정자에 걸어 두는 글자를 가리킨다. ‘편(扁)’은 가로로 된 것, ‘액(額)’은 세로로 된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통상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편액은 고대 건축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건축물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편액은 건축물의 장식으로도 사용되지만 건축물의 명칭이나 성격을 반영한다. 인간이 건축물에 대해 갖는 감정을 표현한 예술의 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편액’은 건물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옛날에는 큰 건물이라고 해 봐야 궁실(宮室)이나 관청 또는 사찰(寺刹)이기 때문에 현전하는 편액들 역시 이들 건물에 걸려 있던 것이 대부분이다.

수원 화성은 편액이 많기로 유명하다. 건물이 많이 있으니 당연한 일이지는 하지만, 이곳의 편액들은 좀 특별하다. 그것은 왕이 직접 글씨를 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왕이 아끼던 신하들의 글씨도 상당수에 이른다.

1790년(정조 14) 수원부(水原府)에 득중정(得中亭), 진남루(鎭南樓), 좌익문(左翊門), 강무당(講武堂), 와호헌(臥護軒) 및 창고와 행랑이 완성되었다. 모두 34여



「화성행궁도」(『원행정리의계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칸이었다. 수많은 건물과 누정(樓亭)이 들어섰고 건물마다 편액이 걸렸다. 그리고 편액은 정조의 어필(御筆)과 당대 최고 서가들의 글씨로 채워졌다. 『홍재전서(弘齋全書)』에는 그 편액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화성의 편액들은 모두 의미가 있으니, 봉수당(奉壽堂)과 장락당(長樂堂)은 을묘년(1795, 정조 19)에 자궁(慈宮)의 수레를 모시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낙남헌(洛南軒)은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낙양(洛陽)의 남궁(南宮)에서 주연을 베풀었던 뜻을 취한 것이고, 우화관(于華觀)은 화(華) 땅의 봉인(封人)이 축원한 뜻을 취한 것이고, 유여택(維輿宅)은 『시경(詩經)』 「황의장(皇矣章)」의 뜻을 취한 것이고, 복내당(福內堂)은 조충국(趙充國)이 말한 “거병이 밖에서 제대로 되면 복이 안에서 생겨난다.”는 뜻을 취한 것이고, 경룡관(景龍觀)은 등영주(登瀛洲)의 학사들이 임금의 시에 화답한 것을 본뜬 것이고, 중앙문(中陽門)과 신평루(新豐樓)는 패리(沛里)의 옛 이름을 취한 것이고, 팔달문(八達門)은 산의 이름이 팔달이므로 문도 팔달이라고 하여 사방팔방에서 배와 수레가 모이는 뜻을 취한 것이고, 장안문(長安門)은 북쪽으로 서울의 궁궐을 바라보고 남쪽으로 원침을 바라보아 만 년의 편안함을 길이 알리는 뜻을 취한 것이고, 화홍문(華虹門)은 무지개가 달처럼 화성의 못에 내려 비추는 뜻을 취한 것이고, 창룡문(蒼龍門)은 그 형상을 취한 것이고, 화서문(華西門)은 그 방향을 분별한 것이고,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은 화산(花山)과 유천(柳川)의 의미를 취한 것이다. <『홍재전서』 제177권, 「일득록(日得錄)」 17, 훈어(訓語) 4>

이처럼 정조는 편액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때로는 고사를 인용하였고, 때로는 지명을 이용하였으며, 때로는 자신의 심정을 편액에 담았다. 따라서 화성의 편액을 보면 정조의 심사를 읽어 낼 수 있는 것이다. 화성의 편액들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제 중요한 편액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 「 (長安門)」 \_

화성에는 동서남북 네 곳에 문이 있다. 서울을 향한 북문이 장안문(長安門)이다. 이곳에는 「장안문」이란 편액이 걸려 있다. 당대 최고의 명필인 송하(松下) 조윤형(曹允亨 : 1725~1799년)이 썼다. 조윤형은 화성의 편액을 가장 많이 쓴 인물로, 「팔달문(八達門)」과 「신평루(新豊樓)」 등의 편액도 썼다. 조윤형은 일찍이 경복궁(景福宮) 「서향각(書香閣)」의 편액을 썼고, 청나라에서 수입해 온 5,020책이 나 되는 거질의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의 표제 글씨를 쓰기도 하였다. 또한 정조는 황운조(黃運祚)와 조윤형에게 『춘추(春秋)』의 ‘강(綱)’자를 쓰게 하고, 이



\_일제시기 장안문(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를 활자로 만들기까지 하였다. 물론 조윤희가 글씨를 잘 썼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정조가 그의 글씨를 중시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일찍이 『춘추(春秋)』에 대해서 대자(大字)로 경문(經文)을 쓰고, 그 아래에 「좌씨전(左氏傳)」을 붙여 마치 주자(朱子)가 『자치통감강목(自治通鑑綱目)』을 만든 것처럼 하였다. 이에 문충공(文忠公) 조한영(曹漢英)의 손자인 지돈령부사 조윤희와 충렬공(忠烈公) 황일호(黃一皓)의 손자인 돈령부도정 황운조에게 모두 각 편(編)을 일부(一部)씩 쓰게 하였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글씨를 잘 썼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문(家門)의 명성(名聲)을 취한 것이다.<『홍재전서』 제 7권, 「시(詩)」 3>

조한영(曹漢英 : 1608~1670년)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원병을 요청하고 세자를 심양에 볼모로 보낼 것을 요청하자 이를 반대하는 만언소(萬言疏)를 올린 인물이고, 황일호(黃一皓 : 1588~1641년)도 인조를 수행하며 남한산성에서 독전어사(督戰御使)로서 공을 세우고 척화(斥和)를 적극 주장한 인물이다. 정조는 조윤희가 바로 이런 인물의 후손이란 점에서 그의 글씨를 높이 샀던 것이다. 정조의 명으로 조윤희가 편액을 쓸 때의 일화가 전하고 있다.

송하 조윤희가 일찍이 어전(御前)에서 화성 장안문 등의 편액을 썼는데, 먹이 옷소매를 적시자 정묘(正廟)가 옷을 띠에 깨끗이 씻도록 명하였다. 또 춘축(春祝)을 여러 본 쓰도록 명하여 새겨 내각(內閣)에 두었다.<이유원, 『임하필기』 제30권, 「춘명일사(春明逸史)」>

정조가 조윤희를 얼마나 아꼈는지 잘 알려 주는 기록이다. 장안문은 서울에서 온 정조를 제일 먼저 맞이하던 문이다. 그런 곳에 그가 아끼던 조윤희의 글씨를 걸고 싶었을 것이다.

또한 장안문과 관련되어 「장안문루화총리대신운(長安門樓和摠理大臣韻)」 편액이 남아 있다. 이는 정조가 총리대신 채제공의 시에 화답하여 지은 시이다.

霜露桑鄉歲幾翻  
寸心無處答隆恩  
經營屹屹雉墉壯  
拱護重重象設尊  
萬戶橫臨湖右路  
三軍氣湧鎮南門  
人和此地予何力  
盛德膺傳昔幸溫

고향에 서리 이슬은 몇 해나 내리었던고  
한 치 마음이 높은 은혜 보답할 곳이 없네.  
경영한 건 우뚝해라 성 담장이 장엄하고  
겹겹으로 웅위해라 천연의 절벽 높다랗네.  
일만의 민호는 호우의 길에 가로로 임했고  
삼군의 기운은 진남의 문에 용솟음치누나.  
이 땅의 인화를 어찌 내 힘으로 이루었으랴.  
온천 행행 그때의 성덕이 아직도 전해진다오.

1794년 1월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화성 성곽의 축조 현장을 그해 겨울 둘러보던 정조가 이미 완공된 장안문 누각에서 채제공이 지은 시에 화답하는 형식을 빌려 자신의 느낌을 읊었다. 화성 성역에 만족감을 표하는 정조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편액은 흑색 바탕에 음각으로 글을 새기고 금색으로 칠하였다. 판을 둘러싼 테두리는 상변에만 남아 있는데, 청칠 바탕에 화문(花紋) 등의 문양이 그려져 있다.



\_1794년(정조 18)에 만들어진 「장안문루화총리대신운(長安門樓和摠理大臣韻)」 편액(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 (壯南軒) 」 \_

1790년 원행(園行)에서 현릉원(顯隆園)에 제사를 마친 후 수원부로 돌아온 정조는 동헌(東軒)을 장남헌(壯南軒), 내사(內舍)를 복내당(福內堂), 사정(射亭)을 득중정(得中亭)이라 이름 짓고 친히 편액을 써서 내렸다. 장남헌은 이후 1795년 을묘원행(乙卯園行) 시에 봉수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또 장남헌의 방 벽에는 조윤형이 쓴 큰 글씨가 있었다고 한다.

장남헌의 방 벽에 초서로 쓴 큰 글씨가 있는데, 바로 송하 조윤형이 쓴 것이다. 그 글은 “늙기 전에 한가로움을 얻으니 바로 이것이 한가로움이네[未老得閒方是閒].”이다. 정조께서 벽에 쓰도록 명한 것이고, 별도의 종이에 쓴 것은 아니다. 수리할 때 이 글씨를 고치지 않아 지금까지도 묵광(墨光)이 넘쳐흐르고 도깨비들이 근접하지 못하니, 아마도 조물주의 숨씨를 능가하는가 보다.<이유원, 『임하필기』 제30권, 「춘명일사」>

하지만 조윤형이 장남헌의 방 벽에 썼다고 하는 글씨는 전하지 않고 「장남헌」



\_ 「장남헌」 편액(1790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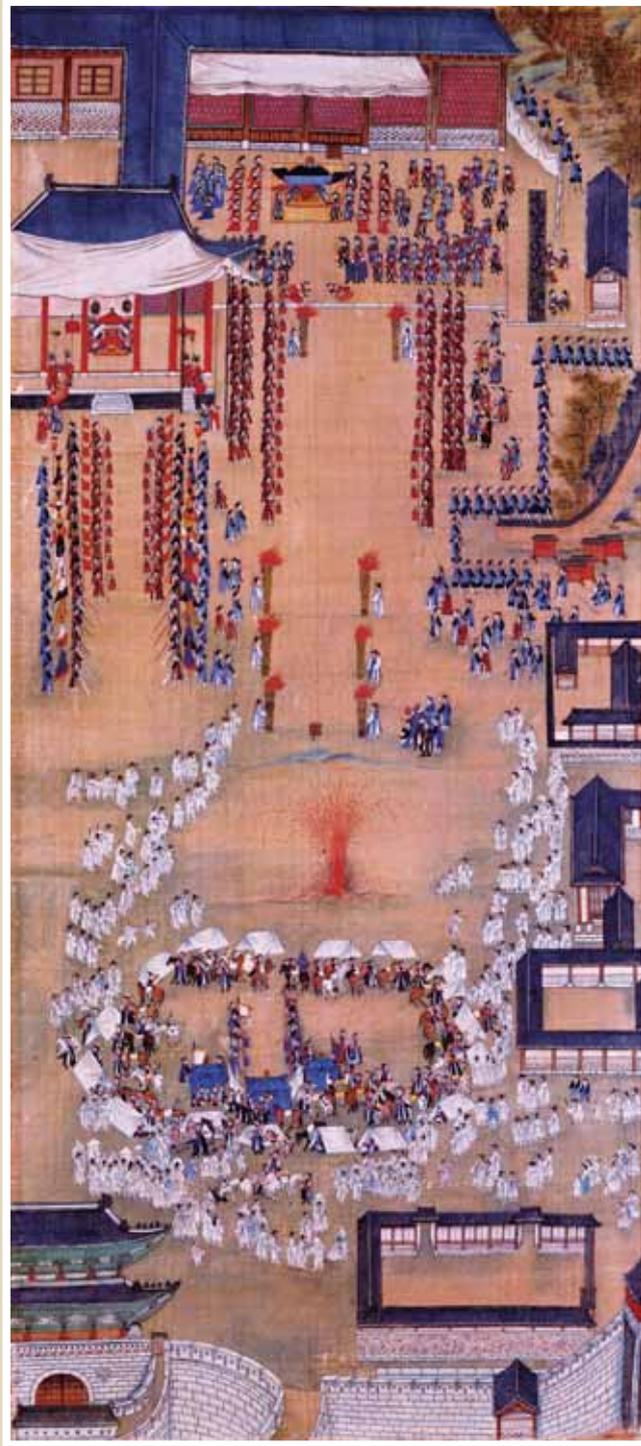
편역만 남아 있다. 정조는 여러 가지 글씨체를 썼는데, 「장남헌」은 기본적으로 해서(楷書)이지만 행서(行書)의 맛이 느껴진다. 장중함과 함께 활달한 느낌이 든다.

## 「 (得中亭)」 \_ 가

1790년 원행 시 정조는 득중정에 올라 활을 쏘았다. 4발을 쏴아 모두 맞았는데, 이를 기념하여 정자의 이름을 ‘득중정’이라 하고 친히 편액을 내렸다. 이는 『예기(禮記)』 「사의(射儀)」의 “활을 쏴아 과녁에 맞으면 제후가 될 수 있고, 과녁에 맞지 않으면 제후가 될 수 없다[射中則得爲諸侯, 射不中則不得爲諸侯].”에서 ‘득(得)’자와 ‘중(中)’자를 따온 것이다.

사(射)는 ‘역(釋)’이란 말이다. 어떤 사람은 ‘사(舍)’라고도 한다. 역(釋)이란 것은 각자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평온하고 몸이 바르면 활과 화살을 잡는 게 건고하고, 활과 화살을 건고하게 잡으면 과녁에 명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버 된 자는 아버의 과녁으로 삼고, 아들 된 자는 아들의 과녁으로 여기며 임금 된 자는 임금의 과녁으로 여기며 신하된 자는 신하의 과녁으로 여긴다. 그래서 활쏘기는 각자 자신의 과녁을 쏘는 것이다. 천자(天子)의 활쏘기는 ‘사후(射侯)’라고 하는데, ‘사후’는 제후(諸侯)를 위해서 활을 쏘는 것이다. 활을 쏴아 과녁에 맞으면 제후가 될 수 있고, 과녁에 맞지 않으면 제후가 될 수 없다.

결국 활쏘기는 자신의 의지와 지향하는 바를 펼쳐 보이기 위한 것이다. 각자 자신에 맞는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과녁을 향해 활을 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점검하는 것이다. 자신을 성찰하고 규율하는 것이다.



『독중정어사도』(『화성능행도병』,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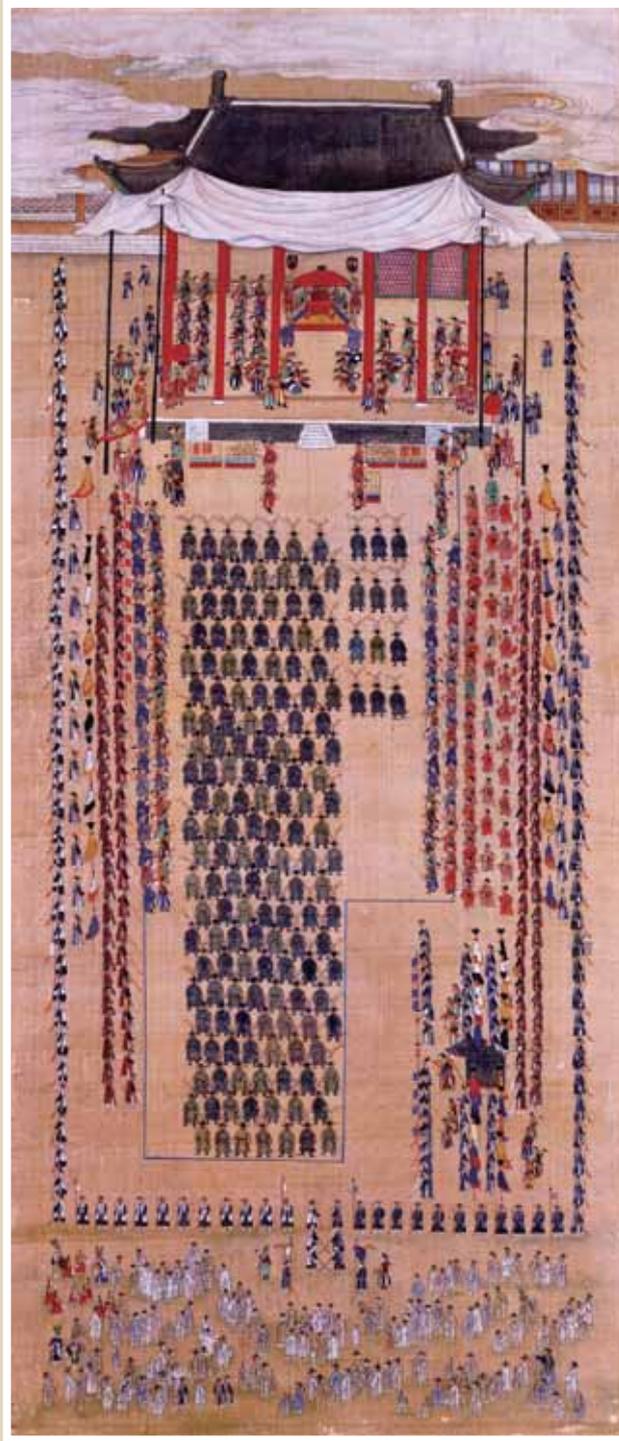


임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활쏘기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으면 백성들에게도 좋은 것이고, 임금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다. 정조가 그토록 활쏘기에 힘썼던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 편액의 글씨는 정조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듯 시종 힘이 넘치고 위엄이 서려 있다. 정조는 1795년 윤2월 14일에 득중정에서 활을 쏘고 매화포(埋火砲)를 관람하기도 하였다.

「 (洛南軒)」 \_

화성행궁 낙남헌에 걸려 있던 편액이다. 한나라 유방(劉邦)이 황제를 자칭하며 낙양(洛陽)에 도읍을 정하고 낙양의 남궁(南宮)에서 잔치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유방은 신하들과 천하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특히 유방은 장량(張

\_ 「득중정」 편액(1790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낙남현방방도」(「화성능행도병」,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良), 소하(蕭何), 한신(韓信) 등 세 인재를 잘 등용하여 천하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정조는 바로 이 고사를 끌어다가 건물의 이름으로 삼았던 것이다. 유방이 인재를 잘 등용하여 천하를 손에 넣었듯이, 천하의 훌륭한 인재를 잘 등용하여 태평성대를 열겠다는 정조 자신의 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글씨는 송하 조운형이 썼다.

「 (華城行宮) 」 \_ (心畫)

1789년 가을에 수원부 관청을 팔달산 아래로 옮겨 짓고, 그 건물을 그대로 행궁으로 삼았다. 정당(正堂)은 평상시에는 부사(府使)가 집무를 하던 곳으로, 정조가 「장남헌」 또는 「화성행궁」이라 편액을 썼다. 「화성행궁」 편액의 우측 상단

「낙남헌」 편액



①



②



③

에는 홍재(弘齋)란 인장이 새겨져 있고, 좌측에는 ‘여천위십유팔년계축맹춘(予踐位十有八年癸丑孟春)’이라는 글자와 ‘규장지보(奎章之寶)’라는 인장이 새겨져 있다. 1793년 1월에 썼다는 기록과 정조의 인장이 함께 있어 형식을 제대로 갖춘 편액임을 알려 주고 있다. 정조가 이 편액에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려 주는 기록이 『홍재전서』의 「일득록」에 남아 있다.

수원부(水原府)를 행궁(行宮)으로 승격시키고 화성(華城)이라는 고을 이름을 하

『화성행궁』 편액(1793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 ① 정조의 호인 '홍재'의 양각 부분
- ② 정조 즉위 18년 1월에 편액을 썼음을 밝힌 부분
- ③ 정조의 낙관으로 사용된 '규장지보'의 양각 글씨

사하고, 직접 ‘화성행궁(華城行宮)’이라는 네 글자의 대자(大字) 편액을 쓴 다음 총관(摠管) 조운형에게 이모(移模)하고 새김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조운형은 어필(御筆)의 필력(筆力)이 웅건하고 자세(字勢)가 정심(精深)하여 그 신령스러운 운필을 그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하여, 쌍구법(雙鉤法)으로 향탑(響擗)을 뒀는데 10여 본(本)을 바꾸고서야 완성하였다. 정조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글씨를 잘 쓰는 데 뜻을 두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 나아가서 배운다.’는 선현(先賢)의 경계를 생각해서 일찍이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았을 뿐이다. 내 글씨를 보는 자가 그것이 심획(心畫)이라는 것을 안다면 생각이 받은 넘은 것이다.” 하였다.

정조가 「화성행궁」 편액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실제로 「화성행궁」 편액은 현전하는 화성의 편액 중 정조의 필력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이다. ‘화성’이란 이름은 『장자(莊子)』 「천지(天地)」에서 유래한 ‘화봉삼축(華封三祝)’ 고사에서 왔다. 중국 고대에 요(堯)임금이 화(華)라는 지역을 순시하는데, 그 변방에 살던 사람이 말했다.

아, 성인이시여, 부디 성인에게 축복하게 해 주십시오. 성인께서 장수하시기를, 그리고 부유하시기를, 또 아들을 많이 낳으시기를 …….

그러나 요임금이 사양하자, 변방에 살던 그 사람이 말했다.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자손이 번창하는 것은 사람마다 원하는 것입니다. 그만 원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자 요임금이 말했다.

자손이 많으면 두려운 게 많고, 재물이 많으면 재앙을 불러오고, 오래 살면 욕먹을 일이 많다네. 이 세 가지는 덕을 기르는 일이 아니라네. 그래서 사양한 것이라네.

이 말을 듣자, 변방에 살던 그 사람이 말하기를,

처음에 나는 당신을 성인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군자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늘이 만민을 낳으면 필시 그들에게 각자 알맞은 직무를 내리는 법입니다. 아들이 많더라도 각자에게 맞는 직무를 내린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무슨 귀찮은 일이 있겠습니까? 대저 성인이란 배추라기처럼 거처가 일정치 않고 새 새끼같이 주는 대로 먹으며 새처럼 자유로이 날아다녀도 자취를 남기지 않습니다. 천하에 도가 배풀어지고 있으면 만물과 함께 번성하고 천하에 도가 배풀어지지 못하면 자기 본래의 덕을 닦으며 고요한 삶을 누립니다. 천 년을 살다가 세상이 싫어지면 속세를 떠나 선경(仙境)으로 올라가, 저 흰 구름을 타고 천제의 이상향에 이릅니다. 이리하여 장수와 부유함과 아들이 많다는 세 가지 수고도 찾아들지 않고 몸에만 아무런 해가 없으니 무슨 욕된 일이 있겠습니까?

변방 사람이 그곳을 떠나려 하자, 그제서야 요임금은 허둥지둥 뒤쫓아 가서 애원하였다. “부디 한 수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변방 사람은 “물러가시지요. 일 없습니다.” 하며 단호히 거부하였다.

요임금은 이 세 가지 축원을 사양했지만, 정조는 요임금과 달리 이 세 가지 축원을 화성 주민에게 해 주었던 것이다. “오래 살아라. 부자가 되어라. 자손들이 번창하여라.” 이 세 가지야말로 모든 백성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겠는가?

「 (奉壽堂) 」 「 (長樂堂) 」 \_

봉수당(奉壽堂)은 본래 장남헌(壯南軒) 또는 화성행궁(華城行宮)이라 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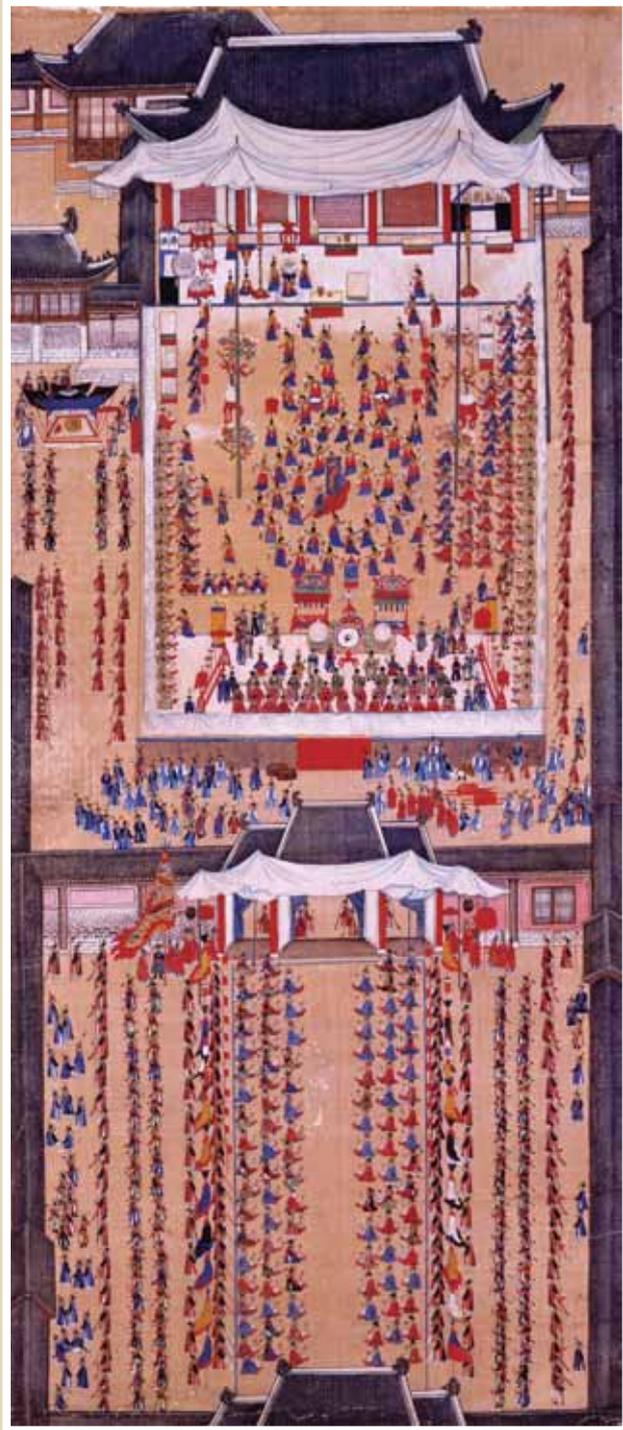
1795년 정조는 이곳에서 모친 혜경궁 홍씨의 회갑 진찬례(進饌禮)를 거행하고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뜻으로 '봉수당'이라 하였다. 「봉수당」은 정조의 효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편액이다. 글씨는 조윤형에게 쓰도록 하였는데, 충절의 가문을 통해 자신의 효심이 후대에 전해지기를 기원했을 것이다.

장락당(長樂堂)은 1795년 을묘원행 시 혜경궁 홍씨가 머물 처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졌다. 한나라 태후의 거처였던 장락궁(長樂宮)에서 이름을 따왔다. 혜경궁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장락당」 편액 우측 상단에는 '어필(御筆)'이란 글자가 양각(陽刻)으로 새겨져 있고, 좌측 하단에 '규장지보'는



「봉수당」 편액(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장락당」 편액(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봉수당진찬도』(『화성능행도병』,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奎章之寶)’라는 인장이 새겨져 있어 정조의 어필임을 알려 주고 있다. 행서체의 운필에 생동감이 넘치면서 웅장한 맛이 있는 편액이다.

「 (華城將臺) 」 \_



「화성장대」는 팔달산(八達山) 정상에 자리 잡고 있는 군사 지휘시설인 서장대(西將臺)에 걸려 있던 편액이다. 사방팔방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다. 석성산(石城山 : 용인에 있는 산)의 봉수대와 황교(皇橋 : 지금의 수원비행장)가 한눈에 늘어오고, 성 안의 모습을 손바닥처럼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산 둘레 100리 안의 동정을 앗은 자리에서 모두 통제할 수 있도록 이곳에 장대(將臺)를 지었던 것이다. 1795년 정조가 화성에 행차했을 때 서장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직접 편액을 썼다. 우측 상단에는 ‘어필(御筆)’이란

글자가 양각(陽刻)으로 새겨져 있고, 좌측 하단에 ‘규장지보(奎章之寶)’라는 인장

- \_① 「화성장대」 편액 오른쪽 상단의 전서체 ‘御筆(어필)’
- \_② 「화성장대」 편액 왼쪽 하단의 어보 ‘奎章之寶(규장지보)’
- \_③ 편액을 거는 고리



이 새겨져 있어 정조 어필임을 알려 주고 있다. 정조의 어떤 글씨보다 웅장하고 짜임새가 있어 삼엄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절로 드러난다.

## 「 (華虹門)」 \_

「화홍문」은 화성의 북수문(北水門)에 걸려 있는 편액이다. 화강암으로 쌓은 석교(石橋) 위에 지은 화홍문은 7개의 홍예문(虹霓門)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누각으로 지어졌다. 7개의 수문을 통해 넘쳐흐르는 물이 장관인데, 이를 ‘화홍관창(華虹觀漲)’이라 하며 수원팔경(水原八景) 중 하나로 일컫는다. 「화홍문」 편액 글씨는 전서(篆書)와 예서(隸書)로 이름 있던 유한지(兪漢芝 : 1760~1834년)가 썼는데, 화성행궁에 남아 있는 편액으로는 유일하게 예서이다. 유한지는 조선 후기 문인으로, 자가 덕휘(德輝), 호는 기원(綺園)이며, 본관은 기계(杞溪)이다. 자하

\_ 「화성장대」 편액(국립고궁박물관 소장)



(紫霞) 신위(申緯)는 『경수당집(警修堂集)』에서 “청풍군수 윤제홍(伊濟弘)의 산수 화와 영춘현감 유한지의 진서, 예서가 당대 제일이다.”라고 하였다. 이곳이 진각이 아닌 까닭에 해정한 해서나 행서를 쓰지 않고, 뛰어난 풍광에 걸맞게 화려하게 멋을 부린 예서로 써서 운치를 더하고 있다.

\_일제시기 「화홍문」 편역(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訪花隨柳亭)」 \_

광고산의 한 쪽 기슭이 남으로 뺀어 가서 선암산이 되었고, 다시 서쪽으로 감  
돌아 몇 리를 가서 용두(龍頭)에 그치고서, 북쪽으로 활짝 열렸다. 용두란 용연  
(龍淵) 위에 붙썩 솟은 바위이다. 성이 이곳에 이르면 산과 들판이 만나고 물이  
돌아서 아래로 흘러 대천에 이르게 되므로 동북 모퉁이의 요처(要處)가 동북각  
루(東北角樓)이고, 이곳에 걸려 있던 편액이 「방화수류정」이다. 글씨는 조운형  
이 썼지만 지금은 남아 있지 않고, 병신년(1956년)에 원곡(原谷) 김기승(金基昇 :  
1909~2000년)이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조운형이 쓴 글씨는 일제강점기까지만 해  
도 남아 있었던 듯하다. 희미하나마 사진으로는 확인되는데, 원본의 소재는 확인  
되지 않고 있다. 조운형의 글씨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의 글씨를 복원  
하여 거는 것이 좋을 듯하다.

「방화수류정」이라는 편액은 원래 송나라 학자인 정호(程顥 : 1032~1085년)가  
쓴 「춘일우성(春日偶成)」이란 시의 ‘방화수류과전천(傍花隨柳過前川)’이라는 구절  
에서 온 말이다.

雲淡風輕近午天	구름 적고 바람 부는 한낮이 가까운데
傍花隨柳過前川	꽃 따라 버들 따라 앞 시내를 지나가네.
時人不識余心樂	사람들은 내 마음이 즐거운 건 모르고서
將謂偷閒學少年	애들처럼 한가한데 소풍 온 줄 착각하네.

이 시는 정호라는 유학자가 봄날 한가롭게 거닐면서 느끼는 자연의 이치를 읊  
은 시이다. 하지만 정호는 ‘방화수류(傍花隨柳)’의 ‘화(花)’와 ‘유(柳)’에 화산(花山)  
과 유천(柳川)의 의미를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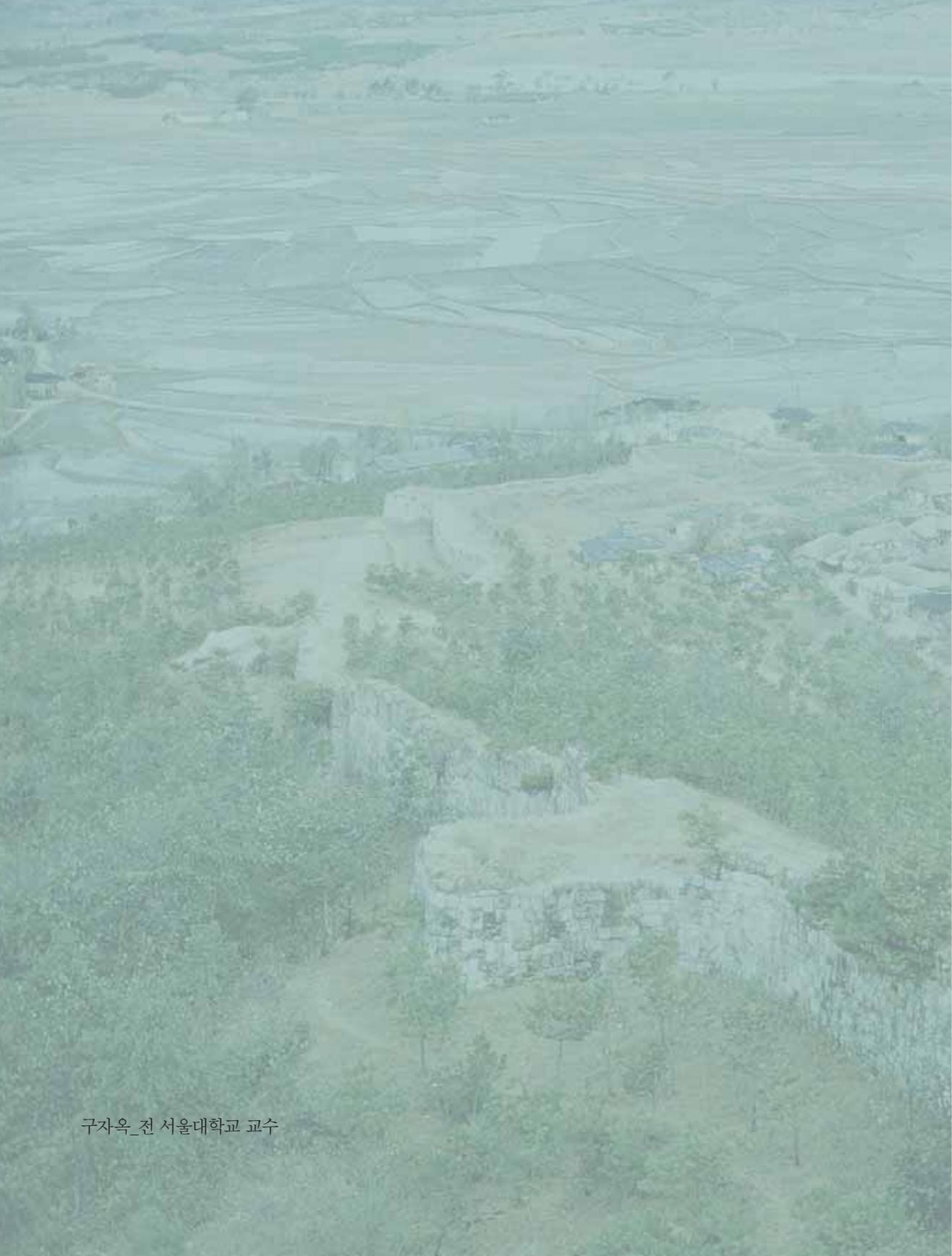
가마를 타고 화성부(華城府)에 가서 성을 쌓는 기반을 두루 둘러보고 감독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하교하였다. “이 부를 ‘화성(華城)’이라 이름한 것은 대개 화(華) 땅의 봉인(封人)이 축복을 올린 뜻을 붙인 것이다. 원소(園所)의 주산(主山)이 곧 화산(花山)인데, 화(花)와 화(華)는 통하고, 부(府)의 남쪽에 유천(柳川)이 있으니, 화산유천(花山柳川)은 그 또한 만화방창(萬化方暢)한 뜻이다.” 하였 다.<『홍재전서』 제176권, 「일득록」 16, 훈어(訓語) 3>

화산은 사도세자의 묘인 현릉원(顯隆園)이 있는 곳이고, 그 남쪽에 유천이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방화수류정」이란 편액을 걸게 했던 것이다. 따라서 걸으로 보기엔 화창한 봄날 꽃과 버들을 찾아가 노닌다는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세자가 잠들어 있는 현릉원을 찾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부친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절절한지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_일제시기 방화수류정(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수원은 정조의 도시이다. 정조가 기획하고, 구상하고, 설계한 도시이다. 그 중심에는 화성이 있다. 정조는 화성의 건물 하나하나에 깊은 애정을 담아 이름을 짓고 편액을 써 주었다. 수원이 어느 도시보다 어필 편액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정조는 당대 최고의 명필과 명신들에게 편액을 쓰도록 하였다. 수원이 어느 도시보다 명필(名筆) 편액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화성에 걸린 편액마다 부친을 그리워하는 정조의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화성의 편액은 전체가 통일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대한 예술품이자 정조의 꿈이 담겨 있는 위대한 사상체계이다. 그리고 우리는 화성의 건물 하나하나에 걸려 있던 이 편액들을 통해 다시 한 번 정조의 마음을 읽어 낼 수 있다. 그의 위대한 예술과 학문이 지향한 새로운 세계를 맞볼 수 있는 것이다.



구자옥\_전 서울대학교 교수

## 05



### 가 (水利)

조선 후기 수원의 향토농학자였던 우하영(禹夏永 : 1741~1812년)은 수원 지역에서 직접 논 13두락을 경작한 독농가(篤農家)로서, 경작 경험과 답사 및 문헌 연구를 통해 얻은 농사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천일록』에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지역의 경우 여주·이천·안성·죽산 등지의 토성이 비교적 비옥할 뿐, 그 밖의 땅은 모두 수리(水利)가 불완전하고 척박한데도, 이양법 보급 이후 무조건 광작을 농사로 삼아 토지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성 땅의 농사일은 한결같이 게으르기 짝 없다. 밭에는 보리와 콩을 심지만 주로 벼농사를 짓는데 광작(廣作)하고 씨를 뿌리기보다는 모내기 재배를 한다. 토

지는 척박한데 조세는 과중하므로 백성들에게 멀리 보이는 희망이란 없다. 반면에 서남부 평야지대는 마른갈이[乾畚直播]를 한다. 따라서 잘 되는 해에는 문제가 없지만 절기와 강우기가 맞지 않으면 혹독한 피해를 입어 백성들은 각처로 흩어져 유랑걸식을 한다. 밭은 호리쟁기[一牛耩]로 갈며 거름도 없고 깊이갈이[深耕]를 하지 않아서 소출이 적고 부유한 집도 드물다. 민심이라야 힘써 부지런히 농사지를 생각보다는 오로지 광작할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다. 논농사는 모내기법으로 광작하며 논 이모작과 함께 번답화(反畝化 : 밭을 논으로 바꾸는 농사요령)가 성행케 되었다. 기존의 일상적인 농사진흥대책이란 수리시설로 작은 저수지나 소하천의 흐르는 물길을 막아서 천방(川防)·보(淤)·둑병·정천(井泉) 등을 만드는 일이 고작이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배계급이던 공방·사대부나 호강(豪強) 등은 저수지 둑을 헐고 바다를 갈아 기름진 바닥에서 농사짓는 모경(冒耩)의 경향마저 짙어 갔다. 이런 곳이 수원부 관리하에서만도 30여 개소에 이르렀다고 하니 놀랍기만 하다.

수원 지역은 하천 주변에 충적지가 발달하여 넓은 평야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 평야가 일찍부터 농경지(특히 논)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과 더불어 고온 습윤한 여름 기후조건의 영향으로, 오늘날 전체 면적의 6분의 1 또는 경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논농사[畝作]가 가능하였다.

한편 자연제방 뒤쪽에 펼쳐지는 저습한 충적평야에는 16세기 이래 보(淤 : 川防)의 개발과 저수시설인 제언(堤堰)의 축조 등을 통해서 수전 농경지가 확대되었다. 특히 삼남에서 비롯된 선진농법이 북상하여, 17세기 후반부터 수원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이앙법이 널리 보급되었다. 그런데 이앙법 위주의 벼농사에는 적절한 관개용수의 공급이 필수요건이었으므로 수리시설의 축조가 무엇보다 시급하였다.

이런 탓에 정조는 1778년(정조 2)에 「제언절목(堤堰節目)」을 반포하여 정부 차원의 수리정책을 기존의 소규모 하천 계류를 이용한 천방, 보 중심사업에서 대규모의 제언 중심으로 일대 전환하였다. “제방을 쌓아 저수하게 되면 가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천(灌川)하여 수로를 내면 장마의 홍수피해도 막고 구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정조는 화성을 “탕목읍(湯沐邑)이며 또한 왕기(王畿)의 표준이 되는 곳”, 즉 우리나라의 모범지역으로서 신도시를 세우겠다는 뜻을 펼쳤다. 그 첫 사업은 1784년 「세수권농윤음」에서도 밝혔는데, “제언을 수축하고 저수해 두는 것은 농사일 중에서 가장 앞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펼쳐 세웠던 것이다. 즉 신도시 화성의 농업 진흥책으로 만석거(萬石渠 : 1795년), 만년제(萬年堤 : 1798년), 축만제(祝滿堤 : 1799년) 그리고 순조 때 남지(南池 : 1825년)가 축성된 것이다.

만석거(일왕저수지, 조개정방죽)는 1795년(정조 19) 5월 18일에 완성한 정조 대의 대표적인 수리시설이다. 정조는 수원 지역의 가뭄 극복을 위해 성역을 중단시키고 대규모의 수리시설 축조를 서둘러 시행하였다. 즉, 1795년 1~5월에 걸쳐, 북문 밖 5리 지점 일용면(日用面) 기하동(芑荷洞) 입구에 광교산(光敎山) 기슭에서 흘러내리는 진목천(眞木川) 물줄기 등을 저수하여 인근 논외 농업 관개용수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축조된 제언이다.

만석거는 장안문을



\_1795년 원공된 만석거(『화성성역의궤』「영화정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만석거 남쪽 제방에 영화정을 만들었고, 영화정 앞에 만석거 표석을 세웠다.

나와서 북으로 5리 정도 떨어진 기하동 입구에 있는 진목정(眞木亭) 부근에 위치하였다. 이곳에서 개천을 가로질러 제언을 쌓아 만석거를 만든 것이다. 1795년 가을, 저수를 마치고 남쪽 제방에 영화정(迎華亭)이라는 정자를 세웠다. 만석거의 제방은 필로(蹕路), 즉 국왕의 어로(御路)로 이용되었는데, 이를 어로로 확보한 것은 정조의 농업 강화 의지를 상징적으로 잘 드러낸다.

이 만석거 축조에는 내하전(內下錢) 2만 냥 가운데서 5,960냥의 경비가 투입되었으며, 용군(雇軍)에게도 일급제가 아닌 성급제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하였다. 선진적 수리기술을 활용하여 제방을 쌓고, 관개수로 입구에는 수문(水門)·수갑(水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특히 수갑은 가로로 14층의 격판(隔板)을 쌓았는데 합친 높이가 5자(尺) 5치(寸), 즉 3.6m나 되는 수문으로서 보통 때는 널판을 빗장 걸듯이 해서 저수하고, 관개 시에는 널판을 걷어 물을 내보낼 수 있게 만든 시설물이었다.

만석거에 모인 관개수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형태의 수문이 설치되었다. 하나는 북쪽 바위층[北崖]을 파서 만든 수구(水口)로, 만석거 내부의 수위(水位)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위가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만석거의 남단 수로(水路) 입구에 설치한 수갑으로, 수두(水竇)라는 구조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었다. 이는 일찍이 중국의 강남 지역에서 널리 보급되었던 수문과 같은 것으로, 판목(板木)을 이용하여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선진적인 형태의 수리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 수리기술사에서 그 의미가 크다. 둘레가 1,022보(1,275m), 상심이 7자(3.27m), 하심이 11자(5.14m), 제장(둑길이)이 725자(338.6m), 하후가 52자(24.3m), 상수광이 17자에 이르며, 북으로는 석애(石崖)로 이어졌다.

대규모 수리시설의 건설로 황전폐답(荒田廢畝)과 다름없던 북문 밖 일용면 일대의 논에 관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1797~1798년 큰 가뭄 때에도 삼남 지역의 대부분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수원 지역만은 만석거의 수리에 힘입어 가뭄을 극

복할 수 있었다.

정조는 신도시 화성에서 만석거와 대유둔전의 설치·운영을 성공시킨 데 힘입어 3년 뒤인 1798년(정조 22)에는 현릉원 동구 능행로 왼편에 총둘레가 583보나 되는 대규모 수리시설인 만년제를 축조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본래 ‘방축수(防築葺)’라는 이름을 가진 제언이었는데, 1795년(정조 19) 윤2월 초 1일 현릉원 원행 때 ‘만년제’라 개명하고 표석(標石)을 길가에 세우도록 했던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현릉원의 동남쪽 전경(前景)을 이루는 만년제의 축조공사는 농번기를 피해 1798년 2월 13일에 시작하여 2개월 후인 4월 15일에 완공을 보았으며, 이 제언의 관개수는 현릉원 앞뜰에서부터 황구지천 일대에 산재한 논에 이르기까지 농업용수로 크게 활용되었다.

만년제의 시설로는 동서남북 사방에 걸쳐 물막이[埗]를 만들고 제(堤)를 쌓은 다음 2개의 수문을 설치했으며, 독 위에는 때를 입히고 버드나무를 심었다. 또한 만석거에서 처럼 제언 주위에 연(蓮)을 심어 아취 있는 지당(池塘)으로서 완상(玩賞)의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배려하였다. 2개월에 걸친 만년



축만제 표석

만년제 표석(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제의 축조공사는 모군(모집군) 1만 6,056명, 화성부의 면모군(面募軍) 1,106명, 광주모군(廣州募軍) 809명, 경모군(京募軍) 585명, 현릉원군(顯隆園軍) 315명, 승군(僧軍) 89명 등 총 1만 8,960명의 군장정(軍丁)이 동원되었고, 내하전(內下錢) 6,000냥이 소요될 만큼 그 규모가 장대하였다.

만년제는 현릉원 남쪽 3리 지점인 오늘날의 화성시 안녕동 일대에 위치해 있고, 그 주위 동·서·북쪽은 나즈막한 산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그 형태면에서 산곡형 제언에 속한다. 이 제언은 대부분의 수리시설처럼 제언의 바닥을 깊게 파내고 동서남북에 물막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목책(木柵)을 세운 뒤 흙을 메워 둑을 만들고 둑의 안팎에는 버드나무를 심어 기반을 튼튼하게 했으며, 2개의 수문(뒤에는 1개)을 설치하였다. 특히, 현릉원 남쪽 앞뜰에 위치한 만년제는 정조의 원행 때 최종 경유지인 원소(園所)의 남쪽 동구(洞口)에 위치해 있어서 필로(蹕路 : 임금의 마차만 다니는 길)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 일대에는 현릉원과 그 원찰(願刹)인 용주사(龍珠寺)의 보수와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둔전과 민전이 펼쳐져 있었다. 또한 현릉원 남쪽 독산성(禿山城)에 이르는 일대에 연을 심어 주변 경관을 아름답고 시원하며 품위 있게 가꾸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관개농업용수를 활용하여 인근에 넓게 펼쳐진 민전 농경지의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동시에 현릉원과 용주사의 보수·경영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정조는 신도시 화성에서 만석거·만년제 등 대규모 수리시설과 논 개간사업을 성공리에 끝내고, “농가의 이득으로는 수리만한 것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양법을 중부 이북 지역까지 확대시키고 신전 개간과 번답 등으로 논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수리문제를 농업 발전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한 수리사업의 예로써 이보다 더 적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1798~1799년에 걸쳐 제언·보 등의 신축과 보수가 활발하게 추진된 가운데 화성 서쪽 5리 북면 논 지대에 대규모의 축만제가 수축되었다. 서호(西湖)로도 불리



는 축만제는 길이 1,246자, 폭 720자, 높이 8자, 두께 7자 5치, 수문 2개, 몽리면적 232섬지기 규모의 제언으로서, 정조 때 수원 지역에서 축조된 제언 가운데 가장 큰 것이다. 이는 기존의 만석거나 만년제에 비교해 볼 때 그 규모에서 약 3배에 달한다. 또한 앞서 축조된 만석거가 수리시설의 의미 외에 장안문(長安門) 외곽을 중심으로 한 성지의 방패막이 기능을 고려해서 축조했듯이, 축만제는 유사시 화성의 화서문(華西門) 외곽 일대를 방어하는 방패막이 기능을 가졌다는 데도 그 의의가 있다.

수원 지역의 관개용 수리시설인 대규모의 제언 축조는 정조의 사후인 순조 연간(19세기 초엽)에도 계속되었다. 즉, 1825년(순조 25) 수원부 신읍치로부터 남쪽 5리 지점인 남부 상류천(上柳川)의 유천둔(柳川屯 : 南屯) 부근에 축조했던 남제(南堤)가 그것이다. 이 남제는 세 제언과 함께 화성 외곽 인근 지역에 축조된 4대 제언의 하나로, 감관 1인[제언 아래 거민(居民) 중에서 차출], 감고 1명을 두어 관리하게 하였다. 이 남제의 규모는 길이 800자, 폭 800자, 높이 10자, 두께 11자,

\_일제시기 서호(수원박물관 소장)



\_1960년대 만석거와 대유평(수원박물관 소장) 위쪽에 보이는 저수지가 만석거이고, 오른쪽은 화서문 일대이다.



깊이 8자이였으며, 2개의 수문시설을 갖춘 물리면적이 90섬지기나 되는 대제언이었다. 그리하여 북문 밖의 만석거와 서문 밖의 축만제, 현릉원 남쪽의 만년제 등의 수리시설 축조는 신도시 화성부와 연결한 일대의 북·서·남 외곽 평야지대를 수도작지대(水稻作地帶)로 형성·발전시키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이처럼 정조는 분명하고 일관된 확신 속에서 수리정책을 추진하였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홍재전서』의 기록으로도 잘 알 수가 있다.

농가의 이로움에 수리(水利)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겨울과 봄철에 눈이 쌓였다가 녹으면 이를 저수(貯水)하고, 봄과 여름에 짝이 타들어 가는 시기에 물을 대어 넣어 주면 그 이로움이 어찌 커다란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화성 만석거의 경우를 보면, 제언이 아직 축조되기 이전에는 황전(荒田) 폐답(廢畓)으로 썩만 울창히 자라는 데 불과하였던 땅이 비옥한 전지(田地)로 변하였다. 비록 지금 4, 5월의 가뭄 속에서도 제언 아래에 있는 수백 섬의 대평(大坪)은 한결같이 곡식이 잘 자라고 있어 재해를 재해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제언의 성폐(成廢)는 풍흉(豐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며, 나라의 실제 정사(政事)에서 제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정조의 농업진흥을 위한 수리관개상의 치적은 비단 수원 화성 주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거국적인 것이어서, “18세기 후반 정조 대의 수리관개 실태를 살펴볼 때 먼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조선에서 제언과 보의 개발은 최고도에 달할 정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대단함을 알 수 있다.

화성 성역이 진행되던 1794년에는 전국적으로 가뭄이 극심하였다. 정조는 성역을 계속 진행하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화성 지역에서 재원을 마련할 방도[生財之道]를 논의하였다. 계속해서 정조는 “화성 북쪽 평평하게 비어 있는 땅을 여러 자(尺)에 한정된 부토(浮土)를 척거(拓去)하고 인수(引水)하여 관개(灌溉)하며, 백성으로 하여금 기간(起墾)하게 하면 10년이 지나지 않아 옥야(沃野)가 될 것이다.”라고 정역(停役)하려는 본래의 목적을 분명하게 내비쳤다.

정조가 성역을 중단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둔전의 설치를 통해서 화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려 하였던 데 있다. 그리고 둔전의 원활한 농업 생산을 위하여 새로운 수리시설을 축조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것이었다. 정조는 제신과 논의한 10월 19일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1일 「유화성성역동공제신윤음(諭華城城役董工諸臣綸音)」을 통해 화성의 축성공사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장안문 북쪽 지역에서 황무지를 개간해 둔전을 조성하고, 안정된 둔전의 경영을 위해 거대한 수리사업이 진행되었다. 정조가 내려 준 내하전 2만 냥으로 둔전을 개발하고, 남은 여전(餘錢) 가운데 5,960냥으로 1795년(정조 19) 3월 1일 만석거의 축조공사가 시작되어 5월 18일 완성을 보게 되었다.

만석거 아래로 수리(水利)의 혜택을 입는 곳은 고등촌(古等村) 북평(北坪)에 해당하는 지역이었고, 장안문 바깥의 신간처로부터 모두 대유평(大有坪)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화성 장안문 밖의 넓고 척박했던 대유평은 만석거라는 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논 지역으로 바뀌어 둔전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만석거의 관리를 위하여 감관 1명으로 장교를 차출하였고, 그 밖에 감고 1명이 더 있었다. 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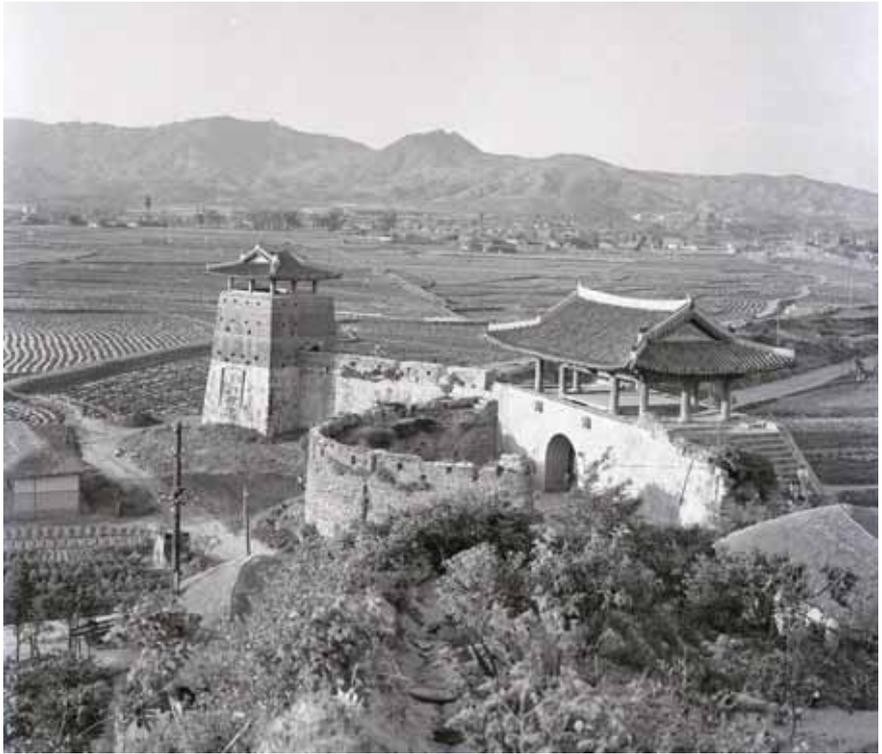
거를 매년 수축하는 데 들어가는 물력(物力)은 복둔(대유둔)의 세금 가운데 매년 100석씩 마련하여 일단 수성고(守城庫)에 보냈으며, 수성고의 감색(監色)이 출납(出納)을 관장하였다.

농업에서 만석거의 효과는 1797년(정조 21)과 1798년에 걸쳐서 발생한 가뭄을 겪으면서 정조와 화성 주민에게 뚜렷하게 인식되었다. 2년 연속 일어난 한재(旱災)로 많은 재해지가 발생하여 삼남 지역이 가뭄의 피해를 크게 입었으나 화성 지역의 대유둔전은 만석거에 힘입어 한재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다. 정조는 이러한 가뭄의 극복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수리시설의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그에게 자신감을 안겨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화성에서 여러 제언이 새로 축조되었던 것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년제와 대유둔 설치의 성공적인 결과에 정조가 대단히 만족스러워 하였음은 『정조실록』 정조 22년의 기록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번 화성의 만년제 공사는 백성 한 사람의 힘도 쓰지 않고서 며칠 만에 완성했으니, 참으로 큰 다행이다. 원침(園寢)의 수구(水口)에 이 방죽 물을 저장해 두면 현릉원 밑의 백성들 토지에 물을 대게 될 것이니, 이것이 마치 저 장안문 밖에 만석거를 만들고 여의동(如意洞)을 쌓으며 대유둔을 설치할 당시에는 백성들이 모두 이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누차에 걸쳐 권유·신칙하면서 내탕전 수만 금을 내려가며 결심하고 시행했었다. 지금에 와서는 백성들이 도리어 주위가 광활하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있으니, 백성들과는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함께 즐길 수도 있으나 일의 시작을 함께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리하다. 그러나 지극히 신명한 것이 또한 백성들이니, 뒤에 의당 나의 고심을 알 것이다.

1798~1799년에 걸쳐 만석거나 만년제보다 3배나 큰 축만제가 수축되었다. 이와 더불어 그 부근에는 대유둔의 둔전 경험을 본받은 서둔(西屯)이 설치되었다. 흔히 서둔이라고도 불리는 축만제둔(祝滿堤屯)은 화서문 밖 서쪽 여기산(麗妓山) 기슭에 설치된 대규모의 둔전이었다. 축만제둔은 논 83섬 15말 4두락 면적에 저



조(賭租)의 저장량도 556섬 14말 4되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복둔인 대유둔과 함께 수성고에 소속되었다. 따라서 화성 보수의 중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둔세(屯稅) 556섬 14말 4되를 둔소(屯所)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둔 경영을 전담하는 관리로서 도감관(都監官) 1인, 감관 1인, 농감(農監)과 동감(洞監) 각 2인, 색리 1인, 사령 2명, 권농 2명을 두었다. 또한 둔전을 설치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수성(修城) 물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축만제와 연계된 서둔의 경우에 서도 알 수 있다.

\_대유평(1960년대,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_1960년대 축만제와 서둔(수원박물관 소장) 축만제 왼쪽으로 펼쳐진 지역이 서둔이다.



대유둔전과 서둔은 ‘전좌수택(前左水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만석거(前=北)와 축만제(左=西)라는 수리시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이 두 둔전의 수입을 수성의 물력으로 충당하여 이용하였다. 이렇게 볼 때 화성둔전 설치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구휼(救恤) 대책의 일환이었다. 구휼이라는 성격은 화성 성역의 전 과정에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히 둔전을 건설하는 공사 과정에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용영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화성둔전이 설치되었다. 정조는 화성둔전을 건설하여 이를 민인(民人)들, 구체적으로는 교리(校吏), 군졸(軍卒), 관예(官隸)에게 분급(分給)한 후 농사를 짓게 하여 둔전을 운영하려 하였다. 둔전의 설치는 화성에 거주하는 백성에 대한 특혜의 하나였다. 화성민(華城民)에게 환곡의 모곡(耗穀)을 면제해 주었고, 정리곡(整理穀)이라는 재원을 마련하여 성곽의 보수·관리 비



둔전에서 실시되는 우경(牛耕)과 이앙(移秧)(수원화성박물관 전시 모형)

용을 조달하면서 화성민에 대한 수탈을 사전에 막으려 했다. 둔전 설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화성 수성의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었다. 즉 지속적으로 화성의 물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 생산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둔전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정조의 급서로 수원에서 추진되던 권농과 시범농업의 꿈은 중단되었다. 그 후로 한 세기에 걸쳐서 형식적이며 지리멸렬한 농정(農政)과 사회 혼란이 계속되다가, 1895년에 이르러 고종이 실용(實用)·근검(勤儉)·노작(勞作)을 지표로 하는 교육(教育)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칙서로 유고(諭告)하였다.

세계의 형세를 보건대 부강하고 선진한 나라들은 국민이 모두 개명하였다. 무엇보다도 허명과 실용을 분별하여야 할 것이다. 독서 습자로 고인들의 찌꺼기나 좁고 시세대국에 어두운 자는 비록 문장이 고금을 능가하는 자일지라도 쓸모 없는 서생에 불과한 것이다. 이제 내가 앞날의 교육이 지향할 바를 명시하여 허명은 이에 버리고 실용을 이에 쓰게 하노니 뜻있는 자는 심찰(深察)하라. 권검과 노작을 주장하고 태정(怠情)과 안일을 탐하지 않고 덕양과 지양에 힘쓰고 사물의 이치를 알도록 힘써 앎을 끝까지 하라.

대한제국기에 한국정부는 농업기술기구를 설립하여 근대적 농업기술을 보급하고자 농사시험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농사시험장 설치 계획은 좌절되었고, 일제의 권업모범장 설립 계획이 추진되었다.

1906년 일제는 통감부와 이사청(理事廳) 관제를 발표하였고, 통감으로 이토 히

로부미(伊藤傳文)가 부임하였다. 통감은 조속한 조선의 경제적[富力] 증진을 목적으로 농업의 개량발달을 도모하고자 먼저 지도기관의 설치를 위해 당시 도쿄제국대학 교수인 농학박사 혼다 코스케(本田幸介)에게 조선 각지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수원에 권업모범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1906년 4월 26일 「통감부권업모범장관제(統監府勸業模範場官制)」를 발표하였다.

통감부시기에 창설된 수원 권업모범장의 규모는 총면적 87여 정보로, 그중 밭 28정보는 민유지(民有地)를 매수한 것이고, 논 59정보는 궁내부(宮內府) 소속지를 임차한 것이다. 1906년 10월 정리사업의 설계를 마치고, 11월 2일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어서 수원정거장부터 권업모범장에 이르는 도로와 논밭 27정보를 경지정리하는 등 1906년 말까지 시설과 설비를 완성하였다. 1906년에 일제 통감부의 장권으로 권업모범장의 개장설계와 위치 및 명칭이 바뀌었지만, 결국 대한제국이 권업모범장을 인수받아 1907년 5월 15일에 개장식을 거행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권업모범장은 일제 식민정책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 농



학의 근대화 과정을 이끌기도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06년 8월 27일 대한제국 칙령 16호 「농상공부소관농립학교 관제」에 따라 농상공학교의 공과(工科)는 ‘경성공업전수학교’로 분리되었고, 특히 ‘농립학교’는 이듬해인 1907년 교사를 수원의 신축지로 옮겨서 설립하였는데, 이는 오늘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전신이다.

대한제국의 농립학교는 3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07년 1월 부임한 2대 교장 정진홍 농무국장을 해임한 다음 권업모범장장인 혼다 코스케를 부임시켰다. 또한 1909년 「학교규칙」 개정 및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조선총독부 농립학교’로 개칭되었다.

1918년에 ‘농립학교’를 ‘농립전문학교’로 승격시켜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교식을 거행한 일은 비록 동상이몽이긴 했지만 일제의 의도와 조선인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이기도 했다. 조선의 일개 전문학교 개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하세가와(長谷川) 총독을 비롯한 이완용(李完用) 조선농회 회두, 이상택(李相澤) 자작, 가와카미(川上) 동양척식 대표 등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그 후 1922년 3월 31일부터 칙령 제 151호로 「조선교육령」을 발포하고, 농립전문학교를 ‘조선총독부 고등농립학교’로 개칭하여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이는 일제의 식민정책에 항거하는



..左 권업모범장(수원박물관 소장)

..右 권업모범장 표석



\_수원고등농림학교(수원박물관 소장)  
 \_「수원고등농림학교평면도」(『조선총독부수원고등농림학교요람』, 1939, 수원박물관 소장)

사건이나 조식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산미증식계획을 완수하려는 의도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한편 1945년 해방 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는 미군정의 통치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허를 딛고 사회제도를 정비하던 절대 빈곤기였다. 우장춘 박사의 귀국과 더불어 지속적인 연구·시험을 지탱해 왔던 채소 육종 분야와 최소한의 육종 및 자료정리를 하던 작물 육종 분야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러나 1964년부터 농촌과 농업 부흥을 위한 농공병진시책과 기술 재정비 및 활용 노력이 시도되기 시작하여, 품종·비료·물 관리와 파종기·추비·병해충방제·수확에 관련된 초기 연구의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인 협력 체계로까지 확대되었지만, 근본 전제는 식량 자급을 위한 주곡 다수확에 있었다. 이 당시에 개략 및 정밀 토양조사가 실시되어 시비합리화 기술이 연구되었고, 비료·농약의 실용기술 체계화가 이루어졌다. 다수성 벼품종으로 통일형 품종이 육성되어서 일반형보다 30% 이상의 수량 증대가 이루어졌고, 식량인 주곡 자급화의 발판을 만들었다. 다른 작물에서도 육종이 선도하는 재배기술 개발로 다수확을 목표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모든 연구는 쌀을 중심으로 하는 다수확 일변도의 내용들로서 재론의 여지가 없었다. 비료나 농약의 사용량도 놀랄 만한 속도로 증가되었지만 식량자급이나 수입대체라는 과제는 절체절명의 국가적 요구였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80년대와 1990년대까지 20여 년에 걸쳐서 이룩된 농업과학기술 연구와 지도·교육의 성과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하였으며,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연구결과도 비일비재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경제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노동력이 대거 이출되고 청장년층 인구가 이출됨으로써, 잡초방제를 하는 제조제 이용과 농작업 기계화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시험·연구는 물론 교육내용의 합리적 재검토와 결과 분석에 따른 계획·시책의 수정은 재고할 여지가 없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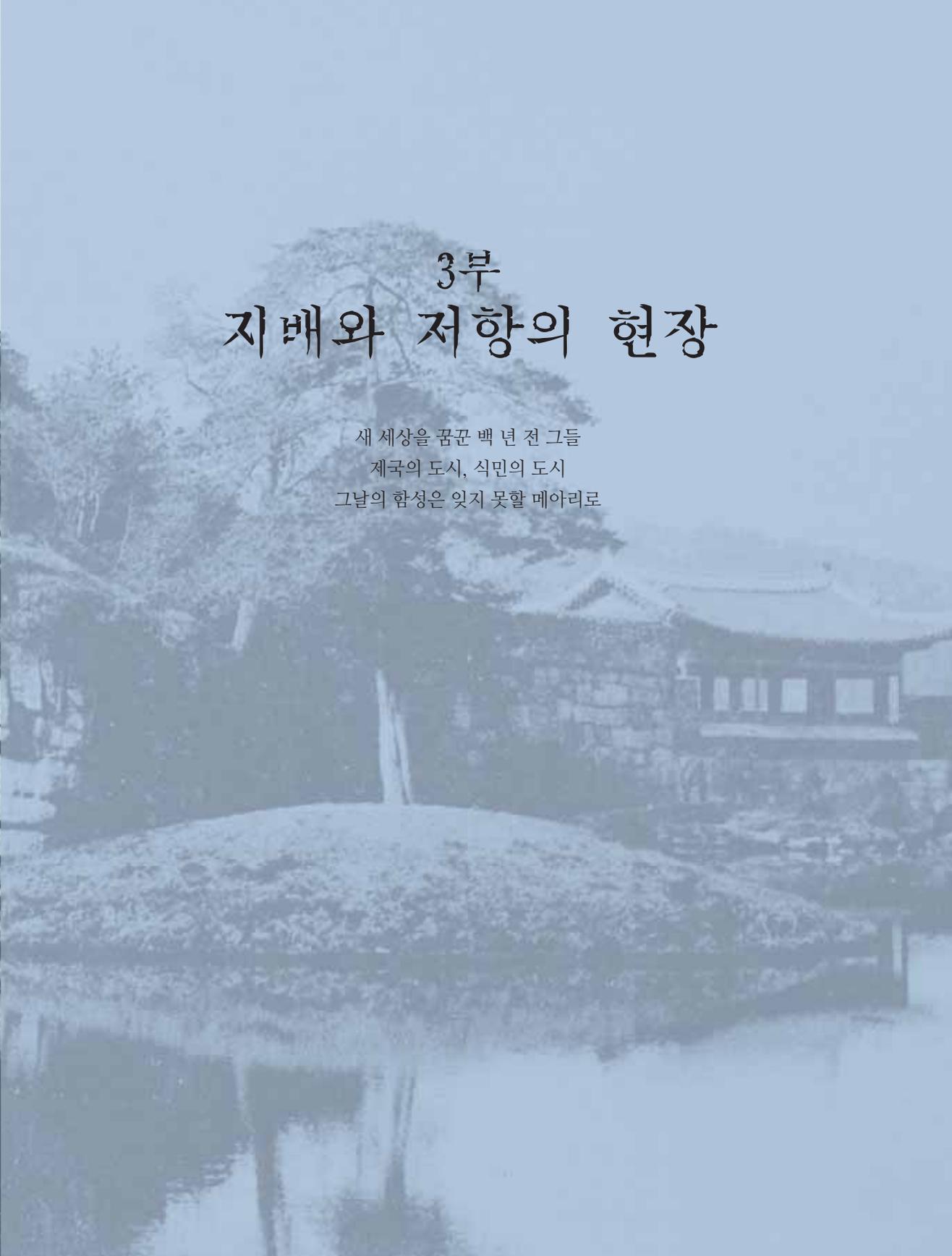


\_농업진흥청 내에 세워져 있는 녹색혁명성취탑

형편이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변화는 우리 손과 기술로 급진적인 성과를 이루어 낸 20여 년의 보람이었다.

수원 농촌진흥청 부지는 단군 이래의 숙원이었던 주곡 자급을 이룩한 녹색혁명의 산실일 뿐만 아니라, 수원 화성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 둔전이 있던 곳이다. 또한 18세기 말 수리시설인 축만제 유적이 남아 있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자 근대 농사시험 연구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비록 농촌진흥청이 이전되더라도 이 지역은 농업 교육과 농업사를 위한 장(場)으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일정 부분을 보전함이 마땅할 것이다.





# 3부 지배와 저항의 현장

새 세상을 꿈꾼 백 년 전 그들  
제국의 도시, 식민의 도시  
그날의 함성은 잊지 못할 메아리로



성주현\_청암대학교 제일코리아연구소 연구교수

# 01

현릉원(顯隆園)은 1789년 사도세자의 묘로 조성되었다가 1899년 사도세자가 장조로 추송되면서 융릉으로 격상되었다. 이곳에는 장조(莊祖 : 1735~1762)와 혜경궁 홍씨로 널리 알려진 헌경의왕후(獻敬懿王后 : 1735~1815)가 함께 모셔져 있다. 사도세자의 묘는 원래 양주 배봉산(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슭에 수은묘(垂恩墓)로 있었으나 왕위에 오른 정조가 사도세자를 장헌세자(莊獻世子)로 추송하고 난 뒤 묘를 영우원(永祐園)으로 높였으며, 묘지 이장을 준비하여 지금의 자리로 옮겨 현릉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효성이 지극한 정조는 죽은 후 아버지 곁에 묻혔다. 1899년 고종은 왕계 혈통상 고조부인 장헌세자를 장조로 추송하면서 현릉원이란 명칭도 융릉으로 격상시켰다.

그렇지만 현릉원은 1891년 수원 민중들이 현릉원 능참봉의 탐학과 토색에 저



항하여 농민항쟁을 전개한 역사적 현장이 되었다. 조선시대 왕릉에는 능참봉(陵參奉)이라는 말단 벼슬이 있었다. 임금이나 왕비의 무덤을 맡아서 관리하던 종9품 벼슬로, “참봉도 벼슬이라고 거들먹거린다.”느니 “참봉은 서리가 내리는 추운 날에도 홀두루마기 차림으로 떨고 있다.”는 말이 전해질 만큼 조롱과 동정을 받기도 한 직책이다. 하지만 능참봉은 출세를 위한 지름길로 여겨졌기 때문에 말단 벼슬임에도 불구하고 위세가 적지 않았다. 특히 조선 후기 들어 능참봉의 위세는 더욱 커져 이들은 부패한 탐관이 되기도 하였으며, 민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화산 현릉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정조 사후 세도정치가 전개되면서 일부 문중의 권력 독점은 점차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구조는 점점 부패했고, 그 영향은 농민층에게 직접 영향을 미쳤다. 농민층은 삼정의 문란, 봉건관료의 수탈 등에 저항하여 크고 작은 민란을 일

\_용릉(혜르만 산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으켰다. 1811년 홍경래 난, 1862년 진주민란을 비롯하여 전국적인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특히 진주민란을 계기로 삼남 지방 등 전국 30여 개 군현에서 농민항쟁이 폭발하였다. 수원에서도 1889년 지방관의 가렴주구가 원인이 되어, 수백 명의 민중들이 성 안으로 모여들어 관아와 관리들의 집을 습격하는 1차 농민항쟁을 전개하였다. 1차 농민항쟁이 일어난 배경은 전 승지 김명기(金命基)와 전 군수 윤수영(尹守榮)의 가렴주구 때문이었다. 즉 김명기와 윤수영에 대한 “평소에 쌓인 원한”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수원유수 김홍집(金弘集)이 “조정에 수치를 끼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 1차 농민항쟁의 주모자 이흥완(李興完)은 체포되었으나 중군(中軍) 이민고(李敏皐)의 실수로 도주하였다. 이후에도 지방관의 탐학은 그치지 않았다.

2년 후인 1891년 현릉원 능참봉의 횡포가 원인이 되어 2차 농민항쟁이 전개되었다. 2차 농민항쟁은 능참봉 민병성(閔丙星)의 ‘남작과다(濫斫過多)’가 원인이 되어 현릉원 원군과 지역 주민이 합세하여 일으켰다. 당시 수원유수 윤영신(尹榮信)의 장계에 따르면 “현릉원의 화소(火巢)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죄인들을 명확히 조사하였더니, 변고를 격발시킨 것은 실로 해당 참봉 민병성이 평소에 원망을 샀고 또 함부로 많은 나무를 베어 낸 데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참봉 민병성의 민폐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민폐가 계속되자 김준기(金俊基)는 현릉원 원군과 지역민을 규합하여 농민항쟁을 주도하였다. 이에 박진상(朴振商) 등이 적극 호응하였다. 그런데 이 민란에 참가하였던 김용규(金容圭)는 사족 출신이었지만 몰락한 잔반(殘班)으로, 생계를 현릉원 원토에 의지할 정도로 빈한하여 사회경제적으로는 일반 소작인과 다름이 없었다. 이 외에도 윤흥만(尹興萬), 마희손(馬希孫), 이원용(李元用), 박윤석(朴允石) 등이 농민항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농민항쟁은 ‘현릉원원군작요(顯隆園園軍作優)’로 알려져 있다.

各司膳錄第 冊 (本府大皇福作智罪人等行

查文案)

光緒十七年三月 日

行查文案

行查宜龍仁縣令為據報事本府作智罪人團  
軍洞民等發問日取招為如午推考次辛卯三  
月十四日守僕崔信通年五十一守僕朴九石  
年三十一守僕白松鶴年三十九白等即上  
營閱文內汝矣等以顯隆圍守僕未告以為本  
團恭奉性于本家之路行到陽山里圍軍幾許  
名與附近洞民數百名作黨突出結縛圍軍  
指類悖是如為置汝等所謂幾許名圍軍是  
雜果是喻一指名納招為汝等所謂附近  
洞民亦是何洞何民是喻洞名民名一體指的  
納招為汝等所謂舉措駭愕亦未知何據等

措何等幾悖是喻一從所見無隱納招為汝等  
擊本軍必有裡許作聲謂汝必有首從矣紀律  
自在情歸必數前後委折并為直招亦推問教  
是卧午在亦矣等俱以守僕名色稍解奉公也  
事體是白辛中今月十一日自松山金注書完  
招致崔信通曰圍軍之除案頻數今至難保之  
境何不許言而再立午崔信通曰自立云者初  
無事端不可聞命此洞圍軍除案者今於營直  
前入來斃斬復屬無失農時耕作可而退矣  
十二日奉察前呈假官狀早朝發行矣奔等  
落後得假官之入來午時量隨去後陪蒼黃入  
來告急曰恭奉性入到陽山里近洞民幾百名  
併地突出碎破乘鴨曳出家前製破衣冠裸身  
結縛驅去大皇福云故矣身等聞來驚惶顛倒  
急趨至大皇福處所見果如所聞言死生被象

期於救出案前作智眾民并曳亂打不可與爭  
鋒急入府內告變是白午汝作智漢見為數百  
名則似非一洞所聚故從稱近洞民人或應團  
軍混入故從稱圍軍幾許是白午矣姓名面貌  
不可指的納招則况復首從尤非矣等所知但  
矣等即於象人中力急於救出心忙於苦變此  
變裡許果不知得以此相考處之亦教味白府  
同日罪人李元用年四十八白等取見本府因  
徒成母則汝矣以松山洞民懸錄且以作智罪  
人懸錄則今日之變出於汝矣洞察可知矣今  
變之魁在於汝矣身亦可推矣大抵此變此易  
故焉事必有所以然也變必有所以始也汝矣  
所犯情歸無隱直招為汝等倡者幾人而姓名  
謂誰是汝等隨從者幾洞而指揮者有誰是喻前  
後事端一一納招亦推問教是卧午在亦矣身

團所察山直舉行是白加尼今年正月分無罪  
見汝是白午所矣洞有金注書完而已有親分  
於奉性主政矣身將此見汝之由懇乞性復使  
之復屬矣金注書進賜而懇蒙諾依前舉行矣  
今月初四日應直委大天來令之令是如督促非輕  
屬後自官有立兩來納之令是如督促非輕  
故矣身性告金注書主金注書曰以我緊據得  
此復屬而有何行賂乎慎勿與難費也矣身借  
而不于矣初七日矣身任名與李基哲李水昌  
任名并更汰去即為發差推捉是白午所矣身  
畏脚逃難得聞十二日恭奉性出直還完之語  
當級家逃出云齊會高聲曰如有一人吞吞即  
而矣身本以病體最後隨從是白午則這問作  
變與否首倡之趙某實未詳得則只有隨從之

현릉원 원군과 지역민의 항쟁이 실려 있는 『각사등록』

1789년 정조가 수원 팔달산 아래로 신읍치를 옮기고 건립한 화성행궁은 수원부 관아로 활용되었다. 수원부 관아는 수원부사가 거처하며 집무를 보았던 수원 행정의 중심지였으며,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이 한때 점령하였던 현장이다.

관아는 넓게는 궁실을 제외한 나라일에 필요한 모든 곳을 말하고, 좁게는 지방에 파견된 목민관이 집무를 보던 곳을 가리킨다. 지방의 관아는 왕권을 상징하는 객사(客舍),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의 집무처인 동헌(東軒), 지방민을 대표하여 수령을 보좌하는 향청(鄉廳), 창고와 감옥인 옥사, 기타 지방통치에 필요한 건물들이 있다.

객사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갖는데, 하나는 왕을 상징하는 전패(殿牌)와 궁궐을 상징하는 궐패(闕牌)를 안치하여 중앙에서 떨어진 지방에서도 왕의 정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기능이다. 다른 하나는 외국의 사신이나 중앙의 관리들을 접대·수행하는 숙소로서의 기능이다. 객사는 읍성 안의 가장 중심지에 자리하며, 임금의 전패와 궐패를 안치하고 문안을 드리는 주사(主舍)와 온돌방을 두어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숙소로 사용한 익사(翼舍)로 구분된다.

객사의 형태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주사를 익사보다 한 단 높은 맞배지붕으로 구성하고 익사는 우진각지붕으로 구성하여 외관을 다르게 꾸민 것, 전체를 하나의 팔작지붕으로 구성하여 내부에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것이 있다. 나라의 중심이 되는 큰 도로 근처에 자리한 지방과 전국 각지의 경승지에 있던 객사에는 사신과 중앙 관리들의 접대를 위해 큰 누정을 세웠다.

수령의 집무처인 동헌은 지방관아의 대표적인 건물로 객사 옆에 자리하고, 동헌의 동서쪽에는 향교와 사직단이 자리 잡아 한양의 경복궁 주변과 비슷한 배치



\_수원관아로 사용했던 화성행궁(사카이 마사노스케, 『화성지영』, 1915)  
 \_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 이동하는 일본군(久保田米徳, 『日清戰鬪畫報』 제1편, 1894)

를 보인다. 동헌은 성격상 집무를 보는 공간인 외아(外衙)와 수령의 가족들이 생활하는 내아(內衙)로 나뉜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동헌 안에 연못을 파고 정자를 세운 예가 많고, 살림을 하던 내동헌에는 사당을 두었다.

이와 같은 관아의 모습으로 볼 때 수원부 관아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789년(정조 13) 수원 신읍치 건설 후 팔달산 동쪽 기슭에 수원부 관아가 건립되었는데, 1794~1796년에 걸쳐 화성이 축성됨에 따라 화성행궁으로 더 알려졌다.

이러한 수원부 관아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1894년 11월경 동학군에게 점령되었고, 동학군 지도자 김내현 등이 희생된 곳이기도 하다. 1860년 4월에 창도된 동학은 1880년대 초부터 수원 지역에 포교되었고, 1880년 중반에는 육임과 경호대접주 등이 임명될 정도로 조직이 확대되었다. 수원의 동학조직은 1893년 3월 보은에서 전개된 척왜양창의운동에 참여하는 한편, 1894년 반봉건 반외세의 동학농민혁명에 적극 참여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이 호남 지역을 포함한 삼남 지역과 강원도, 황해도 등 각지에서 일어나자 수원부는 동학군 지도자를 체포하여 감금하였다. 이에 경기 남부와 충청도 북부의 동학군은 연합하여 수원부 관아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동학군의 공격이 임박하자 수원부 관아는 일본군 지원을 요청하였고, 일본군은 오산 일대에 주둔



동학군 김내현과 안승관의 처형장면(『메사마시 신문』, 1895년 2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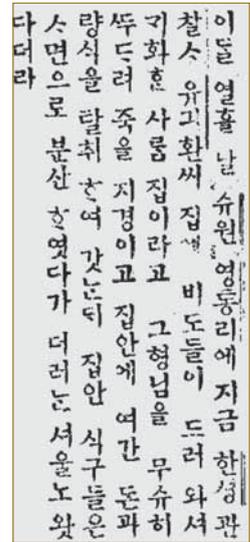


은 전열을 정비하여 남한산성에 입성한 후 광주의진과 연합하여 남한산성의진을 새롭게 조직하는 한편, 수원부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남한산성의진은 1단계로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던 의병과 연합하여 수원부를 점령한 후, 2단계로 강원 의병과 연합하여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일본군과 관군을 공격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일본 측 신문에 의하면 의병들은 수원부를 점령하기도 하였다.

수원부를 점령한 의병은 강원과 충청 의병진과 연합하여 남한산성을 포위한 일본군과 관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연합의병진은 의병장 지휘권 문제로 내분이 발생하여 오히려 퇴패하고 말았다. 남한산성의진은 김하락과 함께 영남 지역으로 진출하는 한편, 수원과 이천·광주를 중심으로 여전히 활동하였다.

수원을 근거로 활동하던 의병은 1896년 5월 10일 수원 영통리에 사는 한성부관찰사 유기환의 집을 습격하였다. 『독립신문』 5월 16일자에는 수원 영통리에 있는 한성부관찰사 유기환의 집을 의병들이 습격하였고, 돈과 양식을 탈취하여 갔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이 기사는 매우 단편적인 것이지만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유기환은 친일적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왜관찰사’로 불렸고, 의병들의 공격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현재 유기환의 집터는 분명하지 않지만 수원 의병들이 전개한 항일투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_\_의병의 한성부관찰사 유기환 집 습격 관련 기사(『독립신문』, 1896년 5월 16일)

수원과 인접한 남양만 일대는 1900년 무렵부터 활빈당의 주요 활동무대였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일제에 맞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의병들의 주요 거점지였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의 체결로 국권이 상실될 위기에 이르자 서울에서는 일대 시위가 일어났으며, 본격적인 항일의병투쟁이 전개되었다. 수원에서도 일제 침략의 상징으로 여겨진 우편국을 습격하고, 전선 절단과 애자 파손 등 의병들의 항일투쟁이 본격화되었다. 수원 의병은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전인 1904년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의병진에 합류한 수원진위대 강화분견대(독립기념관 소장)

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경부철도 역부의 강제징발에 반발하여 일어난 수원 의병들은 1904년 4월 이인응을 중심으로 양성과 양지·용인을 거쳐 수원을 공격하였다. 또한 이들은 일진회 수원지회장인 정경수를 처단하기도 하였다.

1907년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 등의 소식이 전해지자 수원과 인접한 이천과 안성 등지에서 의병투쟁이 전개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수원에서도 1907년 7월 말 의병을 일으키자는 통문이 배포되었다. 수원에서 의병이 안성과 이천 등 여타 지역보다 늦게 창 의한 것은 수원에 서부수비구 제3대대 본부가 있고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8월 1일 군대 해산의 반발로 9일 수원진위대 강화분견대를 비롯하여 수원과 진위의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진에 합류하였다. 이로써 수원은 구한국군 출신 흥원식을 중심으로, 수원 인근 용인은 이익삼과 정주원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병진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1907년 8월 15일 수원정거장을 습격하였고, 1907년 9월 10일 경부선이 지나가는 병점역과 진위역을 공격하였으며, 이 밖에도 일본군 수비대와 경찰서를 습격하는 등 활발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의병 토벌로 경기 남부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던 수원 의병들은 남양만 일대의 섬으로 흩어졌다.

남양만 일대는 바닷길로 중부 이남과 연계하기가 쉽고, 서울과도 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생산된 곡물이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이었으며,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인천은 일본으로 물자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항구였다. 이처럼 남양만 일대는 지리적으로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데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이 때문에 남양만 일대는 수원 의병들의 주요 활동무대였다. 특히 신경춘 의병부대는 남양군 연안 대부도를 근거지로 항일투쟁을 지속하였다.

남양만 대부도는 중기의병이 전개된 이후 일제의 의병토벌을 피한 수원 의병들이 일제에 강점되는 1910년까지 항일투쟁을 전개한 역사적 현장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발안장은 최근까지도 5일과 10일에 장이 들어서는 곳이지만, 1910년대 이전에는 팔탄면 구장리에 있었다. 구장리에 있던 원 발안장은 한말 의병투쟁의 역사적 현장이다.

군대 해산 이후 수원에서 활동하던 의병부대는 홍일초 부대, 정주원 부대, 김군팔 부대, 신경춘 부대, 이익삼 부대 등으로, 남양 일대를 비롯하여 진위·양성·용인 등지를 중심으로 일본군 기습, 첩보활동 등으로 항일투쟁을 이어 갔다. 1908년 1월 13도연합의진의 서울진공작전이 무산됨에 따라 수원 의병들은 이해 3월부터 남양만 일대 해안을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였다.

1908년 1월에는 수원에서 남양으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체송인을 공격하였다. 우편사무소는 일제의 민중 수탈기구이며 통로였기 때문에 소규모로 활동하는 수원 의병은 우편사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통신시설을 습격하거나 파괴하였다. 특히 이해 1월 10일에는 발안장에서 의병 80여 명이 일본군 수비대 보병 제47연대 제9중대와 교전하였다. 이어 다음 날에도 의병 60여 명이 경찰과 연합해 의병을 토벌하는 토벌대와 교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발안장은 현재 그 모습이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에는 수원의 의병들이 일본군과 교전한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는 장소이다.

남양 유지동(柳池洞)은 1908년 일제의 침략에 맞서 수원 의병들이 일본군과 격렬하게 전투를 전개한 곳이다. 군대 해산 이후 활발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던 수원 의병은 1908년 1월 20일 팔탄면 해창에서, 2월 21일에는 수원군 음덕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어 3월 13일에는 수원군 서신리 어소, 15일에는 남양만 고온포, 그리고 대부도 등 남양만 일대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처럼 남양만과 수원 일대에서 의병들이 자주 출몰하여 항일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자 일제는 그 근거지를 없애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의병부대는 모두 다른 곳으로 근거지를 이동하여 일제의 토벌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의병들은 보다 강력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남양군 유지동전투이다. 이에 앞서 수원 의병부대는 1908년 3월 19일 수원군 송동면 원리를 습격하여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일본인 첩자 1명을 납치, 살해하였다. 이어 다음 날인 3월 20일 남양군 북쪽으로 10여 리 떨어진 유지동에서 일본군 남양수비대가 과격한 척후 5명과 두 시간 동안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유지동전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8년 3월 19일 밤 미지곶면(彌知串面 : 며지곶면) 유지동에 있는 이 진사의 집에 의병 14명이 숙박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3월 20일 새벽 2시 일진회원에 의해 보고되었다. 남양수비대 안재(安在) 오장근무상병은 부하 4명과 일진회원을 대동하고 유지동으로 급히 출동하였다. 의병은 토담을 은폐물로 이용하여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두 시간 동안 전개된 교전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의병들은 동북방 구포(鳩浦)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이 전투에서 의병 6명이 죽고 5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다수의 병기와 탄약 등을 빼앗겼다. 이처럼 많은 희생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의병부대는 수원군 토진면 관교에서 일진회원을 처단하는 한편, 안중장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전개하는 등 항일투쟁을 이어 갔다.

이와 같은 유지동전투는 후기의병이 시작되는 시기 수원에서 가장 격렬하게 일본군과 교전을 한 현장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안중장 운촌은 수원 의병부대가 활동하였던 주요 근거지였으며, 1908년 3월 23일 수원 의병들이 일본군과 전투를 한 역사적인 현장이다.

1908년 의병 토벌대를 조직한 일제는 남양만에서 활동하는 의병부대를 소탕하기로 하였다. 당시 일제의 정보에 의하면, 수원군 서남부 고온포(古溫浦) 부근에 100여 명의 의병부대가 활동하였고, 남양군과 수원군 남부 해안의 대부도와 영흥도를 근거지로 의병들이 활동하였다. 남양의 토벌대는 제9대와 제10대의 2개 중대로 구성하였으며, 정찰대와 예비대를 두었다. 당시 안중장은 진위수비대 관할이었다.

안중장에 의병들이 자주 출몰하자 3월 13일 수원군 안중장 부근을 정찰하기 위해 파견된 진위수비대의 상등병 이상 8명은 오후 2시 수원군 서신리면 어소 부근에서 의병 10여 명과 교전하였고, 감미동에서도 수십 명의 의병과 교전을 하였는데 의병 1명이 죽고 2명이 피체되었다. 이어 17일에도 진위수비대장 나카하라(中原) 소위는 하사 9명을 안중장 일대를 정찰하도록 파견하였다.

5일 후인 3월 23일 수원군 남부 지방을 정찰하기 위해 파견된 수원수비대 도요타(豊田) 특무조장과 하사 12명은 안중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3,000m에 있는 운촌 부근에서 의병 10여 명과 조우, 교전을 하였다. 이 운촌전투에서 의병 1명이

희생되었다. 운촌전투 이후에도 수원 의병부대는 수원군 청룡면 안중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활동하였다.

,

수원 남부의 고온포는 1907년 전개된 중기의병 정주원(鄭周源) 부대가 활동하였던 근거지이다. 정주원은 경기도 죽산군 원삼면 하수리에서 태어났고, 1907년 정미조약이 체결되자 이해 8월 의병투쟁에 투신하였다. 우선 용인군 굴암에서 30여 명의 의병을 모은 정주원은 양성과 양지에서도 의병을 모집하여 150명의 의병 부대를 조직하고 의병장이 되었다. 1908년 2월 안성·양지·죽산 등지에서 일본군 15명과 첫 교전을 하였으며, 4월에는 양지군 사동에서 일본군과 두 번째 교전을 하였다. 그리고 이해 8월 29일 안성에서 일본군 40여 명으로부터 습격을 받고 교전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죽산과 양지에서 계속 의병을 모집하여 900여 명에 이르렀다. 참여하는 의병이 늘어나자 정주원은 세 부대로 편성하고 자신은 그중 한 부대를 직접 지휘하면서 수원 고온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정주원 부대가 고온포를 근거지로 활동하자 남부수비대는 도요타(豊田) 특무조장 등 사관 21명을 출동시켜 의병과 교전하였다. 고온포는 정주원이 이끄는 수원 의병들의 근거지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과 교전한 역사적인 현장이다.



이동근\_수원시청 학예연구사

## 02

,

—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일제강점기 수원의 도시적 변화 속에 그 해답이 있는 것 같다. 일제는 조선을 일본화하려고 했고,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고자 했다. 서구 문명에 일찍 눈을 뜬 일본은 제국의 발전을 도모했고, 대륙 지배의 야욕을 가지면서 조선을 침략하였다. 조선의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난 뒤 서서히 ‘조선적인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전통은 ‘구습’이라는 이름으로 없어지기 시작했고, 마을은 전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해 갔다.

일제는 전통의 파괴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교육과 의료사업을 대중화하면서 선전하였고, 교통과 행정의 체제를 바꿔 나갔다. 자연스럽게 교통의 요지에는 일본인들이 모여들면서 일본인 상점과 주택이 들어선 새로운 일본 거리가 만들어졌

고, 일본의 상징들이 곳곳에 건립되었다.

먼저 일제는 수원에서 가장 전통적인 것을 파괴하면서 도시를 재편해 나갔다. 그 첫 번째가 조선 후기 정조대왕이 세운 계획도시 화성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전통의 관아 건물인 화성행궁의 파괴였다. 화성행궁에는 근대식 병원인 자혜의원과 대표적인 식민통치기구인 수원군청, 수원경찰서 등이 들어섰다.

현재 수원 화성과 화성행궁은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10월에 열리는 수원화성문화제와 같은 축제에서는 정조의 능 행차뿐만 아니라 각종 궁중 체험행사들이 다채롭게 열리고 있다. 낮에는 성곽의 여러 시설물을 돌아보고 화성행궁 신평루 앞에서는 박진감 넘치는 무예24기 공연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야간 경관 조명이 비춰진 아름다운 성곽과 성곽의 연못에 떨어지는 달빛이 어우러져 빛의 향연을 이룬다. 방화수류정 용연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다 보면 이 모습들이 100년 전에 전혀 다른 도시와 풍속으로 바뀔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섬뜩해진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초반부터 식민지 조선을 철저히 장악해 나가면서 일제의 발전을 위한 수탈의 대상이자 물적 기반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우선 조선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해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을 서둘렀다. 행정구역 통폐합의 목적은 조선에 있던 전통적인 자치조직을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행정기관의 강화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지배체제의 확립을 꾀했다. 이때 남양군과 수원군이 통폐합되어 수원군으로 편제되었다. 이러한 행정구역 통폐합 과정에서 화성행궁에는 수원군청이 들어섰고, 각종 관공서가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현재 화성행궁은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복원되었다. 1996년부터 시작된 복원공사는 2002년 7월 마무리되어 200년 전 행궁의 위용을 드러냈다. 그리고 복원된 화성행궁은 그 문화재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 6월 사적 제 478호로 등록되었다. 화성행궁에서는 「대장금」을 시작으로 「정조 이산」, 「해를 품은 달」까지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촬영되어 관광 명소로 부각되었다. 한류



의 열풍으로 많은 일본인과 중국인이 화성행궁을 다녀가는데, 단순히 드라마 세트장을 견학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이곳에 숨어 있는 정조의 숨결과 우리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노력하고 있다.

복원되기 전 화성행궁에서 옛 건물로 남아 있던 유일한 곳은 ‘낙남헌’이다. 일제는 식민행정기관으로서 화성행궁의 낙남헌을 개조하여 수원군청으로 사용하였다. 벽을 치고 현관을 만들어 일본식 건물처럼 일부를 개조하였다. 당시의 사진에는 건물 앞에 관리의 상징이던 자전거가 여러 대 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낙남헌은 정조가 과거시험, 양로연 등 백성들을 위해 펼쳤던 각종 행사가 치러졌던 곳이다. 그곳에 일제는 식민지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자 했던 실무기

↳ 낙남헌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수원군청(수원박물관 소장)

구를 둔 것이었다. 일제는 낙남헌을 1938년까지 수원군청으로 사용하다가 1938년 7월 20일 새로운 청사를 준공하여 이전하였다. 새로운 청사가 들어선 곳 역시 화성의 부속건물인 중영이 있던 자리였다. 낙남헌은 해방 이후에 신평초등학교의 교무실로도 사용되었고, 기나긴 세월 동안 사람의 냄새를 간직한 채 화성행궁의 부속건물 중 유일하게 옛 모습을 오늘날까지 간직하고 있다.

화성행궁의 다른 부속건물들이 복원되어 일반에 공개되기 전까지 화성행궁 자리에는 붉은색 2층 건물이 있었다. 바로 경기도립병원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수원경찰서가 자리하였다. 지금은 모두 새로운 자리로 옮겨졌지만 병원과 경찰서가 화성행궁 안에 놓이게 된 것은 또 하나의 식민지적 아픔이었다. 일제는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교육과 의료사업에 치중하였다. 그래서 주요 도시에 ‘자혜의원’을 만들어 근대식 의료기술을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원 자혜의원은 식민지의 혜택을 강조하며 1910년 화령전에 설치되었다. 화령전은 정조 임금의 사당이었으나 1908년 9월 20일 정조 임금의 위패와 어진이 덕수궁으로 옮겨지면서 비어 있었는데, 일제는 의도적으로 임금의 사당을 침탈하였다.

그 후 자혜의원은 행궁의 정전 건물이었던 봉수당으로 옮겨졌는데 이 역시 조선의 상징을 허물어뜨리는 작업이었다. 봉수당은 경복궁의 근정전처럼 임금의 정전 건물로서,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펼치며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자 했던 상징적 공간이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수원예기조합의 기생 30여 명이 김항화의 주도로 건강검진을 거부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던 장소였다. 일제는 봉수당을 허물고 1923년 높다란 붉은 벽돌건물의 근대식 병원을 증축하고 경기도립수원의원으로 확장하였다. 전통적인 조선의 것을 파괴하고 이질적인 새로운 건물을 통해 식민지의 혜택과 위용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 시기에 화성행궁의 부속건물들은 근대라는 미명 아래 하나 둘 파괴되어 갔다.

이 밖에도 화성행궁 건물을 개조하거나 헐어 버리고 토목관구, 경찰서 등이 새



롭게 들어섰다. 화성행궁의 북군영 건물은 일제 경찰이 총칼로 무장한 채 식민지 백성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독립운동을 억누르는 공간인 수원경찰서로 변모해 버렸다. 일제는 조선적이고 전통이 살아 숨 쉬었던 공간인 화성행궁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며 우리의 문화유산을 파괴해 나갔다. 그러면서 그 위에 근대를 가장한 이질적 문화를 도입시켜 나갔다.

또한 말단 식민행정을 수행하던 수원면사무소가 1923년 6월 19일 팔달문 안쪽에 신축되었다. 화성행궁의 부속건물인 이아(두 번째 관아)는 원래 군사업무를 맡아 보는 관아였는데, 이 건물을 일부 개조하여 경기재판소로 사용하다가 수원구(區)재판소 시절에 임시건물을 지어 사용하였다.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으로 바뀐 뒤 1920년 4월 새로운 건물을 지어 사용하였다.

일제는 이렇듯 각종 식민지배기관과 근대적 시설을 통해 지배자의 우월성을 드러내었다. 전통적으로 왕을 상징하였던 화성행궁과 그 부속건물들을 개축하거나

..봉수당 자리에 세워진 경기도립수원의원(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허물어 새롭게 건축하면서 식민통제의 이면을 숨긴 채, 식민지의 시혜적 측면과 우월성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고통과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 공연을 보고 건물을 살펴면서 즐거워한다. 역사는 계속 흐르는 것이다. 화성행궁은 200여 년의 전통적 모습과 상징성을 가지고, 100년 전 식민지배와 수탈을 증거하며, 화성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수고를 간직한 채, 오늘날 우리가 견고 찾아보는 순간의 역사까지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우리의 삶처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말이다.

화홍문에 이르러 수원천변을 따라 걷다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옆에 조그만 교회가 나온다. 동신교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가운데 하나이다. 기독교신회는 구약과 신약 성서 그 자체만을 믿으며, 필요 이상의 조직을 두지 않고 목회제도 없는 교파이다. 따라서 별도로 사제를 두지 않고 신자 모두가 형제자매의 신앙인으로 생활하게 하였다. 기독교신회는 1830년경 영국에서 일어난 플리머드 형제운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플리머드형제단 소속의 영국인 선교사 브랜드(H.G. Brand)가 1888년 일본에서 선교를 시작하였고 이에 동참했던 일본인 노리마츠 마사야스가 한국에 전도하였다.

동신교회 안쪽 작은 언덕 위에는 동신교회를 설립한 노리마츠 마사야스를 기념하는 비석이 서 있다. 노리마츠는 1900년 8월 9일 부인과 첫돌이 채 안 된 아들을 안고 수원을 찾아왔다. 기독교 선교를 위해 조선에 온 것으로 일본 개신교 역

사상 최초의 해외선교 사례였다. 처음에는 성 안의 북수동(장안동)에 초가집 한 채를 마련하여 정착하였는데 수원에 이주한 최초의 일본인인 셈이다. 우리가 노리마츠를 특별히 기억하는 이유는 동신교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다른 일본인들과는 구별되는 생각과 삶의 태도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복을 입고 식기와 집도 한국식으로 생활하면서, 아들에게도 일본어를 가르치지 않고 한국어를 가르쳤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성서강론소’로 하여 조선인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신앙생활에 감명을 받은 김태정은 1909년 8월 수원천변 토지를 기부하였고 신자들의 헌금과 협력으로 한옥의 집회소를 지어 ‘수원성서강당’이라 이름 붙였다. 1917년 일제의 요청에 따라 기독교동신회로 종교단체 등록을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노리마츠는 1921년 일본에서 죽었지



\_1910년대 방화수류정 앞 동신교회(수원박물관 소장)

만 그의 뼈는 이듬해 광교산 묘지에 묻혔고, 그를 기념하는 비석이 동신교회 안에 세워졌다. 어찌 보면 노리마츠 선교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조선을 사랑했던 것 인지도 모른다.

수원 시내에 개신교가 유입된 것은 미북감리회 스크랜턴(Scranton) 선교사가 서울 이남 선교정책의 일환으로 수원에 선교기지를 세우고자 1901년경 개신교도 몇 가정을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주시켜 신앙공동체를 만들면서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노력 속에 수원에 세워진 개신교 교회가 바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원종로교회이다.

수원천변과 행궁을 사이에 두고 가장 중심지인 종로사거리에 위치한 이 교회는 1913년 미국 백각부인(Mrs. Althera Babcocks Teither)이 자신의 어머니를 위하여 기념예배당을 지으라고 미화 150불(300원)의 기금을 낸 것을 기초로 종

로에 합석지봉의 예배당 40평을 건축한 후 ‘수원종로교회’라 불리게 되었다. 김세환을 비롯하여 많은 신도들이 3·1운동과 민족운동에 참여하여 민족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1932년에는 2층 연와조 60여 평의 건물로 개축하였고, 1969년 10월에 연와조 2층 379평으로 개축한 것이 오늘날 종로교회의 모습이 되었다.

종로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선교 활동과 함께 매일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를 세워 교육활동에 열심이었



\_左 현재의 수원종로교회  
\_右 이담스기념관

다. 지금은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수원천변을 따라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재잘거림 속에 매향중학교와 삼일중학교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학교들은 수원 지역의 개신교 유입과 근대 교육의 역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삼일중학교 교정 안에는 수원지방 감리사였던 목사 노블(W.A. Noble)이 미국 아담스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1923년 6월 25일 건립한 아담스기념관이 남아 있다. 아담스기념관은 아담스교회 선교부에서 설계하고, 중국인 왕영덕이 공사하여 세워졌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 우진각 지붕의 빨간 벽돌 건물은 학생들의 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북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 선교를 시작한 교단으로는 영국성공회가 있다. 영국성공회의 코르프(C.J. Corfe : 1865~1921, 高要翰) 초대 주교가 1890년부터 1904년까지 15년간 한국에 성공회를 전파하였다. 그는 서울·인천·강화 다음에 네 번째로 수원 지역의 선교를 시작하였다. 1904년 서



울에서 파송된 송 전도사가 수원천 윗버드내(상류천)에서 전도활동을 전개하였고, 수원군 안룡면 장지리(현 공군비행장)에 최초의 성공회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듬해 1905년 초대 관할사제로 부임한 브라이들(Bridle, 부재열) 신부가 수원 매교동 가옥을 매입하여 임시 성당으로 사용하다가 1906년 현재 위치인 교동 11번지 일대 4,000여 평을 매입하면서 교동시대가 열렸다. 매입한 땅에 철조망을 치고 전통 가옥을 성당으로 사용하였음을 1907년 독일인 헤르만 산더(Hermann Sander)가 찍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성공회는 1908년 성당을 신축하고 남녀 8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진명학교(進明學校)를 1908년 5월 16일 개교한 후 교육을 통한 전교활동을 시작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보였다. 식민지시기 성공회교회당은 각종 모임과 강연·공연 장소로 활용되면서 수원 지역민에게 매우 친근한 공간이 되었다. 1970~1980년대 증·개축되어 옛 모습을 잃었지만 성공회교회는 종로교회와 함께 수원에서 100년의 역



\_左 1907년 성공회교회(헤르만 산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_右 성공회 수원교회

사를 간직한 성스러운 공간으로 존재한다.

한편, 이 시기 수원 지역의 불교는 용주사가 이어 갔다. 당시 용주사 주지였던 강대련(姜大蓮)은 친일협력을 적극적으로 펼쳤던 인물로, 1920년 수원 읍내에 수원포교당을 창건하였다. 수원포교당은 전국 3대 포교당의 하나로 손꼽히는 포교의 전법도장으로 발전하였고, 1999년에 연건평 1,000여 평의 불교문화원을 신축하여 도심 속의 '불교보급소'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원천변 바로 옆에 매향교와 지동시장 중간에 위치한 사찰 안으로 들어가 보면 1920년에 지어진 전통양식의 목조건물인 극락대원전이 고즈넉한 자태를 드러낸다. 그 외에 포교당의 웅장함을 자랑하듯 정토수행관, 봉향각, 불교문화원, 금당보탑, 요사체 등이 펼쳐져





있다. 수원포교당에서는 1929년 9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 알려진 나혜석이 세계일주를 다녀온 뒤 고향인 신흥동에 내려와 미국에서 그린 것과 수집해 온 그림 등을 전시하며 이틀 동안 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수원포교당은 1988년부터 20주 과정의 불교 기초교리 학습을 18여 년 동안 이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의 기복 불교에 치우친 점을 탈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포교의 현대화와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고자 건립된 불교문화원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 문화·복지에도 힘쓰고 있다.

\_수원포교당 극락대원전

수원은 전통적인 성곽도시로서 화성이 축조된 이후 팔달산 아래의 신읍치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성 안에는 전통적인 도시 구획방법에 따라 십자형 도로가 개설되었다. 십자형 도로는 수원읍치의 핵심적 교통로였는데 하나는 북문인 장안문에서 남문인 팔달문을 가로질러 천안으로 이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문인 화서문 부근에서 동문인 창룡문을 거쳐 광주에 이르는 것이었다. 읍치는 십자로가 교차하는 종로사거리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시가 형성과 상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로변에 상가를 조성하고 경성과 팔도의 부호를 유치하여 장시를 개설하였다. 이 때문에 ‘팔부자거리’라는 명칭도 생겼다. 팔도의 부호들은 주로 종로사거리와 장안문을 잇는 대로변에 상가를 형성하였고, 팔달문과 장안문 밖으로 시장이 형성되며 상업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팔달문 쪽 성밖 시장은 영동시장과 팔달문시장이 그 맥을 이어 가고 있다. 바야흐로 장터의 생동감은 생태하천으로 활기찬 모습을 되찾은 수원천과 역사적인 복원으로 제 모습을 찾은 남수문과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100년 전 성 안과 밖에 변화가 몰아치는데, 그 가장 큰 배경은 근대의 이기(利器)였던 철도 건설에 있었다. 경성과 부산을 잇는 경부철도가 부설되자 수원은 교통의 요충지로서 신작로가 건설되고, 일본인 거리가 만들어졌다.

1910년대 이후부터 수원군에는 많은 일본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여, 1920년대 말 2,900여 명에 이르렀다가 1930년 이후에는 3,400여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수원역을 중심으로 일본인 거주지를 만들어 냈다.

1913년경 수원역 주변에는 2,675호, 1만 1,394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일본인이 381호, 1,303명으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 내에 사는 일본인 보다 훨씬 많은 수가 수원역을 중심으로 살면서 신시가지를 형성하였다. 새로운



일본인 시가지가 형성된 곳은 오늘날 매산로 일대이다.

일본인이 급증하자 일본인 거류지에는 교육기관과 종교기관이 조성되었다. 일본인들은 일본인회를 설립하고, 1906년 9월에 ‘수원거류민립소학교’를 설치하여 10월 8일 7명의 학생으로 개교식을 가졌다. 그 후 폭발적으로 학생이 증가하자 수원역과 가까운 팔달산 남쪽에 1908년 1월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여 이전함으로써 수원 지역 일본인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원거류민립소학교는 1910년 5월 수원학교조합 설립 ‘수원심상고등소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12년 4월 ‘수원공립심상고등소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그리고 팔달산 중턱에는 1917년 ‘수원신사’가 설치됨으로써 일본인소학교와 수원신사는 일본인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적 구심으로 작용하였다. 일제는 의도적으로 수원향교 위에 신사를 설치함으로써 조선 위에 일본이 존재함을 과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팔달산 서남쪽은 일본인소학

—일제강점기 기모노를 입은 여인들과 수원 거리(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교, 일본인이 운영하는 상점, 일본사찰 등이 조성되면서 완전한 일본인들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수원의 전통적 주산인 팔달산이 일본인들의 신성한 공간이요, 식민지배의 상징이 되어 버린 것이다.

팔달산에는 신사뿐만 아니라 일본 군인인 마사즈나 소좌의 죽음을 기리는 비석까지 세워졌다. 마사즈나는 1894년 청일전쟁 당시 청나라 군대와 의 일전을 건 중요한 전투에 제때 출동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결한 인물이다. 일제는 그의 죽음을 미화하여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청일전쟁의 승리를 수원 팔달산에서 기념하였다. 근대 일본의 상징적 기제를 팔달산에서 상징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기념비는 ‘대한독립’을 열망하는 청년에게 굴욕을 당한다. 나혜석의 조카 나석균은 21세의 열혈 청년으로 기념비 정면 2층 기단부에 “미나미를 주살하라, 황국신민은 무어냐?” 그리고 동쪽 측면에 “죽음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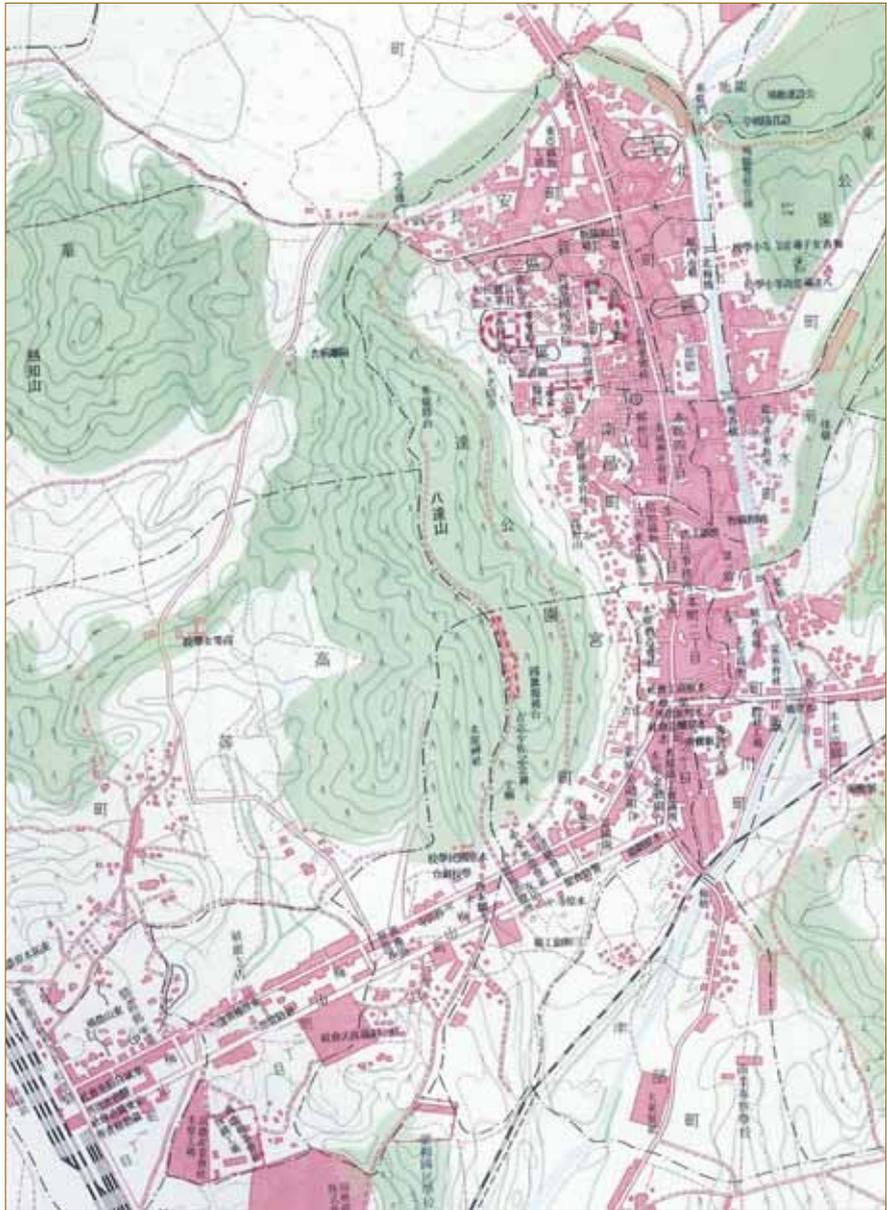
..팔달산 중턱의 수원신사(수원박물관 소장)

로 미나미를 박살내자. 우리들은 대한국민이다.” 또 답신 받침에 “대한만세”, 2층 기단에 “타도 일본, 대한만세, 독립청년군”, 서쪽 측면에 “우리들 대한민국민은 일치 단결하여 대한독립을 이루자.” 등을 크레용으로 써서 독립의 의지를 드러내었다. 당시 일제는 ‘낙서사건’으로 규정하고 용의 인물들을 찾아내어 필적 감정까지 벌이며 혈안이 되었고, 나석균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나석균의 항일낙서사건은 팔달산이 일본적 상징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수원 지역민들의 저항이며, 일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와 분명한 독립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1910년대에 매산로에는 소학교, 동양척식주식회사 출장소, 동산농장, 수원사 등이 있었으며, 이후 일본 상인들의 경제적 발전과 일본인사회의 성장으로 도시는 기존의 모습을 걷어 내고 새롭게 변화되어 갔다. 더구나 일본 불교 종파들은 일찍부터 조선 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에 사찰을 건립하기 시작했는데, 일본 정토종에서 1905년 12월 교동에 수원사를 건립하면서 전초기지를 마련하였다.

1943년의 수원읍 지도를 보면 도시적 변화가 크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역에서 향교 앞으로 일직선의 도로가 만들어져, 일본인 거리인 신작로를 형성하였다. 수원역 앞에는 조선운송회사 수원지점, 화성자동차회사, 경동철도 회사, 동산농장, 역전 우편국이 있었으며, 새로 생긴 신작로를 따라 식산은행 수원지점, 동양종묘회사, 만종원, 세무서, 중앙무진회사, 서본원사, 사법사, 부국원, 수원극장, 화성금융조합, 수원금융조합, 수원상공회의소 등 경제기구와 관공서 등이 들어서 식민지적 도시로 재편되어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신작로에 들어섰던 대중 공연장으로서 역사를 간직한 수원극장은 많은 시민들의 추억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나 이제는 한복집이 되어 잊혀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소학교 자리엔 매산초등학교가 해방 이후 다시 개교하면서 역사와 문화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위에 권업모범장의 종묘와 종자를 보급했던 부국원 건물과 중앙무진회사 건물 등이 남아 있다. 부국원 건물은 내과의원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H문화사가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앙무진회사 건물은 가족여성회관



남원에서 수원역을 연결하는 매산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시가(1943년 수원읍 지도)



옆에서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남아 있다.

이렇듯 수원은 전통도시 위에 식민도시가 건설된 모습으로 팔달산 서남쪽에서 매산로를 따라 수원역, 서호, 권업모범장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일본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되었다. 식민지 경영으로 수원의 도시 모습은 변화되어 갔고, 그 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 또한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변화되어 가며 새로운 근대의 모습을 만들어 갔다. 지금 매산로를 걷다 보면 100년 전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그나마 남아 있는 부국원 건물과 중앙무진회사 건물, 모습을 탈바꿈한 수원극장을 보며 100년 전 식민도시의 모습을 오버랩해 본다.

\_옛 중앙무진회사 건물

숨어 있는 100여 년 전의 모습들을 골목골목 찾아보며, 매산로를 따라 경기도 청오거리를 지나면 2003년 새롭게 태어난 수원 민자역사를 마주하게 된다. 지금은 도시철도로 전철이 이 길을 통해 천안까지 달리고 현대적 문명의 이기인 KTX도 바람을 가르며 달려간다. 수원역 앞 많은 사람의 모습에서 생존의 급박함과 피곤함이 뒤섞여 보인다. 아침이면 출근 전쟁이요, 백화점 쇼핑의 뽐뽐함이요, 저마다 가고자 하는 목표점을 향해 피곤한 몸을 신고 달리는 그 길, 빨리 달려가는 것만이 좋은 것일까? 요즘의 새로운 트렌드는 ‘느림’이 대세임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

수원역의 역사는 1905년 경부선 철도의 부설과 개통으로 시작된다. 일제가 본격적인 식민통치를 하기 이전부터 조선의 많은 이권은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넘어갔다. 새로운 서양문물의 유입 속에서 철도 건설은 많은 사람의 관심 대상이었다. 철도 건설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한 이후 조선과 일본의 공동관심사가 되었다. 일본은 1892년 7월 서울과 부산 간, 서울과 인천 간의 철도 실사 및 측량을 군대의 비호를 받으며 실시하였다. 그리고 1894년 7월에 서울과 인천, 서울과 부산 간의 철도 부설을 계획하였다. 일제는 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목적에서 철도를 부설하였다. 따라서 이는 대륙 침략을 위한 군용철도였다. 결국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마산포선 등이 복잡한 이면사를 간직한 채 일제의 의지대로 부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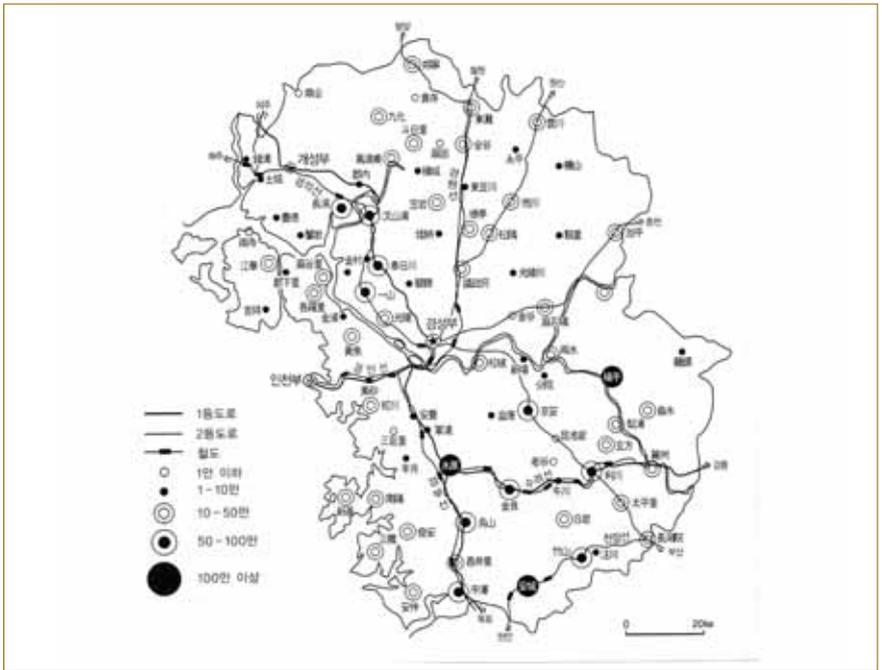
그중 경부선의 부설로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수원도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다. 경부선은 1901년 9월 21일 서울 영등포에서, 같은 해 9월 21일 부산 초량에서 일본자본의 회사인 경부철도주식회사에 의해 기공되어 3년 후인 1904년 12월 27일 완공되었고, 1905년 1월 1일 개통되었다.



지금의 서수원 쪽 노선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애초에 일본의 건설회사는 사그내에서 동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 지지대 고개의 서쪽 산에 터널을 뚫고 대유평을 거쳐 화서문 밖, 팔달산 기슭을 뚫고 상류천·대항교 동편으로 나가는 노선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정조대왕이 능행차를 했던 역사성이 깃든 곳이자 지지대비와 화령전이 있는 팔달산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이에 수원 지역민들은 반발하며 팔달문 밖에 모여 반대시위를 벌였고 그 결과 현재의 노선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수원 지역민들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의지가 없었다면 지지대고개와 팔달산은 훼손될 뻔하였다.

그 후 수원역사가 1928년 전통기와 건축으로 새롭게 지어져 다시 개통하게 되는데, 일제는 많은 사람을 모아 놓고 새로운 역사 대합실에서 성대하게 축하연을

\_1928년 신축한 수원역사(수원박물관 소장)



\_미국 집산지 수원역 주변의 우마차들(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_1930년대 경기도 장시 분포도(수원상공회의소, 『수원상공회의소 100년사』, 2008)



벌였다. 그러면서 “순전히 조선식으로 만든 아름다운 수원역사”라고 식민지배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수원역은 여주와 인천을 잇는 협궤열차가 운행되면서 경기도 철도 교통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1931년 수원과 여주를 잇는 수여선과 1937년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이 개통되는데 수여선은 쌀을 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인선은 경기만의 염전에서 소금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설되어 또 다른 식민 행정과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이렇듯 수원역이 생기면서 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쌀과 콩, 땀나무 등이 실려 나갔다. 그리고 주변의 서둔벌은 일제가 수용하여 다시 일본인 대지주들에게 불하하면서 일본인들이 경제력을 독점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도시와 장시의 체제를 무너뜨려 버렸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의 새로운 상권이 편제되고 장악해 가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얘기한 매산로의 일본인 거리와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는 중요한 배경이었다.

권업모범장(수원박물관 소장)



수원역 주변을 바라보자면 뒤편 서쪽으로는 아직도 푸른 서둔벌이 펼쳐져 있다. 200여 년 전 정조대왕이 농업 발전을 위해 만들었던 둔전과 축만제(서호)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수원은 농업도시로 불렸다. 이는 정조대왕의 농업개혁의 의지를 이어받아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며 도시 속에서 농업 연구의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다. 어려웠던 시절 우리의 식량문제를 해결했던 ‘통일벼’가 수원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런데 지금은 농업연구도시 수원의 명성이 사라져 가고 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서울로 옮겨 가고, 농촌진흥청도 2014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제 농업연구도시의 명성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다. 다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서호와 주변의 농지들이 그나마 옛 모습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_일제시기 수원고등농림학교와 서둔동 전경(서울대학교 농학도서관 소장)

일제는 식민지 농업정책의 조사와 연구, 실험을 위해 1906년 서호 옆에 권업모범장을 세웠다. 식민 초기 투자비용이 부족했던 일제는 농업 연구 기반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 1905년 경부철도의 개설로 교통의 요충지가 된 수원을 권업모범장 부지로 선택하였다. 그야말로 식민지 경제정책의 효율성과 경제적 이득까지 챙긴 것이다. 권업모범장은 일본의 농업기술을 일방적으로 도입하여 곡물 종자를 강제로 바꾸며, 생산과정에 직접 개입하였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미곡의 상품성과 생산성을 높여 수탈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간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권업모범장의 농업 생산과정에 일본인 지주들이 직접 개입하였고, 일제 농업정책의 충실한 수행자였던 일본인 지주들은 1906년부터 권업모범장 주변에 농장을 설치하여 대규모 소작 경영을 시작하였다.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일본인 대지주들은 1906년 12월에 설립한 국무합명회사와 1907년 설립한 동산농사주식회사, 1910년 수원출장소를 두고 농장 운영을 시작한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이었다. 이들은 수원 지역 곳곳에 대규모 농장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쌀농사에 돌입했는데, 본부와 지점은 수원역을 중심으로 매산로 일대에 모여 있었다.

일본인 지주들이 운영했던 농장의 소작농은 거의 대부분이 수원 지역민이었으며, 지역민들의 고혈을 짜내 생산된 미곡들은 곧바로 수원역을 통해 기차로 부산으로 옮겨져 일본으로 넘어갔다. 이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항하여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수원역과 서호 부근에서는 소작농들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이곳에서 독립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자 하였다.

또한 권업모범장의 설치 이후 현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신인 수원농림학교가 1906년 설립되어 서울에서 개교한 뒤 1907년 수원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 후 10월에 관제 개정으로 교명이 조선총독부 농림학교로 바뀌면서 권업모범장의 부속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1918년 3월에 수원농림전문

학교로, 1922년 3월에 수원고등농림학교로 변경되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의 교수와 관리들은 거의 일본인으로,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가 매우 심하였다. 이에 조선인 학생들은 차별 대우의 철폐와 학생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1920년대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식민치하에서 차별받던 민족적 울분의 표출이었다. 그 이후에도 학생들은 민족적 차별에 대한 저항과 독립을 향한 비밀결사운동을 1930년대까지 지속하였다. 졸업생들도 전국 각지에서 상록수운동과 독서회 활동을 전개하며 농민들을 계몽하고 항일의식을 고취시키며 민족의 자유와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면서 일제는 수원의 화성과 화성행궁을 파괴하거나 방치하면서 훼손하였다. 식민지배의 혜택을 빌미로 우월성을 과시하며 식민도시 건설이 새로운 희망인 것처럼 포장하였다. 하지만 수원 지역민들은 일제의 경제적 침탈과 민족적 차별, 궁극적으로는 조선을 일본으로 만들고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노력하면서 독립을 위한 희망을 잃지 않았다. 도시는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어 왔지만 수원은 화성을 지켜 내었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보존·복원하였다. 화성은 지금도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지켜지고 있으며, 아무 말 없이 역사의 긴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오늘도 나는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본다.



이동근\_수원시청 학예연구사

## 03

### ‘ (華城)’

‘수원(水原)’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을 떠올린다. 그것은 1789년 읍치가 이전되고 화성행궁이 만들어지면서 조선 후기의 역량이 총집결되어 최고의 계획 신도시 ‘화성’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는 물론 해외의 여행자들이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관람하기 위해 찾아오고,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의 르네상스라고도 불리는 정조 대의 문화적 산물인 화성이 나라를 빼앗겼던 식민지 시절 최대의 항일유적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역사와 문화는 단절된 것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즐겁게 웃고, 때로는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수원의 화성은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이 지역 젊은 청년들의 새로운 시대

고민이 녹아 있던 장소이고, 지역 유지와 농민·상인·노동자·학생·기생 등이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우리 민족 최대의 민족해방운동인 3·1운동이 벌어졌던 역사적 공간이다.

3월이면 아직 쌀쌀한 날씨다. 외투깃을 곧추세우고 화성 성곽으로 발길을 옮기다 보면 화성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치를 마주하게 된다. 화성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되는 공간으로, 정조대왕도 술 한 잔 기울이며 활시위를 당겼던 곳이 방화수류정이다. 화성의 북수문인 화홍문의 일곱 수문에서 쏟아지는 아름다운 물결을 가장 운치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평상시에는 휴게공간, 전쟁 시에는 군사지휘소였던 동쪽각루 방화수류정의 아름다운 정자에 올라 바라보면, 조그만 인공 연못 용연의 푸른 물결 속에서 내일을 향한 독립의 희망이 동심원을 그리며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다.

수원 지역의 만세운동은 방화수류정(일명 용두각)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공원의 만세 합성은 그날 저녁 수원 용두각 아래에서 수

\_일제강점기 방화수류정과 용연(수원박물관 제공)



백 명의 외침으로 이어졌다.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지식인, 청년학생, 상인, 농민 등 수원면에 거주하던 지역민들이었다. 이날의 시위는 김세환(金世煥)을 비롯하여 김노적(金露積), 박선태(朴善泰), 임순남(林順男), 최문순(崔文順), 이종상(李鍾祥), 김석호(金錫浩), 김병갑(金秉甲), 이희경(李熙景), 신용준(愼用俊), 이선경(李善卿) 등의 기독교도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벌어졌다. 대부분이 수원에서 나고 자라 서울로 유학을 다니며 공부했던 지식인 청년들이었다. 그들을 지도했던 김세환은 기독교 측 대표로 민족대표 48인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수원군 수원면 남수리(南水里) 출생으로 수원의 삼일여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김노적도 수원상업강습소(水原商業講習所) 교사였고, 박선태 등은 모두 20세 안팎의 젊은 청년학생들이었다. 김세환은 이날의 만세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청년학생들의 배후에 있었다. 김세환은 민족대표 48인 중 기독교 측 대표로 3월 1일에는 서울에 올라가 있었다. 김세환은 일경에게 체포된 후 신문조서에서 떳떳하게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실을 밝혔던 인물이다. 방화수류정 아래에서 그날의 함성을 떠올리다 보면, 주위의 중·고등학생들의 재잘거림이 새롭게 들린다.

방화수류정 아래에서 수원 지역 3·1운동의 횃불을 높이 치켜들었던 젊은 청년들은 3·1운동 이후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종상,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 박선태 등은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1920년 6월 20일 ‘구국민단(救國民團)’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구국민단은 독립국가의 건설과 독립운동가들의 가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했으며, 여성동지인 임순남, 최문순, 이선경은 상하이(上海)로 가서 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어 독립운동을 도울 것을 맹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비밀활동이 일제에게 발각되어 이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모진 고문 끝에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이들 중 이선경은 체포된 뒤 모진 고문으로 재판정에 참석하지도 못한 채 판결을 받다가 고향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19세의 나이에 순국하고 말았다. 이선경은 수원 지역의 유관순이 아닐까 한다.

수원천변을 따라 매향중학교를 지나 삼일중학교의 아담스기념관과 수원화성 박물관을 지나면 옛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름만을 간직한 매향교가 나온다. 매향교를 건너 화성행궁 쪽으로 난 길이 종로이다. 화성을 축성할 당시 종각을 만들었는데, 이곳에 현재 경기도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어 있는 ‘팔달문 동종’을 달아 성문을 열고 닫을 때 타종하였다. 2008년 종각은 ‘여민각(與民閣)’이라는 이름으로 복원되어 새롭게 만든 웅장한 종이 매달려 있다.

만세의 함성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독립을 희망하게 되었다. 1919년 3월 16일 장날을 이용하여 팔달산 서장대와 동문 안 연무대에 수백 명이 모여 만세를 부르며 이곳 종로를 통과하였다. 그러던 중 시위군중들은 일본 경찰과 소방대, 헌병에게 강제해산을 당했고 주동자가 붙잡혀 갔다. 그러자 시내에서는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장의 가게 문을 닫고 철시투쟁을 벌여 나갔다. 수원 읍내에 거주하고 있던 상인들은 일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상권을 침탈당하고 있었으므로 상인들의 피해의식은 매우 컸다. 이후에도 장날에 학생과 노동자들은 시장에서 만세를 불렀고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만세운동이 지속되었다.

현재에도 종로사거리를 중심으로 많은 영업점이 그들만의 삶에 불을 지피며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곳에는 기름에 통째로 튀겨 먹는, 말 그대로 ‘통닭’ 집들이 유명하다. 통닭집에서 풍겨 나오는 기름 냄새와 맛있어 보이는 통닭을 뒤로 하고 팔달산 쪽으로 걸다 보면 네거리 오른쪽 편에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종로교회가 우뚝 서 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탁 트인 광장이 펼쳐지고 화성행궁(華城行宮)이 2002년 7월 제 모습을 찾아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 복원되어 팔달산 아래 위엄을 내보이며 버티고 있다.

오늘날 문화재로 수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1789년 읍치 이전으로 건설된 화성행궁이다. 화성행궁은 임금이 행차하였을 때 머무르던 공간이자, 평상시에는 화성유수부의 관아 건물이었다. 그러나 나라를 잃고 식민지라는 틀 속에서 화성행궁은 하나 둘 파괴되며 수난을 겪게 되었다.

새롭게 복원된 화성행궁의 정전 건물인 봉수당에 들어서면 많은 이들은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떠올린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10월 ‘수원화성문화제’의 큰 축제 속에서 회갑연을 시연하는 행사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 회갑연을 아름답게 장식했던 주인공은 ‘여령(女伶)’들이다. 여령은 바로 궁중과 관공서에 소속되어 있던 기생을 말한다.

우리는 기생 하면 천한 여성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지 모른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웃음을 흘리는 여성을 그리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다움과 지성을 겸비한 황진이, 의기가 충만했던 논개 등이 떠오르기도 한다. 기생은 ‘해어화(解語花)’라고도 부른다. 해어화란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으로, 본래 미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정조 대 화성 축성의 대역사를 총지휘했던 변암 채제공의 문집인 『변암집(樊巖集)』을 보면 화성 축성 당시 기생과 관련한 시문이 남아 있는데, 화성 축성 당시 제일 큰 행사였던 혜경궁 홍씨 진찬연의 봉수당 연습에서 기생이 춤을 추는 모습을 꽃과 같이 아름다다고 감탄하고 있다. 이렇듯 전통사회의 풍류와 예악에서는 기생이 꽃과 같이 아름다워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 봉수당 진찬연을 빛냈던 천민이지만 너무나 아름다웠던 화성부의 기생들이 있다. 계섬(桂蟻)이라는 기생은 1795년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진찬연이 열렸을 때 화성부 소속의 기생으로 당시 나이 60세였다. 그녀는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에



\_봉수당 진찬연(『화성능행도병』,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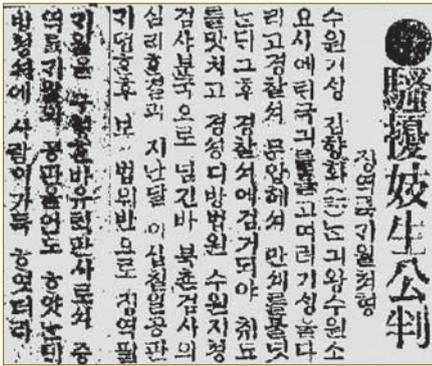
동원된 기생들을 총지휘하며 잔치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를 제일 먼저 불렀다. 처음 헌선도의 정재(궁중무용)가 추어지기 전 계섭의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면서 공연이 시작되었고, 화성부에서는 계섭에게 가르침을 받은 노래 기생 모애(35세), 분단(29세), 윤애(27세), 동월(25세), 계월(25세), 매열(22세), 경희(17세), 금례(16세), 복혜(15세) 등 9명과 춤을 추는 기생으로 명금(32세), 연애(31세), 금련(25세), 옥혜(21세), 복취(21세) 등 5명이 진찬연에 참가하여 저마다의 아리따운 목소리와 모양새를 한껏 펼쳐 보이며 잔치를 흥겹게 하였다.

이렇듯 정조 임금 때 기생들의 풍류와 예악이 울려 퍼지고 124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의로운 수원기생들이 봉수당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통곡하였다. 시대적으로 천한 여성으로 취급받아 왔던 그들이 왕실 전통을 기억하며 일제 강점기 누구보다도 고종 임금이 돌아가심을 슬퍼하고 나라를 빼앗긴 설움을 토해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수원기생 김향화(金香花 : 金杏花)를 중심으로 30여 명의 기생들은 1919년 3월 29일 일제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운동에 앞장섰다. 당시 화성행궁 봉수당은 일제의 식민지 수혜를 강조하며 자혜의원이 들어서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 배 아래에서 기생들도 영업허가와 관리를 경시청으로부터 통제받고 있었다. 식민 통제의 일환이었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던 김향화와 30여 명의 수원기생들은 당당하게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자혜의원 앞 북군영 건물에는 수원경찰서가 들어서 일본 경찰과 수비대가 총칼을 차고 근무하고 있었으나, 김향화와 수원기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만세를 부르는 기개를 보여 주었다. 당시 꽃다운 나이인 스물셋의 김향화는 기생들의 선두에 서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이들을 이끌다가 일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이후 2개월여의 감금과 고문 속에 6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당시 김향화의 재판에 많은 사람이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김향화의 의로움을 지켜보았다.

수원기생들의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의기(義妓) 김향화’는 1896년 7월 16일생



으로, 본명은 순이(順伊)였다. 향화는 기명으로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녀의 명성에 걸맞은 이름이었다.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수원에 내려와 기생으로 이름을 떨쳤다. 김향화는 1918년 발행된 『조선미인보감(朝鮮美人寶鑑)』이라는 홍보 책자에 수원에기조합 기생 32명과 함께 다음

과 같이 소개되었다.

김향화(金杏花 : 22세)

백계유춘(百計留春)하되 춘불유인(春不留人)하고 만금석화(萬金惜花)하되 화불석인(花不惜人)하야 피아록환홍수(把我綠鬢紅袖)하야 일직차타료양십광음(一直蹉跎了兩十光陰)이로다. 수도가곡(誰道歌曲)이 능해수(能解愁)오 가곡시일생적업원(歌曲是一生的業冤)이로다.

[온갖 계책으로 봄을 머무르게 하되 봄은 사람을 머무르게 하지 못하고 만금은 꽃을 애석해 하지만 꽃은 사람을 애석해 하지 않아, 나의 푸른 쪽진 머리, 주홍 소매를 쥐고서 한번 넘어지면 이십 광음이 끝나도다. 누가 가곡이 근심을 능히 풀 수 있다 말하는가. 가곡은 일생의 업원(전생에서 지은 죄로 이승에서 받는 괴로움)이로다.]

본디 경성 성장으로, 화류간의 꽃이 되어, 삼오 청춘 지냈구나. 가자. 가자. 구경 가자. 수원산천 구경 가자. 수원이라 하는 곳도, 풍류기관 설립하여, 개성조합 이름 쫓네. 일로부터 김향화도, 그곳 꽃이 되었세라. 검무·승무·정재춤과 가사·시조·경성잡가·서관소리·양금치기 막힐 것이 없고, 가름한 듯 그 얼굴에, 죽은 깨가 운치 있고, 탁성인 듯 그 목청은 애원성이 구슬프며, 맵시 동동 중등 키요, 성질 순화 귀엽더라.

수원기생 김향화 판결 보도(『매일신보』, 1919년 6월 20일)

김향화는 가름한 얼굴에 주근깨가 있으나, 목청은 탁 트여서 애절하면서도 구슬프게 노래를 잘하며 순하고 귀여운 기생이었다. 가만히 앉아 김향화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왠지 모를 군침이 느껴진다.

수원기생들의 만세운동은 일제 경찰도 깜짝 놀라게 한 민족적 항쟁이었으며, 일제의 강압적인 기생제도와 식민통제에 대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오늘날 기생의 존재는 옛날이야기로 묻혀 버렸다. 하지만 기생도 민족의 일원이었으며, 이 여성들의 재능은 대중예술이라는 장르로 계승되었다. 당시 식민지 권력에 대항하며 보여 주었던 수원기생들의 민족적 의로움은 오늘의 교훈으로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아직도 메아리치고 있다. 김향화는 2010년 4월 국가보훈처로부터 대통령표창을 받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화성행궁은 다시 기억되어야 한다. 조선의 전통과 임금을 상징했던 공간이고, 사회적으로 천한 신분으로 멸시를 받던 기생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세운동을 벌였던 곳으로 …… . 국부를 잃은 슬픔과 그리움의 표현이었을까? 아니면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서러움이었을까? 하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으로 천민 취급을 받아 왔던 기생들의 쓰라린 삶과 사회적 냉대에 따른 이중적 시선에 대한 생존의 몸부림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_수원기생들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향화(아오야나기 고타로·지송옥, 『조선미인보감』, 1918)

화성행궁을 둘러보고 화성을 한 바퀴 답사하고 나면 만나절 이상이 걸린다. 화성을 답사하는 길에 서장대에 올라 성 안과 성 밖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교차된 모습들이 훑고 지나간다. 성 밖을 바라보면 아주 가깝게 200여 년 전 둔전(屯田)의 모습이 서호 주변으로 그대로 남아 있음이 보인다. 수원은 200년의 전통을 간직한 농업연구도시이다. 정조 임금 때부터 시작되어 해방 이후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이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며 도시 속에서 농업 연구의 박차를 가했던 곳이다.

수원역 뒤편 서수원 방향으로 옛 서둔벌이 농촌진흥청의 시험장으로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여기산을 끼고 서호저수지가 공원으로 변화하여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어 있다. 서호(西湖 : 축만제)는 화성 축성과 함께 정조 임금이 새로운 농법을 실험하고자 만들었던 곳이다. 1906년 일제는 이러한 농업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식민지 농업정책기구인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을 서호 옆에 세웠다. 일제는 권업모범장을 설치하여 곡물 종자를 강제로 바꾸며, 생산과정에 직접 개입하였다. 권업모범장의 농업 생산과정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일본인 지주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제 농업정책의 충실한 수행자였던 일본인 지주들은 1906년부터 권업모범장 주변에 농장을 설치하여 대규모 소작 경영을 시작하였다.

수원 지역의 대표적인 일본인 대지주들은 1906년 12월에 설립된 국무합명회사(國武合名會社)와 1907년 설립한 동산농사주식회사(東山農事株式會社), 1910년 수원출장소를 두고 농장 운영을 시작한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등이었다. 이들은 수원 지역의 각 면에 대규모 농장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쌀농사에 돌입하였다. 일본인 대지주들이 수원에 본부를 두고 대규모 농장을 설치한 이유는 지리적으로 경성·인천 등과 가깝고 철도의 이용이 편리한 것과 권업모범장이

있어 농사 경영에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기 때문이었다. 수원에서 생산된 미곡들은 경부선을 통해 부산으로 반출되었다. 결국 우리 소작농들의 고향을 짜내 생산된 쌀이 부산을 통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었다. 수원 지역의 소작농들은 대부분 이들 일본인 농장의 소작농으로 전락해 갔다. 일본인 대지주들의 지배와 수탈은 수원 지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은 기존 수원 지역의 상권을 파괴하여 침탈하면서 수원 지역민들의 전통적 상업활동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이는 수원 지역민들의 처지를 더욱더 궁핍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 결국 수원 지역민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직접적인 생존권의 문제로 인식했고, 3·1운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해 나갔다.

3·1운동 당시 수원 지역의 소작농들은 만세를 부르며 일제의 노동력 착취와 생존권 위협에 맞서 투쟁을 벌였다. 1919년 3월 23일 수원역 부근의 서호에서는 700여 명이 시위를 벌이다가 일본 경찰과 헌병대 및 소방대의 제지를 받고 해산되었다. 이날의 시위가 수원역 부근과 서호에서 벌어진 이유는 이곳에 권업모범장을 비롯하여 일제가 운영하던 농장이 많았고,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위군중들은 대부분 일본인 농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던 소작농들이었으며, 그들은 일본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독립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자 했던 것이다.

한때 농촌진흥청과 함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은 농업연구도시 수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지금은 건물만 남아 버린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은 인적이 드물어진 채 고즈넉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기성세대 중 많은 이들이 이곳 출신이었고,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에 대항했던 민족적 의기가 충만했던 학생들이 다녔던 전통이 살아 있는 곳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로 캠퍼스를 옮긴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신은 수원고등농림학교이다. 1906년 9월 농상공학교가 각각 분리되면서 농림학교가 설립되어 서울에서 개교하였다가 1907년 수원에 교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농림학교는 1908년 1월 당연직 교장이 농무국장에서 권업모범장장으로 바뀌었고,



1910년 10월 관제 개정에 의하여 교명이 조선총독부 농림학교로 바뀌면서 권업모범장에 부속 설치되었다. 1918년 3월 농림학교는 「조선총독부 전문학교관제」 개정에 의하여 수원농림전문학교가 되었고, 1922년 3월 「조선총독부제 학교관제」가 공포되어 수원고등농림학교가 되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는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이 선별되어 다니고 있었는데, 교수와 관리들이 거의 일본인이었고, 조선인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가 매우 심하였다. 이에 우리 조선인 학생들은 굴하지 않고 차별대우의 철폐와 학생들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1920년대 여러 차례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식민지하에서 차별받던 민족적 울분의 표출이었다.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은 인권과 민족적 차별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독립을 향한 비밀결사운동 등을 1930년대까지 지속하였다. 1927년 6월 김찬도 등이 중심이 되어 ‘건아단(健兒團)’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고, 이후 계림농흥사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박물관

조직하여 항일투쟁을 벌였다. 계림농흥사는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로 재조직되어 조선의 독립을 위해 농민야학운동 등을 벌여 나갔다. 1930년대에도 수원고등농림학교의 비밀결사운동은 계속되어 전국 각지의 수원고등농림학교 졸업생들과 연계하여 농민 중심의 문맹퇴치운동과 항일의식 고취에 전념하였다.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은 우리말과 국사와 전통을 공부하여 항일독립정신을 함양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할 목적으로 독서회(한글연구회)를 조직하는 등 활발한 독립활동을 전개하였다.



수원시에서 서수원 방향으로 고색동과 오목천동을 지나면 화성시 봉담면이 나온다. 여기서 43번 국도를 쭉 달리다 보면 팔탄저수지를 지나 가재리를 거쳐 발안장이 나온다. 발안장으로 가기 바로 전 오른쪽 도로 한 켠에는 이정근 의사의 창 의탑이 세워져 있다. 이 탑은 1919년 3월 발안장에서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진두지휘하다 장렬한 최후를 마친 독립운동가 이정근 의사의 넋을 기리고 후세에게 민족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1971년 3월 30일 건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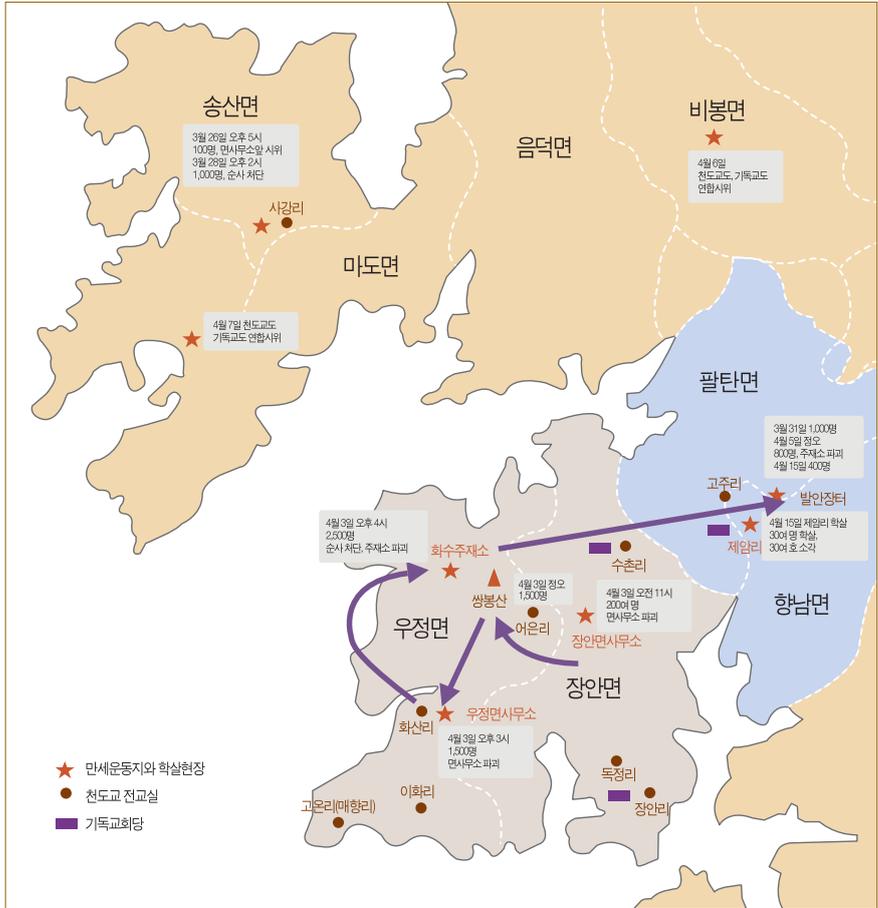
향남면 발안에서 일어난 3·1운동은 우정·장안면과 연계하고 있었다. 이정근은 수촌리의 백낙렬, 향남면 제암리의 안정옥, 팔탄면 고주리의 김흥렬과 함께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사전에 모의하고 수촌리, 고주리, 제암리 주민들이 합세하여 발안장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31일 발안장에는 1,000여 명의 시위군중들이 모여 태극기의 물결 속에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날은 장이 열리는 날이었기에 많은 사람들과 장꾼들

이 모여 있었다. 3·1운동 당시 많은 만세운동이 장터에서 벌어졌는데, 장터는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파는 곳이고 자연스럽게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시위군중들은 소리 높이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하면서 길가의 일본인 가옥에 돌을 던졌고, 일본인 소학교에 불을 질러 불길이 타고르는 것을 보며 더욱더 큰 소리로 만세를 불렀다. 긴급히 출동한 경찰과 보병은 마구잡이로 발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정근은 여러 제자와 함께 만세를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장꾼들이 장짐을 펴지 못하게 하는 한편, 장터에 모인 시위군중들과 함께 발안장터가 떠나가도록 만세를 부르며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거센 투석전과 일제의 무자비한 사격이 벌어져 시위군중들이 하나 둘 쓰러지고 결국 유학자 이정근도 일본 수비대장의 칼에 찔려 숨을 거두고 말았다. 발안장 만세운동에서는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만세운동의 물결은 멈추지 않았고, 다음 날 4월 1일과 2일 밤에도 주민들은 당제봉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며 산상횡불시위를 전개하였다.

발안장 만세운동은 식민지 수혜를 등에 업고 경제력을 장악해 가던 일본인들을 공격대상으로 삼았다.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가들이 즐비하지만 당시 일본인 사사카(佐坂)가 운영했던 정미소 등 일본인들이 운영했던 상점이 많이 있었고, 일본인 자제들만을 위한 학교와 주재소가 있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발안천의 물은 아무 말 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발안천에는 만세를 부르다 다치거나 숨진 사람들의 피가 검붉게 흘러내렸다고 전해진다.

발안장의 만세운동은 4월 3일 우정면과 장안면의 연합으로 일어난 수원군 최대 규모의 만세운동으로 이어졌다. 향남면 발안에서의 3·1운동이 우정·장안면과 연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정·장안면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백낙렬은 향남면 제암리의 안정옥, 팔탄면 고주리의 김홍렬과 함께 유학자 이정근과 사전 모의하였다. 그리고 발안장터의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동참했던 제암리와 수촌리, 고주



리 주민들은 4월 3일 우정면과 장안면의 대규모 연합 만세운동에 함께하여 ‘대한 독립’의 기치를 높였다.

우정·장안면의 3·1운동은 백낙렬과 김홍렬의 주도 아래 천도교 전교사들을 중심으로 사전 조직되고 모의되었다. 우정·장안면 3·1운동은 4월 1일 밤 7시에 수

우정면·장안면 3·1운동행진도



촌리 개죽산의 봉화를 신호로 일제히 시작되었다. 그리고 4월 3일 오전 11시 장안면사무소에 약 200여 명이 모여 면사무소를 파괴하고, 장안면장 김현목을 앞세워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쌍봉산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쌍봉산에는 이미 1,000여 명이 모여 있었고, 군중들은 오후 3시경 우정면사무소로 가서 서류와 집기류를 파손하고 불태워 버렸다.

성난 군중들은 우정면사무소를 파괴한 뒤 장안면장을 다시 앞세워 태극기를 들게 하고 군중의 선두에 세운 뒤,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오후 4시경에 화수주재소로 몰려갔다. 주재소 앞

에서 군중들은 일제히 독립만세를 부르고, 주재소에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가와바타 도요타로(川端豊太郎) 순사가 권총을 발사하여 시위군중 1명이 숨졌다. 이에 격분한 군중은 가와바타 순사를 추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와바타 순사가 쏘아 낸 총에 3명이 쓰러졌다. 그러나 가와바타 순사는 곧 수십 명에게 포위된 뒤 처단되었다. 가와바타를 처단한 장소에는 현재 화수초등학교가 있다. 학교 앞에 세워져 있는 「3·1독립운동기념비」는 이곳이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현장임을 말해 주고 있다.

\_화수리 「3·1독립운동기념비」

발안장의 만세 함성을 간직하고 향남 읍내를 조금 벗어나면 조그마한 마을이 나온다. 그러나 이 마을은 결코 작지 않은 역사와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거센 만세운동의 물결 속에 일본 순사가 처단된 것의 보복으로 일제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이곳에서 저질렀다. 바로 ‘제암리 학살사건’이다. 제암리 학살로 제암리의 주민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고, 삶의 터전이 불에 타 없어졌다. 이런 역사의 아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이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92-2번지에 만들어졌다. 제암리 기념관은 1997년 착공되어 2001년 완공되었다. 제암리 기념관은 제1전시관·제2전시관·시청각실로 꾸며져 있고, 문화유산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암리 기념관이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 역사는 소실되었던 제암리교회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

향남면에 위치한 제암리는 속칭 ‘두렁바위’로 불리는 조선 후기 전형적인 동족 중심의 농촌마을이었다. 3·1운동 당시 전체 33가구 가운데 31가구가 순흥 안씨인 집성촌이었고,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였다. 제암리교회는 이 마을의 안종후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후 1905년 8월 5일 자기 집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린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제암리교회는 1919년 4월 15일 일제의 만행으로 불탄 뒤, 7월 자리를 옮겨 다시 건립되었고, 1938년 현재의 위치에 기와집 예배당이 만들어졌다. 1959년 4월에 「3·1운동순국기념탑」이 세워졌고, 1970년 9월에 일본의 기독교인과 사회단체에서 속죄의 뜻을 담아 모은 1,000만 엔을 보내 와 새 교회와 유족회관이 건립되었다. 일본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일본 기독교인들의 사과와 모금으로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후 1982년 9월 대대적

인 유해 발굴사업이 진행되어 23위의 묘가 안장되었고, 다음 해 7월 기념관과 새로운 기념탑이 세워졌다.

이후 우리의 손으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구예배당과 기념관을 헐고 새롭게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을 건립하였는데, 이곳은 이제 새로운 민족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제암리 학살사건은 수원군에서의 3·1운동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발생하여 면사무소와 주재소를 파괴하면서 일본 순사들을 처단하자, 이에 대한 일제의 폭력적인 탄압의 결과로 발생하였다. 일제는 3·1운동의 주동자 체포와 수색을 빙자하여 살인·방화·구타 등의 씻을 수 없는 만행을 이곳에서 저질렀다.

일제는 발안장의 만세운동과 우정·장안면 만세운동에서 순사가 처단되는 등 공격적인 만세운동이 벌어지자 당황하여 헌병과 경찰 혼성부대를 편성하여 발안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검거작전을 핑계로 무자비한 탄압을 시작하면서 수촌리 마을을 불태워 버렸다. 이때 수촌리는 마을 전체 42채의 가옥 중 38채가 불타고 만세운동의 중심 공간이었던 수촌리교회가 함께 불타 버렸다. 불타 버린 교회는 1922년 4월 아펜젤러와 노블의 협조로 8칸의 초가 예배당으로 다시 건립되었다가 1932년 1월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현재 복원되어 있는 초가집이 당초의 수촌리교회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1974년 양식기와로 지붕을 개량했다가 다시 1987년 초가형태로 복원되었다. 초가로 복원한 교회 옆에는 1965년 6월 15일 준공한 벽돌로 지어진 교회가 있어,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위한 예배는 수촌리에서 계속되고 있다.

일제의 폭력적이면서 보복적인 탄압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발안장 만세운동은 그치지 않았다. 4월 15일 400여 명이 모여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에 놀란 발안 주재 순사는 육군 보병 79연대 소속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 중위와 협력하여 이들을 해산시켰다.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이 지역의 만세운동이 다시 격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낀 일제는 일본인들에게 무기를 지급하였고,



철야 경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만세운동의 원인이 향남면 제암리의 기독교도와 천도교도라고 파악하고 만세운동의 주동자 색출을 내세워 세계적인 학살 만행인 제암리 학살사건을 일으켰다. 일제는 우정·장안면과 발안장 시위가 연속으로 일어나자 이 지역을 내란과 같은 상태로 판단하고, 3·1운동 주동자들을 모두 처단해야 한다는 빌미를 내세워 마구잡이로 학살과 방화를 자행하였다. 4월 13일 아리타 중위가 이끄는 보병 13명은 발안에 도착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진압작전이 끝난 발안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발안 내 다른 지역의 시위 주동자들은 2차에 걸친 검거작전으로 대부분 체포된 반면, 발안 시위를 주도했던 제암리 주동자들은 체포되지 않아 아리타는 제암리 진압을 시작하였다. 아리타는 4월 15일 부하 11명과 순사 1명, 순사보 조희창, 그리고 발안에서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던 사사카 등의 안내를 받으며 제암리에 도착하여, 주민들에게 알릴 일이 있다고 속이고 제암리와 인근 마을의 주민 약 20여 명을 제암리교회에 모이게 했다.

3·1운동 직후 수촌리 방화현장  
복원된 수촌리교회

이때 마을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아리타는 주민들을 교회 안에 가둬 놓고 출입문과 창문을 잠근 후 부하들에게 불을 지르고 집중 사격을 명령하였다. 제암리교회는 총성과 함께 불타올랐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다. 일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벌어진 것이다. 이 만행으로 제암리 주민들은 아까운 목숨을 잃었고 제암리의 교회와 가옥들은 불에 탔다. 일제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이웃 마을 고주리에서 천도교 신자였던 김홍렬 가족 6명을 몰살하였다. 죽은 이들은 재가 되어 산화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원한은 통곡으로 울려 퍼졌다.

제암리 희생자는 순국기념탑에 기록되어 있다. 안정옥(安政玉), 안종린(安鍾麟), 안종악(安鍾樂), 안종환(安鍾煥), 안종후(安鍾厚), 안경순(安慶淳), 안무순(安武淳), 안진순(安珍淳), 안봉순(安鳳淳), 안유순(安有淳), 안종엽(安鍾燁), 안필순(安弼淳), 안명순(安明淳), 안관순(安官淳), 안상용(安相鎔), 조경칠(趙敬七), 홍순진(洪淳晉), 김정헌(金正憲), 김덕용(金德用), 강태성, 강태성의 부인 김씨, 홍원식, 홍원식의 부인 김씨 등 23명과 고주리의 희생자인 김홍렬(金興烈), 김성렬(金聖烈), 김세열(金世烈), 김주업(金周業), 김주남(金周男), 김홍복(金興福)을 포함하여 29명의 이름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이외에 더 많은 희생자가 기록 없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 3·1운동을 이끌었던 많은 천도교도와 기독교도가 일제에 의해 보복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아픔이다.

제암리 학살 만행이 벌어진 후 제암리와 고주리, 수촌리, 발안 등지는 그야말로 공포와 참혹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일제는 만세운동의 폭력적 탄압과 보복적 만행에서 일정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고 판단했으나, 사건 직후 현장을 방문한 외교관과 외신기자·선교사들에 의해 사건의 진상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제암리 학살사건 현장을 처음 목격한 커티스·테일러·언더우드 등이 이 소식을



서울에 알렸고, 이어 개인적인 차원에서 스코필드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부상자 치료와 난민 구호에 적극 나섰다. 이후에도 노블을 비롯한 감리교 선교사들의 노력이 이어졌고, 선교사들의 현장 증언을 담은 보고서가 미국 교회에 보고되면서 세계적으로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이 폭로되었다. 제암리사건은 민족 저항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무자비한 실상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제암리기념관 입구 오른쪽 작은 등선 위에 이날 희생된 23명의 묘소가 있다. 아무 말 없이 침묵하고 있지만 묘소 주변에 핀 분홍빛 무궁화와 함께 아직도 끊임없는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 같다.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보상, 그리고 역사적 과오에 대한 뉘우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은 영원한 메아리가 되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제암리 순국 23위의 묘(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수원 지역 만세운동의 물결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그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경제적인 압박을 받으며 힘들게 살았던 우리 민족은 거침없이 일제에 항거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수원 지역의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을 펼치며 독립의 의지를 분명히 해 나갔다.

수원 지역은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지역이었고, 수원 지역에서 전개된 민족해방운동의 절정은 3·1운동이었다. 수원 지역의 3·1운동은 수원 지역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배경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이었다.

수원 지역의 3·1운동은 3월 1일 수원면 화홍문 방화수류정의 만세운동을 시작으로 4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며, 많은 천도교도와 기독교도·유학자, 그리고 대다수의 농민·학생·상인과 기생까지 수원군의 전 계층이 참여하였다. 수원군의 3·1운동은 산발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도 있었으나, 송산면·우정면·장안면 등의 시위는 사전계획에 의해 조직적이고 격렬한 투쟁양상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면사무소와 주재소가 파괴되고, 갖은 악행을 일삼고 있었던 순사들도 처단되었다. 수원 지역 3·1운동은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의 선봉이었다.

수원시의 3·1운동은 서울에서 3월 1일 벌어진 만세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김세환과 김노적 등이 주동이 되어 젊은 학생들의 주도로 수백 명이 방화수류정(용두각) 아래 모여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후 3월 16일에는 팔달산 서장대와 동문안 연무대에서 수백 명이 만세를 불렀고, 종로에서는 시위군중과 일제 경찰이 충돌하였으며, 장사를 하던 상인들은 만세운동에 동참하고자 철시투쟁을 이어 나갔다. 이 밖에도 23일 수원역에서 700여 명이 만세운동을 벌였고, 29일에는 수원기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던 중 자혜의원(현 화성행궁)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

치다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현재의 화성시인 당시 송산면에서는 26일과 28일 대규모의 만세운동이 송산면사무소 뒷산 부근에서 시작되어 면사무소를 파괴하고 순사 노구치를 처단하였다. 이후 4월 1일 발안장에서도 1,000여 명이 넘는 민중들이 만세운동을 벌이다 일제 경찰에 희생되었고, 4월 3일에는 수원 최대의 만세운동이 우정·장안면 연합시위로 벌어졌다. 우정면과 장안면 주민 2,500여 명은 장안면사무소와 우정면사무소를 파괴하고 화수주재소를 불태우며 순사 가와바타를 처단하였다. 일제는 계획적이고 공격적인 만세운동에 대해 폭력적인 대응으로 나섰다. 군대를 동원하여 수촌리 등을 소각하고 제암리교회에 주민들을 불러 모아 놓고 불을 질러 교회 안에서 고결한 생명들을 학살하였다. 이를 기리기 위해 현재 확인된 23명의 묘역과 함께 제암리 순국기념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수원 지역은 민족정신이 강한 지역으로서 3·1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은 독립의 의지가 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식민지 체제에 대항해 실력 항쟁을 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민족정신이 깃든 3·1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의 발전된 삶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나간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미래의 희망찬 삶을 열어 갈 수 있다.



# 4부 수원 인물을 기억하다

수원을 지킨 사람들  
아픈 선각, 나혜석의 자취를 찾아  
근대 음악의 선구자 홍난파  
기념물로 본 근대 수원인





# 01

---

사도세자의 용릉과 정조의 건릉 앞 동네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말농장이었다. 지금은 음식점들이 즐비해서 식도락가들의 답사지로 변했지만 주말농장이 들어서던 30여 년 전만 해도 이곳은 한적한 ‘시골’이었다. 수영장을 갖춘 관광호텔도 문을 열고, 한껏 멋을 부려 지은 음식점이 하나 둘 들어서면서 이제는 ‘촌티’를 완전히 벗은 곳이 되었다. 게다가 용릉과 건릉 주변에 수원대학교와 수원과학대학교 등이 자리를 잡았고, 보통리저수지가 더욱 사람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였다.

음식점을 좌우로 거느린 길에 수많은 사람이 오가지만 길옆에 살짝 돌아앉은 흥법사를 찾는 이들은 드물다. 더구나 흥법사 뒤 효암(孝巖)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효암은 『고려사』 「열전」, 『세종실록지리지』, 『삼강행실도』, 『동국여지승람』, 『오륜행실도』와 중국의 『해동금석원』에도 실렸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최루



백의 유적지이다.

최루백(崔婁伯 : 생몰년 미상)은 고려시대 효자로 소문이 난 사람인데 조선시대에 더욱 각광을 받았다. 15세의 청소년 시절에 호환을 당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 호랑이를 찾아 때려죽인 일화와 호랑이 배를 갈라 아버지의 유골을 찾아내 정성껏 장사 지내고 3년 동안 시묘살이한 효자로 유명하다. 그 효도가 얼마나 지극했는지 『고려사』 『열전』 권34 효우(孝友)편에 보면, 어느 날 밤 꿈에 자기 아버지가 나타나 “나무숲 헤치고 효자의 여막에 이르니 정겨워 흐르는 눈물 끝이 없구나 ……” 하고 읊었다고 한다.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효암이 넓은 반석을 이루며 놓여 있고, 바위에는 최루백 같은 효자가 태어나길 바라며 어느 어미가 빌었을 ‘알터(cup mark)’가 지금도 선명하다.

최루백은 지아비로서도 대단한 인물이었다. 아버지를 사랑했듯이 최루백은 아내인 염경애(廉瓊愛 : 1100~1146)도 지극히 사랑하였다. 그는 25세에 시집은 아

『오륜행실도』에 실린 최루백 효행(수원박물관 소장)

내가 47세에 죽자 직접 묘지명을 짓는다. 고려시대 여성의 이름과 묘지명이 남기도 어렵지만 남편이 직접 지은 것도 드물다. 묘지명에는 아내의 집안 내력과 자손을 적고, 사람 됨됨이 및 살아가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최상저에 대한 아내의 남다른 배려와 관직 생활을 버텨 내게 해 준 노고를 기록하였다.

아내는 사람됨이 아름답고 조심스럽고 정숙했다. …… 출가하기 전에는 부모를 잘 섬겼고, 시집은 뒤에는 아내의 도리를 부지런히 했다. 어른의 뜻을 먼저 알아 그 뜻을 받들었다. …… 내가 고을 수령으로 나갔을 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어려움을 거리까지 않고 함께 천 리 길을 가고, 내가 군대에 간 동안에는 가난하고 추운 방을 지키면서 여러 차례 군복을 지어 보내 줬으니, …… 무릇 나를 좇아 어려움을 겪은 23년간의 일들을 모두 적을 수가 없다.

최루백은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부인이 겪은 고통과 한숨을 달래는 한편 자책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끝으로 애통한 마음을 담아내면서 자손 대대로 창성할 것을 축원하고 있다.

믿음으로써 맹세하노니, 그대를 감히 잊지 못하노라. 함께 무덤에 묻히지 못함이 매우 애통하도다. (우리) 아들·딸들이 있어 날아다니는 기러기 떼와 같으니, 부귀가 대대로 창성할 것이로다.

학자이면서 효자로, 또 멋진 남편으로서 최루백은 그야말로 ‘젠틀맨’이었다. 그랬으니 조선시대 효와 관련된 책자나 그림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것 아니겠는가. 또한 이 얘기를 들은 정조 임금이 어찌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에게 효성을 다하지 않겠는가. 사도세자의 새 묘소 코앞에서 벌어진 최루백의 전설 같은 효행을 어찌 무시하겠는가?

홍법사 앞에서 보통리저수지 상류 쪽 수기리에는 수원 최씨 사적지가 보인다.



이 사적지에는 최루백의 효자비와 그의 아버지인 최상저의 유허비가 앞뒤로 세워져 있다.

권선구와 권선동의 이름은 착하게 살아가길 권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권선’은 한 인물로 인해 이름을 갖게 되었다. 본관은 여주(驪州), 호는 망천(忘川), 이름은 이고(李皐 : 1341~1420)인데 고려 말과 조선 초의 격동기를 살아온 사람이다. 1374년(공민왕 23)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지냈고 한림학사를 거쳐 1389년(공양왕 원년)에 정3품 사헌부집의에 올랐다. 집현전직제학을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조선이 들어서자 수원의 광교산(光教山) 남쪽에 있는 탑산(塔山)에

\_左 최루백효자비각(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_右 「최루백효자비」(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은거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관직을 주려고 불러도 오지 않자 화공에게 명하여 그가 거처하는 곳을 그려오게 하였는데, 그 모습이 사통팔달하여 막힌 곳이 없는 곳이라 팔달산(八達山)이라고 불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조선 건국 후 잠깐이나마 강권에 의해 벼슬을 지내기는 하였으나 고려에 대한 충절은 끝내 지켰다.

고려 한림학사 이고는 지금의 권선동에 살면서 팔달산을 자주 찾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에 살면서 백성들이 착하게 살기를 권하였는데 그의 높은 인품과 가르침에 많은 백성이 감화되었다고 한다. 자신 또한 효성이 지극하였고 착함을 몸소 실천하였다. ‘권선’은 불가에서 시주를 권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권선동에는 이고가 자기 집터에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네거리에서 서쪽으로 난 세권로로 접어들자마자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빌딩 사이에 은행나무 가지들이 보인다. 수령을 약 400년으로 추정하므로 이고가 직접 심었다는 나무는 아닐 것이다. 다만 이 주변이 이고의 집터였고 나무를 심었다는 전설과 함께 근처 나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나무이므로 그런 대접을 받아 온 것이다. 혹은 이고가 심은 나무가 죽어서 그 자리에 다시 심었거나 그 후계 목으로 자란 나무일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권선동 은행나무는 예전에 비해 오히려 위축되었다. 개발의 삼날 때문이다. 인근에 아파트와 상가, 연립주택 등을 지으면서 나무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권선동이 개발되기 전에는 이 나무만 우뚝 서서 멀리서도 주변을 어렵 하였는데, 이제는 길에서도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물어서 찾아가야 한다. 그 뿐인가. 은행나무보다 큰 건물들 때문에 바람 길이 막혔고, 자양분이 될 물길도 막았다. 주변이 온통 포장도로이니 어디에서 물을 빨아들일 것인가?

이고는 권선동 집을 떠나 인계동을 거쳐 수원천을 건너고 팔달산에 오갔을 것이다. 시청 네거리에서 서쪽으로 가면 인도래(인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지금은 모두 복개하여 도로로 사용한다. 이 주변을 조대(釣臺)라 하였다. 이고 선생이 낚시를 즐겼다는 곳이다. 또 여기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수원공업고등학교가 나



온다. 이고의 후손들이 선조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세운 학교이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박지성의 출신학교로도 명성이 높다. 모두 이고의 업적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이고의 묘는 광교저수지 동북쪽 영동고속도로 옆 언덕에 위치하였다. 그는 수원 주민의 교화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살아 숨 쉬는 수원의 인물이다. 권선동 은행나무부터 인도래의 조대, 그리고 수원공고와 팔달산을 거쳐 광교에 이르는 길을 ‘이고선생길’로 조성하면 어떨까? 그래서 수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이면서 착하게 살아가자는 교훈을 심어 주는 길로 삼았으면 좋겠다.

\_이고 묘역

많은 사람이 광교산에 오른다. 시민들 중에는 날마다 오르거나 날을 정해 놓고 오르지는 않지만 서너 시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나 몸이 무겁고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오른다는 사람도 많다. 수원 토박이들은 초등학교 때 소풍으로 올랐고, 중·고등학교 때는 리기다소나무를 심으러 가거나 송충이를 잡기 위해 올랐다고 한다. 광교산 등산객들에게는 하산 길의 시원한 막걸리와 보리밥 또는 잔치국수를 먹는 맛도 빼놓을 수 없는 일정이다. 어찌면 그 음식을 바라고 처음부터 산에 오르는지도 모른다.

광교산의 원래 이름은 광악산(光岳山) 혹은 광옥산(光獄山) 등이었다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광교산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928년 후백제의 견훤군을 정벌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산에서 광채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고 이에 (자신의 정벌이 정당하였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는 산이라 하여 ‘광교(光敎)’라고 하였다고 한다.

고려 말의 한림학사 이고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창업되자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광교산 남쪽 탑산(팔달산)에 은거하여 오늘날 팔달산, 권선동이라는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 그의 묘역은 광교저수지 위쪽이다.

조선 초 연산군의 폐정에 반기를 든 중종 임금의 개혁의 동반자로 여겼던 사람이 정암 조광조 선생이고, 정암 선생의 묘와 서원(심곡서원) 또한 광교산 동남쪽 용인시 상현동에 등지를 틀었다.

또한 세종대왕 때 대마도 정벌을 성공시킨 이종무 장군의 묘역 역시 광교산 동쪽 고기리 근처이고, 세종대왕의 장인 심온 선생의 묘역과 세종의 이복동생이면서 태종의 아홉 번째 아들인 혜령군의 묘역과 그 아들·손자의 묘역도 수원시 이의동 광교산 자락이다.

형제봉과 시루봉 사이의 비로봉에는 정자 하나를 만들어 놓아 등산객들의 쉽터로 주목받는다. 그 비로봉 아래 자연암벽에는 ‘충양공김준룡전승지(忠襄公金俊龍戰勝地)’라고 쓰여 있다. 병자호란 때 광고산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을 기려 정조 때 새긴 것이다. 그 외에도 광고산과 연관된 인물은 능선과 골짜기마다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뻗어내린 산줄기가 백두대간이고, 광고산은 백두대간의 속리산에서 한남금북정맥으로 흘러오다가 안성 칠현산에서 금북정맥을 내려 보내고 한남정맥이 되어 김포의 문수산까지 흘러가는 분수령이다. 한강의 남쪽 분수령을 이룬다고 하여 한남정맥이다. 그 한남정맥의 중간 지점에 가장 크고 높은 산세로 앉은 것이 광고산이니 한남정맥의 주봉이라 하여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광고산 능선을 거닐면서 지리산을 꿈꾸고 백두산으로의 통일을 염원한다면 사람들이 몽상가라고 말할까?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몽상가라도 좋고 무엇이랴 불려도 좋겠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은 놀랍게도 그 한남정맥의 주봉 광고산을 진산(鎭山)으로 하여 계획되고 건설되었다. 또한 광고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만석거와 축만제 등 저수지를 채우고 농사를 지어 수원을 풍요롭게 하였다. 형제봉에서 흘러내린 산줄기가 경기대학교, 경기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화성의 창룡문 쪽 동성으로, 연무대와 방화수류정 쪽 동북성으로 흐르니 화성의 절반 역시 광고산이 아닌가?

광고산은 지리적인 위치와 특성만큼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근에서 가장 크고 높으므로 산신의 대명사가 되었을 것이고, 불교 전래 이후에는 불교문화가 꽃 피는 현장이기도 하였다. 용인시 신봉동의 서봉사에는 현오국사가 주석하였고, 수원시 상광동동의 창성사는 진각국사의 터전이었으므로 광고산은 고려시대에 두 국사를 배출한 산이기도 하다. 서봉사 터의 「현오국사비(玄悟國師碑)」는 보물 제9호로, 수원시 매향



동으로 옮겨 세운 「진각국사비(眞覺國師碑)」는 보물 제14호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이런 형편이니 전설같이 들리는 ‘여든 아홉 암자’가 충분히 자리 잡았으리라.

광교산은 민간신앙의 기도처로 각광을 받아 무속인들이 은밀히 기도드리는 곳이 골짜기마다 산재하였다. 그러나 이젠 그 기도처들도 많이 없어졌다. 사람들의 발길이 자주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수원에서 오를 때에는 경기대학교 정문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도 좋고, 광교 종점에서 시작해도 좋다. 용인에서라면 신봉동이나 성북동, 상현동 등에서도 다양하게 광교산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상현동 쪽 등산로가 한남정맥의 마루금을 밟는 길이어서 여기저기에 한남정맥을 나타내는 리본이 많이 달려 있다. 광교산 정상에서 백운산·바라산을 거쳐 청계산까지 가는 사람도 많고, 그 중간인 백

참성사지

운저수지까지 가려는 사람도 많다. 어느 곳이든 하산 길에는 요기할 곳이 많으니 이 또한 즐거운 일이다. 광교산은 그래서 우리에게 마냥 행복만 주는 산이다.

광교산은 수원의 북풍을 막아 주는 산줄기로 신도시 수원을 아늑하게 해 준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도 광교산 줄기 끝에 자리를 잡았으며, 지금의 수원 사람 대부분이 즐겨 찾아 심신을 달래는 명산이기도 하다. 형제봉과 시루봉 사이에는 비로봉이 수려한 모습으로 앉았는데, 비로봉 서쪽 수원시 땅에는 창성사가, 동쪽 용인시 땅에는 서봉사가 자리를 잡았었다. 두 절 모두 고려의 국사를 배출한 곳이어서 유서가 깊지만 지금은 안타깝게도 폐사가 되어 잡목 속에 방치되어 있다.

비로봉은 불교에서 말하는 비로자나불을 의미하는 것이니 두 절과 관계가 깊다고 하겠다. 비로자나불은 세상의 모든 곳을 두루 비춘다는 의미여서 그런지 비로봉에 서면 형제봉과 시루봉을 모두 조망하게 된다. 비로봉 아래 남쪽 벼랑에는 커



다란 바위가 역겹의 세월을 견디며 서 있다. 크기도 만만치 않지만 생긴 모습도 수려해서 광교산의 정기가 뭉친 듯한 곳이다. 불과 10년여 전만 해도 이 바위 주변에서 기도하던 무속인과 시민이 가끔 보였을 정도로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이 수려하고 잘생긴 바위에는 ‘충양공김준룡전승지(忠襄公金俊龍戰勝地)’라고 새긴 글씨가 보인다. 자연 석벽을 위는 둥그랴게 아래는 네모지게 다듬어 큰 글자를 새기고 좌우에는 작은 글자로, ‘병자호란공제호남병(丙子胡亂公提湖南兵) 근왕지차살청삼대장(勤王至此殺清三大將)’이라고 새겼다. 병자호란 때 광교산전투에서 승리를 이루어 낸 김준룡(金俊龍 : 1586~1642)과 그 일을 기리는 내용이다.

김준룡은 22세 때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시작으로, 영주군수·전라도병마절도사·경상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고, 시호는 충양(忠襄)이다. 전라도병마절도사로 재임하던 중 남한산성에 고립된 인조 임금을 구원하기 위해 올라온다. 지나가는 고을마다 근왕병을 모집하였고, 이내 광교산에서 청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청나라 장수 공경(孔耿)의 부대와 싸워 청나라 태조의



左 광교산 비로봉 정상 아래의 바위무더기 가운데에 ‘충양공김준룡전승지’라 쓰인 비가 있다.  
右 「충양공김준룡전승지비」

사위 백양고라(白羊高羅) 등 세 장수와 많은 적을 무찔렀다. 병자호란에서 거둔 유일한 승리였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대피한 인조 임금과 조정은 나날이 어려움에 떨어졌다. 성은 청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되고 군량미며 무기도 열악한 상태였다. 더구나 날씨가 매우 추워 성에 있던 군졸 가운데 얼어 죽는 자가 생길 정도였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전라병마절도사 김준룡은 수원과 용인 사이의 광고산에 주둔하여 전투에 이기고 전진하는 상황을 알려 남한산성 안의 고립된 사람들에게 안정을 찾아 주었다. 당시 남한산성이 오래도록 포위되고 안팎이 막히고 단절된 상태라 더욱 반가운 일이었다. 김준룡이 승리를 거둔 곳을 오랑개가 항복한 곳이라는 의미로 호항골[胡降谷]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준룡 장군을 비롯한 2,000여 군사도 피해를 많이 입었다. 화살이 다 떨어지고 양식도 모자라서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으므로 수원으로 물러나 물자를 보충하고 다시 진격하려고 하였으나 군사들이 모두 흩어져 결국 실패하였고, 이는 그가 파직당하는 빌미가 되었다.

또한 감사 이시방은 김준룡이 물러난다는 소식을 듣고 흩어진 군사를 수습하러 간다는 핑계로 공주로 달아났다. 결국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 임금을 구원하는 데 실패하였고, 김준룡은 정죄(定罪)되어 유배 길에 오르게 되었다. 이때는 이미 조선이 청나라에 항복하여 인조가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 :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의 예)를 행하는 등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전을 겪은 후였다.

장군의 묘소는 시흥시 군자동 군자봉이 마주 보이는 곳에 있다. 본래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묘를 썼는데 도시화의 영향으로 1972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왔다고 한다. 충양공이라는 시호는 정조 16년인 1792년에 내려졌는데, 이는 장군이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이 지나서이다. 정조가 김준룡의 무공을 인정해 준 결과이다. 비로봉 암벽에 전승지 비문을 새긴 것도 화성을 쌓으려고 수원에 온 축성 책

임자 채제공이 김준룡의 승전 이야기를 듣고 새기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국난을 당했을 때 나라를 이끌어 가는 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냉엄한 현실인식과 국제정세의 올바른 판단일 것이다. 명분과 실리라는 두 수레바퀴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움직여 나가야 할 것인가? 명분에 얽매어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실리를 취해 백성과 나라를 구원할 것인가? 병자호란의 치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광고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수가 많아져서 휴일이면 시내의 변화가처럼 붐빈다. 형제봉 쪽에서 비로봉을 오르다 보면 계단이 끝나는 지점 바로 위에 전승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보이고 이정표도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 유서 깊은 명승지에 다가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저 한 번 가 봤으니까 하고 생략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바위 주변에 앉아서 형제봉을 바라보는 장쾌함과 온몸으로 느끼는 압벽의 기운은 이루 다 형용하지 못한다. 광고산은 수원의 허파이면서 전승지로서의 격도 갖춘 명산이다. 광고산에 오를 때마다 김준룡의 전승지를 찾아 도시에서 찌든 심신을 재충전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 않겠는가?

수원의 모든 역량은 이제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으로 모아진다. 수많은 내·외 국민이 화성을 찾아와서 조선의 문화에 감동하고, 관계기관에서는 화성을 더 잘 가꾸고 알리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다. 화성의 건설에는 당시 국왕이었던 정조 임금의 효성과 강력한 의지가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해 낸 지식인들과 관리들의 능력이 부족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세계인들에게 땀땀이 자



華城留守趙心泰像

2011年 李在鉉 謹畫

조심태 초상화(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량할 수 있을까?

세종 대의 문화와 국가 발전에 황희나 맹사성을 비롯하여 장영실 등이 온 힘을 모았듯이, 화성의 건설에도 체제공과 정약용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힘이 결집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조심태(趙心泰 : 1740~1799)이다.

평양 조씨 경(敬)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부터 무예에 뛰어났으며, 1768년(영조 44) 무과에 급제한 뒤 충청도병마절도사와 이순신 장군이 지냈던 삼도수군통제사며 좌포도대장과 장용영대장, 충융사까지 여러 요직을 두루 거친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인 영우원을 수원의 화산에 천장하기로 결정한 1789년 7월 11일 경기관찰사에 서유방, 수원부사에 조심태를 임명한다. 이때부터 조심태의 수원 경영이 시작된다. 영우원을 수원으로 옮겨서 현릉원으로 조성하고, 현릉원 자리 가까운 곳에 있던 관아와 향교 등 도시 기반시설을 새 수원으로 이전하였으며, 백성들 또한 새 터전으로 이주시켰다. 그는 무관답게 군사제도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율령(律令)에도 정통하였고, 농정을 잘 보살핀 목민관이었으며, 글씨도 잘 썼다고 한다. 특히 8척 장신의 장군답게 큰 글씨에 능했다고 하니 그 기개가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심태는 화성 건설에서 감동당상으로서 실무의 총책임을 맡았다. 정부와 각 지방의 물적·인적 역량을 결집시켜 3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화성을 완성해 내는 집중력을 보였다. 아름다우면서 방어에도 최고인 성을 만들어 낸 것도 따져 보면 그의 능력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만석거를 축조하고 대유둔을 조성하여 농업의 발전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또 화성 축성의 전말을 빈틈없이 기록하게 하여 『화성성역의궤』를 남긴 것은 우리 역사에서 그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는 데 결정적이다.

그러나 조심태는 60세를 일기로 1799년 9월 27일 세상을 떠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를 높이 평가하던 정조가 생존할 때여서 무의(武毅)라는 시호를 받았다. 게다가 부의를 통상적인 것보다 갑절이나 늘려 주고 관을 짜는 채목도 좋은 것으



로 골라 지급하게 하였으며, 의정부 좌찬성으로 증직까지 시켜 준다. 임금의 사랑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 장신(將臣)은 임금으로부터 인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중요한 직무를 전적으로 맡아 관서 지방의 방어사부터 시작하여 북도와 남도의 병사를 계속 역임하다가 몇 해 사이에 마침내 장수로 승진하였다. 돌이켜보면 화성을 건설하는 공역에 처음부터 정성을 쏟아 지대한 공을 세웠고, 말을 달리며 군사를 지휘하는 수고는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그 유례를 찾기가 드물었으므로 드높은 간성처럼 크게 의지하고 믿어 왔다. 삼군(三軍)의 생살권을 맡고 관서의 품계에 오른 정도로는 그 노력에 보답하고 공적을 표창하기에 충분하지 못한데 큰 나무가 그리도 빨리 시들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너무도 슬픈 나머지 나도 모르게 목이 메인다. 죽은 관서 조심태의 집에 성복(成服)하는 날 제사를 지내 주도록 하라.

조심태의 부음을 듣고 정조가 내린 전교이다. 임금의 믿음이 뚝뚝 드러나는 전

조심태의 편지(수원박물관 소장) 화성행궁 건물들의 낙성을 기념하여 1790년 4월 27일과 28일에 개최되는 백일장과 연회에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하는 조심태의 편지이다.

교이다. 그뿐인가? 정조의 비밀어찰이 새롭게 부각된 요즘에 조심태에게 보낸 어찰도 15통이나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정조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지 말 것을 지시했으니 이 또한 비밀어찰이 아닌가?

조심태의 묘는 김포에서 강화도로 가는 48번 국도 나진교 옆 야산에 놓였다. 묘소 주변에 칙덩굴이며 산딸기들이 엉킨 가운데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경기도는커녕 김포시의 문화유적 명부에도 오르지 않았으며, 이정표도 안내판도 하나 없다. 지하에 묻힌 장군이 통탄할 노릇이다.

조심태의 능력이 돋보이는 화성 구조물의 하나로 봉돈을 들 수 있다. 봉화 혹은 봉수는 햇불과 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옛날의 통신수단이다.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였다. 우편제도와 전기통신이 생기기 전에는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통신 방법이었다.

역마나 인편 등의 연락 방법보다 빠르고 효과가 높아서, 지방의 형편이나 국경의 동태를 중앙 정부에 알리는 데 긴요하게 사용되었다. 역마나 인편을 통한 통신이 개인적인 의사를 표시하거나 서신을 전달하는 것인 데 비해 봉수는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전보 기능이 그 설치 목적이었다.

봉화는 원래 밤에 피우는 햇불(야봉, 夜烽)만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널리 주수(晝燧 : 낮에 피우는 연기)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쓰였다. 더러는 주연(晝煙)과 야화(夜火) 등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도 했다. 야봉과 주수를 줄여 봉수라고 하였고, 봉수를 피우는 곳을 봉수대 혹은 봉화대라고 하였다.

육상과 해상 모두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1거, 왜적이 바다에 나타나면 2거, 해안에 가까이 오면 3거, 아군 병선과 접전하면 4거, 육지로 상륙하면 5거로 하였다. 육지 봉수의 경우 적이 국경 밖에 나타나면 2거, 변경에 가까이 오면 3거, 국경을 침범하면 4거, 우리 군사와 접전하면 5거씩 올리도록 하였다.

지난 1960년대 초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되어 전과를 내보낼 때였다.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국민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정치 지도자

들은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국민이 보다 빠른 시간에 이 새로운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할지 고심하였다. TV전파송신소를 많이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당시 우리의 기술로는 어느 곳에 얼마만큼의 출력을 지닌 송신소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잘 몰랐다. 산이 많은 나라여서 더욱 까다로웠던 것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한 미국을 제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의 기술자에게 송신소 건설에 대해 자문하였다. 그런데 약속한 날에 도착한 일본의 자문단은 너무도 단출한 모습이어서 측량 장비며 침단의 기계를 기대했던 담당자의 얼굴은 어느새 실망 섞인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 따지듯이 묻는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송신소 건설 예정지를 찾을 것이며 어떻게 출력 등을 자문할 것이냐.

일본의 기술자들은 지니고 온 가방을 열어 비장의 무기를 꺼낸다. 그 속에서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옛 지도들이 나왔다. 옛 지도들이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자주 보아 왔던 터라 담당자는 시큰둥해 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담당자의 얼굴은 아예 얼어붙었다. 아니 섬뜩한 마음을 추스르느라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일본인들이 우리의 옛 지도에서 가리킨 곳은 모두 봉수대 자리였기 때문이다. 한 방 크게 맞은 것이다.

봉수대와 봉수대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어서도 가까워도 안 된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잘 보이지 않으므로 봉수의 의미가 없고, 너무 가까우면 그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 또 높은 산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지만 구름 등에 가려 보이지 않을뿐더러 관리할 때도 문제가 많다. 그러므로 적당한 거리에 적당한 높이를 지닌 산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인근 고을에서 멀지 않아야 한다. 이런 봉수대의 필요조건은 TV전파와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우리는 TV전파와 봉수대를 전혀 성격이 다른 별개로 보았고, 그래서 일본의 기술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우리의 지도에 표기된 대개의 봉수대 자리에 송신소를 세워야 했다. 요즘에는 이동통신의 중계기가 설치되었거나 군부대의 통신소들이 봉수대 터 근처에 자리 잡아서 통신의 발달과 봉수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모든 땅은 그 용도가 따로 있다는 ‘각지위주(各地爲主)’인 것이다.

화성 봉돈에는 봉돈 자체의 방어를 위해 담을 두르고 무지개 문을 내었으며, 요원들이 숙직하며 일하도록 구들방 한 칸을 들이고 봉수에 필요한 기계 따위를 넣어 두는 창고도 한 칸 만들었다.

저녁마다 5개의 화두 중 남쪽 끝의 첫째 화두에서 횃불을 올리면 동쪽으로 용인 석성산의 육봉에서 봉화로 응하고, 서쪽으로는 흥천대에 있는 바다 봉수(해봉)에서 응한다. 이 밖의 4개의 화두는 긴급한 일이 없으면 횃불을 들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흥천대의 바다 봉화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곧바로 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성부의 서쪽 30리 서봉산 위에 새롭게 셋봉화[間烽]를 두었다.

화성과 주변 사람들은 저녁마다 피어오르는 한 줄기의 봉수를 보고 편안한 하루를 마감했을 것이다. 화성에 앉아서 국경의 정보를 읽어 내고, 더구나 그 정보가 평온을 알리는 내용이라면 두 다리 쪽 뻗고 잠들 것 아닌가. 그러니까 매일 저녁마다 봉돈에서 저녁뉴스를 보는 셈이다.

화성 봉돈의 특징 중 첫째는, 자리 잡은 곳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봉수대의 생명은 서로 잘 보이는 곳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에 자리를 잡아야 멀리까지 정보를 전달한다. 그런데 화성의 봉수대인 봉돈은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작은 언덕에 앉았다. 이는 기존 봉수제도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둘째, 화성의 봉돈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다. 서울 목멱산(남산)의 봉수가 전국에서 올라온 변방의 정보를 궁궐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맡은 것처럼 화성에서도 변방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화성에는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_봉수 올리기



행궁이 있고 행궁에는 임금이 머무르는 임시 궁궐의 기능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궁과 저장대를 마주보는 곳에 봉돈을 설치한 것이다.

셋째,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군사시설물이다. 화성의 봉돈은 봉수대이면서 치성이고, 또한 치성이면서 공격용 진지이고 망루의 기능까지 겸하였다.

넷째, 생김새가 참으로 아름답다. 봉돈의 안으로 들어가면 기능적인 요소들로 알차게 꾸몄지만, 성 밖에서 보는 봉돈의 모습은 대단히 위협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곡선미를 갖추었다.

다섯째, 봉수를 올릴 때의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궁이(거구 : 炬口)를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그래서 다섯의 거구에 모두 불을 지피기 위한 인원은 3명으로 충분하게 되었다.

화성의 봉돈은 단순히 봉수대라고 부르기에는 아까운 시설물이다. 봉화대 혹은 봉수대라고 부르는 통신시설에다 군사적인 목적으로서의 방어력과 공격력을 추가했으니 당연히 봉수돈대라고 불러야 한다. 즉 봉수대이면서 공격용 진지인

..성 안에서 보는 봉수대

돈대이다. 그래서인지 ‘봉돈’이라는 기막힌 이름으로 압축하였다. 이 압축 능력과 복합적인 시설물을 완벽하게 만들어 낸 능력이 당시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를 가늠하는 한 척도가 될 것이다. 더불어 화성 축성의 실무 책임자였던 조심태의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기지와 실학이 돋보이는 구조물이라 할 것이다.

매송면 어천리는 과거 수원의 관문이었다. 특히 어천리 서쪽 해안에 붙은 구포리는 서해의 큰 포구로 이름을 날리던 마을이다. 옛 수원의 중심지가 지금의 율령과 건릉 일대에 자리 잡았던 1789년 이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새 수원이 건설될 때에도 바다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세울 때 수많은 목재가 뗏목으로 들어와 구포의 치목소(제재소)에서 다듬어져 공사장으로 운송되었고, 축성에 필요한 각종 잡물들도 이 물길로 들어왔으며, 심지어 소먹이용 겨까지도 운반해 온 물목이었다. 그만큼 주민의 피해도 컸던 듯 구포 주변 주민에게는 무과 시험에서 특혜를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4년 6년 반 동안의 공사 끝에 시화방조제가 완성되고는 포구로서의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지금의 동화천 주변에 형성된 갯벌에는 논이 만들어졌는데 이전에는 상류 쪽으로는 논이, 하류 쪽으로는 갯벌과 염전이 펼쳐진 곳이었다. 가장 마지막으로 배가 드나들던 포구는 지금의 야목교 부근인데, 고깃배며 새우젓배 등이 드나들던 풍경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비봉에서 안산으로 가는 39번 도로의 야목교 바로 옆은 주막자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토종닭 요리 전문점이 되었다.

동화천 상류 매송면 원평리에는 단양 우씨 우성전(禹性傳 : 1542~1593)과 우하

영(禹夏永 : 1741~1812)의 묘역이 고속철도를 굽어보며 자리하고 있다. 퇴계 이황의 제자이면서 임진왜란 때 추의군을 이끈 의병장으로 이름난 우성전은 구포 주변에 거주하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수원현감을 지내기도 하였다. 서애 유성룡과는 동갑이고, 동문에서 수학했으므로 각별한 사이였는데 임진왜란을 극복한 점도 공통점이다. 다만 우성전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병을 얻어 유명을 달리하였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우성전의 7세손인 우하영은 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이다. 본관은 단양이고, 수원부 호매절 어랑천면 외촌(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서 출생하였다. 자는 대유(大猷)이며, 호는 취석실(醉石室)과 성석당(醒石堂)이다.

우하영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과거 급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12번 응시하여 모두 실패하였다. 계속된 과거시험 낙방 이후 우하영은 당시 유행하던 실학에서 큰 자극을 받고 경제실용(經濟實用)을 위한 학문 연구에 매진하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국을 답사하면서 실태를 관찰하였다. 토지의 비옥함과 척



\_우성전 묘(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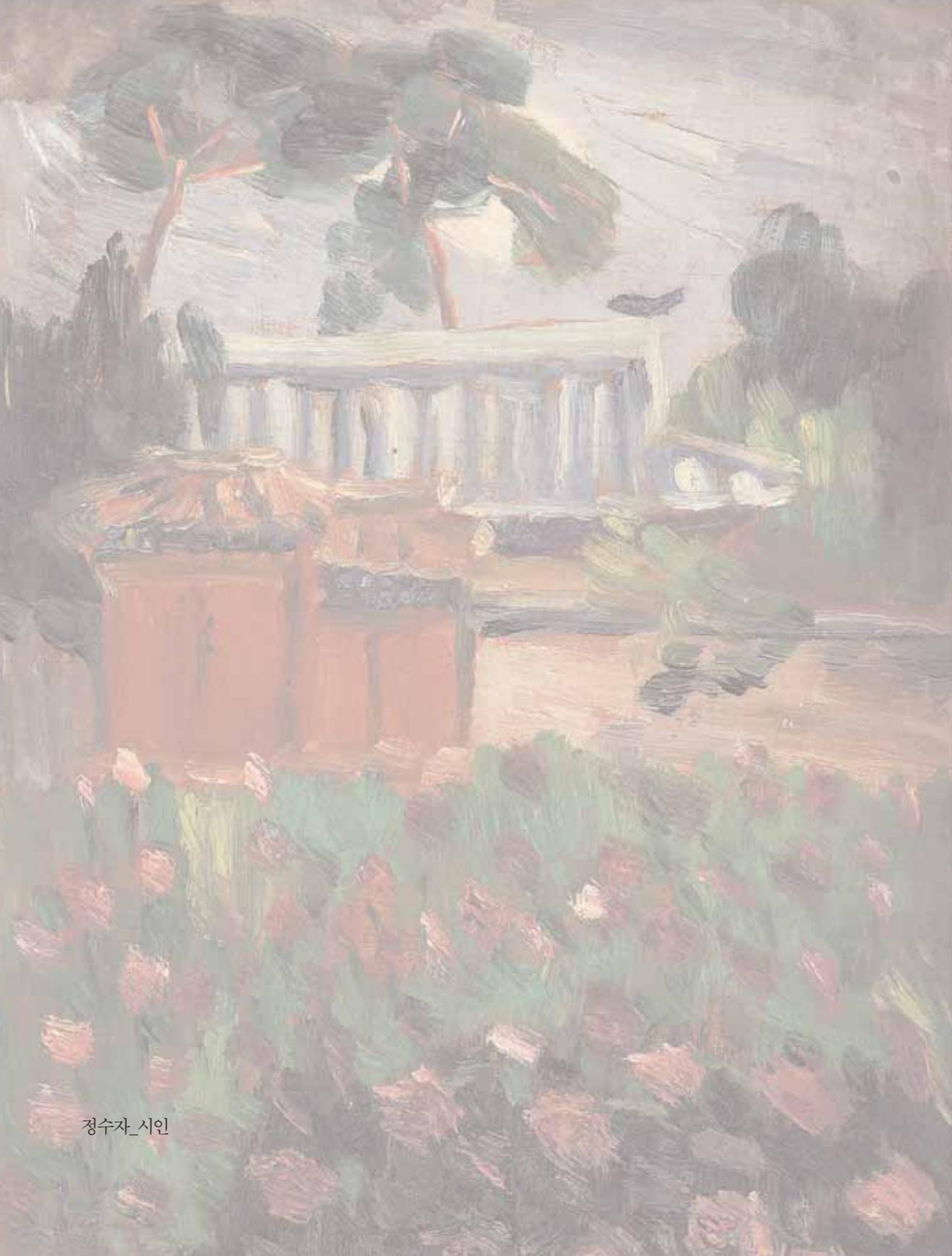


념으로 생활의 역경을 극복하고, 이이·이수광의 경세론을 섭취하면서 유형원·이익의 사상적 계보를 잇는 조선후기 근기학과(近畿學派)를 장식하는 실학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실학이 화성을 축성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음은 『화성성역의궤』에 낱낱이 들어 있다.

우하영의 묘는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관옥골에, 부인 평산 신씨(平山 申氏)와 쌍분(雙墳)을 이루었으며, 직계 7대조인 우성전의 묘와 함께 2003년 4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21호로 지정되었다.

어천리와 구포리의 지형상의 요처는 다양하게 드러났다. 우선 서해안 고속도로의 비봉 나들목이 들어서 화성과 수원으로의 관문을 승계하였고, 바닷가를 끼고 돌던 옛 수인선 협궤열차의 철로도 구포를 지났으며 다시 수인전철 예정지로 오롯이 쓰일 것이다. 또 수원과 남양을 잇는 도로가 넓게 확장되었고, 서평택에서 안산으로 가는 도로도 시원스레 뻗었고, 동화천 상류로 조금만 올라가면 경부고속철도 또한 지나가니 더 큰 요처가 그 어디이라!

\_우하영 묘역(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 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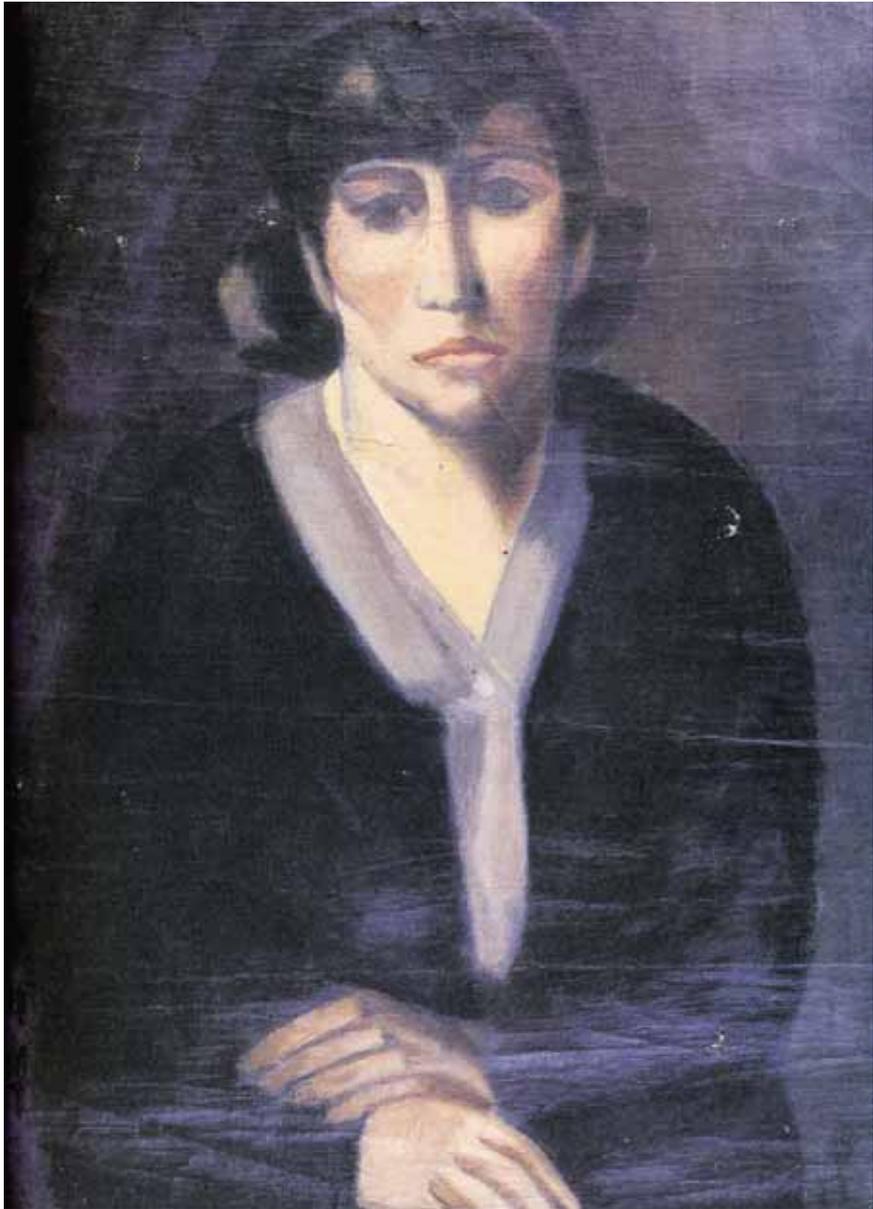
—

‘ ’

나혜석, 그 이름을 불러 본다. 여러 수식어가 그녀의 이름을 에워싼다. 무엇보다 먼저 ‘조선 최초’, ‘여성’, ‘서양화가’가 빛을 발한다. 그리고 한국 여성주의 문학, 페미니즘의 선구자라는 평가도 눈부시게 이어진다. 그만큼 나혜석은 누구보다 앞선 선각으로 뚜렷한 획을 긋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픈 선각이다. 아니, 차라리 외로운 혁명이다. 너무 앞섰기에 외롭고 고단한 삶이었다. 물론 예술가 나혜석은 독보적인 성취로 세상의 찬사를 많이 받았다. 반면 선각적 도전과 행보로 세간의 지탄을 한 몸에 다 받기도 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면 찌르르 전율이 이는 듯하다. 일찍이 그녀보다 도전적이고 격정적이고 혁명적인 여성이 또 있었는가!

그녀는 왜 그렇게도 앞서 나갔을까. 아니 어떻게 그런 선각과 도전이 가능했을까



\_나혜석의 「여인 초상」(개인 소장)

까. 무모할 정도의 열정과 혁명적인 선언, 그리고 그것을 실제 행동에 옮기는 삶이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인가. 그런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렇게 온몸으로 시대에 맞서다 간 나혜석, 그녀는 수원의 딸이었다. 짧은 생을 불꽃처럼 살다 간 자취를 따라 나혜석의 삶과 꿈을 다시 읽어 보자.

나혜석(1896~1948)은 나주 나씨 나기정(羅基貞 : 1863~1915)과 수성 최씨 최시의(崔是議 : 1860~1919) 사이에서 태어났다. 재석, 흥석, 경석, 혜석, 지석 모두 5남매 중 넷째로 수원군 수원면 신흥리 291번지에서 삶을 시작했다. 현 주소로는 장안구 신흥동 34번지 일대다.

그녀의 생가 터는 화성행궁과 화령전 사이에 있다. 생가 자리에 세워 놓은 표석에서 그녀의 삶을 잠시 돌아본다. 생가 근처에는 최근에 마련한 ‘나혜석기념관’이 있다. 주인공을 기억하는 생가 주변



나혜석 생가 표석

이라서인지, 그곳에 가면 그녀의 어린 날 발소리가 타박타박 들리는 것만 같다. 꿈 많은 소녀의 목소리가 또랑또랑 들리는 것도 같다. 그곳에 담긴 나혜석의 자취를 먼저 짚기 때문일 것이다.

생가 근처에 있는 화령전은 나혜석 그림에도 나오는 수원의 문화유산이다. 바로 오늘날의 수원을 존재케 한 임금 정조의 어진을 모신 곳이다. 그래서 앞에는 꽃을 심지 않았다는데, 나혜석의 「화령전 작약」에 나오는 작약은 일제강점기의 흔적이겠다. 하지만 그림에는 어린 시절 오가며 본 화령전만 아니라 훗날 수원에 내려와 지낼 때의 힘겨운 시간도 담겨 있어 애뜻하다. 나혜석기념관에서 그녀의 삶과 예술을 새겨 본다.

그녀가 다닌 삼일여학교로 발길을 옮긴다. 현 종로교회는 성안 보시동에 초가를 사서 세운 교회(신자 남자 3명, 여자 4명)인데, 독립된 교사가 없는 삼일여학교

가 종로교회를 교사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1923년 비로소 독립된 교사를 매향동에 마련한, 수원의 대표적 사립학교인 삼일여학교를 나혜석은 1910년 1회로 졸업했다. 나혜석 생가에서 보통 걸음으로 한 십오 분 정도이니 걸어나기에는 적당한 거리였겠다.

삼일여학교는 매향여중고로 이름이 바뀐 채 이 지역 실업계 고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02년 미국 북감리교 여선교회 스크랜턴(M.F Scranton) 선교사에 의해 3명의 학생으로 개교하여 수원의 여성교육을 담당한 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이 학교



나혜석의 진명여학교 학적부

는 화홍문 아래쪽 수원천을 앞에 두고 있어 매향교 쪽에서 보면 풍광이 썩 좋다. 나혜석이 학교를 오갈 때마다 그 개천을 봤을 것이다. 광교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소리를 매양 듣고, 천변에 시시때때로 피고 지는 꽃들도 보고 마음에 새겼을 것이다.

삼일여학교를 마친 15세 소녀 나혜석은 서울로 가 진명여고보를 다녔다. 졸업 때는 『매일신보』의 「재자재원(才子才媛)」란에 여동생 나지석과 함께 나올 만큼 인정받는 재원이 되어 있었다. 신식 교육의 기회가 귀하던 시절, 나혜석의 이러한 성장에는 ‘나 부잣집’ 재력과 개화를 일찍 받아들인 분위기가 크게 작용했다. 오빠 나경석의 적극적인 지원도 나혜석을 북돋워 주는 든직한 힘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혜석 자신이 특출한 능력과 용기가 있어 가능한 성장이라 하겠다.

이러한 지원의 힘으로 나혜석은 다시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당시 지식인들의 동경이던 일본 유학, 더욱이 여자 유학생이라면 손꼽을 만큼 드물던 시절에 도쿄로 유학을 간 것이다. 일본 유학으로 근대를 먼저 경험한 오빠가 아버지를 설득해 가며 재능 많은 혜석의 유학을 적극 밀어 준 덕분이다. 그 후에도 오빠는 어려운 고비마다 혜석에게 큰 힘이 되어 준다. 유학은 나혜석의 삶을 새로 쓰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특히 도쿄사립미술학교 유학은 앞서가는 조선 여성 유학생 중에서도 드물고 귀한 기회를 잡은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 모두가 나혜석이 예술의 꿈을 확실하게 다지고 키우는 좋은 거름이 되었다.

유학 중에 나혜석은 생의 한때를 꽃



나혜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오빠 나경석(독립기념관 소장)



피우며 도약을 준비한다. 좋아하는 미술 공부도 치열하게 했지만, 새로운 세상의 문화 예술에도 한껏 고무된 것이다. 지적이고 예술적인 자극이 넘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혜석은 유학생들 간의 우정과 연애라는 청춘의 특권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그녀의 삶에도 약과 비상이라는 푸른 날개를 단 것이다. 신문물과 문화 그리고 세계의 예술적 흐름 등을 마음껏 취하면서 나혜석은 앞선 인식의 소유자로 커 나갔다.

그런 중에 평생의 화인 같은 뜨거운 사랑도 만난다. 소월(素月) 최승구(崔承九 : 1892~1917), 나혜석은 그와의 사랑에 기꺼이 빠졌다. 그는 한국 현대시의 맨 앞을 차지하는 「벨지엄의 용사」를 쓴 시인으로 도쿄문단에서 이미 문재를 인정받고 있었다. 유학 시절의 청춘과 낭만을 만끽하며 들은 최고의 연인으로 사랑에 몰입한다. 조선에 부인을 둔 최승구였지만, 조혼 남자 유학생과 신여성의 연애는 흔한 시절이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이혼이 허락되지 않은 최승구는 병으로 귀국해서 죽음을 맞고, 혼자 남겨진 나혜석은 발작을 일으킬 만큼 실의에 빠졌지만 다시 그림과 글쓰기에 매진하며 예술가로 서기 시작한다.

최승구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이는 나혜석이라는 이름에 따르는 가장 눈부신 광휘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혜석만을 이르는 표현이니 말이다. 그만큼 그림은 최고의 희열과 성취감 그리고 영예를 함께 주는 길이었다. 또한 조선 여성 중 맨 첫걸음이었기에 세간의 호기심이 늘 집중되는 길이기도 했다.

나혜석은 1919년 『매일신보』에 「선달 대목」과 「초하룻날」이라는 주제를 만평을 게재하면서 화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이 무렵 기억할 것은 나혜석이 이화학당 교사인 박인덕의 방에서 3·1운동에 여학생들의 참가 계획을 논의한 일이다. 신준려, 황애시덕, 김마리아 등과 가진 비밀 회합에서 자금을 구하고 만세운동의 확산을 위해 개성과 평양으로 갔다(3월 3일과 4일) 돌아와 일본 경찰에 체포(8일)된 것이다. 이때 치른 5개월 동안의 옥고는 나혜석이 그동안 참여한 독립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출옥 후 나혜석은 정신여학교 도화(미술)교사로 재직하던 중 생의 전환점이 되는 큰일을 겪는다. 바로 어머니의 죽음을 맞은 것이다.



『선달 대목』(『매일신보』, 1919년 1월 21일~2월 7일에 게재된 만평) 연말연시 ‘가정풍속화’를 해설문과 함께 게재한 것으로 가족들이 둘러앉아 아침식사하는 모습과 여인들이 빨래를 다듬고 바느질하고 다리질하는 모습 등을 그려 여성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1920년 4월 10일 나혜석은 김우영(金雨榮 : 1886~1958)과 결혼을 한다. 당시로서는 나 이도 꽤 많은데다 어머니의 사망으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미 아버지(1915년)와 최승구(1916년)의 사망을 겪은 뒤라 결혼이 더 절실했던 듯하다. 김우영은 도쿄제국대학 법학부를 마친 모범생 타입의 변호사로, 최승구를 잃고 실의에 빠진 나혜석을 너그럽게 살피준 사람이다. 김우영의 신사적인 품모와 행동에 편안

함을 느끼던 나혜석이 안정적인 결혼을 선택한 것이다. 최승구와의 연애편지 같은 뜨거운 희열은 없어도, 자신의 예술 세계에 도움을 줄 만한 환경을 고려했을 법한 선택이다.

나혜석이 내세운 결혼 조건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지금 봐도 놀라운 조건은 세 가지로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오.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오. 시어머니와 전실 딸들과는 별거케 하여 주시오.”였다. 이를 수락한 김우영은 신혼 여행길에 최승구의 묘를 함께 찾아 비(碑)를 세워 준다. 김우영의 품을 보여 주는 일화지만, 나혜석의 명성을 계산한 재혼이라 가능했다는 말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혼 후 나혜석을 내치며 가한 비인격적인 박대나, 곧바로 더 좋은 조건의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등의 과정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든다.

결혼 후 나혜석은 안정적인 생활 속에서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다. 김우영의 재

「부군의 초상」(개인 소장)

력과 사회적 위치가 울타리로 작용한 것은 물론 당대 ‘여류명사’라는 아내의 위상을 즐기며 김우영도 서로 편안한 적응을 한 것이다. 1921년 나혜석은 우리나라 두 번째 서양화 개인전이자 서울에서 처음 여는 유화 개인전으로 대성황을 이룬다.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라는 세간의 호기심 덕분에 당시로서는 굉장한 인파인 5,000명이 몰렸다고 한다. 그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 전시회를 나혜석이 임신 9개월의 몸으로 가졌다는 점이다. 그녀가 자신의 예술에 얼마나 진지하게 또 치열하게 임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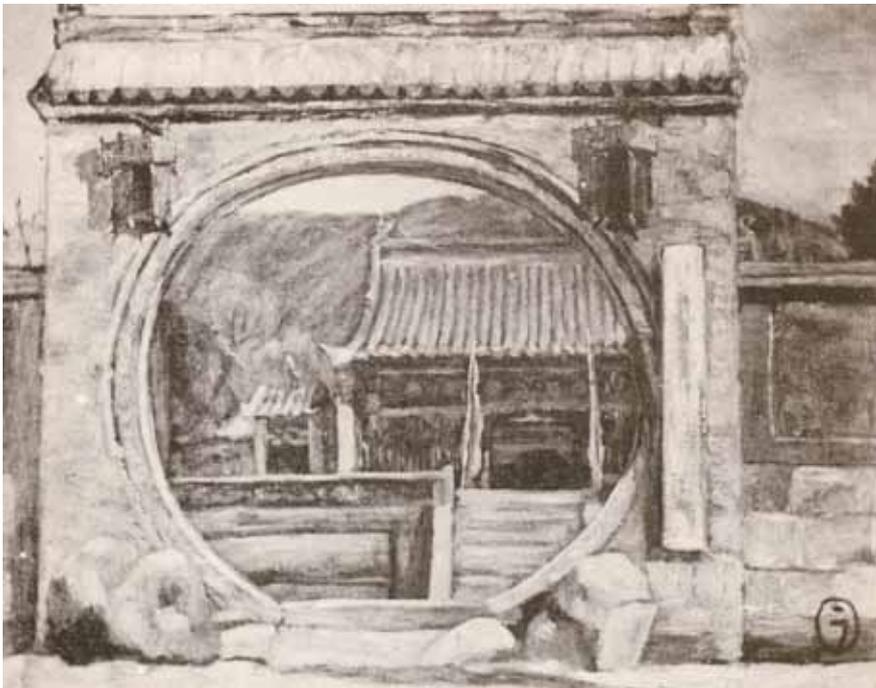


같은 해에 나혜석은 첫째 딸 나열(羅悅)을 낳고, 일본 외무성의 부영사가 된 남편을 따라 만주 안동현으로 갔다. 안동현에서는 김우영의 신분과 결맞은 사교생활을 하는 한편 여자야학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고 의열단의 무기 반입을 도와주는 등 항일운동에도 큰 역할을 했다. 김우영의 묵인하에 해낸 일이라는 점에서 보면 나혜석만 아니라 부부가 은밀하게 독립운동을 한 셈이다. 외교관의 바쁜 일정 중

나혜석의 작품인 「개척자」(『개척』, 1921년 7월)

에도 나혜석은 이국적 풍광을 찾아 스케치를 하러 나가곤 했다. 스케치 자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구경거리인 양 둘러싸도 꾀꿉이 자기만의 그림을 그렸다. 예술에 대한 성취욕이나 긍지가 높았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훗날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한 「천후궁」은 이때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 그린 그림이다.

1922년 6월 나혜석은 드디어 두각을 나타낸다. 조선총독부 주최 제1회 조선미술전람회 유채수채화 부문에서 「봄」과 「농가」로 입선을 한 것이다. 이 분야의 조선인 입선자가 나혜석·고희동·정규익 세 사람뿐이었다니, 여자로서는 일찍부터 ‘최초’라는 수식어가 너무나 당연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이후 나혜석은 1926년 제5회 조선미전까지 내리 입선을 하는 등 여성화가로서 독보적인 활약과 성취를



「천후궁」

보여 준다. 남성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자기 세계를 펴면서 찬사 어린 주목과 평가를 한 몸에 받은 것이다. 이렇듯 나혜석은 어머니로서의 거듭되는 출산과 육아 속에서도 조선 최초 여성 서양화가로서의 자기 세계를 놓지 않고 입지와 명성을 굳혀 갔다.

그 무렵 나혜석은 또 하나의 큰 기회를 잡았다. 1927년부터 1929년까지의 구미 여행, 특히 결혼한 여자로서는 전례가 없는 외국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나혜석은 김우영이 외지(만주) 근무로 받은 ‘위로여행’, 즉 출장 삼아 가는 구미여행에 같이 나섰다. 흔치 않은 여행으로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첫째 딸 나열과 큰아들 선(宣 : 1924년 출생), 둘째 아들 진(辰 : 1926년 출생)을 칠순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가는 어려운 길이었다. 하지만 나혜석은 젓먹이 진이까지 세 아이를 맡기고 긴 여행길에 나섰다. “내 일가죽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라는 결연한 목표와 의지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화가로서 유화의 본바닥에 대한 갈망이야 당연하지만, 나혜석의 용기를 또 한 번 보여 주는 결행이다.

1년 8개월, 지구의 북반구를 일주하는 대장정이었다. 여행에서 나혜석은 파리의 문화며 예술을 온몸으로 흡수했다. 가는 곳마다 그림을 찾아가 옥심껏 보고, 그곳의 앞선 예술과 문화를 폐부 깊숙이 받아들였다. 파리의 가정생활 경험을 통해 남녀평등을 확인하고, 영국 여성참정권운동에 참가한 사람에게 영어를 배우며 여권 인식 등도 세워 이전보다 훨씬 넓은 시각도 확보했다. 이렇듯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을 거쳐 미국 하와이와 일본을 돌아오는 긴 여행은 나혜석에게 더 없이 좋은 계기가 되었다. 유럽과 미국의 앞선 문화나 예술을 직접 보고 느끼며 인생관과 예술관에도 최고의 자극을 얻은 것이다.

하지만 여행은 나혜석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기도 했다. 파리에서 최린(崔麟 : 1978~?)과 나눈 짧은 사랑이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이다. 게다가 나혜석은 「이혼 고백장」이라는 대담한 글을 발표하면서 자기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린을 고소하는 등 일대 회오리를 일으켰다. 「여류화가 나혜석 씨 최린 씨



\_나혜석의 세계여행지





상대 제소」 같은 기사는 당시 그녀의 대담한 기질과 인식, 그 이면에 깔린 고충을 잘 보여 준다. 외간남자와의 사랑만도 치명적인 기혼녀 입장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심경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혼외정사 상대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한 일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나혜석은 세간의 비난을 뒤집어쓰며 감당하기 힘든 파국으로 내몰린다.

최린과 나혜석,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끌렸다. 외국이고 파리라는 낭만적인 자유로움과 혼외 연애에 관대한 그곳 사회분위기도 작용했을 것이다. 최린은 일본

「파리풍경」(개인 소장)



메이지법과대학 출신으로 동양철학과 서양 근대사에도 박식하고 연설 능력도 뛰어난 인물이었다. 독립선언서 서명으로 3년간 옥고를 치렀을 뿐 아니라, 한시를 짓고 서화에도 취미가 있어 난초 그림을 서화협회전람회에 출품할 정도였다. 김우영이 취미가 없음을 결점으로 보던 나혜석이 매료될 만한 예술적 감수성과 교양미를 갖춘 남자였던 것이다. 최린 역시 명성이 높던 나혜석을 만나자 ‘여중호걸’이라며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둘의 사랑은 그곳의 사교계에 소문이 퍼질 만큼 발전했다.

「스페인 국경」(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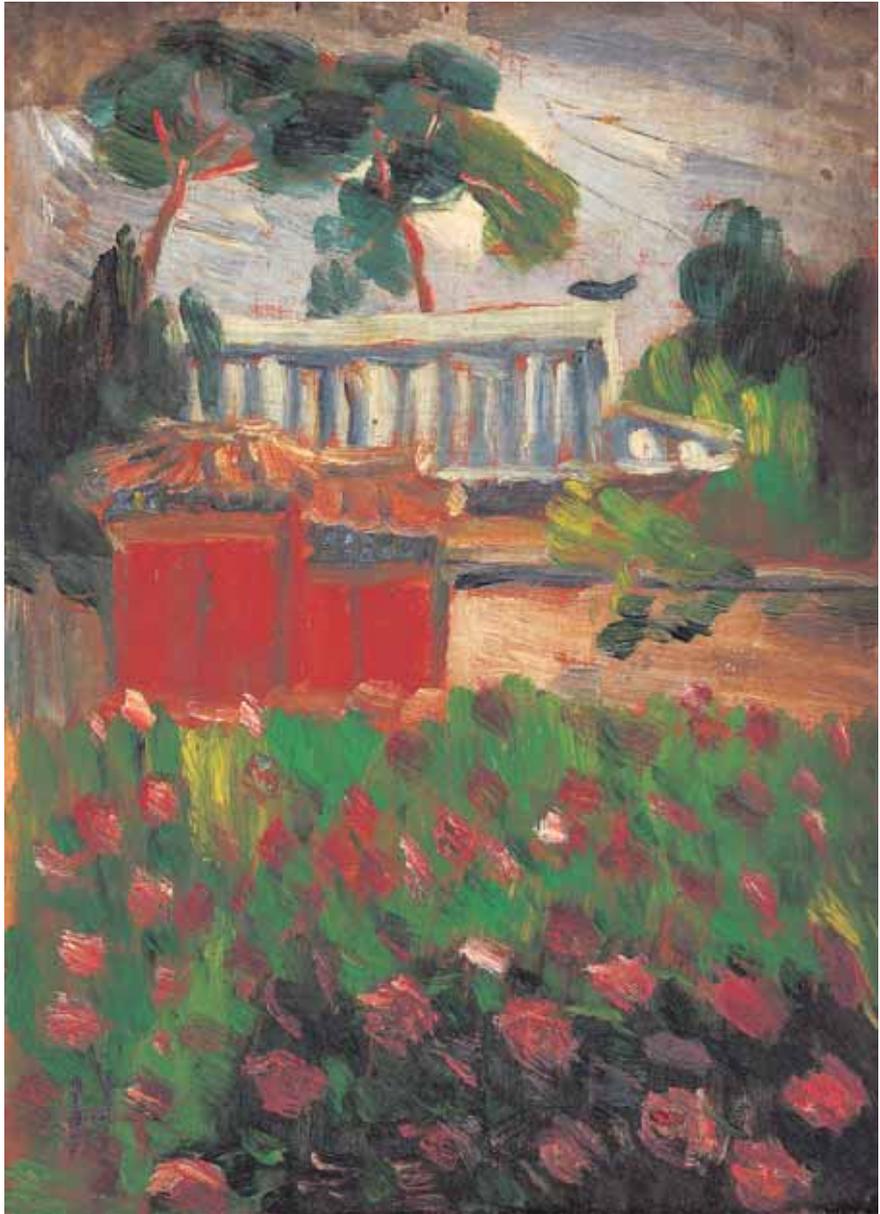


그러나 풍문으로 떠돌던 사랑이 알려지면서 과경을 맞게 된다. 이때도 나혜석은 가부장사회 남성들의 자기중심적 처신과 여자의 정조만 문제삼는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하지만 결국은 감당조차 힘든 부메랑을 맞고 만다. 그 와중에도 나혜석은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과 혼자 사는 어려움 등을 생각하며 이혼을 피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김우영

은 이 모든 일을 위자료도 주지 않고 내치는 구실로 삼으면서 아이들까지 못 만나게 하는 비인간적인 이혼을 요구한다. 2년의 별거 동안 나혜석이 시집 근처 부산 동래에 가서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도 허사가 된 것이다. 1930년 김우영이 나혜석과의 합의이혼을 신고하며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혼 후 나혜석은 그림에 더욱 전념했다. 그리고 1931년 봄에는 조선미전 특선, 가을에는 일본제국미술원전람회 입선 등의 성취로 다시 일어선다. 제전 입선에 힘입어 유명세를 타며 그림도 잘 팔렸고, 1932년에는 조선미전 입선도 이룬다. 하지만 1933년 조선미전에서 떨어지고 개인지도를 위해 연 ‘미술사학사’도 안 되는 등 내리막길로 들어선다. 전시회를 열어도 이전의 평가에 못 미치는 그림과 인신 공격성 혹평 속에 잊혀 간다. 자신을 가장 빛내 준 그림에서마저 추락하니, 천하의 나혜석도 재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여류화가 나혜석 씨 최린 씨 상대 제소」(『동아일보』, 1934년 9월 20일)



「화령전 작약」(리움삼성미술관 소장)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다. 수원 출신의 화가 나혜석에게 수원은 어떤 곳이었을까. 수원의 상징적 장소든 애향심이든 각별히 사랑하거나 화폭에 담은 곳이 있을까. 그 전에 짚고 갈 것은 수원의 즐거운 사건, 바로 나혜석의 귀국전시회다. 1929년 수원 남수리 불교포교당에서 가진 ‘동아일보사 수원지국 주최, 중외일보사 수원지국 후원’으로 연 이 전시회가 수원 지역에서는 첫 유화전람회였다니, 수원의 딸인 그녀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막내아들 건을 낳고 백일쯤에 연 전시회라는 사실이다! 구미여행에서 얻은 새로운 예술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주고 싶은 그 열정과 긍지가 새삼 감탄스럽다.

수원을 그린 것은 앞서 언급한 「화령전 작약」과 「수원 서호」가 있다. 이 그림들은 이혼 후 나혜석이 지치고 아픈 몸을 끌고 수원 지동에 와서 지낼 때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호낙조’를 아름답게 담아 낸 서호는 나혜석이 학생시절에도 즐겨 찾던 곳이다. 그 무렵 쓴 글에서도 서호를 산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서호를 거닐면 그녀의 시간들이 함께 떠오른다. 혼자 남겨진 세상에서 재기를 위해 열심히 글을 쓰던 모습이 쏠쏠히 스친다.

‘ , , , ’

나혜석, 그 이름으로 또 기억할 것은 문학이다. 그것도 여성주의 문학의 선구로서는 더없이 뚜렷한 자취를 보여 준다. 특히 그녀의 문학 속 선언들은 페미니즘의 전사로 기억될 정도로 전투적이고 전위적인 게 많다. 나혜석이야말로 여성주의 문학을 누구보다 앞서 열어 간 시인이요, 소설가였던 것이다. 그녀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고 겪은 세상의 부당과 편견, 인습 등에 적극 대응하는 글쓰기로 여성주

의 문학의 새 장을 연다.

나혜석은 1914년 조선 유학생 잡지 『학지광』에 최초의 글 「이상적 부인」을 발표한다. 1917년에는 『여자계』 창간호에 「부부」를, 『학지광』에 「잠감」을 발표하며 문필 활동을 본격화한다. 이후 나혜석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선명하게 펴는 산문이나 여성문제를 전경화하는 소설에 집중한다. 소설은 「경희」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여성을 주체로 내세우며 여성문제에 대한 글쓰기를 보여 준다. 가부장사회의 폐습과 억압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여성의 각성과 독립 그리고 해방을 촉구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룬 것이다. 이러한 작품 세계는 일본 유학과 구미여행 등의 앞선 문화 체험도 작용하고 있겠지만, 나혜석 자신의 세계 인식을 집약하는 주제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수원에는 그런 나혜석의 문학적 자취가 여러 곳에 배어 있다. 그녀가 담아 낸 수원에서의 시간과 풍경은 거개가 수원의 명소들이다.

쫄쫄 흐르는 저 냇물  
흐린 날은 푸르죽죽  
맑은 날은 반짝반짝  
감감한 밤 흑색같이  
달밤엔 백색같이  
비오면 방울방울  
눈 오면 녹여 주고



소설 「경희」(『여자계』, 1918)

바람 불면 무늬 지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춥든지 더웁든지  
싫든지 좋든지  
언제든지 쉬임 없이  
외롭게 흐르는 냇물  
냇물! 냇물!  
저렇게 흘러서  
호(湖)되고 강되고 해(海)되면  
흐리던 물 맑아지고  
맑던 물 파래지고  
퍼렇던 물 짜지고

(華虹門 樓上에서)

「냇물」 전문<『폐허』 2호, 1921년 4월(『정월 라혜석전집』)>

‘화홍문(華虹門) 누상(樓上)’이라는 부기(附記)가 유독 눈에 띄는 시다. 나혜석의 시에서 수원을 드러내는 유일한 작품으로 장소 명사에서 수원 사람의 긍지를 느낄 수 있다. 화홍문은 화성의 북쪽 수문, 광고산에서 내려오는 수원천을 시원히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방화수류정과 함께 수원팔경 중 제1경이라는 최고의 풍취를 자랑한다.

이 시는 그런 냇물의 천변만화를 즉물적으로 그리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아픔이 느껴진다. 사랑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 유학 시절 나혜석이 그토록 사랑한 사람 최승구는 너무 일찍 갔다. 도쿄문단에서도 촉망되는 시인이자 서로 잘 통했지만 기혼이니 더 애타는 연애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폐결핵으로 귀국한 최승구는 죽음을 앞둔 채 나혜석을 간절히 기다렸다. 결국 귀국한 나혜석을 보고서야 최승구도 눈을 감았다니, 진정한 영혼의 짝이었던가 보다.

그 상실감을 생각하며 화홍문 앞의 물을 본다. 물이란 때와 곳은 물론 보는 사

# 내 물

맑은 물은 푸르다  
흐린 물은 반짝인다  
맑은 물은 반짝인다

담수한 빙 黑色것쳐  
달빛엔 白色것쳐  
비오면 황금수수  
눈오면 옥피우고  
바람불면 풍의저어  
아침부터 새벽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슬픈지 미음은지  
심한지 웃음지  
언저론지 쉬임업사  
외향기 흐르는바를  
비물! 내물!  
저러케 흥녀치  
湖되고 江되고 海되면  
호리를물 맑아지고  
암든물 귀해지고  
괴림은물 싸지고

華虹門樓上에서



람의 마음에 따라 달리 보이는 속성을 갖고 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 주는 특성 때문에 큰 깨우침을 주기도 한다. 물은 일찍이 노자가 상선약수(上善若水)로 갈파했듯, 자연 중에서 제일 선한 자연이기도 하다. 만물의 목숨을 내고 먹고 기르는 우주의 영원한 어머니가 물 아니던가. 그 덕분일까, 나혜석도 화홍문 누상의 물 앞에서 사랑의 운명을 수궁하는 듯하다. 고향의 물이기에 그런 성찰 속의 위안이며 성숙도 안겨 주는 것이리라.

이렇듯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풍취는 나혜석에게 각별했던 듯싶다. 몇몇 산문에서 그런 자취를 읽어 볼 수 있다. 다른 길을 두고 화홍문으로 더 지나다닌 듯, 그

『폐허』 2호에 실린 「넛물」 화홍문 누각에서 흘러가는 수원천의 넛물을 바라보며 시를 지었다.

녀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는 대목들이 눈을 끈다. “도회의 봄, 농촌의 봄, …… 화홍문의 봄, 방화수류정의 봄, 완전한 봄은 찾아왔습니다그러.”나 “꽃 사이로 방화수류정, 화홍문이 보인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점심찌꺼기로 남겨 놓 신문지 조각이 바람에 날리고 있을 뿐 인적은 고요하다.”(『독신 여성의 정조론』, 『삼천리』, 1935년 10월) 같은 대목은 화홍문 근처를 거닐던 그녀의 모습을 선연히 전한다. 서울에서 지인들이 오면 화홍문을 지나는 길을 걸어 봉녕사 등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그런 글에서 언급한 장소들은 특별한 시간의 무늬를 담아낸다. 늘 보던 장소도 함께 보는 사람이나 심사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인형의 가(家)」는 첨예한 인식으로 더 주목된다.

1           내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기뻐하듯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되도다  
              (후렴)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수하게  
              엄밀히 막아 논  
              장벽에서  
              견고히 단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 주게  
              (중략)

4           아아 사랑하는 소녀들아  
              나를 보아

정성으로 몸을 바쳐다오  
맑은 암흑 橫行할지나  
다른 날, 폭풍우 뒤에  
사람은 너와 나

「인형의 家」 전문(『매일신보』, 1921년 3월 4일; 『정월 라혜석전집』)

『매일신보』에 번역 연재한 「인형의 가(家)」 각본 마지막 회에 삽입된 시다. ‘노라’는 입센(Henrik Ibsen)의 동명 희곡 주인공으로 세계적인 파란을 일으킨 이름이다. 남성 중심사회의 ‘위안물’로 남겨지는 여성의 표상이자 남녀평등을 일깨우는 여성의 대명사로 세계문학의 스타가 된 것이다. 이런 “노라를 놓아 주”라는 후렴은 해방의 메시지를 절규처럼 전한다. ‘무수한 노라’가 쏟아져 나오기를 바라는 나혜석의 절실함에 우리도 감염되지 않을 수 없다.

나혜석의 도전은 산문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첫딸 나열을 낳고 쓴 산문 「母된 감상기」의 과장은 대단했다. 그림에 집중할 때 닥친 임신의 당혹감을 표현한 “억울함”과 자식 욕망이 없었다는 것, 출산 후의 수유와 육아에 따른 고통의 고백, 그래도 자식을 보물로 여기는 심경 등의 솔직한 토로가 큰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임신과 육아를 “하나님의 분풀이보다 너무 참혹한 저주”라고까지 표현한 이 글은 곧바로 가부장사회 남성들의 공분을 사며 반박과 재반박의 지상 논쟁으로 비화된다. 사회가 신성시해 온 모성에 대한 전복적이고 솔직한 표현을 남성들이 이해할 리 만무였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혜석은 여성의 몸 이야기를 공론의 장으로 내놓고 남성 본위의 고정관념에 균열을 내는 선구적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나혜석의 글쓰기는 가부장사회에 대한 도전이고 시대를 앞선 투쟁이었다.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심화·확대하면서 세상의 부당과 불평등에 맞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이나 주제들은 주로 산문과 소설을 통해 강단 있게 퍼나갔다. 남성 위주의 관습에 도전하고 남녀평등을 촉구함은 물론 여성의 독립과



해방을 추구한 것이다. 이를 압축하면 ‘여성의, 여성에 대한, 여성을 위한’ 글쓰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만큼 나혜석은 거의 모든 글을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가부장사회에 응전한 여성주의 작가의 진정한 선구였다.

“나고 자라나든 수원 땅에 이십 년 만에 다시 돌아와 주택을 정하였습니다.”

태장면 지리 557번지(팔달구 지동 385번지로 추정), 나혜석은 이곳에 내려와 2년 남짓을 살았다. 이 무렵 쓴 글에는 수원을 재발견한 소회가 잘 나타난다. “노마성(露馬城)을 본 후에 수원성(水原城)을 보는 감상은 이상히도 로맨틱”하다며 “수원은 팔경을 가졌으니”라고 애향심 그득한 긍지도 보여 준다. 그 팔경 중 하나인 서호낙조(西湖落照)를 그린 게 바로 「수원 서호」다. “실로 화제도 많고 산책처도 많”다는 고향에서 그녀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다고 여기니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나혜석은 한때 충남 예산의 수덕사에 지친 삶을 의탁했다. 예전의 당당하고 눈부시던 나혜석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미 총기도 빠지고 허름해진 모습이었다. 그 무렵 충남 홍성 출신의 젊은 화가 이용노가 찾아와 만나며 화가로서의 교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이 시간이 산중 생활의 큰 위안이었을 법하다.

얼마 후 수덕사를 떠난 나혜석은 서울에 나타났다. 초췌해진 모습으로 자식들을 보고 싶어 찾아가곤 했다. 문전박대를 당하면 학교로 찾아가 얼굴을 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김우영은 말할 것도 없고 시집의 살림을 맡은 시누이가 나서서

아이들을 못 만나게 했다. 그래도 두 번째 재혼한 부인이 나혜석을 딱하게 여겨 아이들을 보게 해 줬다고 한다. 나혜석이 아무리 예술을 우선에 둔 듯 보여도 모성 또한 강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그런 중에도 개성에서 교사로 있던 첫째 딸 나열을 찾아가 잠시나마 의탁을 한 적이 있다. 그러다 서울로 와서 나경석을 찾아가지만, 그렇게 든든한 후원자이던 오빠도 그녀를 쫓아내고 만다. 1944년 나혜석은 결국 심영덕(곧 나고근으로 고침)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한 양로원에 맡겨진다. 오빠가 그곳으로 보내 버린 것이다.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 시립 자재원에서 나혜석의 공식적인 사망 기록이 나온다.

나혜석은 그렇게 말 많고 탈 많던 세상을 떠났다. 조선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요, 선구적인 페미니즘 작가가 행려병자로 생을 마친 것이다. 한때 갈채를 보던 세상에서 버림받은 채 혼자 이승의 마지막 골목을 전전하다 간 나혜석. 그 무렵 고향에 와서 머물렀던 시간을 생각하면 지동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불꽃의 여자 나혜석, 그녀는 생을 건 예술가였다. “예술은 나의 일평생의 위안이요, 또 생활의 전부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라며 자신이 꿈꾸는 예술을 위해 혼신을 다했던 것이다. 예술가로서의 세계 인식과 노력이 치열했고, 그만큼 자긍도 높았다. 하지만 지금 봐도 혁명적인 그녀의 선각과 실천은 평탄한 삶을 허여하지 않았다. 아니 그녀의 선각적 인식과 태도가 평온하게 혹은 적당히 안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도전의 강도를 아니 표현의 수위를 조금만 낮췄더라면, 그렇게 아픈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혜석의 비참한 최후,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책임이라 하겠다. 조선의 상황에 염두에 두지 않은 너무 앞선 인식과 대담한 행보에 따른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남편 김우영의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무책임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당시 가부장사회의 제도와 권력과 인습도 일종의 공범으로 끈질기게 작용했다. 여성에게 책임의 굴레를 씌우는 남성 위주의 관습을 악용하는 남성들 역시도 그러하다.

## 가

나혜석은 수원에서 잘 기려야 할 인물이다. 미술, 문학, 여성운동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계승을 추동하는 크나큰 콘텐츠인 것이다. 이러한 계승은 물론 수원의 긍지요, 즐거운 책무다. 또한 이곳의 아이들에게도 좋은 본을 심어 주는 일이다. 수원의 정신적 가치를 높이는 미래의 준비라는 점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간 수원에서는 나혜석 예술의 계승을 위한 작업을 꾸준히 해 왔다. 미술 쪽에서는 ‘최초’의 정신과 성취를 계승하고자 1995년부터 나혜석미술대전을 매년 열고 있다. 나혜석 예술의 학문적인 규명인 ‘정월 나혜석 학술회의’도 정월나혜석기념사업회가 1999년부터 계속 열고 있다. 그림과 문학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로 나혜석의 진가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나혜석 예술의 새로운 계승과 확장을 도모하는 중이다.



엄상섭이 나혜석의 죽음을 애도하며 쓴 소설 「추도」(『신천지』, 1954)



이 밖에도 참신하고 다양한 기획의 계승이 이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현실과 발언』이나 민중미술 쪽의 계승은 나혜석 그림에 담긴 페미니즘의 확장이겠다. 또 경기도미술관에서 기획·전시한 「언니들이 돌아왔다」는 나혜석 페미니즘 정신의 창의적 계승이자 뜻 깊은 확산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나혜석 예술과 정신의 심화·확대는 앞으로도 새로운 예술을 계속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계동의 ‘나혜석거리’(2000년 조성)도 대중과 함께 그녀를 기리는 곳으로 유명하다. 거리 양 끝에는 화구를 든 채 먼 곳을 응시하는 화가 나혜석과 어머니 나혜석이 앉아 있다. 길 입구에 새겨 놓은 간략한 연보와 대표작 「인형의 가(家)」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과 발길을 끈다. 나혜석의 꿈을 일깨우며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하는 썬이다. 밤이면 비록 노천주점거리가 되지만, 많은 사람에게 나혜석을 알리는 힘은 무시할 수 없다.

나혜석거리축제도 기억의 한 방식이다. 예술 정신의 창의적 계승에는 미흡하지만, 나혜석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생가와 상관없는 곳의 조성이라도 관심을 모

나혜석거리에서 만나는 나혜석

은 데는 일조하는 것이다. 주점거리의 아쉬움은 예술인들의 소극장 주문에 시  
가 화답하는 대로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 거기서 많은 이들이 맥주를 즐기며 연  
극과 전시회 등도 즐길 수 있다면 나혜석거리의 가치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나혜석이 우리의 생활 속에 계속 산다면 더 많은 예술을 견인하는 힘으로 거듭날  
것이다.

,

선각은 대체로 빨리 진다. 그래서 또 선각이다. 그 때문에 더 혁명적일 수 있고,  
오래 남기도 한다. 선연할수록 불꽃은 일찍 사위지만, 자취는 아우라를 남기기  
때문이다. 나혜석, 그녀도 그렇게 앞서간 이 땅의 선각이었다.

자신의 생각을 온몸으로 살아낸 나혜석. 특히 가부장사회를 향한 그녀의 도발  
적 응전은 지금도 경의를 표할 만큼 앞선 것이었다. 그런 선각과 도전적 발언 그  
리고 거침없는 행동 때문에 그녀는 만신창이로 이승을 떠났다. 주위보다 자신에  
게 더 솔직하고 충실했던 주장과 실천의 과장으로 삶의 막장에까지 이르렀고, 고  
향을 찾아 지동에 와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래서 그 근처를 지나면  
새삼 숙연해진다.

하지만 그녀를 통해 오늘날의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뜰 수 있다. 계승해야 할 정  
신과 예술도 더 오롯이 되새길 수 있다. 그래서 화홍문에 가면 나혜석의 삶과 사  
랑을 다시 돌아보는 것이다. 봉녕사와 지동, 그곳을 지날 때도 그녀의 이름을 깊  
이 불러 보는 것이다. 그렇게 나혜석의 삶과 꿈을 기리면서 이곳 수원의 예술과  
미래도 찾아야 하리라.



민경찬\_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03

---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

“아가야 나오너라. 달 마중 가자. ……”

“우리 아기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 ……”

“풍당풍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

“반짝반짝 아름다운 작은 별들 ……”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

“알송달송 무지개 고운 무지개 ……”

“도라지 캐러 간 바구니 속에 나리꽃, 매꽃이 웬일인가요. ……”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즐겨 부르던 노래이다. 이 곡들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

지만 작곡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모두 흥난파가 작곡한 노래이며, 음악 장르로는 ‘창작동요’에 해당한다.

“울 밑에 선 봉선화(봉숭아)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

“봄치녀 제 오시네. 새 풀 옷을 입으셨네. ……”

“어제 온 고깃배가 고향으로 간다 하기 ……”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 와 다시 서니 ……”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대 마소 ……”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소리 ……”

“장하던 금전벽우 찬재되고 남은 터에 ……”

“금강에 살으리랴다. 금강에 살으리랴다. ……”

“두동실 두리동실 배 떠나간다. ……”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애창한 노래이다. 이 곡들 역시 모두 흥난파가 작곡한 노래이며, 음악 장르로는 ‘예술가곡’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근·현대 음악사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한 사람을 꼽으라면 ‘흥난파’라고 답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난파는 무엇보다도 창가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한국 창작 음악의 수준을 예술적인 차원으로 격상시킨 작곡가로, 창작동요와 예술가곡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옥같은 명곡을 수없이 작곡하여 우리의 음악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최초의 바이올린 연주자, 최초의 음악평론가, 최초의 음악잡지 발행인, 최초의 방송관현악단 지휘자, 최초의 실내악단 창시자 겸 실내악 연주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아마추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연주의 수준을 전문 영역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음악 평론의 장을 개척하였다. 다시 말해 작곡 분야, 연주 분야, 평론 분야, 음악출판 분야, 음반 분야, 방송음악 분야, 음악교육 분야 등 음악의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흥난파의 활동과 업적을 논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나라가 근대 음악의 불모지였다는 점과 일제강점기였다는 점, 그리고 말년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난파는 음악의 거의 모든 분야를 개척해야만 하는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식민 조선의 민중들에게 음악으로 식민통치의 부당함과 조국 독립의 희망을 알려야 했다. 그리고 끊임 없이 조선의 음악을 일본 음악으로 동화시키려는 식민정책에 대응하여 조선의 민족정신과 열이 담겨 있고 민중들의 정서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 보급해야 했고, 음악을 통하여 실의에 젖어 있는 민족을 위로해야 했다.

수원 올림픽공원의 흥남파 동상과 「봉숭아 노래비」

홍난파의 업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룩한 것인 만큼 더욱더 값진 것이었다. 따라서 역사는 난파를 일컬어 ‘민족 음악의 선구자’, ‘한국 근대 음악의 상징’, ‘근대 음악의 개척자’라는 최대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말년에는 자의든 타의든 친일 활동도 하여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홍난파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활동을 하였으며, 역사의 ‘공(功)’과 ‘과(過)’는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 , ’

‘난(蘭)이 피는 언덕(坡)’이란 뜻의 호를 가진 난파(蘭坡) 홍영후(洪永厚)는 1898년 3월 19일(음력)<sup>1</sup> 남양군 둔지곶면 활초동<sup>2</sup>에서, 남양 홍씨(南陽 洪氏) 준(竣)파



\_홍난파 생가(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전주 이씨(全州 李氏)의 4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였고, 13세 때인 1910년 기독교청년회(YMCA) 청년학관 중학과에 입학하였다. 이 시절 20전짜리 완구 악기를 구입하여, 여기에 첨부된 숫자로 되어 있는 악보를 통해 서양 음계를 익혔고, 또 오선보(五線譜) 악보 읽는 법을 터득했다고 한다. 서양 음악이란 낯선 음악을 독학으로 터득한 것이다.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소년 영후는 음악의 길을 가기 위해 15세 때인 1912년 조선정악전습소에 입학하여 서양 음악과 전통 음악을 전공하였다. 그리고 1915년 졸업과 동시에 모교인 조선정악전습소 서양악부의 교사가 되었고, 19세 때인 1916년에는 최초의 저서인 『악전대요』를 비롯하여 『통속창가집』을 연이어 발간하였다. 『통속창가집』에는 난파의 첫 번째 창작곡으로 추정되는 「야구전」이라는 노래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20세 이전부터 이미 음악교사, 저술가, 작곡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지만 음악에 반대하는 부친의 뜻에 따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의학도로서의 생활은 채 1년도 하지 못했다. 적성에도 맞지 않았지만 더 큰 이유는 음악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청년 영후가 음악의 길을 가기 위해 선택한 것은 일본 유학이었다. 당시 조선에는 대학급의 음악교육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21세 때인 1918년 4월 6일 일본을 대표하는 음악교육기관인 도쿄음악학교<sup>3</sup>에 입학한다. 그리고 1919년 6월 9일까지 약 1년 남짓을 다녔다. 그런데 유학생 영후는 학업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었다. 예술잡지 발행인, 신문사 기자, 바이올린 연주자, 대학 강사, 작곡가로서의 활동도 겸하였다.

먼저 1919년 2월 음악·미술·문학의 3종 예술을 주체로 한 순수 예술잡지인 『삼광(三光)』을 창간하여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서 활동을 한다. 『삼광』은 ‘재도교 조선유학생 악우회’의 기관지라는 성격과 함께 종합 문예지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흥난파 1인이 주도하는 음악잡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흥난파가 직접 쓴 「창

간사」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조선은 깨는 때올시다. 무엇이던지 하려고 하는 때올시다. 남과 같이 남보다 더 낮게 할 것이올시다. 암흑에서 광명으로, 부자유에서 자유로 나가야 합니다. 퇴패(頹敗)한 구습(舊習)과 고루한 사상을 타파하고, 새 정신·새 사상·훌륭한 욕망·위대한 야심을 집어넣어야 할 것이외다. 그리하여 우리의 실력을 건전하고 충실하게 양성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악우회(樂友會)가 출생된 동기이며, 『삼광』을 우리 손으로 쓰게 된 까닭입니다.<sup>4</sup>

그런 한편 매일신보사의 기자로 근무하였고, 바이올린 연주자로도 활동하였다. 그리고 일본대학에서 음악 강의도 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외국의 대학



\_홍난파가 일본 유학시절에 만든 순수예술잡지 『삼광』 창간호  
\_자작 소설집 『처녀혼』에 수록된 「애수」 악보

에서 음악을 강의한 첫 번째 예에 해당한다. 또한 1920년 4월 28일에는 “가슴에 스며드는 슬픈 근심”이라는 뜻을 가진 「애수(哀愁)」라는 제목의 창작 기악곡을 작곡하였다. 아마 이국땅에서 남의 나라 식민지가 된 조국을 생각하면서 밀려오는 설움의 감정을 악상(樂想)으로 옮긴 것일 게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기악곡에 해당하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 김형준이 이 곡에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로 시작하는 가사를 붙여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 「봉선화」<sup>5</sup>가 되었다. 그러니까 같은 곡이 최초의 창작 기악곡과 최초의 예술가곡이 된 것이다.

난파는 총 세 번의 유학을 하였다. 두 번의 일본 유학과 한 번의 미국 유학이다. 첫 번째 유학기간은 1년 남짓이라는 짧은 기간이었는데, 졸업하면 출세가 보장된 일본 최고의 명문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에 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후일 「첫 무대의 기억」이라는 회고록을 통해 “모처럼 들어갔던 도쿄음악학교만 하더라도 만세통에 튀어나오지만 않았던들 관립학교란 큰직한 간판 밑에서 대도(大道)를 횡보했을 것”<sup>6</sup>이라는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아 2·8독립선언이나 3·1운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회한이 남겠지만 역사는 청년 난파에게 학업보다는 ‘조선 음악계의 개척’이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귀국 후 난파의 활동은 말 그대로 눈부신 것이었다. 연주와 지휘 분야, 평론 분야, 창작 분야, 교육 분야, 출판 분야 등 음악의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조선의 음악계를 개척해 나갔다. 먼저 연주자로서는 귀국과 함



게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전국 순회 연주회 및 각종 연주회에 독주자로 출연하였다. 그리고 1923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오케스트라 반주를 붙인 합창곡을 편곡하고 지휘를 하였고, 1924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바이올린 독주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전문 연주가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음악 평론 역시 홍난파에 의해 개척되었다. 음악 평론가로서 각종 신문 및 잡지 등을 통하여 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음악 평론은 홍난파가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홍난파 1인 시대'라 해도 과

언이 아닐 정도로 이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였다. 이후 음악 평론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홍난파의 글을 교과서로 삼았다고 하니 그 영향력을 짐작할 만하다. 평론 활동의 연계선상에 있는 또 다른 주요 업적 중의 하나는 1925년 음악잡지인 『음악계』를 창간한 것이다. 이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잡지로 기록된다. 내용으로는 연주회 평을 비롯한 음악 비평과 조선 악계의 과거와 미래 등에 관한 평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 소개 및 작품 해설, 음악 상식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필자는 대부분 홍난파 1인이었다.

작곡가로서는 일본 유학 시절에 작곡한 「애수」와 동요 「자장가」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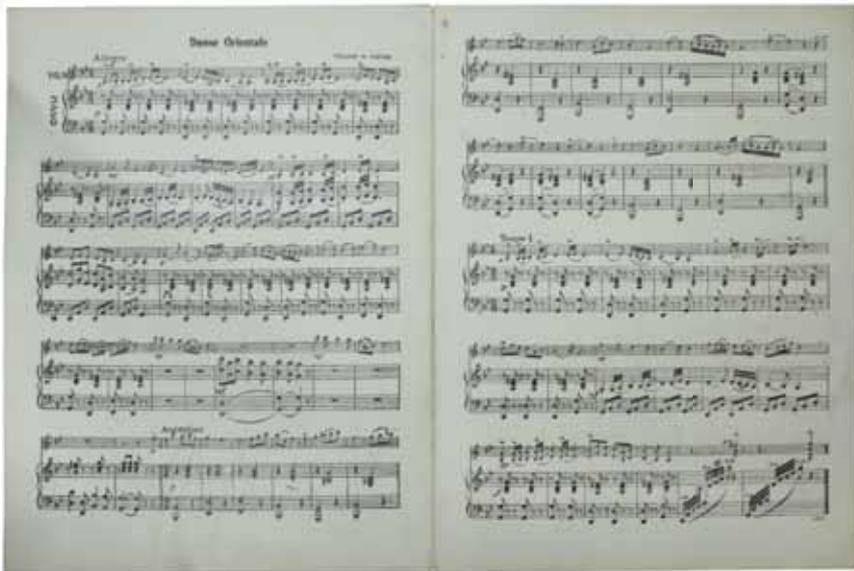
조선의 음악을 개척한 난파 홍영후

그리고 1926년 『세계명작가곡선집』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가곡 「봉선화」를 발표하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봉선화」는 기악곡 「애수」에 “지금은 일제의 총칼에 짓밟히고 있지만 화창한 봄바람에 한국의 민족혼이 다시 회생한다.”는 내용의 가사를 붙여 가곡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봉선화」는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고, 결과적으로 단순한 노래였던 창가 시대를 마감하고 가곡 시대의 문을 열게 하였다.

그에 앞서 1922년에는 음악연구기관인 연악회(研樂會)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대학급의 음악전문교육기관과 음악연구기관이 없었다. 다만 숭실대학, 연희전문학교, 이화학당과 같은 미션 스쿨에서 교양으로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을 뿐이다. 이에 연악회는 교육 활동, 연구 활동, 연주 활동, 저술 활동, 음악보급 활동 등을 전개하면서 조선의 음악계를 주도하였다. 음악대학은 아니지만 음악대학이 없었던 시절에 음악대학의 역할을 한 것이다. 이 밖에도 20대 때 이미 『세계명작가곡선집』을 비롯하여 『유년창가집』, 『창가교수법』, 『모범중등창가』, 『도레미창가집』, 『교육창가집』 등의 저서를 발간하였다. 물론 가장 많은 저서를 발간한 음악가로 기록된다.

그런 한편,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문학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1921년 「처녀혼」, 「구두쇠의 모델」, 「비겁한 자」, 「대화(大火)」, 「새벽중」, 「최후의 악수」 등으로 구성된 단편소설집 『처녀혼(處女魂)』을 시작으로, 「허영」이라는 제목의 중편소설과 장편소설, 수필, 시(詩)를 잇달아 발표하였다. 그리고 투르게네프, 모파상,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에밀 졸라 등 세계적인 문호의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난파의 문학적 업적은 문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아 한국 문학사에도 종종 이름이 오르곤 한다.

20대에 이미 자타가 인정하는 조선을 대표하는 음악가가 된 청년 난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유학길에 오른다. “더 배우기 위하여”였다. “더 배우기 위하여”라는 말은 흥난파가 가장 좋아하는 말로 자신에게 들려주는 일종의 구호(口號) 같은 것이었다고 한다. 아무튼 29세가 된 1926년 도쿄고등음악학원<sup>7</sup>에 바이올린 전공으로 입학하여 1929년 졸업을 하였다. 이 기간에 일본과 조선을 왕래하면서 활동을 하였는데, 주요 활동으로는 경성악우회라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지휘자로 활동을 하였고, 최초의 창작 바이올린 독주곡인 「예수의 조선」, 「동양풍의 무곡」 등을 자신의 연주로 발표하였고, 도쿄신교향악<sup>8</sup>에 입단하여 제1바



\_창작 기악곡 「동양풍의 무곡」 악보

이올린 주자로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평론 활동도 계속하였다.

1929년에 귀국한 홍난파는 음악 교육과 동요 작곡에 치중을 한다. 먼저 연악회를 확장하여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음악보습운동을 전개시켰으며, 경성중앙보육학교 음악과 교수로 취임하여 수많은 음악교원을 양성하였다. 당시 음악교사는 선교사와 일본인이 대부분이었는데, 홍난파의 노력으로 수많은 조선인 음악교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

1930년에는 한국 동요사에 길이 남을 창작동요 50편을 엮은 『조선동요백곡집』 상편을 발간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의 어린이들이 부를 만한 노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였다. 학교에서는 일본 창가만 가르쳤고, 학교 밖에서는 일본 노래와 퇴폐적인 유행가가 범람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뜻있는 몇몇 사람들이 “조선 어린이의 심성에 맞는 새로운 노래를 창작·보급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양을 심어 주고 정서를 함양시켜 주는 동시에 노래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 민족혼을 심어 주자.”는 생각으로 동요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우리나라의 동요는 일제치하라는 암울한 시기에 민간인이 주도한 자생적 민족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가 된 것이다.<sup>9</sup> 홍난파를 비롯하여 「반달」의 윤극영과 「오빠생각」의 박태준 등이 중심이 되었는데, 「고향의 봄」을 비롯하여 주옥같은 명곡 동요들이 이때 만들어진다. 홍난파는 『조선동요백곡집』 상편을 통하여 50곡을, 그리고 몇 년 후에는 하편을 통하여 50곡의 창작동요를 발표하였다. 상편의 악보 인쇄 원판은 원형



『조선동요백곡집』 상편



그대로 보존이 되어 현재 단국대학교 난파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인쇄 원판은 2011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

- \_「고향의 봄」 인쇄 원판(단국대학교 소장)
- \_홍난파의 등요 인쇄 원판(단국대학교 소장)

1931년에는 또다시 유학길에 오른다. 이번에는 “좀 더 배우기 위해서”였다. 세 번째 유학이었고, 일본이 아닌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셔우드(Sherwood)음악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였다. 그리고 1933년 2월 도미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하였다. 홍난파의 귀국은 마치 영웅이 귀환한 것과는 같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당시 유력 일간지였던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앞다투어 「약진 또 약진」, 「금의환향」, 「명성들의 봄다운 소식」, 「홍난파 씨 환영」 등의 제목으로 귀국을 환영하였고, 조선음악가협회에서는 각계 인사들을 초청한 가운데 귀국환영회와 귀국환영음악회를 개최해 주었다. 조선 최고의 음악가에 대한 예우인 동시에 난파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었다. 난파도 이에 부응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시켜 나갔고, 또 명실공히 조선 최고의 음악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홍난파 환영회(『동아일보』 1933년 2월 21일)



귀국한 해 4월에는 경성보육학교 음악주임으로 취임하여 본격적으로 후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5월 6일에는 귀국바이올린독주회를 개최하여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레퍼토리인 그리그의 소나타와 브르흐와 멘델스존의 협주곡 등을 선보였다. 5월 16일에는 「봄처녀», 「성불사의 밤», 「장안사», 「사랑」 등 난파의 창작가곡을 총망라하다시피 한 『조선가요작곡집』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개굴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의 「개구리», “알송달송 무지개 고운 무지개 ……”의 「무지개», “도라지 캐러 간 바구니 속에 나리꽃 메꽃이 웬일인가요. ……”의 「여름»,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의 「햇빛은 쨍쨍」 등 50편의 창작 동요가 수록된 『조선동요백곡집』 하편을 발간하였다. 난파는 늘 “동요 100편을 만들어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선물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로써 그 약속이 지켜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현재 우리가 애창하고 있는 흥난파가 작곡한 동요 중에는 가사가 바뀐 것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

\_흥난파가 사용했던 바이올린  
\_『조선가요작곡집』 표지

인 예로 「옥수수 하모니카」를 들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아기 불고 노는 하모니카는/옥수수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옥수수알 길게 두 줄 남겨 가지고/우리 아기 하모니카 불고 있어요/도레미파 솔라시도 소리가 안 나/ 도미솔도 도솔미도 말로 하지요”라는 가사로 부르고 있다. 이 곡의 원래 가사는 “육십쟁이 작은옴바 하모니카는/큰아저씨 서울 가서 사보낸 선물/작은옴바 학교 갔다 집에 오면요/하모니카 소리 맞춰 노래 불너요/도레미파 솔라시도 불느고서는/도미솔도 도솔미도 자미난다요”로 되어 있다. 원래 가사는 윤복진이 만든 것이고, 바뀐 가사는 윤석중이 만든 것이다. 이 외에도 신고송이 작사한 「쫓각빚」이 「아기장갑」으로, 박을송의 「어머니 가슴」이 「백일홍」으로, 김귀환의 「동리 의원」이 「삼월삼질」로, 윤복진의 「바닷가에서」가 「나뭇집」으로, 박영호의 「어머니」가 「얼마만큼 자랐나」로, 박을송의 「구름」이 가사는 다르지만 같은 제목의 「구름」으로, 박팔양의 「까막잡기」가 「자리와 나리」 등으로 바뀌었는데, 모두 윤석중이 가사를 바꾼 것이다. 그 이유는 작사자가 월북을 하였기 때문이다. 남북 분단 이후 월북 문인들의 작품은 모두 금지가 되었다. 다만 가사를 바꿀 경우 허용을 하였기 때문에 곡을 살리기 위해 가사를 바꿔야만 했다. 그러다가 1988년 월북 문인의 시를 가사로 작곡한 곡이 모두 해금이 되어 원래 가사 그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홍난파 선생의 동요는 아직 복원이 안 되었다. 음악 외적인 이유로 가사가 바뀐 것은 원래대로 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작곡자가 표현하려는 예술적 혼이 담겨 있고, 작곡자가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잃어버린 우리 음악 역사의 한 부분을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

한편 홍난파는 1933년 6월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악단인 ‘난파트리오’를 조직하여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10월에는 현제명과 함께 역시 우리나라 최초로 작곡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이 1933년에는 여러 음악가가 여러 해를 걸쳐 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하였다. 모두 한국 음악사에 기록되는 중요한 사건들이다.

그 외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이듬해인 1934년 6월에는 일본 빅타축음기주식회

사 경성지점 음악주임으로 취임을 하였고, 1935년 9월부터는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에서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1936년 4월에는 코리아음악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 활동도 병행하였다. 물론 평론가로서의 활동과 지휘자로서의 활동, 음악 저술가로서의 활동도 활발하게 하였다. 이때가 인생에서나 음악가로서나 전성기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식민지와 전시(戰時)라는 이중의 악조건은 홍난파라 하더라도 피해 갈 수 없게 만들었다. 일제는 조선 최고의 음악가에게 영욕의 길을 걷도록 강제한 것이다.

## (榮辱)

1937년 12월 홍난파는 『조광』이라는 잡지를 통하여 「정원의 실패」라는 이름으로 이 해를 총결산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을 보면 “금년 1년은 별한 성패가 없습니다. XX에 다녀온 것밖에 특기할 만한 것이 없군요.”라고 시작하면서 “내가 XX에 가게 되어 또 아내는 입원하게 되어서 몇 달 동안 물을 주지 못한 까닭에 나무들이 모두 죽었군요. 여간 섭섭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중에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말라죽고 작년에 심었던 나무만 남아 있어서 꿈까지 꾸었지요. 꿈에는 내가 좋아하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서 잎이 돋고 가지가 치는 것을 보았죠. 꿈에라도 펍 좋아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그 나무를 심겠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이야기는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금년은 나에게 그리 복된 해가 아니었습니다.”<sup>10</sup>라고 글을 맺었다. 여기서 말하는 XX란 경찰서 유치장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무’란 그동안의 업적을, ‘꿈’이란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금년은 나에게 그리 복된 해가 아니었습니다.”라는 표현에 주

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한 해였고 또 원치 않은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937년은 난파의 생애에서 치욕의 한 해로 기록된다. 같은 해 6월 11일 일명 ‘홍사단사건’이라고도 하는 ‘동우회사건’으로 검거되었기 때문이다. 죄목은 미국 유학 시절 홍사단에 가입을 했고 홍사단 단가(團歌)를 작곡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종로경찰서에 수감되어 모진 고초를 받았고 수감 중이던 7월에는 일본 빅타축음 기주식회사 경성지점 음악주임직을, 8월 19일에는 경성보육학교 음악주임직을 사임해야만 했다. 그리고 나서 8월 21일 ‘적방 또는 송치’<sup>11</sup>가 되었다. 그 후 9월에는 친일가요인 「정의의 개가」와 「공군의 노래」를 발표하였고, 10월에는 일본을 찬양하는 음악회인 「음악보국대연주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11월에는 「사상 전향에 관한 논문」<sup>12</sup>을 경성지방법원 검사(檢事)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홍사단 단가는 홍난파가 작곡한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이 일제가 조작한 것인지, 오인하여 저지른 것인지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수감, 고문, 실직, 친일행위, 전향서라는 슬픈 역사의 흔적만 남겼을 뿐이다. 아무튼 전향서 제출과 동시에 경성중앙방송국 방송관현악단 지휘자라는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 유치장에 가고 직장을 뺏기고 원치 않은 일을 해야만 했고 새로운 직장을 얻은 일련의 일들을 “금년은 나에게 그리 복된 해가 아니었습니다.”라는 함축적인 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 후 홍난파는 영욕의 길을 동시에 걷게 된다. 여전히 조선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겸 작곡가 겸 지휘자 겸 음악교육자 겸 음악평론가로서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에 협력하는 활동도 하였다. 이 시기 주요 업적으로는, 1938년 최초의 음악 평론집인 『음악만필』을 발간하였고, 1939년 본격적인 창작 관현악곡인 「관현악 조곡」과 「나그네의 마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일단체인 대동민우회(大東民友會)에 가입하였고, 친일가요인 「희망의 아침」과 일제에 협력하는 글인 「지나 사변과 음악」 등을 발표하기

도 하였다. 그러다가 지병인 늑막염에 동우회사건으로 인한 고문 후유증이 겹쳐 1941년 8월 30일 4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난파의 부음을 들은 후배 음악가 박경호는 동년 9월 25일과 26일자 『매일신보』를 통해 「추억 흥난파」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난파! 형은 너무 일찍 갔소. 44라는 나이는 형의 사신(私身)으로 보나, 형의 예술, 형의 사회, 국가로 보나 한창 살아 있어야 할 때이거늘 형의 일찍 가심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하오. ……

지금의 우리 악계는 형과 같이 조직적이고 사무적인 두뇌와 솔직한 성격의 소유자를 호구(呼求)하거늘 형은 그만 가 버렸소. 그러나 형은 잘 싸우고 갔소. 형은 악단적으로 보아 전사한 셈이오. 형의 유작인 수백여 편의 작품과 아울러 형의 30년간 뿌려 놓은 미즙(麴汁)은 반도악단을 복돋움에 절대(絶大)한 비료(肥料)가 될 것이오.

형은 안심, 안심하오.

(蘭)

(坡)

흥난파는 1941년 8월 30일 44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토록 원하던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우리 역사상 가장 불행했던 시기를 살다

『음악만필』 자필원고

간 것이다. 난파는 근대 음악의 불모지라는 열악한 환경과 일제치하라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조선 최고의 음악가로 활동하면서 우리의 근대 음악을 개척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흥난파의 업적을 논하기에 앞서 난파가 없었다면 우리 음악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본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의 「고향의 봄」과 같은 동요도, “울 밑에선 봉숭아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의 「봉숭아」와 같은 예술가곡도 없었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일본의 창가와 군가, 일본의 동요와 같은 일본 노래를 불러야만 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음악계는 오랫동안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조선의 음악 무대는 일본 음악가들의 활동 무대로 장악되었을 것이다. 또한 선생이 그토록 음악인재 육성과 음악 계몽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우리의 근대 음악은 일본 음악가들에 의해 일본의 식민 음악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비록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근대 음악문화는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지만, 흥난파가 있었기 때문에 음악의 식민지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난파는 짧은 생애를 살면서, 창작가곡으로 「봉숭아」 등 약 20편, 창작동요로 「고향의 봄」 등 100여 편, 창작 기악곡으로 「예수의 조선」 등 약 10편, 신민요와 영화 음악으로 「애련송」 등 약 10편, 그리고 저서로



난파 홍영후

는 음악평론집인 『음악만필』을 비롯하여 20여 권을 남겼다.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 가로서도, 지휘자로서도, 음악교육가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런데 수많은 업적 중 가장 큰 업적은 뭐니 뭐니 해도 ‘한국 음악의 난파(蘭坡)’를 만들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난파는 스스로가 ‘난(蘭)’이 되기보다는 ‘언덕(坡)’이 되길 바라면서 음악의 언덕이란 뜻을 가진 ‘난파’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한국 음악이라는 아름다운 난이 피기 위한 언덕을 만든 것이다. 오늘날 한국 음악이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언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 ‘ , ’

홍난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창하는 동요와 가곡을 가장 많이 작곡하였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 음악교과서에 가장 많은 곡을 수록한 작곡가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난파가 작곡한 동요와 가곡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랑을 받아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노래’로, 광복이 된 후에는 ‘범국민적 애창곡’으로 …… 지금도 몇몇 곡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예전 같지가 않다.

그런 반면 얼마 전부터 북한에서는 선생의 업적과 작품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하였고 작품도 발굴하여 보급하고 있는 중이다. 그 예로 1998년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음악명인전』을 보면, 선생을 “민족의 아픔을 깊이 감수하면서 동요와 예술가요<sup>13</sup> 창작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음악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조국애와 민족의 뉘를 심어 주고 우리나라 음악예술을 변천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한몫을 맡아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재평가하였다. 그리

고 「봉선화」<sup>14</sup>를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명곡”으로, 「고향의 봄」을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의 현실에 대한 슬픈 감정과 자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는 노래”라고 하면서 애창을 하고 있다. 또한 「봄치녀」를 비롯하여 「그리움」, 「사공의 노래」, 「사랑」, 「성불사의 밤」, 「옛 동산에 올라」 등과 같은 가곡과 「개구리」를 비롯하여 「골목대장」, 「기리기」, 「낮에 나온 반달」, 「달맞이」, 「도레미화」, 「동리의원」, 「바다가에서」, 「방아 찧는 색시의 노래」, 「병정나팔」, 「여름」, 「작은 별」, 「장미꽃」, 「종이배」, 「짚신짜」, 「키대보기」, 「풍당풍당」, 「하모니카」, 「햇볕은 쨍쨍」 등과 같은 동요도 발굴하여 보급을 하였다. 머지않아 난파의 작품 전체가 복원될 예정이다. 남쪽에서는 점점 안 불리는 데 비해 북쪽에서는 점점 불리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 조선족을 비롯하여 해외 교포들 사이에서는 난파의 작품이 여전히 애창되고 있다. 아마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가 아는 노래를 부른다면 흥난파의 곡이 제일 많을 것이다. 이 점은 남북 분단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흥난파의 곡이 ‘민족의 노래’와 ‘통일의 노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헤어져 산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은 노래를 통하여 민족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그 자체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해 주어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적인 민족적 정서를 찾을 수 있고 분단으로 말미암아 이질화된 민족 정서의 동질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과 민족 화합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능성의 씨앗이 바로 흥난파의 노래인 것이다.

「봉숭아」의 가사 중 “북풍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기를 바라노라.”라는 대목이 있다. 현재 남쪽에서는 흥난파가 ‘친일 행위’라는 찬바람을 맞아 형체가 없어질 지



\_팔달산에 있는 「고향의 봄」 노래비

정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민족의 노래’와 ‘통일의 노래’라는 꿈을 꾸는 우리 민족의 혼과 희망이 그 안에 있으니 머지않은 시기에 민족 화합과 통일이라는 봄바람에 환생하기를 기대한다.



수원의 근대 교육기관으로는 1896년에 수원군공립소학교가 최초로 설립되었다. 1902년에는 북감리교회(현 종로교회)에 삼일학당이 설립되어 그 뒤 삼일여학교(매향중·여고)와 삼일학교로 분리되었다. 미국 북감리교 여선교회의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Mary Fitch Scranton : 1832~1909)이 여학생 3명으로 삼일소학당을 개교한 것이 시초였다. 삼일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따왔다.

수원종로교회의 부속학교였던 삼일학교는 수원에서 처음 생긴 교회 학교로 지역사회 인사들의 기대가 남달랐다. 즉, 학교 설립은 선교사와 교회가 주축이 되었지만 운영과 교육 등에서는 지식인층의 교인들과 수원 유지들의 헌신에 힘입은



바가 컸다. 이들이 학교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설립 당시는 서당식으로 운영하는 매일학교의 형태였으나 차차 한말의 학제를 따라 4년 과정의 학교로 발전하였다. 여학교도 발전하여 학생수가 많아짐에 따라 1913년 현재의 위치에 벽돌로 건물(약 40평)을 짓고 이사하였다. 이 건물을 짓는 데는 밀러 선교사의 금전적인 도움이 컸다.

1907년 미국인 여자 선교사 룰라 아델리아 밀러(Lula Adelia Miller : 1870~?, 애칭 美羅)가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학교는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앞서 기술한 대로 교사 신축에도 금전적으로 앞장섰고, 1910년 3월 제1회 졸업생 4명을 배출하는 데에도 밀러 교장의 역할이 컸다.

밀러 교장은 1926년 학교 앞 수원천에 다리를 건설하는 데에도 사재를 쾌척하

\_밀러 교장

\_1909년 삼일여학교 학생들(독립기념관 소장)

였다. 1913년 학교가 이전하였을 때에는 학생들이 주로 화홍문을 건너 등·하교를 하거나 행궁 앞 오교(午橋)를 건너 학교에 오갔다. 학교를 개울 건너 지척에 두고도 천변을 빙빙 돌아야 했다. 더구나 그 시기의 여학생들이 경박스럽게 폴짝 뛰거나 옷을 걷고 물을 건너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물론 물이 적은 계절에는 학교 앞 개천을 징검다리로 건너기도 했다. 그러다가 밀러 교장의 초빙으로 1913년 학교에 부임한 김세환 학감은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을 한다. 그때 장안문의 성문이 떨어져 나뒹군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 문짝들을 옮겨와 임시 다리를 놓았다. 아쉬운 대로 개울을 건너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개울을 건너야 하는 모든 학생이 애용하는 다리가 되었다. 지금 같으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일이다. 그 ‘문화재다리’는 나중에 좀 더 튼튼한 쇠사슬로 엮어 튼튼한 다리로 바뀌었다.

그런데 1920년 홍수가 나면서 다리는 사라졌다. 1922년에는 아주 큰 홍수가 나서 화홍문과 남수문 등도 유실되었다. 이후 징검다리를 놓기도 하였고, 나무로 다리를 놓기도 했지만 큰비가 내릴 때마다 다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위중할 때 깨닫는 것처럼, 평소에는 다리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유실된 다음에는 그 없어진 것에 대한 미련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미 그 다리의 편리함을 누리다가 다시 불편함을 감수하기란 엄청난 고통이다.

이때 밀러 교장이 거금 1,400원을 흔쾌히 내놓은 것이다. 1926년의 일이다. 또한 김세환 학감이 6개월에 걸쳐 다리를 건설하는 총책임을 맡게 된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건축술을 다 동원하여 아주 튼튼한 ‘세멘다리’를 놓은 것이다. 사실 그때 김세환은 학교의 학감이 아니었다. 1919년의 만세운동 때 민족대표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1년여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학교로 되돌아가지 못하던 때였다. 조선총독부가 학교에 압력을 넣고 김세환을 요시찰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리를 건설하는 일까지 규제할 수는 없었다. 이 시멘트다리의 이름은 ‘삼일교’라고 붙여졌고, 학교뿐만 아니라 수원 전체의 명물이 되었다. 1927년 1월 23

일자 『동아일보』에 보도가 될 정도였다.

매일 500~600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오로지 이 삼일교로만 다니게 되었으니 수원에서는 삼일교를 잇을 수 없으며, 달밤에 다리 위로 거니는 취미도 여간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것이 아니다. 이리하여 삼일교를 수원의 신명물로 소개하기에 부끄럼이 없다.

밀러 교장은 1907년 부임한 이래 1937년에 정년퇴임할 때까지 학교의 발전에 온몸과 재산을 다 바친 사람이다. 더구나 퇴임하면서도 개인 재산 7,000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내놓았을 정도였다. 이는 그 자체로도 열악한 학교의 재정을 충족시키는 일이었지만 수원 지역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외국 사람이 수원 땅에서 우리의 학생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퇴임하는 마당에 개인 재



\_신축한 삼일여학교 교사(수원박물관 소장)



삼일교(1950년대, 수원박물관 소장) 오른쪽 나무 옆으로 보이는 서양식 건물이 학교이다.  
 밀러 목사 송별기념(오산교회 소장)

산을 기부한 것이다. 밀러 교장의 기부사건은 이후 수원의 갑부 양성관과 차유순이 중심이 되어 ‘35주년 기념사업회’의 조직으로 이어지고 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모금운동까지 벌였기 때문이다.

35주년 기념사업회 회장 양성관과 부회장 차유순이 1,000원, 수원의 여러 유지가 5,000원, 밀러 교장의 7,000원을 합해 총 1만 3,000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교사를 신축하였다. 게다가 양성관은 다른 교사 수리비를 부담하였고, 차유순은 교정 주위의 돌담을 건설해 주었으며, 교실 이전비를 부담한 사람, 라디오 겸 축음기를 기증한 사람, 전화기를 기증한 사람 등등 학교는 일시에 발전하게 된다.

1937년 6월 학교는 한 달 내내 개교 기념행사를 지속한다. 밀러 교장의 퇴임과 재산 기부, 수원 유지들의 기념사업회 조직 및 모금으로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이 열기는 학생들의 바자회·전시회·운동회를 더욱 활성화시켰고, 급

기야 6월 28일 열린 개교기념식에서 밀러 교장의 30년 봉직을 기념하는 「미라교장기념비(美羅敎長記念碑)」를 제막하기에 이른다. 1937년 6월 30일자 『매일신보』에 실린 밀러 교장의 퇴임사는 다음과 같다.



불초 내가 조선에 온 지 36년이오, 수원에 파송을 받아 제위에 누웠이 30년 이라. 그동안에 많은 애호를 감사하오며 본교 창립 35주년을 당하오니 감개 무량할 뿐입니다. 본교 35주년 기념을 위하여 많은 원조와 수고를 하신 여러분의 후의는 백골난망이오나 굽히어 나가서 일일이 사례치 못함을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이제부터 1년이나 혹은

「미라교장기념비」

2년 후에 고국에 돌아갈 터인고로 매양 염려되는 것은 학교가 기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찌 떠날 수가 있을까 근심하였더니 금번 수원 유지 제위와 졸업생 여러분의 동정과 열정이 본교에 집중되심을 보니 이제는 여한이 없는가 합니다. 미약하나마 30여 년 길이 이어 온 이 학교의 장래가 여러분의 손에 크게 빛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념식에 참석했던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이고 수원 유지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분위기이다. 수원을 사랑하고 교육에 헌신하였던 미국인 여교장 밀러를 기념하기 위한 이 비는 오늘도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행정실 옆에서 매향학원을 지켜 준다.

### 3·1

김세환(金世煥 : 1889~1945)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 중의 한 사람으로 수원 지역의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주인공이다. 그가 태어난 곳은 수원의 남수리(남수동)인데, 소년 김세환은 집에서 100여m 떨어진 수원 종로교회에 나가 신앙을 키우고 민족애를 배웠다. 그 후 보성중학(普成中學)을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 가서 주오(中央)대학에서 공부하였다. 별명은 동방삭(東方朔)이었는데,



김세환



하는 말마다 익살이 넘치고 재주가 많아서 붙여진 것 같다.

일본에서 신학문을 접하고 고향에 돌아온 김세환은 수원상업강습소에서 직조 감독관으로 일하며 동시에 선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수원의 조선인 상업인들이 주도해서 세운 수원상업회의소에서 부속사업으로 1909년 설립한 것이 수원상업강습소였으며, 이 학교는 사립학교로서 현 수원중·고교의 전신이다. 낮에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야학으로 운영되었다. 수원 상인들의 단결을 도모하고 일본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학교이다. 그러나 1915년 일제는 「상업회의소령」을 발표하여 기존의 상업회의소에 대한 견제를 하였다. 이에 1916년 4월 수원상업회의소가 해체되면서 강습소는 폐쇄 위기를 맞았다. 이에 지역 유지들의 노력으로 상업강습소를 주학으로 전환하여 화성학원(華城學院)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였다.

\_1916년 삼일여학교 학감 재직 시절 김세환(독립기념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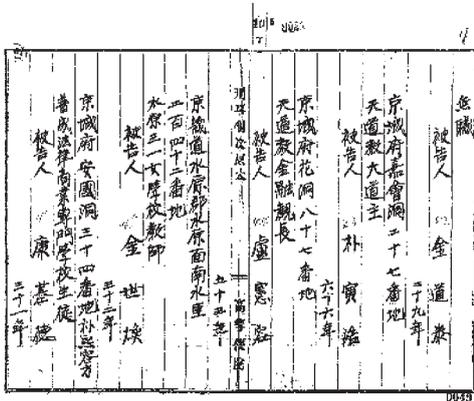
1909년 삼일여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밀러 선교사의 요청으로 김세환은 삼일여학교 학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장안문 문밖을 가져다가 학교 앞 수원천에 다리를 놓는 등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항일의식을 고취시켰음은 물론이다.

삼일학교 학감으로 재직하면서 김세환은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는 학교 교사 초빙문제로 중앙 YMCA 간사이며 같은 북감리교회의 전도사인 박희도를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서로 신앙과 인격과 사상에 공감되어 같이 일할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박희도의 권유로 1919년 2월 21일 밤 처음으로 이갑성의 집에서 열린 독립모의에 참여한다. 거기서 김세환은 경기·충청도 일원의 운동 책임자로 선임되었다. 당시 경기·충청도 지역은 북감리교회 구역으로, 수원과 공주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에 감리교회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목사 가운데에도 독립의지를 지닌 인물이 많았다.

김세환은 책임을 맡은 후 충청도의 해미와 공주, 경기도의 수원을 비롯하여 오산과 이천 등을 오르내리며 뜻이 같은 목사 40여 명을 만나 독립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승낙을 받아 냈다. 그리고 3월 1일 오전 6시 서울로 올라갔다. 본래는 파고다공원에서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를 계획이었으나, 혹시 폭동이 일어나 희생자가 날 우려 때문에 명월관으로 장소가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다. 오후 2시에 파고다공원에서 열린 학생들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였고, 군중과 함께 당주동·종로·무교정·경성일보사 앞까지 행진하면서 만세를 불렀다. 서울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한 김세환은 곧바로 수원으로 내려오지 못하였는데 이미 수원에서도 만세 주동자들의 체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수원 지역의 3·1운동 역시 김세환의 주도적 역할 아래 전개되었다.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김노적은 수원상업강습소 제2회 졸업생으로 김세환의 제자였고, 박신태는 수원상업강습소 보조교사로 그의 후배였기 때문이다.

처음에 김세환과 김노적은 삼일학교 교정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수원



시내를 거쳐 화성학원까지 가는 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일본 경찰에 어느 정도 알려진 듯하여 저녁 햇불시위로 대체하였다. 그래서 3월 1일 저녁 방화수류정(용두각)에서 수백 명이 모여 햇불시위를 시작했으며, 봉수대와 팔달산 화성장대 등에서 햇불이 올랐다. 이러한 햇불시위는 수원군 전역으로 퍼져 나가 전국적으로 가장 격렬한 만세항쟁을 펼치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세환은 1919년 3월 12일 서울에서 체포되어 법정

에 섰다. 그는 “아무리 세 계대세로 병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가슴속에 원한을 품었는데, 모든 물건을 대할 때 초목에서 흐르는 이슬도 눈물이나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래에 정정당당히 조선 사람은 권리를 찾고, 일본 사람은 권리를 돌려보낼 시기가 올 줄 안다.”라고 조선독립의 정당함을 논리정연하게 대답하였다. 일본인 재판장이 “이후에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계속 운동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김세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짧고 명료하게 대답하여 방청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_김세환 수형기록표(국가편찬위원회 소장)

\_김세환 재판기록(국가보훈처 소장)



김세환은 1920년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석방되어 수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일제의 간섭에 따라 삼일여학교 교사로 복귀하지 못하였다. 수원 시내에서 곡물상을 운영하며 사회활동을 하고 여러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독립운동을 대신하였다. 그렇지만 1927년에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연합하여 조직한 신간회(新幹會)에 참여하였고, 이듬해인 1928년 8월 열린 임시대회에서 신간회 수원지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국민이 건강해야 나라를 되찾는다는 일념에서 수원체육회를 조직하고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족주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김세환은 화성학원과 삼일학교 및 종로교회를 근거로 활동하였다. 수원 지역

삼일학교 아담스기념관 앞에서 수원학생친목회 화성팀과 기념촬영(독립기념관 소장)



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교육자요, 유지로 활동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세운 원칙대로 평생 술과 담배를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한다. 1930년대 들어 김세환의 독립운동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친일활동을 했다는 기록도 없다. 그저 그가 수원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은 든든했을 것이고, 일제에 기죽지 않았을 것이다.

김세환의 삶에서 수원 지역 교육에 앞장선 것은 특히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삼일여학교 학감으로 현 매향중학교와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를 발전시킨 일, 1939년 삼일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처하자 회생시켰던 업적도 크다. 당시 김세환은 수원 출신 갑부들을 설득하여 기부금을 받아 학교를 살렸다. 또 1941년 폐교되었던

김세환 선생 3·1운동 기념비

화성학원을 수원상업학교로 다시 설립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상업강습소가 화성학원에서 수원중·고등학교로 100여 년간 이어지게 한 주인공이 아니던가.

김세환은 3·1운동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33인에 들지 못하고 48인 중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민족대표 33인 중 상해로 탈출한 김병조나 예심 중에 옥사한 양한묵을 제외한 31인, 제2선에 머문 사람, 문서를 전달한 사람과 학생동원을 맡았던 이들, 그리고 황해도 수안사건의 주도자들 등 모두 17인이 경찰과 법원에서 한사건으로 묶어져 이른바 3·1운동 48인이 된 것이다.

김세환은 광복을 맞이한 지 한 달 뒤인 1945년 9월 16일 수원의 자택에서 운명하였다. 향년 57세. 해방된 조국의 자유로운 하늘 아래였다. 정부는 김세환의 독립운동 업적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고, 그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리고 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그의 정신을 기려 수원중·고등학교 교정에 기념비를 세웠다.

「 ’ —  
」 」

2011년 현재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의 SK그룹은 1953년 수원에서 비롯되었다. 최종건(崔鍾建 : 1926~1973)이 경영한 선경직물주식회사와 선경석유주식회사 등이 모태가 되어 오늘의 거대 기업군을 거느리게 된 것이다. 최종건은 1926년 수원의 벌말(평동)에서 태어나 신흥공립심상소학교(현 신흥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경성직업학교(京城職業學校) 기계과를 나와, 19세 때인 1944년 선경직물

주식회사 수원공장 공무부 견습기사로 입사하였다. 선경직물은 조선의 선만주단과 일본 교토(경도)직물이 합작한 회사여서 두 회사의 앞 글자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 최종건은 어린 나이와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건장한 체격과 성실한 작업 능력으로 승진을 거듭한다.

곧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억눌렸던 자유는 혼란한 사회질서를 불렀다. 이런 혼란은 선경직물에도 닥쳤으나 최종건은 선경치안대를 조직하여 대장(隊長)으로 활약한다. 당시의 직원 중 한 명은 최종건이 눈이 부리부리하고 키가 커서 그 커다란 덩치에 한 마디 하면 누구도 꺾이기 힘들었을 정도라고 하였다. 최종건은 선경직물주식회사 한국인 소주주들과 협의하여 공장 가동에 힘을 기울였다. 당시 그는 수원시 태백문화동지회 회원으로 활약하였고, 곧이어 1947년 대동청년단 수원시 평동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폭을 넓힌다.

그러나 최종건이 젊음을 불태운 선경직물은 한국전쟁 중 폐허가 되다시피 한



\_선경직물 조장 시절(김재현 외, 『선경 : 미래를 향한 위대한 열정』, 2008) 두 번째 줄 왼쪽에서 첫 번째가 최종건이다.

다. 1949년 혼인까지 한 최종건에게 이제 선경직물은 생활터전이 되어야 했다. 일 가족이 생활할 근거가 이 공장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폐허 속에서 건진 것은 낡은 직기 4대뿐이었는데, 그는 이를 조립하여 선경직물주식회사를 재건하였다. 1953년 최종건은 귀속재산이었던 선경직물을 불하받았고 불과 5년 만에 보유 직기 1,000대의 대기업으로 발전하였다.

최종건은 선경직물을 국내 제일의 직물공장으로 키우기를 원하였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때부터 최종건의 품질 제일주의가 시작되었다. 1955년에는 광복 10주년기념 산업박람회에서 ‘닭표 안감’으로 상공부장관상을 수상하였는데, 그의 ‘품질경영’이 빛을 발한 것이다. 이듬해에는 수원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또 1958년에는 ‘봉황새 이불감’을 생산하여 1950년대 직물시장을 풍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경직물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0년에는 수원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피선되어 지역



\_1956년 선경직물 창립 3주년을 맞아 종업원과 함께 떠나는 야유회(김재현 외, 『선경 : 미래를 향한 위대한 열정』, 2008)



상공인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였다. 1962년에는 레이온 태피터를 홍콩에 수출하였는데, 이는 한국 직물사상 최초의 일로 한국 섬유산업의 신기원이었다. 이해에 5·16기념 산업박람회에서 상공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선경산업(주)을 설립한다. 1950년대 후반에는 한국 최초로 합성직물인 나일론·데드론을 생산한 데 이어, 1960년대 들어서는 크레폰·양고라·갈갈이·스카이론 등 각종 직물을 개발하였다.

1963년 최종건은 제18회 광복절 기념식에서 건국 후 최초의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1964년에는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수원공장을 찾아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근로자와 임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그리고 1965년에는 수출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이는 거의 해마다 받는 연중행사가 되다시피 하였다. 1967년에 그는 수원상공회의소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된다. 그리고 제7대, 8대 회장을 연임하다가 1973년 급서하는 바람에 동생인 최종현이 그룹의 회장을 맡았고, 이내 상공회의소 회장도 물려받았다. 최종

—닭표 안감과 봉황새 이불감(김재현 외, 『선경 : 미래를 향한 위대한 열정』,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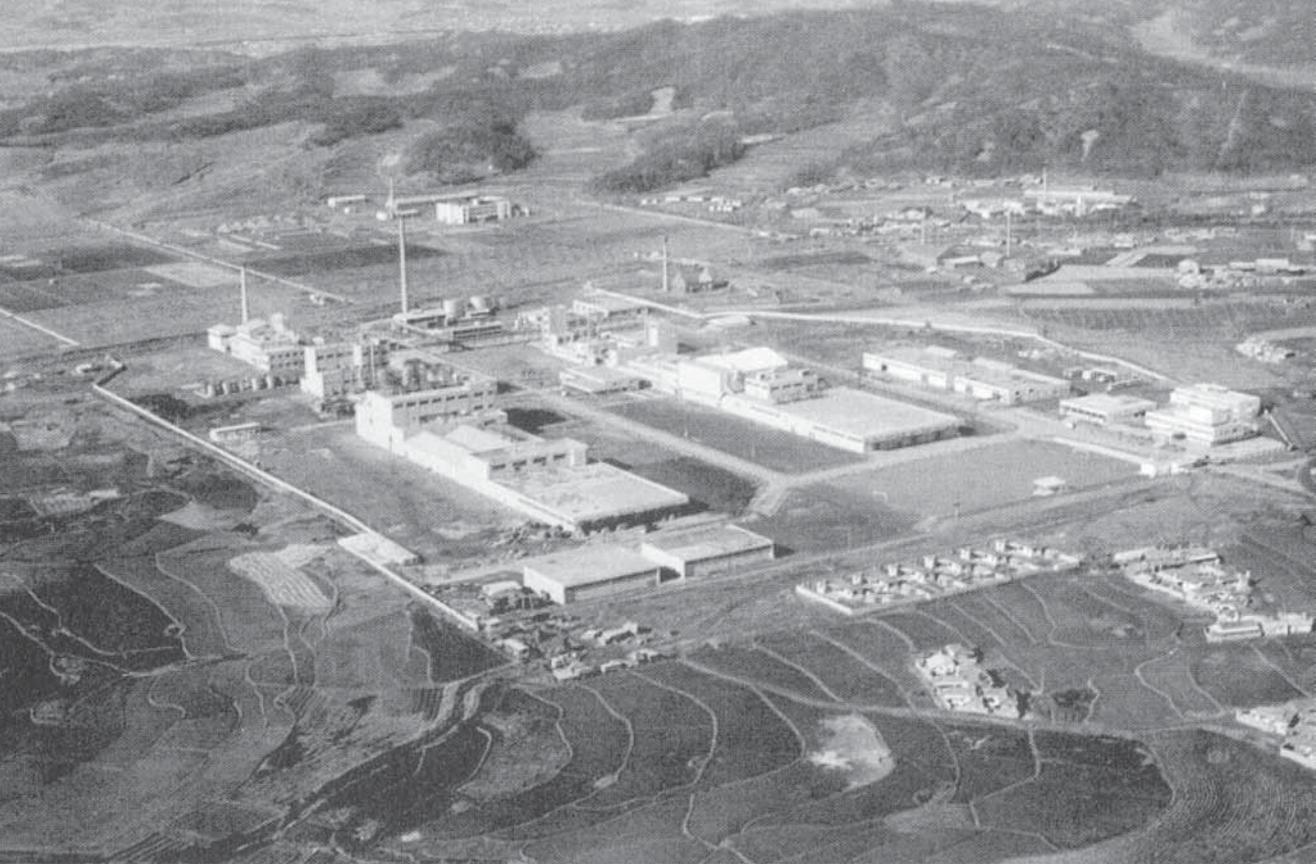
현은 이후 제13대까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을 연임한다.

선경이 국내 유수의 대기업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부터이다. 최종건은 십수 년의 준비 끝에 아세테이트 원사와 폴리에스터 원사 공장을 건설하였다. 1968년 3월과 6월, 선경의 성장에 커다란 디딤돌을 놓은 두 공장의 연이은 완공은 섬유업계의 충격과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최종건이 두 공장의 완공과 함께 선경합섬과 선경화섬을 설립했을 때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것은 최종건의 불같은 추진력과 치밀한 지략이 하나로 어우러진 결과였다.

최종건은 1973년 섬유산업의 계열화를 위해 석유산업으로 사업을 넓힌다. 1973년 한 해에 선경유화주식회사(鮮京油化株式會社)와 선경석유주식회사(鮮京石油株式會社)를 설립하였다. 섬유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석유화학공업이 필요하고, 나아가 석유정제사업까지도 하여야만 섬유산업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저렴한 생산비용을 보장한다는 신념으로 석유산업에 도전하였다. '석유에서 섬유까지'라는 그룹의 큰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1973년부터는

\_1964년 선경직물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을 안내하는 최종건(김재현 외, 『선경 : 미래를 향한 위대한 열정』, 2008)

\_1973년 제8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한 최종건(수원상공회의소 소장)



당시 MBC TV의 '장학퀴즈' 프로를 선경이 독점으로 후원하였다.

수원역 뒤 평동에 가면 그 옛날 선경직물의 본사가 아직 그대로 존재한다. '닭표 안감'이며 '봉황새 이불감'을 디자인할 때 사용하던 도안 기계가 2층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데 건물도 튼튼해 보인다. 전쟁의 잣더미를 헤치고 1953년에 건축했으니 50년도 훨씬 넘는 연륜을 가졌다. 근로자들이 자재를 날라 가면서 공을 들여서 만든 건물이라 그런지 앞으로 50년도 무난할 것처럼 보인다. 당시만 해도 경기도의 유일한 2층 건물이었다고 한다. 여하튼 선경직물로 인해 평동 사람들이 모두 먹고 산다는 얘기가 들릴 때였다. 최종건은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였다. 회사에 간이침대 하나를 두고 밤샘하기 일쑤였으며, 심지어 병중에도 공장 상황을

원공된 선경합섬 공장(김재현 외, 『선경 : 미래를 향한 위대한 열정』,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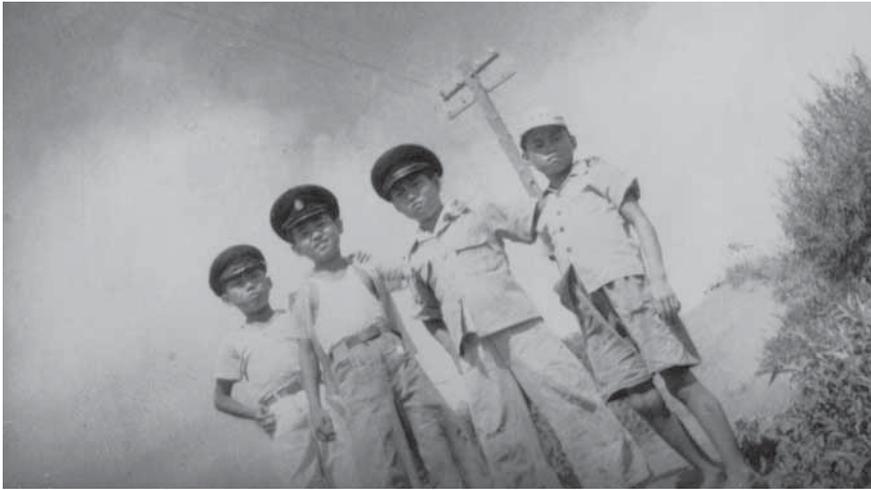
챙기고 직접 찾아가 현안을 해결하고는 하였다.

그러나 최종건은 48세 한창 일을 할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였다. 그는 태어나 자란 곳이자 그룹의 모태가 된 신경직물이 자리한 수원에 대한 사랑도 각별하였다. 이에 선정그룹은 팔달산 아래 법원과 검찰청이 자리 잡았던 부지를 사들여 1991년 도서관 부지로 수원시에 기증하였다. 1993년에는 도서관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1995년 준공하여 개관하였다. 그리고 도서관 마당에는 최종건의 동상을 세워 그의 기업정신과 수원에 대한 향토애를 오래도록 기리고 있다.



이병희(李秉禧 : 1926~1997)는 수원 정치인의 상징이었다. 수원을 지역구로 하여 7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옮기는 일과 삼성전자를 유치하는 일 등을 앞장서 추진하였다. 그래서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대부분의 수원 시민은 정치인 하면 ‘이병희’, 국회의원 하면 ‘이병희’ 하는 등식으로 여기기까지

최종건 동상



하였다.

이병희의 본관은 성주(星州)이고, 아버지는 문순(文淳)이다. 경기도 용인의 가난한 농가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지금의 삼일상고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1949년 8기로 졸업하고 육군소위로 임관하였다. 군에서는 정보계통(육군특무대)에서 오래 근무하였고, 1958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다.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하고 김종필 등 육사 8기 졸업생들이 일으킨 5·16군사쿠데타에 참여하였다. 1962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창설되었을 때 육사 동기인 김종필 정보부장 아래에서 서울시지부장을 맡았다. 이병희는 특히 김종필과 교분이 두터웠으며, 정치적인 행로도 늘 함께하였다.

이병희는 1962년 육군대령으로 예편하면서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선다. 민주공화당 창당에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공천으로 수원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그의 나이는 38세였다. 이때부터 제7·8·9·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속으로 당선되었다. 1980년 신군부가

\_삼일학교 재학 당시 이병희(김제명 제공)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병희이다.



정치규제를 할 때 이병희도 규제대상에 올랐다. 그래서 11대와 1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하였고, 이후 제13대와 제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7선을 기록하게 된다.

이병희는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여러 당직과 장관직도 맡았다.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장과 원내 부총무, 국회운영위원장, 제1무임소장관,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당무위원, 정책위원회 부의장, 중앙위 의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1984년 정치규제에서 풀리면서 1987년 김종필 등의 신민주공화당에 참여하여 수석부총재와 경기지부의 위원장을 맡는다. 이듬해인 1988년 신민주공화당의 공천으로 13대 국회에 입성한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정주영(鄭周永)의 국민당이 바람을 일으키면서 낙선하였다. 1995년에 김종필이 민자당에서 이탈하여 자유민주연합을 결성할 때 그 역시 행동을 같이하여 총재상임고문과 수원시 장안지구당위원장 및 경기도지부위원장을 맡았다. 그 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공천으로 당선되었으며, 1997년 1월 13일 지병으로 별

정치지 행보를 함께한 이병희와 김종필  
 \_1969년 민주공화당 당원단체대회에서 찬조연설하는 이병희(김제명 제공)

세하였다.

이병희는 1964년 대한농구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래 1980년까지 연임하면서 한국 농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1965년 아주농구연맹 부회장을 지내고, 1967년에는 대한체육회 부회장 겸 한국올림픽위원회(KOC) 상임위원을 지냈으며, 1971년 아세아농구연맹회장 겸 세계농구연맹 부회장을 지냈다. 그리고 1980년부터 1997년까지 대한농구협회 명예회장 등 체육 관련 직책을 오랫동안 겸임하였다.

이병희는 후덕한 얼굴과 단정한 복장, 인간미가 뚝뚝 넘치는 언행을 보였다. 오랫동안 수원에서 정치를 했으므로 시민 대다수를 알기도 했지만 비상한 기억력으로 시민들을 챙기는 데에도 앞장섰다. 웬만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병희는 “아버님 안녕하시지?” 하고 물었다. 심지어 수원 시민들의 주례도 많이 서서, “이병희 만나려면 예약장에 가면 된다.”고 했을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병희의 도움으로 취직하였고, 수원 시내 큰 상점에는 금빛으로 ‘국회의원 이병희’라고 쓴 시계가 걸렸으며, 집집마다 ‘이병희 달력’이 벽을 장식하였다. 이병희가 정치규제에 걸려 정치활동을 쉴 때 만났던 당시의 한 대학생은 “종로 뒷골목의 술집에서 뵈었는데 인사를 드리니까 우리 집안 사정까지 모두 꿰어서 놀랐고, 전자올갱을 치면서 구수하게 노래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7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수원에서는 이병희를 통하면 무엇이든 된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병희에게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은 가장 큰 업적이다.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이병희는 머리를 삭발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을 찾아갔다. 국회의원 사직서를 주머니에 넣어 갔다는데, 이는 이병희 스스로 배수진을 친 승부수였다는 점을 증명한다. 이 자리에서 이병희는 경기도청을 인천이 아닌 수원으로 옮겨 달라고 답판을 지은 것이다. 그날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해체되는 날이었는데, 밤 8시경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이 확정 발표된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도청의 이전은 단순히 도청만 옮



겨 오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관련 단체와 산업의 대이동이 뒤따르는 법이어서, 도청 이전만 가지고도 그 경제적 효과가 수원에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이병희는 삼성전자 등 여러 기업과 공장들을 수원에 세우게 하는 데에도 공을 세웠다. 당시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을 설득하여 삼성전자가 수원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본래는 장안구 울전동, 지금의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일대 부지를 이병희가 추천하였으나, 이병철 회장이 구릉지가 많아 개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하여 지금의 매탄동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밖에도 한일합섬, 선경합섬 수원공장, 연초제조창 등을 수원에 세우게 하여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수원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이바지하였다. 심지어 삼성전자의 월급날부터 대역새 동안 수원은 강아지도 돈을 물고 다닌다고 했고, 다른

경기도청사 기공식 축하행사(수원박물관 소장, 『어제가 꿈꾸는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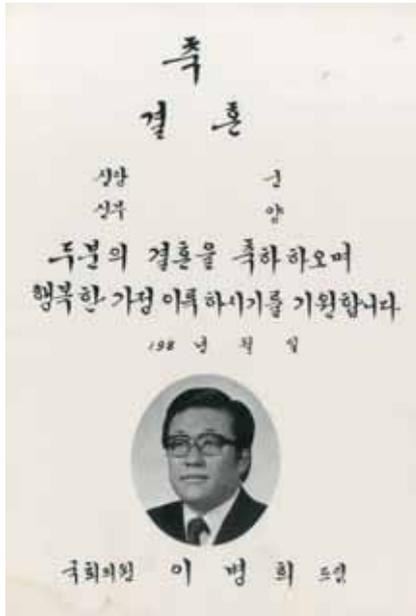


기업들의 월급날이 제각기 달라서 영동시장은 일 년 내내 대목이라는 말까지도 나왔다.

이병희는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수원 화성의 복원을 건의한다. 정조 임금의 효심이 담긴 유적이며, 국방 유적으로서 손색없는 화성을 우선 복원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은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많이 기울일 때여서 화성 복원에 긍정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쇠락하거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파괴된 화성을 복원하게 되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4년에 걸친 대대적인 보수였다. 만약 그때 복원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경비와 노력이 들어갔을 것이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이병희는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도청 이전과 삼성전자 등 기업 유치, 화성 복원

\_수원성곽복원보수공사 기공식에 참석한 이병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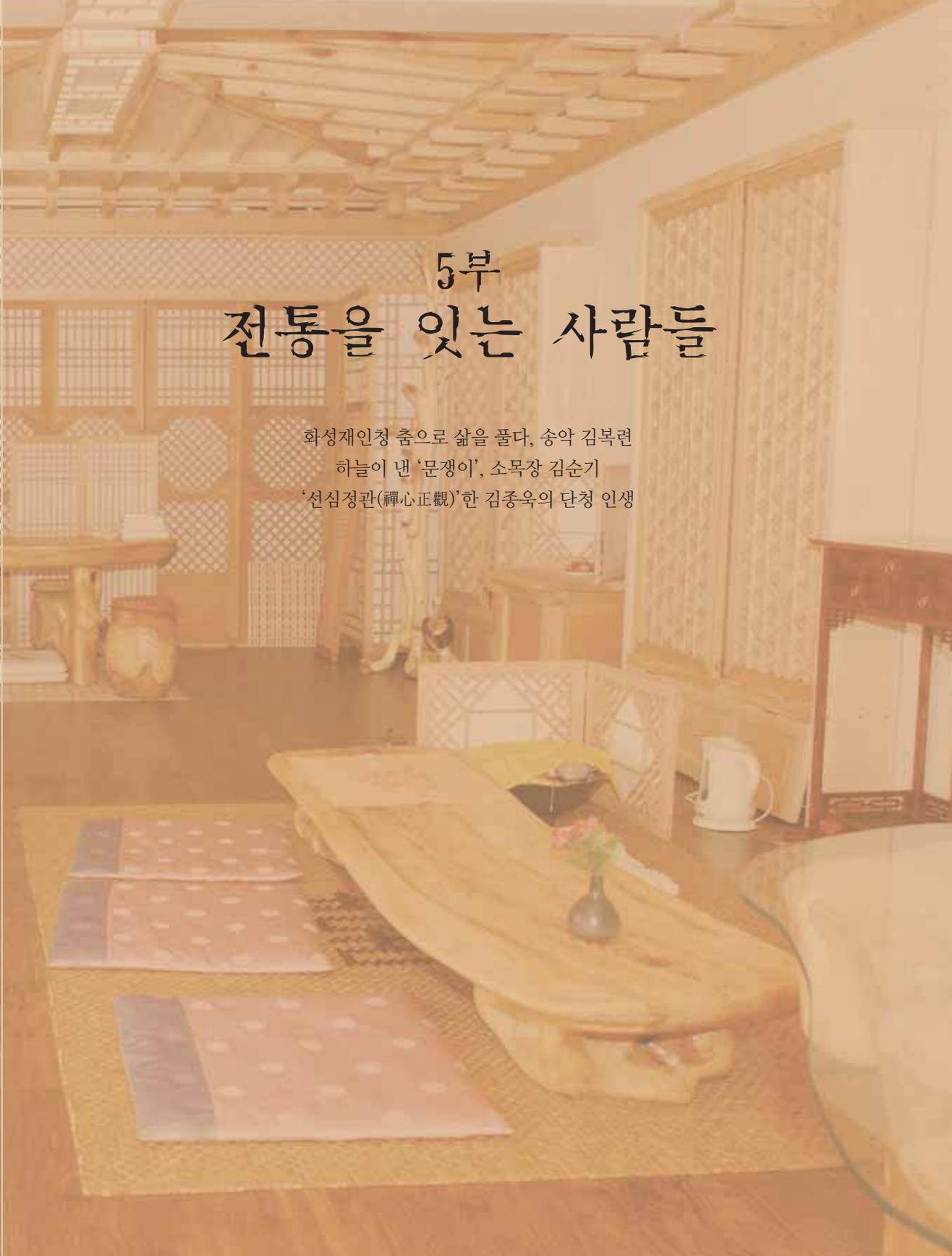


등을 이끌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주례를 부탁하면 열 일 제치고 흔쾌히 주례를 서 주었다. 향간의 소문에는 만 쌍 넘게 주례를 서서 기네스 북에 올랐다는니, 최소한 5,000쌍은 넘었다는니 하는 말이 들린다.

이병희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1999년 5월 당시 케이블TV 수원방송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홍기현, 우봉제 상공회의소 회장, 수원예총 회장 정규호 등이 주축이 되어 이병희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아 성금 1억 3,000여 만 원을 모금하여 2000년 5월 19일 만석공원에 동상을 세웠다. 화성을 복원시킨 그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여 동상 정면을 팔달산 정상에 서장대를 바라보게 하였다.

\_이병희의 결혼 축하문 양식  
\_이병희 동상





# 5부 전통을 잇는 사람들

화성재인청 춤으로 삶을 풀다, 송악 김복련  
하늘이 낸 '문쟁이', 소목장 김순기  
'선심정관(禪心正觀)'한 김종욱의 단청 인생



김현미\_수원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 01

,

—  
삶은 살(煞)이런가  
양금처럼 쌓여진 번뇌  
그 감기고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오늘도 춤을 춘다.

감아서 넘기고  
돌려서 푸는  
풀이 풀이 살풀이여!  
그 무수한 선(線) 속에  
내 몸은 비로소 자유가 된다.  
- 김복련의 살풀이춤을 보고 어느 시인이 지은 시 「살풀이」의 일부

흰 한복 곱게 차려입고 긴 명주수건 두 장을 손에 쥐고 무대에 올라 정(靜)과 동(動)의 춤사위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고 풀어 주는 사람이 있다. 경기도 무형 문화재 제8호 승무·살풀이춤 예능보유자 송악(松岳) 김복련이다. 그는 화성재인

청의 마지막 예인 운학(雲鶴) 이동안과 그의 제자 옥당 정경파에게 화성재인청(華城才人廳) 춤을 전수받아 그 맥을 잇고 있다.

김복련은 1948년 예향(藝鄉) 강릉에서 태어났다. 서예에 조예가 깊었던 조부는 소리와 북장단에도 능했고, 철도공무원이던 아버지도 소리를 잘해서 가끔씩 사람들에게 판소리 한 자락을 들려주곤 했다. 예술을 즐길 줄 아는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 김복련도 어려서부터 조부의 북장단에 맞춰 춤을 추었고 학교 학예회에

\_송악 김복련의 살풀이춤



서 연극이든 무용이든 주연을 도맡아 했다고 한다. 그녀가 춤을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내 무용반에 들어가면서부터다. 학예회 무대에 서던 예쁘장한 여학생에게 담임선생님이 춤을 권했고 그 여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춤에 빠져들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언제나 춤과 함께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때 아버지가 타지 발령을 받아 가족이 강릉을 떠나면서 춤과 멀어지게 되었다.

춤을 그만두고 나서 김복련은 몸이 아프기 시작하였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많을 정도로 아팠지만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 딸이 이유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자 어머니는 무당을 찾아갔다. 신병(神病)이라고 했다. 그런데 신을 받아서 풀어내야 하는 건 아니니 신을 받지 않는 대신 시집을 늦게 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김복련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어 고향 오빠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강하게 반대하였다. 고향 오빠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국 스물한 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원인 모르는 고통에 시달렸다. 남매를 낳고서도 제 손으로 키우지 못하고 1년에 반 이상을 병원에서 지내다시피 했다. 한밤중에 열이 올라 응급실을 찾는 것도 예사였고 아이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는 몸의 반쪽이 마비되기까지 했다. 병원에서는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봐서 '신경성'이라는 진단만 내리니, 답답한 마음에 굶도 하고 점도 많이 보러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신의 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김복련은 춤을 그만두긴 했지만 아예 떠나진 않았다. 무당의 춤이라도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동네에서 굿하는 곳마다 찾아다녔다. 몸을 가누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 만큼 기력이 없었음에도 무당이 춤추는 것을 보고 있으면 따라서 어깨가 들썩들썩해지고 기분이 좋았다고 한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굿 구경을 다니며 춤에 대한 갈증을 풀어낼 수가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남편의 근무지를 따라 수원에 살 때였다. 아파서 누워 있으면 어디선가 어린 시절 들었던 북장단이 들려왔다. 비록 환청이었지만 북장단은 김복련의 기억 속에



첫딸 들 무렵의 가족사진(김복련 제공)  
아이들과 시어머니와 함께(김복련 제공)

서 춤을 끌어냈다. 전에 곳을 해 주었던 박수무당에게 춤을 가르친다는 그의 수양어머니를 소개받아서 아픈 몸을 끌고 찾아갔다. 찾아간 곳은 화령전으로, 화성재인칭의 춤을 전수받은 정경과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며 기거하고 있었다. 화령전 문을 슬그머니 열고 들어가니 장군 분위기를 풍기는 정경과 선생이 풍화당 문가에 앉아 있었다. 정경과 선생은 기에 눌러 꿈쩍 못하고 서 있는 김복련에게 대뜸 “몸이 아파서 왔구만. 들어와 봐.” 하며 그녀를 풍화당 안으로 들였다. 그것이 그녀를 춤꾼으로 만들어 준 스승과 첫 만남이었다. 한 달 등록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일주일에 3일 다니기도 어렵던 것이 어느샌가 하루라도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1년쯤 후에는 의료보험증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 하루 15시간을 춤에 빠져 지내기도 했다. 열다섯에 그만두었던 춤을 20년이 지나 다시 시작하면서 김복련은 비로소 제 길을 찾았다.

정경과 선생은 김복련에게 장구·소리·춤을 모두 배워야 한다고 했지만 소리와 장단은 너무나 배우기 싫었고 오로지 춤만 추고 싶었다고 한다. 그녀의 몸은 어릴 적 배웠던 춤사위를 기억하고 있었다. 제법 잘 갖춰진 그녀의 기본기를 보고 스승은 자신의 승무를 가르쳐 주면서 장삼자락에 한을 풀어내라고 했다. 화성재인칭 승무는 장삼을 뿌리는 동작이 다른 계열의 승무에 비해 많은 편인데, 장삼의 소매자락을 뿌릴 때마다 그녀는 20년 넘게 쌓인 한을 조금씩 풀어냈다. 그렇게 3개월간의 집중 훈련을 통해 승무를 익히고서 잊을 수 없는 첫무대에 섰다. 불가에서 극락문이 열린다고 믿는 백중(伯仲)에 팔달산대승원의 조상천도기도법회에서 승무를 추었다. 비쩍 마른 몸에 시커먼 얼굴을 하고 제 몸 가누기조차 힘들어 하던,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던 사람이 하얀 고깔을 쓰고 장삼자락을 휘날리며 무대에서 춤을 추었다. 김복련은 가슴으로 울며 춤을 추었고, 그 모습을 보며 가족과 친구들도 울었다. 그렇게 김복련은 다시 살아났다.

화령전에서 춤을 다시 시작하면서 김복련의 생활은 이전과 매우 달라졌다.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춤에 빠져 살았다. 정경과 선생에게 기본무·살풀이춤·진쇠무·태평무·신칼대신무 등 여러 종류의 재인칭 춤을 배웠다. 스승 정경과는 화성재인칭 춤의 전승자 운학 이동안의 제자였다. 부모에게 예인의 피를 물려받아 14세부터 남도창을 배우기 시작해서 26세에 아버지 이동안을 찾



아와 재인칭의 춤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부녀가 함께 ‘경기도재인칭전승회’를 만들고 옛 화성재인칭 자리인 화령전을 보수해서 재인칭 춤과 소리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김복련이 정경파 선생을 만났을 때는 이동안이 정경파에게 화령전을 물려주고 서울로 올라가 무용연구소를 운영하던 때이다. 친식을 앓고 있던 스승은 숨이 차서 직접 시범을 보이기 어려웠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본을 두고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분이나 몸 상태에 따라 그때그때 약간씩 달라지는 춤사위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다. 김복련은 춤에 대한 열정이 점점 커지는데, 기력이 쇠한 스승이 그 열정을 다 받아 주지 못하자 돌파구를 찾았다. 그녀가 대승원에서 보여준 승무를 보고 이동안 선생이 “이게 아니다.”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재인칭 춤의 원형을 직접 배우고 싶은 마음에 이동안 선생을 찾아갔다. 이른 아침 전



..左 화령전에서 추는 승무(김복련 제공)  
..右 정경파와 함께한 살풀이춤 공연(김복련 제공)

철을 타고 서울 신설동에 있는 무용연구소로 찾아가 이동안 선생에게 기본무·승무·진쇠무·태평무 등을 배우고, 점심 무렵 수원으로 내려와 정경과 선생의 제자 노릇을 했다. 체력이 약했던 김복련에게 서울과 수원을 오가는 일정은 너무 힘들었지만, 같은 듯 다른 두 스승의 춤을 배워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성장해 가는 행복한 시절이기도 했다.

이동안은 자신의 재인칭 춤이 무형문화재에 지정되기를 원했지만 소원을 이루지 못했고, 제자인 정경과가 경기도무형문화재에 이름을 올렸다. 1990년에 재인칭류 승무와 살풀이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심사에서 정경과는 살풀이춤, 김복련은 승무를 추었다. 몸이 아픈 스승은 자기 대신 김복련에게 승무를 추게 한 것이다. 1991년에 승무와 살풀이춤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



—화령전 영신제에 참여한 화성재인칭 춤 3대(김복련 제공) 정조 분장을 한 김복련의 왼쪽은 혜경궁 홍씨 분장의 육당 정경과, 오른쪽은 신현숙 전주조교이다.

어 정경과는 예능보유자가 되었고, 김복련은 1995년에 전수조교가 되었다.

화성재인청 춤의 전수조교가 되었지만 김복련의 춤에 대한 무한한 관심은 다른 춤에도 눈길을 돌리게 했다. 재인청류 춤은 내면을 절제하여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라서 화려한 기교를 보여 주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젊은 춤꾼 김복련은 예쁘게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스승 몰래 교방계 춤을 배우러 다녔다. 일종의 ‘외도’였다. 유명한 춤꾼 이매방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춤을 보고 반해서 3년간 서울로 교방계 춤을 배우러 다녔고, 남편이 전주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는 수원과 전주를 오가면서 전주소립국악원에 들어가기도 했다. 전주소립국악원의 김조균 선생은 김복련의 재능을 보고 전주대사습놀이예 출전할 것을 권유하였다. 제자를 전주대사습예 출전시키고 싶었지만 아직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김조균 선생의 간청을 거절하지 못해 한 달간 교방계 춤을 연습해 제22회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다음 해에 다시 출전하면 장원을 할 수 있다는 선생의 말을 뒤로 하고 화령전으로 돌아왔다.

미와 기교를 드러내는 춤을 추고 싶어 교방계 춤을 10여 년 배우고 나서 김복련이 깨달은 것은 교방계 춤의 매력이 아니라 재인청 춤의 기품 있고 담백한 아름다움이었다.

재인청 춤은 어깨에선 흥이 솟아나고 가슴에선 색이 우러나요. 무릎에선 멋이 드러나고 발끝에선 격이 묻어나죠. 전반적으로 정적인 동작들이지만, 몰아치는 동작들은 그 어떤 춤보다 격정적이에요. 맺어 주고 풀어 주는, 정중동을 갖추면서 흥과 색과 멋과 격을 모두 갖춘 최고의 춤입니다.

재인청의 춤들은 기원설화를 가지고 있으며, 춤의 내용도 다른 계열의 춤들과 조금씩 다르다. 승무는 장삼을 뿌리는 동작이 가장 많은 편이며, 다른 승무처럼 북 놀음으로 끝나지 않고 고깔·가사·장삼을 벗어 북에 거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긴 장삼자락에 한과 번뇌를 담아 날려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떠나는 걸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살풀이춤은 수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것이 특징인데, 수건 두 개로 그리는 태극무늬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 삶과 슬픔을 환희로 승화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재인청에만 있는 신칼대신무는 죽은 영혼을 달래주는 춤이고, 연회에서 추었다는 태평무와 진쇠무는 무속장단의 영향으로 춤의 구성내용이 다양하며 극적인 흥미를 이끌어 내는 흥겨운 춤이다.

만약 김복련이 다른 춤에 대한 욕망을 그냥 묻어 두었다라면 재인청 춤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은 지금처럼 강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시 재인청으로 돌아온 후로는 결눈질을 하지 않았다. 화성재인청의 춤을 지키는 일, 그것이 김복련의 유일한 꿈이 되었다.

재인청은 조선시대 직업적 민간 예능인들의 전통무용·국악기·관소리·땅재주·줄타기 등의 교육과 행정을 담당했던 기구로, 경기도·충청도·전라도의 각 군(郡)에 설치했다고 전해진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 재인청은 현재의 수원인 화성(華城)에 두었고, 화성재인청이 전국의 재인청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인청의 재인들은 평상시에는 자기 고장에서 굿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국가적 큰 행사가 있을 때 서울로 동원되어 공연에 참가했다고 하는데, 현재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예능 종목 가운데 많은 종목이 재인청을 통해 전승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복련의 스승 이동안은 바로 이 화성재인청의 마지막 도대방(都大房) 출신으로 춤·소리·장단 등 재인청의 모든 기예를 섭렵한 예인이었다. 생전에 이동안은

자신의 춤이 재인청과 광무대에서 최고의 선생들에게 사사한 진짜 고전무용이라는 자부심이 강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난 춤꾼들의 안무를 보고 전통춤의 미래를 걱정하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춤이 아닌 발탈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가 되었다. 발탈 이수자가 없어 이동안이 죽으면 맥이 끊길 것을 우려한 관(官)에서 이동안을 설득시켜 발탈 기능보유자로 정했는데, 이동안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후회했다고 한다. 말년에는 화령전으로 내려와 정경과와 함께 화성재인청을 복원하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작고하였다.



1991년 화성재인청의 승무와 살풀이춤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스승 정경과와 함께 ‘옥당 정경과 무용발표회’를 기획하고 안무와 춤을 맡아 무대에 올랐다. 1999년까지 9회에 걸친 발표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화성재인청계 춤을 알렸다. 9가지의 춤을 기획하면 모든 안무를 전담하고 서너 번은 직접 무대에 오르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친정어머니 같은 스승과 함께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김복련은 자신의 춤 인생에서 첫 승무 공연만큼이나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고 있다.

정경과 선생이 2000년 9월에 작고하자 김복련은 2002년에 스승의 뒤를 이어 예능보유자가 되었고, ‘옥당 정경과 무용발표회’는 ‘김복련의 춤’으로 이어졌다. 2003년에는 화성재인청의 맥을 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운학 이동안 선생과 옥당 정경과 선생의 추모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매년 갖는 정기공연 외에도 여러 곳의 초청공연에 참가하느라 전국은 물론 해외로 나가기도 하면서 김복련은

경기와 선생이 2000년 9월에 작고하자 김복련은 2002년에 스승의 뒤를 이어 예능보유자가 되었고, ‘옥당 정경과 무용발표회’는 ‘김복련의 춤’으로 이어졌다. 2003년에는 화성재인청의 맥을 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운학 이동안 선생과 옥당 정경과 선생의 추모공연을 개최하기도 했다. 매년 갖는 정기공연 외에도 여러 곳의 초청공연에 참가하느라 전국은 물론 해외로 나가기도 하면서 김복련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_윤학 이동안과 옥당 정경파 추모공연(김복련 제공)





화성재인청 춤을 알리고 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승무·살풀이춤 예능보유자가 되고 나서 김복련은 본격적으로 화성재인청 복원 및 보존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다. 우리 민속춤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는 화성재인청을 보존하기 위해 2003년에 사단법인 ‘화성재인청보존회’를 만들고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이전에 이동안과 정경파가 ‘경기도재인청전승회’를 만들고 옛 화성재인청 자리인 화령전을 보수해서 재인청의 춤과 소리의 맥을 이어 갔던 적이 있으니 제자인 김복련이 스승들의 염원을 계승한 셈이다.

자신의 경험과 남아 있는 기억에만 의존해서 가르치는 스승을 보면서 원형의 보존을 염려한 제자 김복련은 전수 과정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서 기록해 두었다. 스승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모양새가 될까 봐 보관만 하고 있다가 스승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꺼냈다. 스승들의 생전 영상자료·녹음자료와 이 기록들을 토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화성재인청 춤의 기법·호흡·기교는 물론 음악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보존회의 역점사업은 30여 가지가 넘는 재인청의 기예를 발굴하고 원형을 복원

\_무형문화재전수회관의 현관들

\_화성재인청 춤 강습

하여 보존·전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계와 연계해 발굴된 기예를 고증해서 영상자료를 발간하고, 학술발표회·세미나 등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전문예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및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저변 확대를 위한 공연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동안 선생은 그 명성 때문에 춤을 배우려는 춤꾼들이 전국에서 찾아왔다. 그들은 다시 전국으로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화성재인칭 춤을 변형시킨 안무를 선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화성재인칭보존회를 서둘러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복련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동안 선생의 문하생들이 화성재인칭 원형 복원과 연구 사업에 많이 참여하여 화성재인칭 재조명 작업에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녀는 화성재인칭을 재현하면 3천6각의 기악과 풍물이 무용과 어우러져 1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연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복련은 전통 춤만을 고집하여 창작 춤은 안무도 하지 않는다. 창작 춤을 하면 전통 춤만의 호흡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소임이 전통 춤, 특히 재인칭 춤을 완벽하게 복원하고 전승·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춤 연구회’나 ‘경기도무형문화재 전통무용보존회’ 등을 조직하여 전통 춤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화성재인칭 춤은 배경설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춤의 원형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김복련의 생각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객에게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똑같은 춤을 보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원형은 그대로 두고 장단의 이음새를 조금씩 다듬거나 춤의 구도나 대형에 변화를 주어 관객의 호응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이런 까닭에 스승 정경파와 이동안이 추던 춤과 현재 김복련이 무대에 올리는 춤의 구성은 약간 다르다. 독무로만 추던 승무와 살풀이춤을 2인무나 군무로 바꿔 추기도 한다. 전수조교이자 딸인 신현숙과 흰색과 검은색 옷을 입고 춘 「까막까지」 공연



은 관객과 문화재위원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화성재인청 춤 가운데 승무와 살풀이춤은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진쇠무와 태평무도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 김복련의 생각이다.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이 춤들의 예능보유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하지만 젊은 제자들에게 재인청 춤만을 강요하진 않는다.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재인청 춤 말고 배우고 싶은 춤이 있으면 배우라고 한다. 다만 재인청이 친정이니 배우고 다시 돌아와야 함을 강조한다.

\_딸 신현숙과 함께한 승무 「까막까지」(김복련 제공)

올해 나이 65세. 춤을 다시 시작한 지도 30년이 되어 간다. 김복련은 환갑을 넘기고 나서야 나이 먹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항상 더 배워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늙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고, 예능보유자로 지정되고 나서는 재인칭 춤을 복원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늘 마음이 바빴다. 계획했던 일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한숨을 돌리고 나니 늙어 가는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김복련은 딸에게 자신의 춤을 물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가야금과 무용을 가르쳤다. 중학교 때는 정경과 선생에게 부채춤을 배워 무용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지만 딸은 그리 무용을 좋아하지 않았다. 결국 엄마의 반대에도 공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 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였다. 재인칭 승무와 살풀이춤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김복련은 활동이 많아져 매우 바쁘게 지냈는데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 딸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엄마의 청을 거절하지 못한 딸은 조교를 그만두고 수행비서처럼 함께 다녔다. 엄마가 춤을 가르치는 동안 딸은 책을 읽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부채를 들고서 강습생들 뒤에 섰다. 장단이 듣기 싫다고 귀까지 틀어막던 딸이 어느새 장단에 몸을 맡기게 된 것이다. 결국 무용학과에 진학해서 석사학위까지 받고 현재는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 딸이 전수조교 신현숙이다. 춤은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같은 춤을 추더라도 춤꾼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기 마련인데, 엄마와 딸은 서로가 닮아 있어 춤도 닮는가 보다. 김복련은 딸 신현숙의 살풀이춤과 승무를 보면 만족스럽다고 한다.

환갑을 넘기면서 김복련은 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물려날 준비를 하고 있다. 딸이 자신의 춤을 완벽하게 전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화성재인칭보존회 일도 충분히 맡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눈에

안 좋게 보일까 봐 드러내 놓고 칭찬하거나 도움을 줄 수 없어서 보존회 이사장직을 제외한 모든 대외활동을 그만두었다. 3명의 전수조교에게 춤을 모두 전수했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맡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고 한다.

김복련은 큰 사찰에서 춤 공양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춤꾼이 아니라 사찰의 승려가 되어 춤을 추는 것 같고 음악과 춤꾼이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다. 승무가 끝나고 나면 몸에서 모든 것이 빠져나간 것 같은 상태가 되는데 이때의 뒷모습을 본 스님이 해탈한 이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을 정도다. 1994년 서경보 스님의 초청으로 공연했던 경포 바닷가 방생대법회의 승무는 춤추면서 느꼈던 무아지경의 희열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 있다. 김복



\_제13회 경기예술대상 및 공로상 수상 기념사진(김복련 제공)

련은 자신이 일찍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춤이 아닌 불심(佛心)으로 신을 받아 풀어냈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사찰에서 여생을 보낼 생각이다.

춤을 그만두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까지 20여 년의 세월 동안 김복련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은 춤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었고 화성재인칭의 춤들은 그녀를 통해서 빛났다. 자신의 살풀이춤을 보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가나 승무를 보고서 울었다며 분장실로 찾아오는 관객들을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김복련에게 춤은 운명이었던 것이다.



\_경기도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지정 후 첫 공연(김복련 제공)



김현미\_수원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 02



창호(窓戶)의 문살 사이로 한지를 통해 은은히 비취 오는 햇빛의 감촉이 전달될 때 그 멋이 더해져 비로소 창호가 완성된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4호 소목장(小木匠) 기능보유자 김순기. 그는 50년 넘게 못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창호를 만들고 있다.

목재를 다루는 목수는 크게 대목(大木)과 소목(小木)으로 나눈다. 대목은 궁궐·사찰·가옥 등의 건물을 짓고, 소목은 건물 안에 들어가는 장롱·문갑·탁자·소반 등 실내용 가구와 그 밖의 목공예품을 만든다. 환기와 조망을 위해 설치한 창(窓)과 방의 출입구인 호(戶)는 소목이 만들고, 건물의 출입구가 되는 문(門)은 대목의 소관이다.

빛과 바람의 통로가 되는 창호를 제작하면서 김순기는 세상과 소통해 왔다. 이제는 멀리서 망치소리만 들어도 어떤 문을 어떤 도구를 써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그는 달인의 경지에 오른 ‘문쟁이’다.



\_경기도 무형문화재 소목장 김순기

김순기는 경기도 안성에서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래로 동생들이 넷이나 있어서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시작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다들 살기 힘들던 시절에 입도 덜고 집안 살림에 보탬도 될 겸 1년에 쌀 닷 말을 받는 조건으로 동네 구장 집의 소꼴 베는 ‘애기머슴’이 된 것이다. 아직 어린 애기머슴은 지계를 지고 다니면서 또래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고 자신의 처지가 창피하였다.

몇 달을 그렇게 지내다가 장남을 머슴살이 시키는 게 싫었던 어머니의 노력으로 서울 광화문 근처 목공소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목공소 대패 작업대 위에서 잠을 자며 일을 배웠지만 배고픔을 참기가 어려워 그만두고 귀향하였다. 딱히 할 일이 없어 다시 머슴살이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외할머니가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머슴은 절대 안 된다며 다시 목수로 일할 데를 수소문하여 손자를 수원에 있는 목공소에 취직시켰다. 얼마 가지 않아 목공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다시 숙식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야 했는데, 다행히 당시 수원에서 가장 유명했던 목수 이규선의 목공소로 옮길 수 있었다.

이규선은 솜씨 좋은 대목장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일만으로도 바빴다. 김순기는 이규선과 임배근 같은 당대의 내로라하는 대목장들을 따라 다니며 대목의 일을 배울 수 있었다. 저녁에 목공소로 돌아오면 주문받은 창호나 가구를 만들며 소목의 기술을 익혔다. 이규선은 창호나 가구 짜는 일은 데리고 있던 일꾼들에게 시켰기 때문에 군에 입대할 때까지 이규선의 목공소에서 보낸 시간은 실력 있는 소목장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된 셈이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오로지 끼워 맞추기만으로 제작하는 전통 창호는 초보목수가 보기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잘 못한다고 혼나며 쥐어박혀도

기분 상하거나 기죽지 않았고 하나씩 배워 가는 재미에 빠져 살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목수들이 품 나는 대목을 선호했지만 김순기는 처음부터 문 짜는 소목이 좋았다고 한다.

김순기는 제대 후에 자신의 목공소를 갖게 되었다. 북수동 중앙시장에 주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야반도주를 하여 문 닫은 목공소가 있었는데, 김순기를 알고 있던 건물 주인의 권유로 보증금 없이 월세 1,500원을 내기로 하고 문을 열었다. 8평 남짓한 초가지붕 건물에 장리로 얻은 쌀 2가마를 팔아 2벌의 연장을 갖추고 한 리어카의 나무를 사서 일을 시작하였다. 1966년, 그의 나이 스물여섯이었다. 목공소 상호는 '중앙목공소'였다. 처음 나무를 구입하러 구천동에 있는 대성목재소에 가서 계산서를 끊는데 상호가 없다고 하자 목재소 주인이 중앙시장에서 왔다고 지어 준 이름이었다. 목공소 규모가 커지고 나서 '중앙공업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1967년에는 영업감찰(營業鑑札)을 받았다. 목수 한 사람이 몇 명의 보조목수를 데리고 도제(徒弟)식으로 일하며 목공소를 운영하던 당시의 관행에서 보면 김순기의 영업감찰은 신세대적인 방식이었다. 영업감찰 덕분에 신설 중학교의 교탁·교단·문 짜는 일을 맡을 수 있었다. 또한 그해에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수원에 건축 붐이 일어나 문 짜는 일손이 바빠졌다. 주문량이 많아져 돈도 조금씩 벌 수 있었고, 지역에서 소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목공소를 운영하는 것은 일꾼으로 일할 때와 비교도 안될 만큼 힘들었다. 부리는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몫까지 김순기가 감당했고, 공기(工期)를 맞추기 위해서 밤낮없이 일을 할 때도 있었다.

목수 연장을 손에 쥐기 시작해서부터 목공소를 열고 몇 년이 지나서까지 김순기는 사찰이나 주택의 창호를 주로 만드는 보통 목수로 살았다. 그런 그에게 전통 창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화성 서장대 복원공사였다. 서장대는 1970년에 복원을 시작해서 1971년에 준공을 앞둔 시점에 벼락을 맞아 불에 타는 바람에 공사를 다시 했는데, 이때 김순기가 참여한 것이다. 공사 책임자였던 임종대 사장은 문화재 보수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동일건설이라는 회사를 차려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당시 수원에서 목수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사람 밑에서 일해야 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임 사장은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지식은 있었지만 기술은 없었다. 그래서 임종대 자신이 수원시와 계약을 맺고 이규선에게 하청을 주었는데, 이규선은 대목 일에 매진하느라 창호 제작은 자신이 데리고 일했던 김순기에게 일임하다시피 했다. 이렇게 해서 김순기는 전통 창호 제작자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서장대 작업 후에 화홍문 복원사업에도 참여하였다. 시공사 현장책임자가 김순기의 실력을 눈여겨보았다가 창호 제작을 맡긴 것이다. 화홍문의 창호들을 본 임종대 사장이 이규선 말고도 숨씨 좋은 소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맡은 공사의 창호는 모두 김순기에게 맡겼다. 전통 창호를 짤 때는 일반 창호를 짤 때 느끼지 못했던 자부심 같은 것이 생겼다. 전통 창호 제작의 기회가 이어지자 김순기는 1980년부터 문화재 복원공사의 전통 창호 제작에 전념하고, 일반 작업은 목공소 직원들에게 맡겼다. 1981년에 낙남헌, 1985년에 화령전 풍화당 공사에 참여했고, 수원향교의 창호도 도맡아 제작하였다.

전통 창호는 단순히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가 아니라 자연미와 인공미가 결합한 비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비율로 짜인



예술적 문양의 문살 사이로 빛과 바람을 통과시키며 건물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창호는 문양에 따라 완자창·세살문·빗살문·꽃살문 등으로 나눈다. 완자창은 ‘아자(亞子) 완자창’과 ‘칠살 완자창’이 있는데, 궁궐의 창살은 모두 이 문양들로 만든다. 세살문과 빗살문은 각각 그 모양이 앞과 뒤가 같은 ‘배밀이형’인지, 아니면 앞은 원형이고 뒤가 네모형인 ‘투밀이형’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 민가에서 사용했다는 배밀이형은 문짝 하나 만드는 데 3일이 걸리고, 왕실과 사대부의 집에 달았던 투밀이형은 5일이 걸린다고 한다. 고급 문짝일수록 창살 수가 많은데, 흠 하나에 0.1mm의 오차만 생겨도 창살과 문짝이 맞지 않게 된다. 창살을 끼워 맞추는 이 기술을 익히는 데만 5~10년이 걸린다. 최고급 문짝인 꽃살문은 몇 개의 조각을 써서 하나의 꽃을 만드는 것으로, 연꽃형·원형·육각형·나뭇잎형 등

\_완성된 창호를 건물에 다는 작업(김순기 제공) 건물에 딱 맞게 창호를 다는 작업이 끝나야 비로소 창호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 있다. 꽃살문은 정교한 수치와 디자인이 필요한 문으로, 숙련된 기술자가 20일이나 매달려야 완성할 수 있다고 한다.

김순기는 1970년대 개발의 바람을 타고 일감이 밀려들어 수원에서 소목으로 자리 잡았고, 1980년대부터는 문화재 복원사업에 전통 창호 제작자로 참여하여 소목장으로 명성을 쌓아 가고 있었다. 그런데 1987년에 오른쪽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화령전 풍화당의 창호를 제작하던 때였는데 혼자서 일하느라 몸도 마음도 바빠 정신없던 상황에서 당한 사고였다. 임종대 사장의 배려로 지지만 내리면서 풍화당 작업을 마칠 수 있었지만 목수가 입만 가지고 일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필이면 오른손이어서 목수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고, 두 달여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른 일을 알아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송광사의 문을 보고서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일터로 돌아왔다. 게다가 임종대 사장의 소개로 만난 제기 기술자는 김순기에게 희망을 주었다. 잃어버린 오른손 대신 연장을 손목에 잡아매고서 제기를 깎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이 3개나 남아 있는 자신은 못할 일이 없다는 용기를 얻은 것이다. 김순기도 자신만의 연장 사용법을 고안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초·중·고에 다니는 3남매를 위해서, 만이로서 책임져야 할 동생들을 위해서 그 힘든 시기를 잘 버텨 냈다. 그때 목수를 그만두었다면 지금의 소목장 김순기는 없었을 것이다.

경기도 일대에서 전통 창호 제작자로 이름나 있던 김순기는 1992년에 시작된

경복궁 복원공사 참여를 계기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경복궁 보수공사는 당시 문화재관리청에 근무하던 임종수의 소개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임종수는 임종대 사장의 동생이었다. 심사를 통해 창호 제작에 참여하게 되자 목공소 앞에 ‘경복궁 복원공사 창호 제작소 대표 김순기’라고 쓴 플래카드를 자랑스럽게 내걸었다. 새로운 연장까지 개발해 가면서 작업에 몰두하던 그에게 관리국장이 무형문화재 신청을 하라며 정보를 주었다. 50세 이상의, 해당 분야 30년 이상 종사자로 국가 공인 문화재 작업 경력이라는 조건을 갖추면 무형문화재 신청이 가능하였다. 김순기는 이 조건에 부합했지만 경복궁 공사 이전의 작업들은 확인을 받기 어려워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기가 난감하였다. 다행히 목공소 문을 연 후부터 꾸준히 기록해 온 작업수첩을 가지고 있어서 수첩의 내용을 근거로 공사 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 작업수첩에는 수주한 공사의 건물명, 작업기간, 창호의 개수와 치수 등을 기록해 두었다.

1995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소목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후 김순기의 목수인생 2막이 시작되었다. 이전과는 마음가짐도 달라졌다. 무형문화재 지정 전에도 그랬지만 장인이 되려면 눈속임이나 잔재주는 절대 부리지 말아야 한다는 신조를 마음에 새겼다. 복원이든 보수든 보여 주기 위한 작업이 아닌 진정한 장인 정신이 깃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언론에 여러 차례 소개되자 전국 각지에서 굵직한 작업들이 찾아왔다.

약 5년간의 경복궁 복원공사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화성행궁 복원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화성행궁의 4,000여 짝에 이르는 모든 창호가 김순기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다. 나중에 후손들이 행궁을 찾았을 때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만든 창호를 보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작업하였다. 그 결과 화성행궁 복원사업은 소목장 김순기의 자랑스러운 대표작이 되었다. 1993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진행된 충남 외암리 민속마을 복원사업에도 참여했고, 화성행궁 복원이 끝난 2003년부터는 남한산성 복원



사업에 참여하였다. 규모가 큰 작업을 하는 중에도 전국의 사찰, 사당, 향교, 명성황후·대원군·최규하·조병옥 등 유명인의 생가 보수 및 복원공사의 창호 제작 의뢰가 계속되었다. 국내를 넘어서 미국 하와이 이승만대통령교회, 중국 북경 한국 대사관의 문도 직접 만들어서 달았다.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을 기념해 열린 ‘한·캐나다 공예특별전’에서는 꽃살문 등을 선보여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사진 한 장을 보고 연구해서 복원한 개성 관음사의 꽃살문은 현재 남한에는 없는 것으로, 김순기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지금까지 제작한 문화재급 건축물의 창호만 해도 3만 장을 훌쩍 넘긴다고 한다.

경복궁, 화성행궁, 남한산성 같은 굵직한 작업들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김순기는 장인의 명예와 돈을 얻어 성공한 목수의 반열에 올랐다. 3개 동의 건물에 1,000짝의 창호가 필요하고 목재 값만 1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경복궁 소주방 복원공사 창호 제작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사실은 그의 실력과 자금력을 증명한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우선 목수의 사재로 작

김순기의 소목장 이력이 담겨 있는 작업수첩

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자금력을 가진 소목장은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정도라고 한다.

목수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늘이 낸 사람이여. 대한민국에서 목수 일을 해서 돈 벌고 성공한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그의 말처럼 그에게는 천운이 따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운만 가지고 되겠는가. 초심을 유지하는 마음 자세와 소목장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없다면 그가 만든 창호가 빛을 발할 수 있었겠는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자녀교육과 동생들 뒷바라지에 우선 사용했지만 좋은 목재를 구입하는 데에도 아낌없이 투자하였다. 김순기는 좋은 작품은 좋은 재료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즉, 기술만큼 재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예로부터 최고의 건축자재는 백두산 소나무, 경북 울진·봉화 등지에서 생산되는 춘양목이었다. 김순기는 좋은 나무가 있으면 열 일 제쳐 두고 찾아 나선다. 예전에는 강릉이나 울진에서 나는 육송을 구하려고 버스를 갈아타고 몇십 리를 걸어가기도 했다. 현재 춘양목은 멸종 직전이라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극소수의 생산품은 궁궐 보수에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춘양목을 대체할 나무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국산 목재에서 대체품을 찾는 것이 어려워 수입 소나무를 종류별로 실험해 보기도 했는데, 결국 8년 만에 캐나다산 홍송을 찾아냈다고 한다.

춘양목공소 간판을 걸고 시작한 목공소는 현재 김순기의 목재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이곳에는 1년, 2년, 3년생으로 차곡차곡 정리된 나무들이 보관되어 있다. 죽히 3년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양이다. 나무는 베어 낸 후 3년은 말려서 결을 죽여 놔야 뒤틀림이 없어진다고 한다. 값이 비싸더라도 좋은 목재를 구입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창호를 만들 수 있다는 소목장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어린애 티를 겨우 벗은 나이 열넷에 목공 연장을 손에 쥔 것이 벌써 50년을 훌쩍 넘겨 60년을 바라본다. 인생 칠순을 넘어선 지금, 목수로서 살아온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소목장 김순기의 소원이다. 자신의 기술이 잘 전승되는 것, 그리고 그간 모아 온 손때 묻은 연장들과 작품들을 모아 전시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수원에는 전국에서 궁궐목수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정조 임금이 화성을 축조할 때 전국의 실력 있는 대목들을 수원으로 불러들였다고 하는데 거기서 연유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김순기는 수원의 숨씨 좋은 목수를 여럿 알고 있었다. 목수의 삶이란 게 평생 집을 짓지만 정작 자신은 번듯한 집 한 칸 소유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성공한 목수 김순기는 그런 목수들이 노년에 외롭고 힘들 때 중



\_수집한 목공연장들 전통창호전시관이 건립되면 전시하기 위해 은퇴한 목수들에게 수집한 것들이다.



종 술을 사며 위로하곤 했다. 노목수들은 자신들의 손때 묻은 연장을 전시하고 싶다는 김순기에게 기꺼이 기증했고 그렇게 모아 둔 것이 제법 많다. 이제 전통창호전시관이 세워지면 이 연장들은 그 안에 담긴 역사와 함께 전시될 것이다.

전통창호전시관이 언제 건립될지 알 수 없기에 그것은 미래의 큰 꿈으로 두고 우선 번듯한 개인 공방을 차렸다. 1999년에 그동안 모은 돈으로 북수동 목공소와 가까운 곳에 '김순기창호공방'을 차렸다. 대목과 잡부 한 명씩을 두고 김순기가 직접 1년 동안 지은 공방은 3층 현대식 건물이다. 1층에 작업공간을 두고 2층과 3층을 살림집으로 꾸몄는데, 현대식 대리석 건물을 연상시키는 외관과 달리 살림집 내부는 전통 한옥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인테리어를 보여 준다. 안방에 변형 완자문, 작은방에 원형꽃살문을 달았고, 안방과 거실의 경계는 벽 대신 투밀이세

\_ 북수동 김순기창호전시관 전경



살문을 달았다. 천장은 한옥의 서까래와 아자살창을 응용하여 장식을 했다. 대장장이 집에 부엌같이 있듯이 문 짜는 목수 집에는 그가 짜는 문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인테리어를 시도했다고 한다. 집 안이 전통창호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김순기는 전통 창호에 관심이 있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종종 2층 자신의 집으로 안내한다. 일종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셈이다. 전통 창호도 현대식 건물에 잘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고 한다. 아무리 전통 창호가 좋다고 해도 생활 속에서 외면당하면 그것은 진정한 전통의 계승이 아니라는 것이 김순기의 생각이다.

우연히 기회가 되어 건물 바로 옆의 땅 50평을 구입해서 전시관을 만들었다.

창호전시관 1층에 꾸민 전시 공간 건축법규상의 문제로 철거하여 현재는 볼 수 없다.



외부는 한옥의 지붕과 처마를 내달아 표현했고, 벽면은 격자문·완자문·빗살문·세살문·꽃살문 등 다양한 종류의 문을 달아 장식하였다. 한눈에 문 짜는 곳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안에는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해 놓은 사랑방으로 꾸며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그러나 건축법규에 저촉되어 철거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김순기는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이 원형을 그대로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융통성 있는 개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통 건축에서 창호는 여닫이 형태였으나 김순기는 미닫이 형태로 변화시켜 현대 건축물에도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업도구도 현대식 기계장비로 개

\_창호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

량하여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조건 과거의 수작업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전통의 계승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러나 제작방식에서 전통을 고수하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다.

장인 가운데는 자신의 기술을 자녀에게 전수하여 대를 잇게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녀가 받아들여야 가능한 일이지만, 부모의 피를 받아 재주를 타고났거나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을 익히거나 부모의 권유로 가업을 삼아 대를 잇는다. 그러나 김순기는 자녀들이 목수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어쩌다 작업장에 오기라도 하면 호통을 쳐서 보냈고 관심 갖는 것조차 못하게 했다. 가난해서 들어서게 된 목수의 길이 너무 힘들었고 배움이 짧아서 서럽고 창피했던 기억들 때문에 자식들은 많이 가르쳐서 번듯한 직업을 갖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조카가 자신의 뒤를 따랐으면 하는 생각은 있었으나 강요할 수 없었기에 생각을 접었다. 이제 와 생각하면 자신의 결정이 후회될 때가 있다고 한다.

김순기가 유명세를 타자 해마다 대여섯 명의 젊은이들이 전통 창호 기술자가 되겠다고 공방을 찾아오지만 1개월을 버티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한다. 그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었지만 힘든 생활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 내보내기 일쑤였다. 2010년에는 적극적으로 전수자를 찾기 위해 30대의 참을성 많은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6명을 문하로 들였지만 모두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 김순기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소목장이 필요한데 원칙 없이 제 입맛에 맞게 일하는 소목장만 남을까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원칙을 중시하며 전통 기술을 고수해 온 장인정신 때문이라고 믿는다. 단지 기술을 익히려는 생각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잘하는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는 말도 있듯이 전통 창호의 매력에 빠져야 10년이 넘게 걸리는 전수과정을 버텨 낼 수 있는 것이다.

1999년부터 함께 작업하고 있는 안규조는 1년 만에 전수조교가 되었다. 전남 보성 출신으로 고향이 다르고 일가친척도 아닌 안규조에게 기술을 전수한다고 하자, 주변에서는 남을 어떻게 믿고 맡기냐며 염려를 했다. 김순기는 안규조에게 “나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다. 기술은 가르치면 된다. 그러나 배신자는 되지 마라.”고 했다고 한다. 좋은 장인은 인간성이 좋아야 한다고 믿는 김순기가 보기에 안규조는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다. 이제는 김순기 대신 작업을 해도 될 만큼 성장하였다. 다만 현장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게 아직 아쉽다.

먹고살기 위해 대패를 잡았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니 장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처음부터 전통의 계승자가 될 결심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전통 창호 만드는 기술을 잘 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김순기는 목수가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태어나도 목수가 될 것이며 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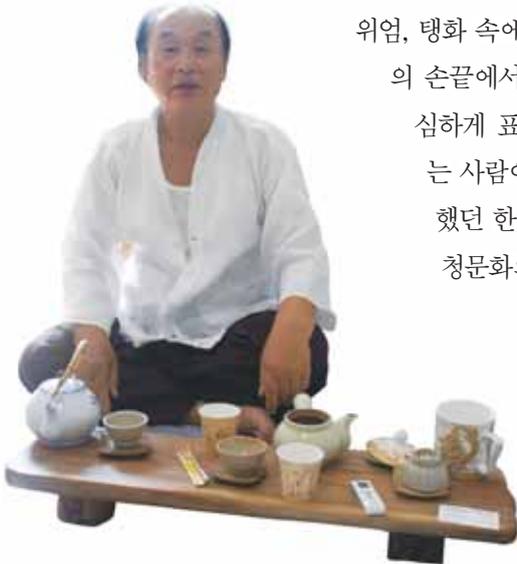
소목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김순기(김순기 제공)

소목장으로서 창호 제작에 또 한 생을 바치겠다고 한다. 조금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어 연필 대신 칼로 금을 그어 다듬고 조립해서 딱 들어맞게 문살을 맞추는 데서 희열을 느낀다는 소목장 김순기는 과연 하늘이 낸 목수인 것 같다.



## 03

# ‘ (禪心正觀)’



단청장 신오 김종욱

궁궐의 웅장함, 금방이라도 불호령을 내릴 듯한 사천왕상의 위엄, 탕화 속에 표현된 부처의 자애로운 미소는 모두 단청장의 손끝에서 나온다. 구도자의 자세로 붓질 하나하나 세심하게 표현하는 단청장은 목조형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청은 불교나 유교가 성행했던 한국·중국·일본에서 유행했으나, 오늘날까지 단청문화의 전통이 계승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수원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 단청실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기능보유자 신오 김종욱은 단청은 물론 불화에도 능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단청장이다.

단청이란 일반적으로 목조건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무늬를 그려 넣어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본래는 붉은색 ‘단(丹)’과 푸른색 ‘청(靑)’을 합쳐서 알록달록한 오색 빛이 담긴 그림을 모두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즉, 단청이란 오행사상에 입각해서 건조물(建造物)·전적(典籍)·공예품·조상품(造像品)에 무늬를 그리거나 그림을 그리는 회화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조건물의 단청은 건물의 격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건물의 기능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했고, 모든 목조건물에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의 단청은 대체로 궁궐 단청과 사찰 단청으로 구분한다. 궁궐 단청은 권위를 상징하는 무늬와 격조 있는 색상 대비로 기품이 배어나도록 한다. 사찰 단청은 화려한 문채(文彩)로 구성되며 여백을 두지 않는 것이 궁궐 단청과 다르다.

건물의 격을 나타내는 기능 외에 단청은 목재의 단점을 보강하여 건물의 수명을 늘리는 기능도 한다.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서 주재료로 사용된 소나무는 표면이 거칠고 건조 과정에서 갈라지기도 하며 해충과 부식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단청을 통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목재에 안료를 채색하면 재질의 조약성이나 표면에 나타난 흠집 등을 감출 수가 있고 부식과 충해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청할 자리를 잘 닦아 낸 다음 아교를 넣어 묽게 끓인 물을 바르고 거기에 가칠(加漆)을 다섯 번 반복하여 초지(草紙)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단청 작업의 첫 단계이다. 그 후에 초지 무늬를 건물에 올리기 위해서 전체 면에 청록색 흙을 바르는 청토 바르기를 한다. 그리고 도분을 해당 면에 대고 분주머리를 두드리면 본의 무늬에 있는 송곳구멍으로 가루가 나와 바탕에 무늬가 박히게 된다. 이러

한 타분작업이 끝나면 그 본에 따라 광물성 안료인 진채(眞彩)로 청(靑)·적(赤)·백(白)·흑(黑)·황(黃)의 오색을 입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단청하는 이들이 각기 맡은 색만 찾아 그려 칸을 메워 단청을 마친다. 암채(岩彩)라고도 불리는 진채는 천연에서 채취되는 것으로 대개 중국에서 들여왔는데 값이 비싸져서 요즘에는 화학 안료를 사용하는 단청작업이 많아졌다고 한다.

단청에 종사하는 사람은 화사(畫師)·화원(畫員)·화공(畫工) 등으로 불렸으며, 승려인 경우에는 화승(畫僧)이라 했다. 일반적인 단청만 하는 사람은 어장(魚丈), 불화가까지 능숙하게 그려 내는 사람은 금어(金魚)라 했고, 금어는 그 권위를 인정 받았다고 한다. 김종욱은 초기에는 어장으로 활동했으나 지금은 금어의 자리에 있는 한국 단청계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

김종욱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4세 때 부모가 안양으로 이주하여 안양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어머니는 안양 용화사 신도회 총무를 맡을 정도로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김종욱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불교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화가 좋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용화사 화응(華應) 스님의 소개로 혜각(慧覺) 스님을 만났다. 안양중학교 1학년 때 한국전쟁이 일어나 피란을 다니느라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자 화응 스님은 김종욱에게 혜각 스님을 소개하며 단청을 배워 보라고 권유하였다. 당시는 공부를 하지 못하면 기술을 배워야 먹고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불화에 관심이 있던 김종욱은 좋은 기회라 여기고 혜각 스님에게 단청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혜각 스님은 1920년부터 5년간 화응 스님에게 단청을 사사한 후 평생을 단청에 헌신한 장인이다. 1992년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기능보유자가 되었고, 술한 제자를 양성하였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기능보유자인 동원 스님을 비롯해 각 지역의 단청장으로 지정된 이들 가운데는 혜각 스님의 제자들이 많다. 혜각 스님은 단청이 다 완성된 후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가칠을 하여 모두 덮어 버리고 다시 단청을 할 정도로 일에 철저하고 까다로운 단청장이었다. 깐깐한 스승과 달리 김종육은 덜렁대는 성격이라 입문 초기에는 물감을 었지르는 등 사고를 치기 일쑤여서 스승에게 자주 야단을 맞았다. 그래도 어린 제자는 그림을 배우고 그리는 일이 너무 좋아 그깟 야단 정도에 주눅 들거나 속상해 하지 않았다.

김종육은 혜각 스님 문하에서 시왕출초(十王出草)부터 시작하여 먹으로 초 내는 법과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단청기법을 배우고 익혔다. 붓 잡는 법을 익히고 나서, 스승이 그려 준 시왕초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얇은 종이를 대어 밑그림이

다양한 단청 문양

비치는 대로 붓을 그어 모사(模寫)하는데, 이것을 천 장 이상 그려야 했다. 숙달된 솜씨로도 하루에 10여 장밖에 모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왕초부터 시작하는 초 내기 과정은 수년이 걸리는 고단하고 지난한 수련이다. 그래도 이 과정을 거쳐야 단청에서 매우 중요한 필력(筆力)을 제대로 익힐 수 있다고 한다. 혜각 스님처럼 깐깐한 스승 밑에서 이 과정을 겪은 김종욱은 기초공사를 튼튼히 한 셈이다.

김종욱은 혜각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스님 밑에 있으면서 모든 기법을 전수받았다. 단청의 기본 5색을 혼합하여 수많은 빛깔을 내는 법을 비롯해 단청 문양 그리는 법, 탕화나 벽화에 들어가는 불상과 인물 그리는 법 등 단청의 모든 것을 사사하였다. 특히 혜각 스님의 독자적인 출초기법과 고대 중국의 건축 전문서적인 『영조법식(營造法式)』을 참고로 하여 단청 문양을 직접 연구하였다. 1998년 세수 94세로 입적하기까지 혜각 스님은 단청을 수행 삼아 정진했고, 김종욱은 45년간 스승으로 모시며 그 장인 정신까지 이어받았다.

혜각 스님 외에도 당대의 명망 있는 단청장들은 김종욱의 스승이 되었다. 애초부터 탕화를 그리고 싶었던 김종욱은 일섭(日燮) 스님에게 부탁하여 탕화를 사사하였다. 일섭 스님은 1972년에 단청장이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로 지정되면서 만봉 스님·월주 스님과 함께 첫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고, 불화·개금(改金)·단청·조각 등 다방면에 걸쳐 한평생 불사에 전념하며 우리나라 불교미술사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불모(佛母)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불화의 대가 보웅 스님을 사사하고 전국 사찰을 돌며 오래된 불화를 모사·수습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독자적인 기법을 만들어 냈다.

만봉(萬峯) 스님에게도 단청 기법과 탕화를 3년 이상 배웠다. 만봉은 선사(先師) 전래의 기법을 익혀 평생을 단청에 바친 능수(能手)로 평가되는 스승이었다. 80년간 하루도 붓을 놓지 않았다는 만봉 스님의 탕화는 종교적 장엄미와 예술적 가치 모두에서 뛰어나 ‘소리 없는 법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만봉 스님은 제자들에게 단청과 불화는 이론과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한 가지씩 손

끝으로 익혀야 좋은 그림이 나온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부처님 그리는 일을 수행이라 생각하고 수천 장씩 그릴 것을 항상 강조했다고 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기능보유자인 석정(石鼎) 스님에게 문화재 단청에 관한 가르침도 받았다. 불화는 물론 단청에도 능했던 석정 스님의 문화재 단청은 간결하면서 독특한 문양이 특징이었는데, 김종욱은 이것을 보고 배우면서 문화재 단청 보수공사에 임하였다. 석정 스님이 제작한 진천 보탑사 3층목탑 단청은 기존의 단청 재현에 머물지 않고 옛것과 새것을 조화시킨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종욱이 스승으로 모셨던 유명한 단청장들이 대부분 불교의 승려이다. 단청은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작업에 임하며 무념무상의 몰입을 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의 방법으로 삼은 스님들이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엄격하고 철저한 장인 정신을 가진 스승들에게 배운 탓에 김종욱도 그들의 엄격하고 철저함을 그대로 닦았다.

김종욱을 단청의 세계로 이끈 것은 탕화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면서 보았던 탕화가 마음에 들어왔고 한번 그려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아마도 운명이었는지 결국 평생을 단청과 불화에 매진하며 살았다. 탕화는 단청 기술을 연마한 후에 배울 수 있는 단계의 것이었기 때문에 혜각 스님은 김종욱에게 단청부터 가르쳤다. 단청과 탕화는 제작 과정이 거의 같다. 탕화는 회화적인 성격이 강하고, 단청은 오행사상에 입각해서 규정대로 도안을 그려 넣는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혜각 스님에게 단청을 배우는 동안 김종욱은 절에서 스승과 함께 생활하였다. 스승이 단청 작업을 할 때면 함께 다니면서 배우고 일을 도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담당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단청에 입문한 지 20년쯤 되었을 때 혜각 스님은 비로소 김종욱에게 단독 작업을 허락하였다. 1973년에 경주 안압지·오릉·분황사의 단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단청장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혜각 스님 아래에서 20년간 배운 단청 기술과 장인 정신을 기반으로 김종욱은 자신만의 단청을 이루어 나갔다. 단청 기술을 배우고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자 사찰 벽화를 그릴 기회가 왔다.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산수화를 배우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청을 배우는 틈틈이 산수화를 익히며 벽화 그릴 날을 기다려 왔는데 마흔 무렵에 부산 통도사 관음전 벽화를 그리게 된 것이다. 20여 일을 꼬박 걸러 완성한 벽화를 보고 김종욱은 스스로 감개무량했다고 한다. 칭찬을 거의 하지 않는 혜각 스님도 내심 인정을 해 준 셈이었다. 단청은 몇 날, 몇 달을 꼬박 천장만 바라보고 하는 힘든 작업인데 김종욱은 작업을 하는 중에도 틈나는 대로 여러 지역의 사찰을 둘러보면서 단청 문양과 불화를 공부하였다.

단청에만 몰두하며 지내다가 26세에 중매로 결혼을 했다. 혜각 스님과 함께하던 사찰 생활을 접고 신혼집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일이 있을 때면 몇 달씩 집을 떠나 지냈기 때문에 부인은 혼자 지내는 날이 더 많았다. 단청하는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그 일이 집을 많이 떠나 있어야 하는 것인 줄 몰랐던 부인은 후회도 하고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한다. 비록 집에 머무는 날이 적었지만 김종욱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승려로서 수행 삼아 단청을 하던 스승들과 달리 그에게는 부양의 의무가 있었다. 32세에 단청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것도 안정적인 수입을 위한 방편이었다. 문화재관리국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문화재 보수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조건으로 건설부의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고 보수기술자·단청기술자 각 2명과 드잡이공·와공·석공·미장공·화공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곳

으로 한정하였다. 김종욱은 20여 년을 문화재보수 지정업체에서 단청기술자로 재직하며 일하였다. 현재도 한 업체에 재직 중인데 상근직이 아니고 공사가 있을 때만 참여한다.

1999년에는 수원에 ‘대한문화재보존연구소’를 개소하였다. 문화재 단청 기법 연구와 고려·조선 불화 복원을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었다. 사찰에서 탕화를 주문받아 제작하거나 문화재 보수사업을 수주해서 돈을 좀 벌어서 불 생각도 있었는데,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3년 정도 유지하다가 문을 닫았다.

60년이 넘는 단청 이력 속에서 그가 작업을 했던 크고 작은 건물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중에서 굵직한 이력들만 보더라도 경력이 화려하다.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단청, 경복궁·덕수궁·창경궁 등의 궁궐 단청, 직지사와 통도사의 단청과 벽화, 1988년 송례문 단청, 남한산성 수어장대와 오대산 월정사 단청 등 이름난 문화재의 단청과 벽화를 제작하였다. 1994년에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된 석정 스님과 공동으로 진천 보탑사 대웅전 벽화와 사천왕 단청을 제작하였다. 충북 진천의 보탑사는 1996년 창건한 사찰로 대목장 신흥수를 비롯하여 각계의 거장들이 참여하여 완공한 사찰로 ‘20세기 국보’라고 불린다. 수원에서도 김종욱의 단청을 볼 수 있다. 방화수류정 단청, 창룡문과 화서문의 홍예반자 용 단청, 화성행궁 신평루 단청이 김종욱의 작품이다.

단청과 불화에만 정진하느라 김종욱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다. 그런 그에게 주변에서 문화재 등록을 권유하였다. 1999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을 받고서 문화재의 단청 작업에 참여할 기회가 오히려 줄었고, 문화재 복원 또는 보수공사를 맡아주는 업체가 단청도 책임지기 때문에 자문역도 쉽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한다. 연구소 문을 닫은 뒤에는 집에서 작업을 했는데, 2004년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개관하면서 작업실이 제공되었다. 번듯하진 않아도 작품을 전시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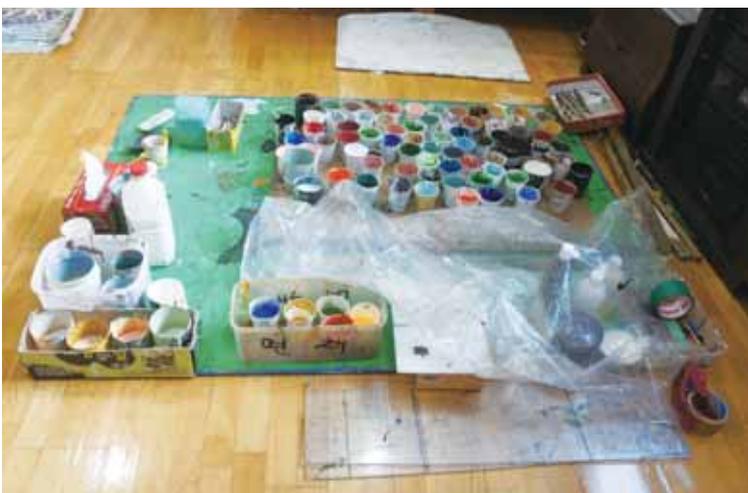
..김종욱이 단청을 입힌 방화수류정(김현락 제공)  
..방화수류정 단청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다.

단청은 배워야 할 것이 참 많다.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하던 화공들이 모두 다른 길을 찾아 떠났지만 김종육은 스승 혜각 스님이 열반에 들 때까지 곁에서 모셨다. 가정을 꾸렸음에도 한 곳에 정착하여 일할 수 없는 것이 단청장의 운명인지라 전국의 사찰과 문화재를 다니며 일을 하느라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단청과 함께 한 시간보다 적은 것 같다. 하지만 남한 땅 구석구석 안 가 본 데 없을 정도로 다녔다는 자부심이 있다.

문화재청은 2005년에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에서 불화를 따로 떼어 불화장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로 지정하였다. 원래 단청장은 단청과 불화를 모두 포함했으나 관계 전문가들의 학술적 검토와 기능보유자들의 의견 수렴,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단청장과 불화장을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비록 단청과 불화가 제작 기법은 유사하나 제작 목적과 표현방법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전승현장에서는 단청과 불화가 고유한 기술과 역할을 바탕으로 분리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불화장 기능보유자는 “화원으로서 그림을 기초 소양으로 해 불교경전 내용을 도상화할 수 있는 기량과 함께 안료와 배접방법에서도 전통적인 제작방법을 충실히 지켜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했는데, 김종육이 사사했던 석정 스님이 지정되었다.

김종육은 단청장과 불화장이 분리되기 전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단청장 기능보유자로 지정을 받았다. 그래서 단청은 물론 불화에도 능하다. 그의 목표였던 탕화



를 그리기 위해서 건축물에 색을 입히는 단청을 통해 필력과 제작기법 등의 기본기를 익혔고, 회화적인 표현을 위해 산수화를 배웠으며, 서예 공부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붓으로 표현하는 기술만 배우고 연마한 것이 아니라 불교의 교리도 함께 공부하였다. 불화는 불교 신앙의 내용을 압축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제대로 그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반열에 오른 지금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불화를 의뢰받으면 절의 역사나 배경에 대해 주지 스님에게 충분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작업에 임하였다. 혹시 한 마디라도 놓칠까 봐 항상 녹음을 해서 들곤 했다고 한다. 김종욱은 범문에 능하며 불교 경전에 대한 지식이 많은 단청장이라 평가받고 있다. 그러한 지식은 그의 사찰 벽화나 탕화에 그대로 담겨 그린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김종욱의 생활은 일반인의 생활과 다르다. 속세인이지만 승려와 비슷한 생활을 한다. 섭생을 가려서 하고, 매일 참선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려 노력한다. 불화

김종욱이 사용하는 안료(顔料) 그는 천연 안료인 진채를 사용하는데, 이 가운데는 수십 년 된 것들도 있다고 한다.

는 매우 섬세한 붓질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행이 어렵다. 그런 날은 작업에 임하지 않는다.

단청 인생 60년을 넘긴 단청장 김종욱의 삶은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 것이다. 자신의 기능을 전수받을 사람도 이런 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장인으로서 바라는 전수자의 자격조건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김종욱은 이수자만 4명을 두었을 뿐 전수조교를 두지 못하고 있다. 탕화나 단청을 배우기 위해 김종욱을 찾아온 사람들은 그동안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기술 전수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기법에만 관심이 있다거나 단청을 먹고사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마음가짐으로는 장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김종욱의 확고부동한 생각이다. 아들이 뒤를 이어 주길 바랐으나 아들 역시 힘든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김종욱은 후배들이 불교의 교리를 모른 채 기교를 익히는 데만 치우치고, 불교 경전을 공부한다거나 과거의 작품을 연구하는 데 소홀한 채 잘못된 도상을 그려 내면서 현대적 창조 운운하는 지금의 세태가 씁쓸하다고 한다. 그는 옛날 것을 그대로 재현할 능력을 지닌 다음에 창조나 변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꾸준히 발전하는 단청에 비해 불화가 예전의 깊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현실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갈고 닦아 온 단청의 맥이 끊길까 봐 걱정스럽기는 하나 그렇다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기술을 전수하고 싶지는 않은 게 단청장으로서 고민이다.

자신이 그린 작품이 수백 년 동안 후손에게 전해진다는 책임감과 부처님의 도량을 장엄한다는 신심이 있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마다 개인의 부와 명예를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했기에 문화재 보수나 복원을 의뢰할 때 시공 업체에 저렴한 공사비와 빠른 완공을 종용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고 한다. 문화재 단청작업은 일반 건물과 달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문화재를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꼼꼼하게 들은 후에 작업을 해야 한다고 믿는 김종욱

에게 이런 현실은 불편하기만 하다. 재료의 특성상 20년쯤 지나야 비로소 고색창연한 멋을 발하는 단청처럼 단청을 하는 사람 역시 오랜 시간 정진하며 기술을 연마해야 진정한 장인이 된다는 것이 김종욱의 생각이다.

올해 일흔여덟. 단청에 입문한 지 한 갑자(甲子)를 훌쩍 넘긴 김종욱은 그의 단청 인생을 탕화로 마무리하고 있다. 혜각 스님 문하에 입문할 때부터 가졌던 탕화에 대한 꿈을 이루고, 고려불화와 조선불화를 재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130점가량의 고려불화가 일본으로 반출되어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전해지는 고려불화는 30점 정도라고 한다. 2010년 부천무형문화엑스포에 오랜 시간을 들여 복원한 고려불화를 전시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종욱은 단청계에서 손꼽는 탕화 전문가이다. 건물에 단청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단청의 최고 경지인 사찰 벽화나 탕화를 그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불교미술의 독보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오랜 전통을 이어 온 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현재는 불화장 석정 스님과 함께 우리나라 탕화의 큰 맥을 잇고 있다.

김종욱이 탕화에 몰입하는 이유는 탕화가 진정한 한국의 색채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탕화는 온몸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화폭을 바닥에 놓은 채 그 위에 앉아 화폭과 몸을 밀착시킨다. 섬세한 감각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탕화 작업은 조금의 잡념이라도 생기면 붓끝이 흐트러질 수 있다. 그래서 3~4개월 이상 소요



되는 탕화를 그릴 때는 바깥출입을 삼가고 작업의 출입도 막은 채 작업에 몰두해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고려불화를 그리는 데 심취해 있다는 김종욱은 수십 년을 그려 왔지만 아직도 탕화가 어렵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느끼고 있다. 탕화가 회화적인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그 안에는 불교의 교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교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그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사찰에서 단청을 하려면 10년 전부터 신도들이 기도에 들어가고 재료비를 조금씩 정성으로 모았다고 한다. 단청하는 사람도 불사(佛事)였기에 수공비도 없었고 그저 승복 한 벌을 얻어 입었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불사에도 자

\_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전시된 김종욱의 불화 작품



본주의가 도입되어 세속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다.

김종욱은 2010년 7월부터 12폭의 「금강경 오백나한도」를 작업하고 있다. 올해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니 2년 반 동안 화폭 위에 500명의 나한을, 그리고 금강경 5,416자를 써 넣는 작업이다. 500명이나 되는 나한들을 일일이 그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5,000자가 훨씬 넘는 금강경을 틀리지 않고 써 넣기란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끼니를 잊을 정도로 온 신경을 집중해서 작업

..김종욱이 재현한 고려불화  
..일본에 있는 원본 고려불화

에 몰두하는 무념무상의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며 다음 생에도 불화 그리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한다.

불화는 얼굴이 실감나게 표현되고, 완성된 작품의 바닥이 깨끗해야 잘된 작품이라고 한다. 그러나 매번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부족한 점이 보였는데 70대에 들어서 그리는 불화들은 제법 마음에 들어 흡족하다고 한다.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등지를 튼 후 김종육은 매일 오전 9시면 단청실로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불화를 그리고 오후 5시면 퇴근한다. 이제 단청은 현장에서 은퇴했고 가끔 사찰에서 의뢰한 불화를 그리는 것이 대외적 작업의 전부이다. 최근에 그가 몰두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작업을 하는 것이다. 팔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매일 갈 곳이 있고 그곳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노년의 단청장은 만족스럽고 감사하다. 김종육의 작업실 벽에는 '선심정관(禪心正觀)'이라는 글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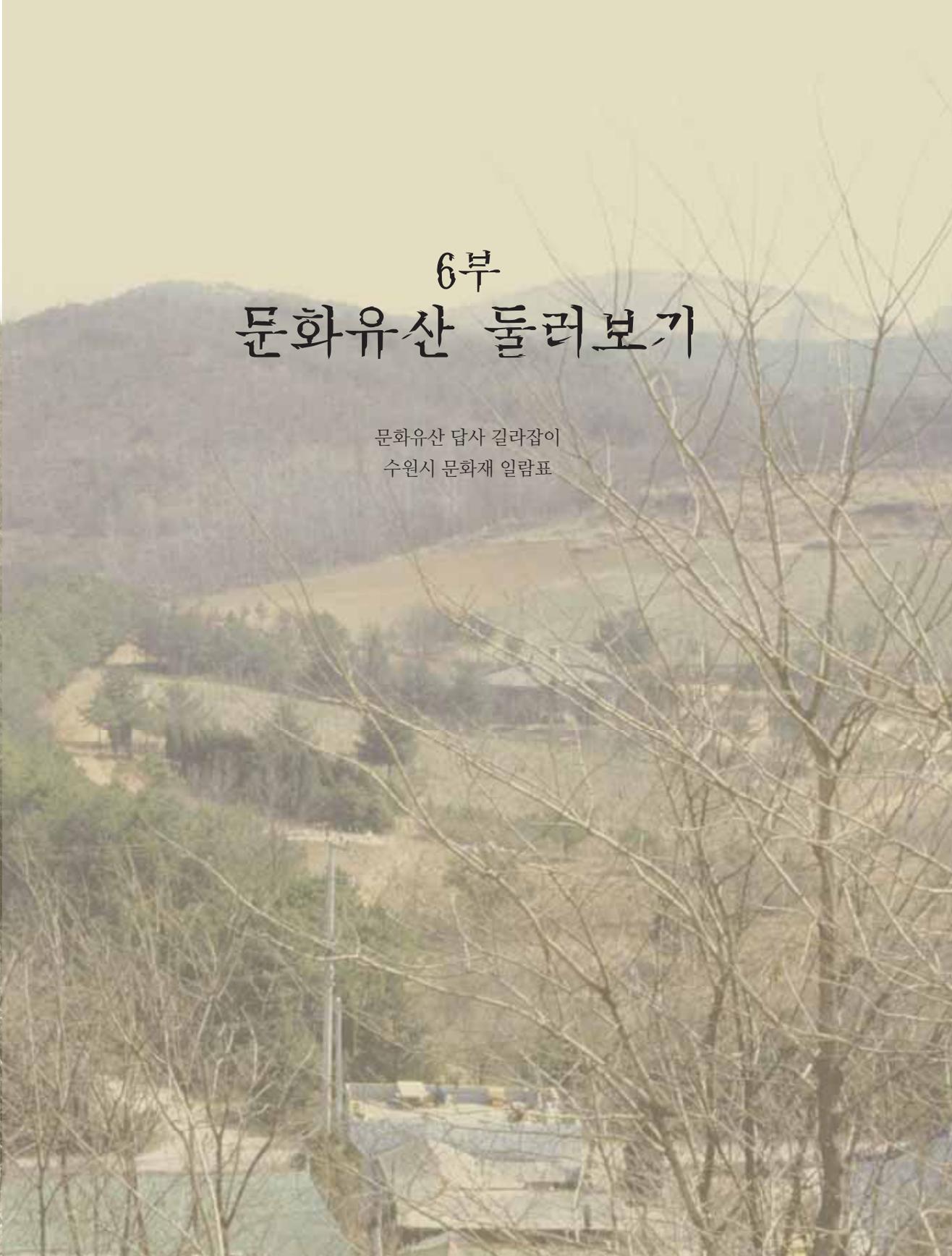


\_무형문화재전수회관 단청실 바닥에 펼쳐 있는 것은 2년 넘게 작업 중인 「금강경 오백나한도」이고, 벽에 붙여 놓은 불화는 일본에 있는 고려불화를 복원한 것이다.

가 붙어 있다. 참선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보라는 뜻은 그의 인생철학이자 금어로서 마음가짐이다.

청년 시절, 사천왕 개체를 제작해 달라는 전보를 받고 옷 보따리 하나 꾸려 통도사로 일을 하러 갔던 적이 있다. 큰길에서 버스를 내려 절까지 30리 소나무길을 걸어가다가 길동무를 만나 술 한 잔 나누며 건넌 설렘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고 한다. 일을 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레고 즐거웠다. 김종육은 단청을 하면서 좋은 구경,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았다고 회고한다.





# 6부 문화유산 둘러보기

문화유산 답사 길라잡이  
수원시 문화재 일람표



염상균\_역사탐방연구회 이사

# 01

---

수원에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화유산이 산재되어 있다. 보물과 사적 및 중요 민속자료와 무형문화재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15점,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22점, 수원시 향토유적이 23점으로 모두 60점의 문화유산을 보유(2011년 3월 3일 현재)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답사코스를 짰다. 다만 ‘수원 화성’은 별도로 다루게 되므로 여기서 제외하였지만 성 밖의 화성 관련 유적지는 포함하였다. 또한 수원의 범위를 지금의 수원시 행정구역에 국한하지 않고 예전의 권역까지 확대하되 가능한 한 수원에 가까운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지정문화재라 하더라도 꼭 답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정된 문화유산이 아니더라도 답사할 가치가 크면 포함하였다.

동부권의 문화유산 답사는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시작한다. 공원처럼 잘 꾸민 야외전시장에는 거중기며 녹로 등 화성 건설에 요긴하게 쓰인 기계들을 복제해 전시하고 있다. 역대 화성유수의 송덕비 등도 수원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나 화성의 건설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정조의 태실을 복제하여 전시한 것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박물관 내부에는 「화성전도」를 기반으로 축성 당시의 화성을 복제한 미니어처가 로비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서 보면 화성을 한눈에 조망하게 된다. 화성에 관한 모든 것을 살피고 익히는 데에는 수원화성박물관이 최고이다. 또한 화성과 관련된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을묘년(1795) 원행의 8폭 병풍도 복제하여 전시하고 있다. 그리고 축성 관련 인물 가운데 총리대신이었던 재상 채제공의 초상화(보물 제1477-1호)가 눈에 띈다.





左 수원화성박물관 기증기, 녹로 등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右 체제공 초상화(수원화성박물관 소장)

화성박물관에서 수원천을 거슬러 오르면 화홍문 못 미처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 당도한다. 수원에 거주하는 경기도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을 쌓기에 좋다. 제8호 승무와 살풀이춤 보유자인 김복련의 자료와 제28호인 단청장 김종욱, 제14호 소목장 김순기의 작품도 보인다.

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동쪽 언덕을 오르면 방화수류정이 나오고 조금 더 가면 비각을 하나 만난다. 보물 제14호 광교산 「창성사지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이다. 광교산은 그 지리적인 위치와 특성만큼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엔 인근에서 가장 크고 높으므로 산신(山神)의 대명사가 되었을 것이고, 불교 전래 이후엔 불교문화가 꽃 피우는 현장이기도 하였다. 용인시 신봉동의 서봉사에는 현오국사(1127~1179)가, 수원시 상광교동의 창성사에는 진각국사(1307~1382)가 머물렀으므로 광교산은 고려시대에 두 국사를



\_무형문화재전수회관

배출한 산이기도 하다. 서봉사 터의 「현오국사비(玄悟國師碑)」는 보물 제9호로, 수원시 매향동으로 옮겨 세운 「진각국사비(眞覺國師碑)」는 보물 제14호로 지정되어 있다. 현오국사와 진각국사 모두 경북 영주의 부석사 출신이다.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화엄사상을 펼치기 위해 왕명으로 세운 절이니만큼 두 국사 역시 광교산에서 화엄사상을 펼쳤을 것이다. 산에 한 가지 나무만 자라지 않고 들에 한 가지 풀만 나지 않는 것처럼 두루두루 어우러져 살자는 것이 화엄사상의 요체이다. 그러나 광교산은 우리에게 혼자만 잘살지 말 것이며, 주변과 잘 어울리라는 교훈까지도 주는 셈이다. 진각국사는 특히 부석사의 무량수전을 책임지고 건축한 스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고건축물 중에서 최고로 꼽는 것이 부석사의 무량수전이므로 창성사의 불전들도 대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국사가 주석했던 창성사와 서봉사 모두 들풀 속에 그 자취를 숨길 뿐이다.



진각국사비각

비각을 지나 조금 더 오르면 이내 평지가 나타나면서 삼일학원이 나타난다. 이 학교 안에 경기도 기념물 제175호로 지정된 아담스기념관이 보인다. 1923년에 미국 아담스교회의 도움으로 건립한 건물이다. 설계는 아담스교회 선교부가 했고, 공사는 중국인 왕영덕이 맡았다.

아담스기념관이 있는 삼일학원을 나와 창룡문(동문) 밖 경기지방경찰청으로 향한다. 경찰청에서 용인 수지 방향으로 언덕을 내려가기 전 가스충전소 옆 산길로 접어들면 이내 봉녕사 일주문이 나온다. 도심 속에 고즈넉이 앉은 봉녕사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절이었다. 수원의 수많은 절 가운데 전통 사찰의 명맥을 가장 잘 이어 가는 절이기도 하지만, 비구니스님들이 대학 공부를 하는 승가대학이기도 한 봉녕사는 일정 부분 감추어진 절이기도 하였다. 광고산 자락이 남으로 내려와 경기대학교와 경기지방경찰청을 지나면 수원월드컵경기장으로 이어지는데, 봉녕사는 경찰청과 월드컵경기장 사이 산 속에 숨은 듯이 자리



\_아담스기념관

를 잡았다. 광고산은 많은 절을 거느리며 경기 지역 불교를 이끌어 온 성지였고, 그 하나의 맥이 봉녕사로 흐른다. 봉녕사는 고려시대의 고승 원각국사가 창건하여 성창사라 하였고, 1400년경에는 봉덕사로 이름을 고쳤다가 조선 예종 원년인 1469년 혜각국사가 중수하고 봉녕사라 하였다. 혜각국사는 세조로부터 스승 예우를 받았으며 간경도감의 경전언해에 기여한 스님이다. 아마도 봉녕사는 지금의 아주대학교 뒷산에 썼던 혜령군(세종대왕의 이복동생) 부부의 묘와 그 아들인 예천군과 손자인 축산군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포사(造泡寺: 두부를 만들어 왕실의 묘 제사에 공급하는 절)로 삼았던 것 같다. 봉은사, 봉선사, 봉원사 등의 받들 ‘봉(奉)’자가 들어가는 절은 왕실과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더구나 1469년이면 세종대왕의 영릉이 여주로 천장되는 해이기도 하다. 광고산에는 유독 국사와 관련된 절이 많았다. 창성사가 진각국사, 서봉사는 현오국사의 자취가 서린 곳인데, 이곳 봉녕사도 원각·혜각국사와 관련이 깊으니 광고산은 가히 불교성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다.

그 후 봉녕사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다가 1878년에 「영산회상도」, 「칠성탱화」, 「현왕탱화」가 조성된 것으로 보아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계속하여 1884년 약사여래 후불탱화, 1891년 신중탱화가 조성된 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19세기 말엽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큰 불사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봉녕사의 석조삼존불과 불화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1호와 제152호로 지정되었다.

봉녕사는 최근 30여 년 동안 꾸준히 불사를 진행하여 이제는 어느 곳의 절보다도 아름다운 사찰로 인정을 받는다. 필요한 만큼의 불사를 진행하면서 나무나 꽃들도 정갈하게 가꾸어 가는 모습이 단정한 여인의 옷매무새 같은 느낌이다. 새로 지은 대적광전의 깨끗하면서도 위엄 서린 모습이 감탄하게 되는데, 108번뇌를 상징하여 108평으로 지었다는 내부 마루는 스님들의 운력(運力)으로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인다.



\_봉녕사 대적광전  
\_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1호 봉녕사 석조삼존불



다시 경기지방경찰청 앞으로 나와서 장애인복지관 언덕을 내려가면 수원의국 어고등학교와 수원박물관이 나온다. 수원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수원의 역사적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보물 제1489호인 「박유 명초상화」와 제1631-3호인 『영조어필-읍궁진장첩』, 제1675호인 『박태유 필적-백석유묵첩』,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9호인 팔달문동종도 전시하고 있다. 드넓은 야외전시장에도 비석이며 고인돌 등을 전시하였다.

박물관에서 나와 영동고속도로 동수원나들목을 지나쳐 수지로 가다 보면 바로 옆에 오래된 무덤이 보인다. 하루에도 수많은 자동차가 이 길을 따라 고속도로로 들어가거나 나오고, 용인 수지 쪽에서 수원으로, 또 수원에서 용인 수지 방향으



로 물처럼 흐른다. 경기도 기념물 제53호로 세종대왕의 장인이자 소헌왕후 심씨의 아버지인 심온의 묘소와 사당이 있는 이곳은 광고산 자락의 끄트머리에 앉아서 원천저수지를 굽어보는 명당이다. 고속도로 때문에 광고산의 자락이 잘리긴 했어도 묘소에 올라 보면 조망이 좋은 장소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된다. 더구나 이 자리는 명품 광고신 도시를 굽어보는 장소임에랴!

심온(沈溫 : 1375~1418)은 고려 말에 과거에 급제하고 조선 초에 관료생활을 하면서 신생국가 조선의 기틀을 잡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 특히 태종 때인 1408년 세종의 장인이 되면서 호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지내는 등 태종의 국정 동반자가 된다. 그리고 사위인 세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영의정부사로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가는 영광도 누렸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사은사 일행이 명나라로 향할 때 연도에 사람들이 즐비하게 늘어섰고, 이 보고를 받은 상왕 태종은 불쾌해 했다고 한다.

왕위는 아들 세종에게 물려주고도 병권만은 놓지 않았던 태종을 비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로 심온이 지목되면서 불행을 겪게 된다. 심온이 사은사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국경에 도달하자 체포령이 떨어졌고, 이내 수원으로

\_팔달문동중(수원박물관 소장)



압송되어 사약이 내려졌지만 그는 자결을 하고 만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토사구팽(兔死狗烹)’이었다. 또한 권력이 왕의 장인에게 쏠리는 것을 두려워 한 상왕 태종의 결단이었다. 권력의 세계는 그만큼 냉철한 것인가 보다.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장인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세종과 아버지의 흉사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왕비 소헌왕후의 심정이 어땠을까?

나중에 무고임이 밝혀져 심온은 명예회복이 되어 시호까지 받았지만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죄인의 딸이니 소헌왕후를 폐비 시켜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하고 꾀꾀하게 왕비를 지킨 세종이 더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묘비는 세종의 셋째 아들이고 당대 명필인 안평대군의 글씨이다.

심온의 사당과 묘역 주변에는 최근 광고신도시의 건설로 혜령군과 가족들의 묘소가 이전해 왔다. 심온의 입장에서 보면 태종은 원수나 마찬가지로 지이다. 그런데 태종의 아홉 번째 아들인 혜령군(惠寧君 : 1407~1440)의 묘소가 하필이면 심온의 묘

심온 묘역

소에서 뵈히 바라보이는 앞산에 들어섰다. 아마도 동생을 사랑한 세종이 동생의 묘를 수원에, 그것도 장인의 무덤 근처에 쓰게 하면서 두 묘역을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한 것이리라. 그래서 혜령군의 묘소는 수원 유일의 왕자묘가 되었다.

이복동생이지만 서른넷이라는 젊은 나이로 혜령군이 죽자 세종대왕은 매우 애통해 하며 3일 동안 정사를 폐지하고 장례를 잘 치르도록 물품도 후하게 내렸다. 또한 친히 제문을 짓고 ‘양회(襄懷)’라는 시호도 내려준다. ‘양(襄)’은 살아서 국사에 큰 공로가 있었음[因事有功]을 뜻하며, ‘회(懷)’는 “인자하면서 일찍 죽은 것이 안타깝다[慈仁短折].”는 내용으로 동생에 대한 세종의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의 마음이 보인다.

혜령군은 외아들 예천군과 세 딸을 두었는데 예천군의 묘소도 혜령군 묘역 근처에 썼고, 역시 예천군의 아들인 축산군의 묘소도 주변에 들어섰다. 그러나 혜령군 가족의 묘역이 광고신도시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득이 이 묘소들을 모두 옮기게 된다. 물론 혜령군의 후손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한다. 새로 옮기는 장소는 심온의 묘역 서쪽이어서 세종의 가족 공원이 꾸며지게 되는 셈이다. 장인과 이복동생 부부의 묘소, 그리고 이복동생의 아들과 손자의 묘까지.

수원의 동부권 답사는 여기까지이지만 심온 묘에서 한 정거장 거리의 용인 상현동에 정암 조광조의 묘가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 다시 한 정거장 가면 조광조를 모신 심곡서원이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용인 수지의 광고산 형제봉 동쪽에 가면 서봉사 터와 「현오국사비」가 연륜을 더한다.

■ 동부권 문화유산 답사 순서

수원화성박물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 아담스기념관, 봉녕사, 수원박물관, 서예박물관, 심온 묘와 사당, 혜령군 묘와 사당, 용인의 조광조 묘, 심곡서원, 서봉사지와 현오국사탑비

서부권 문화유산 답사는 화성의 서문인 화서문 밖에서 시작한다. 화서문을 나서면 정면으로 보이는 산이 숙지산이다. 이곳은 화성 건설에 필요한 석재를 가장 많이 떼어 낸 수원시 향토유적 제15호 숙지산 화성 채석장이다. 1794년(정조 18) 정월 초7일 화성 성역은 고유제를 지내고 돌을 떠내는 것으로 그 첫발을 내딛는다. 화성 성역에 필요한 돌을 떠내는 부석소는 모두 다섯 군데였다. 숙지산과 연기산에 각각 두 곳을 설치하고, 권동(權洞)에 하나를 두었다. 숙지산은 지금의 영복여중·고와 화서아파트 주변이고, 여기산은 농촌진흥청의 뒷산이며, 권동은 화서동과 고등동의 수원역 근처 경계 지점이다.



\_숙지산 화성 채석장 빼기 자국

처음 화성을 쌓으려고 계획할 때 이 지역에는 돌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벽돌을 써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토성을 쌓아야 한다고 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그런데 화성부의 서쪽 5리쯤 되는 공석면에는 숙지산이, 또 그 서쪽으로 5리 되는 곳에 여기산이 자리 잡았다. 처음에는 바위가 흙에 덮여서 한 줌의 돌도 보이지 않았으나, 돌뭍을 찾아 들어가자 그대로 이리저리 걸쳐서 모습을 드러내었다. 대체로 숙지산 돌은 강하면서도 결이 가늘고, 여기산 돌은 부드러우면서도 결은 거칠었다. 권동의 돌은 여기산과 같았으나 결이 조금 더 가늘었다. 팔달산의 돌은 숙지산에 비하면 더 강하고 여기산 것보다는 더 거칠었다.

『화성성역의궤』에 나오는 내용이다. 또 돌을 캔 숫자를 모두 계산해 보면, 숙지산 돌이 8만 1,100여 덩어리, 여기산 돌이 6만 2,400여 덩어리, 권동의 돌이 3만 200여 덩어리, 팔달산 돌이 1만 3,900여 덩어리였다. 공석면의 숙지산과 여기산에서 캔 돌을 합하면 약 14만 3,500여 덩어리가 되어 전체의 76.5%로, 대부분의 돌이 공석면에서 캐낸 것이 되어 공석면은 그야말로 공석(空石)이 된 것이다. 지금도 숙지산과 여기산에는 여러 곳에서 돌 떠낸 흔적이 보인다. 특히 영복여자중·고등학교 뒷산과 연초제조창 앞 숙지산의 북서쪽, 그리고 농촌진흥청 뒤 여기산에 많다. 여기산에서는 또한 토성과 선사시대 유적이 조사되어 경기도 기념물 제201호로 지정되었다.

여기산 아래에 농촌진흥청이 설치되는 데에는 경기도 기념물 제200호 축만제(서호저수지)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설립한 권업모범장이 그 시초라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의견이다. 1799년(정조 23)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화성의 서쪽에 축만제(祝萬堤)를 조성한다. 1795년 화성의 북쪽에 이미 축조한 만석거의 효과가 아주 좋았기에 이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만석거의 혜택을 받는 대유평과 축만제의 수리담인 서둔(西屯) 평야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도시 화성을 위해 조성된 기반시설이다. 이것도 사실 화성 성역의 일환이었지만 빈민 구제를 위한 토목공사이면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이므로 농업 생

산성 증대를 위한 프로젝트였다. 화성관 ‘뉴딜’ 정책인 것이다. 가뭄과 기근을 정면 돌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만석거와 대유둔(大有屯), 축만제와 서둔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성(城)을 성 밖에 쌓은 것이다. 만석거와 축만제 등 저수지와 둔전은 화성을 지키는 또 하나의 성이 된다. “서쪽 둔전의 방죽에 물을 가두어서 북쪽 둔전의 논과 이어지게 하고 만석거와 통하게 하며 요충 도로를 차단하여 앞쪽과 왼쪽에 물과 못을 두는 뜻을 가지게 된다.”는 논리이다. 성 밖에 힘들여 해자를 두르는 대신 저수지와 둔전을 경영함으로써 적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축만제의 제방 서쪽 끝에는 날아갈 듯 정자 하나가 자리를 잡았는데 바로 수원시 향토유적 제1호 향미정이다. 1831년 화성유수였던 박기수(朴綺壽)가 축만제의 풍치를 더욱 빛내고자 세웠다고 하는데, 실제 이 정자로 축만제와 향미정은 서로 빛내 주는 존재가 된다. 본래는 화성 장안문 밖의 폐사된 건물을 옮겨 지었다고 하나 어떤 건물을 옮겨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서호(축만제) 왼쪽 산 아래에 보이는 건물이 농촌진흥청이다.



소동파(蘇東坡)의 ‘항주(杭州)의 미목(眉目)’이라는 시구에서 따서 ‘항미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중국의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에도 서호가 있고, 그 호수 변에 ‘항미정’이라는 정자가 놓였다고 한다. 항주는 마르코 폴로가 13세기에 이곳을 보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곱고 멋있는 도시”라고 극찬한 곳인데,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한 중국 시인은 “아침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비 오는 날에도 좋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리고 서호가 없다면 항주에 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로 항주를 대표하는 명승이다. 그래서 축만제라는 본래의 이름보다 서호라는 별칭으로 더 알려지기도 하였다.

여기산 유적과 마찬가지로 울전동에서도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그 언저리에 가면 강명길(康命吉 : 1737~1800) 묘소가 눈에 띈다. 정조는 워낙 총명하기도 하였지만 의학에도 관심이 많은 군주였다. 그 할아버지인 영조가 노쇠하여 질병에 시달릴 때 친히 약을 달이고 볶는 등 내의원



\_항미정

의 어의들과도 겨룰 만큼 의학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였다. 특히 자신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보다 두 살 아래인 어의 강명길과 절친하여 서로 의학 지식에 대한 교감을 수십 년 동안 나누었다.

강명길은 32세 되던 해인 1768년(영조 44) 의과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이듬해에 대궐 안의 의약을 맡아 보던 부서인 내의원의 의관이 되었고, 정조가 왕세손이었을 때에 특별히 사랑을 받아 의약에 대한 자문을 맡기도 하였다. 심지어 58세 때인 1794년(정조 18)에는 강명길이 전에 삭녕군수(현 연천군의 일부)로 있을 때 저지른 비리를 암행어사인 정약용이 고변했음에도, 또 부평부사로서 저지른 비리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의원의 제일 높은 의원인 수의에 임명된다. 지방관으로서의 강명길보다는 의사 강명길의 능력을 정조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가 64세 때, 정조가 49세로 승하하자 왕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1800년 7월 13일 죽임을 당하였다. 정조가 승하한 지 보름이 되는 날이었다. 강명길의 묘소는 그 능력을 알아준 군주 정조의 염력 덕분일지 정조가 그토록 야심차게 추진한 신도시 수원으로 옮겨 온다. 본래는 양주 노원(현 서울시 노원구)에 묘



강명길 묘역  
시멘트로 바른 강명길 묘의 봉분

를 썼지만 그곳이 서울시로 편입되면서 주택이 한가운데 놓이게 되어 후손들이 1965년 수원으로 이장하게 된다. 강명길의 묘소는 이제 장안구 울전동 밤밭저수지 바로 위 야트막한 동산에서 저수지를 내려다보며, 자신을 사랑했던 정조가 만든 ‘새 수원’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묘소 주변에는 이끼가 끼었고 봉분은 어찌된 일인지 화강석으로 쌓아 올리고 시멘트로 덮기까지 하였다. 시대를 풍미하며 새로운 의학의 보급에 앞장섰던 주인공의 무덤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동의보감』을 보완한 의서 『제중신편』이 그의 역작이다.

수원의 경계에 들지는 않지만 옛 수원의 서부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는 서해의 큰 포구로 이름을 날리던 마을이다. 수원에 가장 가까운 바다 포구였다. 포구로 들어가는 민물인 동화천의 상류에 있는 매송면 원평리 산에 오르면, 단양 우씨 우성전(禹性傳 : 1542~1593)과 우하영(禹夏永 : 1741~1812)의 묘역이 있다.

■ 서부권 문화유산 답사 순서

숙지산 채석장, 여기산 채석장, 축만제, 향미정, 강명길 묘, 화성시의 구포나루터, 우성전·우하영 묘

팔달문 서쪽 팔달산으로 올라가 남쪽 능선이 끝난 지점에서 수원의 남부권 문화유산 답사를 시작한다. 아래에서 오르려면 향교 옆 언덕을 올라 수원시민회관 앞에서 오른쪽으로 도서관을 지나 산으로 올라가면 된다. 이곳은 여름에 특히 시원한 곳으로 각광받아서 인근 노인들이 즐겨 찾아 피서를 하는 곳인데, 여기에 경기도 기념물 제125호인 고인돌 4기가 놓였다. 물론 그 형체들은 우리가 익히 보아

왔던 온전한 형태의 고인돌은 아니지만 보호 철책에 에워싸여 있다. 이곳의 고인돌에서 갈아 만든 돌칼과 청동기 일부가 출토되었다.

고인돌에서 내려오면 향교의 외삼문에 이르게 된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인 수원향교는 1291년(고려 충렬왕 17) 옛 수원의 터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정확한 자리는 알 수 없다. 다만 1789년(정조 13) 새 수원을 건설할 때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서 옮겨 왔다는 것과 지금의 건륭 자리가 옛 향교 터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건륭 자리에서 봉담읍으로, 다시 지금의 자리인 수원시 교동으로 옮긴 것 같다. 수원향교는 홍살문을 지나 14보쯤 들어가면 외삼문이 나오고 6~7보쯤 들어가 층을 높여 널찍한 대지를 만들었다. 여기에 명륜당을 가운데에 앉히고 동재와 서재를 벌여 세웠으며, 동재 뒤편 동쪽 담 밖에는 전사청을 세웠다. 또 담장 안 동재 남쪽에 네모난 연못 하나를 팠다. 명륜당에서 여러 층계를 올라가면 신



팔달산 지석묘

문(神門：내삼문)이 나오고 신문 안에 대성전과 그 좌우에 동무와 서무를 두었다. 홍살문과 외삼문, 명륜당, 내삼문, 대성전 순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조금씩 고도를 높여 가면서 격을 달리하는 문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신성성을 고조시켜 나간다.

을묘년(1795년 윤2월) 어머니 회갑연을 위해 수원에 온 정조는 수원에서의 일정 가운데 향교 대성전 참배를 첫 번째로 한다. 물론 유교가 국가의 통치이념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정조가 참배했을 때 대성전은 위태로운 지경이었던 것 같다. 정조가 다녀간 뒤 두 달여 만에 수원유수 조심태가 장계를 올리고 임금의 윤허를 받아서 보수한다.

향교에서 나와 큰길 매산로를 만나 왼쪽으로 꺾어 들어 조금만 가면 붉은 벽돌의 고풍스런 건물과 만난다. 수원시 향토유적 제18호로 지정된 옛 수원문화원 건물이다. 일제시기에 무진회사로 사용되다가 해방 후 수원문화원으로 쓰인 2층 건



물이다. 규모가 크지도 않고, 화려하게 지은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은 건물이다. 한울타리의 큰 건물은 수원시청으로 쓰다가 권선구청이 물려받았고, 지금은 수원시가족여성회관으로 사용한다.

가족여성회관 뒷문으로 나와 팔달문을 향하다 보면 역시 고풍스런 건물과 만난다. 이곳이 향토유적 제19호로 지정된 옛 부국원 건물이다. 부국원은 1916년 설립된 회사로 주로 농작물 종자와 농기구 등을 판매하였다. 지금은 출판 관련 편집 및 디자인 사무실로 사용 중인데, 내부 지붕층을 개조하여 3층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건물이 많이 낡았으나 특별한 개·보수 등을 하지 않아 원형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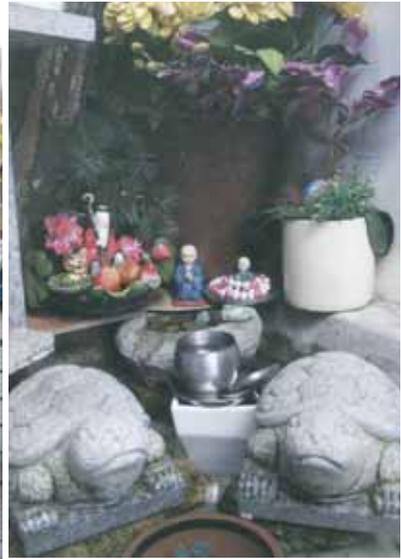


左 수원향교 분향식  
右 일제시기 무진회사로 사용되었던 건물



부국원 건물을 보고 중동네거리로 나와 길을 건너면 녹산문고가 나오는데, 이 자리는 원래 거북산이었다. 야트막한 구릉이 꼭 거북이처럼 생겨서 붙인 이름이란다. 특히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 팔달산에서 바라보면 거북이가 팔달산을 향해 오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거북산의 이름을 이어 가는 또 하나의 흔적이 바로 녹산문고 길 건너에 보인다. 수원시 향토유적 제2호인 거북산당이다. 수원 민속신앙의 중심이었던 거북산당은 지금은 초라한 상태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가로 4.9m, 세로 2.5m, 면적 12.25m여서 네 평도 채 안 되는 크기이다. 그래도 아직은 이 산당을 지키는 만신이 거주하며 촛불을 밝힌다.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 신을 모시고 해마다 음력 7월 7일과 10월 7일에 제사를 지내는데, 영

\_옛 부국원 건물



동시장 상인들이 주축이다. 도당할아버지는 관우 장군의 모습 같다고 하며, 관우 장군을 모신 당집에는 상인들이 자주 찾아와서 복을 빈다고 한다. 우리 민속에서 관우 장군은 재물을 안겨 주는 신으로 추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북산당은 수원 화성을 축조하기 이전인 1790년경에 세웠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새 도시 수원의 구심점이었다가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상인들의 재물 복을 빌어 주는 신당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거북산당 주변은 영동시장의 일부이면서 싸전(미곡상)거리였다. 1950~1970년대 번성기에는 60여 개의 점포가 경기 남부 지역의 곡식을 좌우하며 성업하였던 곳이다.

거북산 자리 옆은 수원천이다. 이 하천을 따라가면 세류동과 만나고 황구지천이 되어 옛 수원의 터전으로 들어가게 된다. 옛 수원의 중심은 지금의 읍·건릉 주변이다. 여기에 수원 고읍성이 토성으로 일부 남아 있다. 읍성이란 군이나 현의

거북산당  
거북산당 안에 모신 거북석상



주민을 보호하고, 군사적·행정적인 기능을 함께하는 성을 말한다. 고려 때 수원에 읍성으로 쌓았으며, 조선 1789년(정조 13)에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읍성(화성)을 쌓을 때까지 사용되었던 곳이다.

정조는 1789년 사도세자의 묘소(영우원)를 양주군 배봉산에서 수원부의 뒷산으로 옮기고, 이름을 현릉원(顯隆園)이라고 바꾸었다. 새 수원으로의 이주 작업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이다. 1790년에는 용주사를 세워 아버지의 넋을 달래 준다. 아버지의 묘소를 좋은 장소로 옮기고 슬픈 넋을 달래 주어서인지 6월 18일 왕자가 태어났다. 먼저 태어났던 문효세자는 벌써 죽고 왕자가 없는 상태였으니, 왕조 국가에서는 나라의 커다란 축복이었다. 더구나 이날은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생일이다.

\_수원 고읍성지(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정조는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는지 무덤의 석물을 최고로 썼다. 그래서 용릉은 조선 문화의 백미가 그대로 정지된 듯한 아름다우면서도 정갈한 모습이다. 오히려 왕이었던 정조의 무덤인 건릉은 문화적으로 용릉에 비할 바가 못 될 정도로 초라하다.

용릉과 건릉을 돌아보고 나와서 양쪽으로 구비된 주차장 가운데로 곧장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주말농장이다. 관광호텔 옆 홍법사 뒤로 가면 커다란 바위가 놓였는데, 바로 효암이다. 이는 최루백의 효심이 깃든 바위이다.

다시 용릉과 건릉으로 되돌아와서 병점 방향으로 2km 가면 용주사가 나온다. 본디 신라 말의 갈양사 터에 현릉원의 조포사(造泡寺：願刹)로 건립하였다. 작은

용릉 병풍석, 혼유석의 고석 등 석물의 조형미가 빼어나다.

절 갈양사의 과거는 꽤 화려했던 것 같다. 고려 초에 주성된 것으로 보이는 범종(국보 제120호)이 지금도 갈양사의 영화를 말해 준다. 한국 종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말없이 전성기를 증명한다. 갈양사에서 말년을 보낸 혜거국사의 비문에 따르면 971년(고려 광종 22)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수륙재가 갈양사에서 열렸다고 한다. 수륙재는 물이나 육지에서 해매는 영혼과 아귀들을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는 불교의식이다. 왕실의 원찰로 건립된 용주사는 이제 경기 남



\_국보 제120호 용주사 범종(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_용주사 전경(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부의 조계종 사찰을 대표하는 본사가 되었다. 정조와 화성 관련 유물도 전시관에 잘 갈무리하였다.

수원에서 오산으로 가는 길 오른쪽으로는 독산(秃山)이 저 홀로 우뚝 섰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보면, 광고산을 몸으로 하고 남쪽으로 양쪽 팔을 둥그렇게 오므린 것처럼 산줄기가 이어진다. 이 산줄기의 안쪽은 대부분 지금의 수원 지역이다. 그런데 수원을 에워싼 양팔 중에서 오른쪽은 용·건릉이 앉은 화산(花山)에다 정기를 모아 놓았고, 왼쪽은 세마대가 있는 독산에다 독산성으로 또아리를 틀었다. 그리고 이 둥그런 산맥 안쪽에서 흘러내린 물길들은 황구지천을 이루어 화산과 독산 사이로 흘러 서해로 빠진다. 이 부분이 수원의 물이 모두 나가는 수구(水口)이다. 이 산꼭대기의 독산성은 예로부터 ‘수원 고읍성’의 대피용 산성으로 경영되었다. 산성이니 방어에 효과적이고 황구지천을 건너야만 접근할 수



세마대(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있어 자연의 해자를 두른 천연의 요새라고 하겠다. 여기에 올라 보면 옛 수원의 중심인 용·건릉 일대가 내려다보이면서 황구지천이 가로막혀서, 수원 관아에 쳐들어왔던 적이 독산성으로 대피한 아군의 행보를 눈치 채더라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는 임진왜란 당시에 독산성 세마대(洗馬臺) 전설로 남아 산성의 우수함을 다시 일깨운다. 서울을 되찾기 위해 독산성에 머무르던 권율 장군과 병사들은 물이 적어 고생하였고, 이를 안 일본군은 포위망을 점점 좁혀 왔다. 위기를 느낀 권율 장군은 말 잔등이에다 쌀을 쏟아 붓게 하여 먼 곳에서는 말을



\_독산성(화성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물로 씻기는 것처럼 보이게 연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권을 장군은 행주산성을 거쳐 서울을 수복하는 데 큰 공을 세운다. 그래서 세마대의 전설로 남았다.

독산성 동쪽 죽미고개는 1950년 7월 5일 유엔군의 일원으로 온 미국의 스미스 부대 장병들이 유엔군 최초로 공산군과 전투를 벌였던 곳이다. 그래서 유엔군 초전 기념비가 죽미고개 동·서쪽에 하나씩 세워져 있다. 1955년 서쪽에 세운 기념비가 초라하다고 생각했는지 제5공화국 때 동쪽에 커다랗게 또 하나를 세웠다. 기념비의 크기만으로 산화한 장병들의 업적과 영령들을 추모하는 것은 진정 아닐 터인데 …… . 바로 옆 외삼미동 예비군 교육장 산줄기 끝에는 고인돌들이 철책에 둘러싸여 있다. 이곳이 예로부터 사람이 살아가기에 좋은 땅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구나 여기의 고인돌은 북방식과 남방식이 나란히 한다는 것 때문



\_오산 외삼미동 고인돌(오산시청 포토갤러리 제공)

에 더욱 중요하다고 안내판에 써 있다. 같은 민족의 남과 북이 각각 외세의 지원까지 받아 가며 싸움을 했던 곳에 남방식과 북방식 고인들이 나란히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남과 북 화합의 장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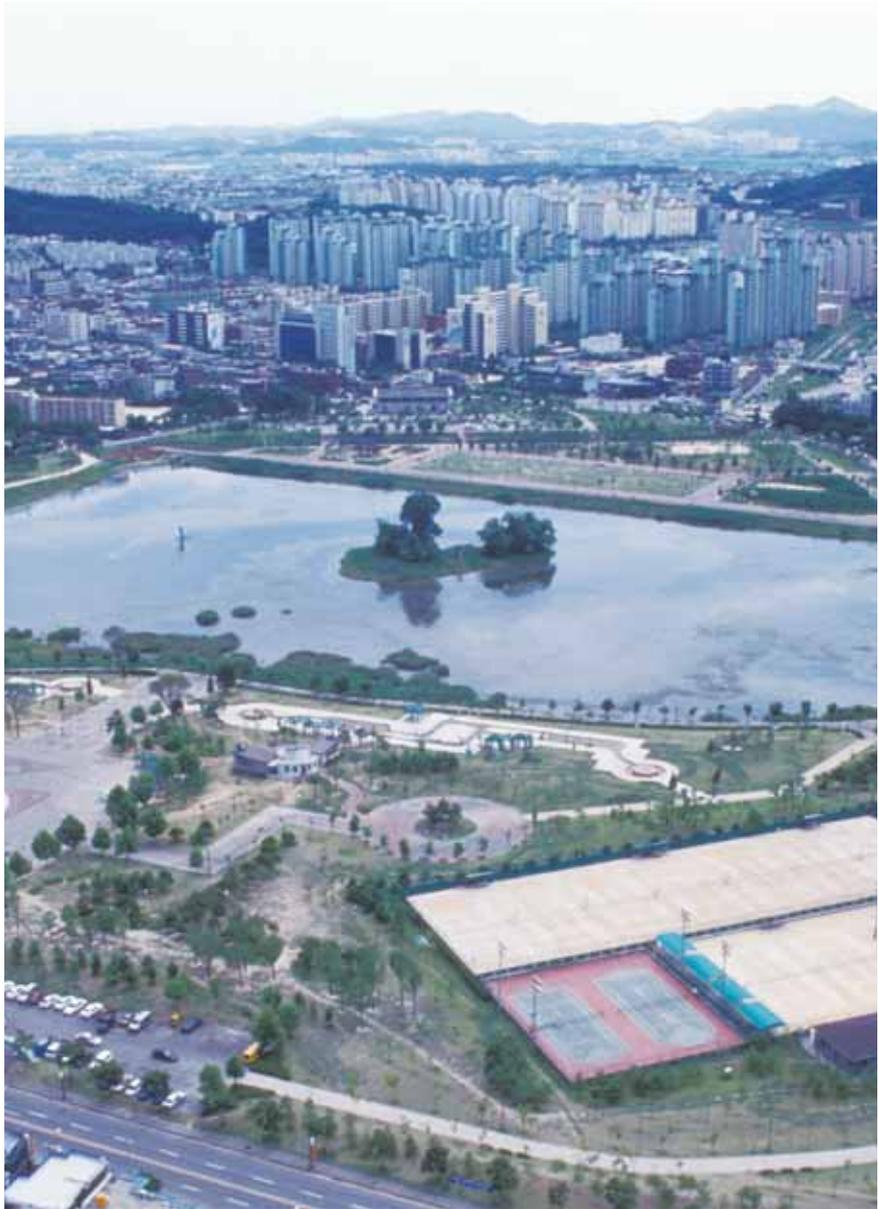
남방식 고인들이 평양에서도 발견되고 북방식 고인들이 전북 고창에도 있으므로 이제는 남방식이다 북방식이다 하는 지역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고인들의 생김새로 구분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외삼미동 고인들을 보면 그 주장에 더 설득력이 더해진다. 어찌면 냉전시대 남과 북의 대립되는 이념이 청동기시대의 유적에까지 과급된 현상일지도 모른다.

고인들의 덮개돌에 파인 수많은 성혈(性穴 : cupmark)에서 토속신앙의 한 흔적도 만져진다. 자식을 접지해 달라고 돌을 비벼 댄 어머니들의 그 거룩한 마음이 반질반질하게 느껴진다. 목욕재계하고 자그마한 애돌[子石]을 가지고 와서 그 돌이 고인들에 붙을 때까지 비나리하며 돌려 댔을 우리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들 마음이 전해진다. 새로 난 고속도로에는 무심한 차들만 썩썩 달린다.

■ 남부권 문화유산 답사 순서

팔달산 지석묘군, 수원향교, 옛 수원문화원 건물, 부국원 건물, 거북산당, 화성의 수원고읍성, 용릉·건릉, 최루백·염경애 유적, 용주사, 오산의 독산성과 세마대, 외삼미동 고인돌

화성의 북문인 장안문 밖 5리 지점, 지금은 만석공원이라고 알려진 호수공원에 간다. 이곳은 정조의 애민정신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이다. 본래 이름은 수원시 향토



만석거와 만석공원

유적 제14호 만석거(萬石渠)이다. 만석거는 광교산 서쪽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모아 두었다가 농사에 요긴하게 쓰기 위한 저수지이다. 1795년 3월 초하루에 독을 쌓기 시작하여 5월 18일에 완성하였으니 두 달 반가량이 걸렸다.

이보다 앞선 1795년 윤2월 14일,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끝내고 화성을 답사하였다. 아직 화성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화서문부터 방화수류정까지 돌아보았다. 장안문 문루 2층에 앉아서 화성유수 조심태로부터 북쪽의 황무지 개간과 저수지 축조에 대한 보고를 듣고는 즉석에서 내탕금을 내려주기로 약속하였다. 이 국왕의 약속과 지방관의 실천이 불과 석 달 만에 빛을 본 셈이다. 또한 저수지 제방에 관개수로(灌溉水路)를 만들어 논에 물을 대기 좋게 하고, 그 위에는 나무다리를 걸쳐 놓아 방죽 위의 길과 같은 너비로 가마길이 되게 하였다. 다리의 이름은 여의교(如意橋)이고, 관개수로 안쪽에는 갑문을 설치하고



\_복원된 영화정

14층의 칸막이 판자를 놓아 수량을 조절하도록 만들었다. 1795년 가을부터 물을 받아 호수에 들여보내고, 남쪽 언덕 위에 정자(영화정) 하나를 세운 것은 1795년 10월 초3일의 일이다. 1796년 봄에 임금이 들렀을 때 명령을 내려 영화정(迎華亭)이라고 현판을 걸었는데, 글씨는 화성유수 조심태가 썼다. 이 8칸짜리 영화정은 교구정(交龜亭)으로서의 역할도 하였다. 수원 관부의 첫 경계가 되는 곳이어서 수원유수가 바뀔 때는 반드시 이곳에서 행사를 갖게 되는데, 신·구 유수가 거북이 모양의 관인을 주고받기 때문에 교구정인 것이다. 만석공원의 동쪽에 영화정을 복원했지만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는 없다. 만석거는 선진영농의 상징이었고, 화성추팔경 가운데 석거황운(石渠黃雲)은 누렇게 익은 벼가 황금물결을 이룬 만석거 주변의 풍경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논 한 배미 없는 도시가 되어서 가을이 와도 황금들녘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만석거를 탐돌이 하듯 빙빙 돌면서 운동에 열심인 시민들 모습만 보일 뿐 …….

만석거에서 북쪽으로 가면 송죽동이고, 그 서쪽이 과장동이다. 광주 이씨들의 동족마을이었다. 서울로 가는 산업도로 오른쪽에 초가가 한 채 보이는데, 중요민속자료 제123호인 광주 이씨 월곡택이다. 새마을 사업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행랑채는 양기와로, 헛간은 슬레이트로 지붕을 이었으나 안채는 초가 그대로 내려오다가, 1993년에 지붕을 모두 원래대로 초가로 바꾸고 벽을 대부분 수리하였다.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가옥인데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

광주 이씨 월곡택에서 나와 산업도로를 따라 서울 방향으로 조금만 가면 영동고속도로와 만나게 되고 큰길을 버리고 오른쪽 좁은 길로 접어든다. 이 길이 원래 지지대고개이다. 그리고 바로 시내버스 종점이 나온다. 그 앞에 기와지붕을 한 작은 집 법화당이 보이는데, 마을 사람들은 ‘미륵당’(수원시 향토유적 제5호 미륵당)이라고 부른다. 마을을 지켜 주고 지지대고개를 넘나드는 사람들의安危를 빌어 주던 미륵불이 들었기 때문이다. 화강암으로 조성한 미륵불은 2.5m가량 되는데, 머리가 크고 얼굴 표정은 생동감이 다소 떨어진다. 이는 조선 중기 이후에

불교신앙이 민간신앙과 결합한 현상이다. 인근 가게에 얘기하면 열쇠를 내준다.

미륵당에서 고개 쪽으로 조금 더 오르면 다리가 나오는데, 괴목정교이다. 지금은 다리를 시멘트로 건설하였지만 표석만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표석이 기울어져 파손 위험 때문에 박물관으로 옮기고 새 표석을 똑같이 만들어 세웠다.

수원에서는 북쪽 관문인 지지대고개를 가기 전에 경기도 기념물 제19호 노송지대를 만난다. 정조 임금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고 참배를 하기 위해 행차할 때마다 이용하던 길이다. 옛 정취를 그대로 느끼게 하는 것이 길가에 심은 소나무들인데, 연륜이 깊어 가면서 노송이 즐비한 길이 되었고, 이내 이 주변을 노송지대로 부르게 되었다. 한때는 서둔동의 ‘푸른지대’처럼 포도밭이 즐비하였고 그 주변에 딸기를 심어서 봄이면 딸기로, 가을이면 포도 때문에 사람들로 길이 메어질 정도의 ‘번화가’였다.



\_광주 이씨 월곡택 예전에는 과장동 이병원가옥으로 불렸다

노송지대에서 연결된 지지대고개는 지금은 고개 같지 않은 길이지만 30년 전만 하더라도 꽤나 험한 고갯길이었다. 게다가 자동차가 변변치 않던 시절인지라 이 고개를 넘나드는 트럭이며 버스들이 아주 힘겹게 오르거나 사람들이 뒤에서 밀어 주어야 겨우 오르곤 했던 고개이다. 또 인근의 주민들이 소달구지에 나뭇짐을 싣고 서울에 가서 팔고 오던 고생길이기도 하였다. 정조 임금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릉원에 행차할 때마다 이 고개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특히 서울로 돌아갈 때는 더욱 시간을 끌었다. 이제 이 고개만 넘어가면 수원을 벗어나기 때문이고, 먼발치로나마 현릉원의 화산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고개 이름은 지지대가 되었다. 고개 이름은 공자가 조국인 노나라를 떠나면서 한 말, “지지하도다. 나의 발걸음이여!”에서 지지(遲遲)를 따다가 붙인 것이다. 그 조국을 생각한 공자와 아버지를 생각한 임금의 한이 느껴진다. 그래서 1807년(순조 7) 그



\_수원시 향토유적 제5호 미륵당  
\_미륵당에 모신 미륵불



노송지대

의 효성을 전하자는 신현의 건의에 따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호 「지지대비」를 세워 그 뜻을 기리고 있다. 길에서 보면 비각은 잘 보이지 않고 비각으로 오르는 계단만 보인다.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길가에 차를 세울 수도 없다. 고개에서 수원 방향으로 조금 내려가면 나오는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거슬러 올라 가야 한다.

만석거는 광교산에서 흐르는 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저수지이고, 광주 이씨 월곡댁도 광교산 자락에 있고 지지대고개도 광교산 줄기이다. 이후에 찾아갈 유적지도 모두 광교산에 속해 있지만, 가는 길은 다시 장안문 밖에서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뒤로 가면 1777년(정조 1)에 비구니 청련(靑蓮)이 심낙서(沈樂瑞) 등의 시주를 얻어 창건했다는 청련암이 나온다. 극락보전에는 아미타삼존불과 18나한상(羅漢像) 및 후불탱화·나한탱화·신중탱화·현왕탱화(現王幀畵) 등이



\_지지대비각(1978년) 계단 아랫부분에 '지지대(遲遲臺)'라고 각자되어 있다.



봉안되어 있고, 칠성각에는 칠성탱화와 산신탱화가 봉안되었다. 탱화 대부분은 경기도 유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었다.

광교저수지를 지나 호젓한 길을 가다 보면 영동고속도로와 만난다. 길 오른 쪽 고속도로 옆에 커다란 묘역이 보이는데, 수원시 향토유적 제22호 이고(李臯 : 1341~1420)의 묘소이다. 팔달산이라는 산 이름도 이고와 관련된 지명이며, 착하게 살아갈 권한다는 ‘권선’구와 ‘권선’동도 이고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손들이 종종 재산으로 ‘박지성이 축구를 익힌’ 수원공고를 세운 것은 두고두고 ‘착한’ 일로 회자될 것이다.

광교산은 예전부터 89암자를 거느린 산으로 유명하였다. 그 흔적들이 봉녕사며 청련암 등으로도 명맥을 이었지만, 국사를 배출한 두 절인 창성사 터와 서봉사 터 등 폐사지로도 각광을 받는다. 아직 정교한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두 절터를 발굴하면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을까? 그 밖에도 광교산 버스 종점에서 계곡을 따라 오르면 나오는 ‘절터약수터’는 미학사 터로 밝혀졌다.

\_청련암



수원시 향토유적 제4호인 창성사 터로 가려면 종점 다리를 건너기 전 식당을 관통해야 한다. 약수터 두 곳과 거대한 석축, 주춧돌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안쓰럽다. 국사가 주석했던 절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 폐허가 되었다.

창성사 터에서 비로봉을 향해 산을 오르면 봉우리 너머이고, 형제봉 쪽에서 오르면 비로봉 바로 못 미처 왼쪽에 경기도 기념물 제38호 김준룡 장군 전승지와 비가 나온다. 수려하고 잘생긴 큰 바위에는 ‘충양공김준룡전승지(忠襄公金俊龍戰勝地)’라고 새긴 글씨가 보인다. 광교산은 이제 명산으로 인정받아서 변화가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수많은 등산객 중 이곳 김준룡 장군 바위를 찾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장군의 기개와 바위의 기운이 뭉친 곳인데 …….

■ 북부권 문화유산 답사 순서

만석거와 영화정, 광주 이씨 월곡택, 미륵당, 괴목정교, 노송지대, 지지대비, 청련암, 광교산 이고 묘, 미학사지, 창성사지, 김준룡장군전승지

## 02

---

일련번호	지정 번호	지정 일자	문화재명	소재지	시대	유적종류
1	사적 제3호	1963.01.21.	수원 화성 (水原 華城)	수원시 일원	조선	성곽
2	사적 제115호	1963.01.21.	수원 화령전(華寧殿)	팔달구 신평동 123	조선	전각

## 비고

수원시 일대에 있는 조선 후기의 읍성.

수원 시대에 우뚝 솟은 팔달산을 중심으로 한 산성과 시가지를 둘러싼 평산성으로 우리나라 성 가운데 가장 발전되고도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 '한국 성곽의 꽃', '한국 성곽의 총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본래 수원은 지금의 화성시 태안을 송산리에 있었으나 조선시대 정조가 생부인 장헌세자의 능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기면서 그곳에 있던 관가와 사람들도 지금의 팔달산 아래로 옮기게 되었다. 이때 옮겨 온 사람들의 안정과 살림을 위해 수원부를 화성으로 바꾸고, 1794년(정조 18)에 성을 쌓기 시작하여 2년 뒤인 1796년에 완성하였다.

성의 축조는 실학자 정약용(1762~1836)의 기본 설계를 지침으로 좌의정 채제공(1720~1799)이 주관하고 화성유수 조심태 등이 전력하여 이룩한 것으로, 우리나라 성곽 중에서 구조 배치가 과학적이면서도 우아하고 장엄한 면모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성곽 축조에 석재와 벽돌을 병용한 점, 화살과 창검을 방어하는 구조와 총포를 방어하는 근대적 성곽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 성곽 건축사상 가장 독보적인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화성은 동·서양 축성술이 집성된 당대 최고의 건축이었던 만큼 1997년 12월 6일 유네스코로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았다. 그리고 팔달산 아래에는 행궁을 지어 현릉원에 행차하는 임금이 잠시 머물 수 있게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원시는 매년 10월 화성문화제를 개최하여 정조의 효심을 기리고 있다.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재위 1776~1800)의 초상화를 모셔 놓고, 제사를 지내던 전각.

제23대 임금 순조는 아버지 정조의 지극한 효성을 본받기 위하여 1801년(순조 1)에 수원부의 행궁 옆에 건물을 짓고 화령전이라 하였다. 처음 지어질 당시의 화령전은 정조의 초상화를 모셔 놓은 정전인 윤한각을 비롯하여, 이안청·재실·전사청·향대청·제기고·외삼문·내삼문·중협문이 있었다. 이 중 남쪽에 있었던 향대청과 제기고 건물은 남아 있지 않다. 정전 현판의 글씨는 순조가 직접 쓴 것이다. 이곳에 속하는 건물들은 대부분이 정전인 윤한각의 건축규범에 따라 지어졌다. 특히 이안청은 지붕이 있는 복도식으로 정전과 연결이 되어 있어, 눈이나 비가 올 때도 젖지 않도록 하였다. 순조는 이곳에서 노인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베풀기도 하였으며, 정조가 태어난 탄신일과 돌아가신 납향일에 제향을 지내기도 하였다. 제향은 1920년 일본인에 의해 정조의 초상화가 창덕궁으로 옮겨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정조의 어진은 경술국치 직전에 창덕궁으로 옮겨 봉안하던 중 일제강점기에 분실되었는데, 1992년 11월 수원시에서 새로 복원하여 봉안한 것이다. 궁궐에 지어진 다른 영전들과는 달리, 수원에 세워진 화령전은 대청에 의한 격식과 기능에 따른 영역의 구분이 확보된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몇 채의 사라진 건물을 제외하면 비교적 좋은 상태로 보존되어 당시의 건축양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일련번호	지정 번호	지정 일자	문화재명	소재지	시대	유적종류
3	사적 제478호	2007.06.08.	수원 화성행궁 (華城行宮)	팔달구 남창동 산1-2 외 167필지	조선	행궁
4	보물 제14호	1963.01.21.	수원 창성사지 진각국사 대각원조탑비 (彰聖寺址 眞覺國師 大覺圓照塔碑)	팔달구 매향동 13-1	고려	비석
5	보물 제402호	1964.09.03.	수원 팔달문 (八達門)	팔달구 팔달로 2가 138	조선	성곽
6	보물 제403호	1964.09.03.	수원 화서문 (華西門)	팔달구 장안동 25-2	조선	성곽

정조가 현릉원 참배 시 사용하던 행궁이자 화성유수의 집무 공간.

행궁은 왕이 지방에 거동할 때, 전란, 휴양, 능원참배 등으로 지방에 별도의 궁궐을 마련하여 임시 거처하는 곳이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릉원으로 이장하면서 수원 신도시를 건설하고 성곽을 축조했다. 또 1790년에서 1795년에 이르기까지 서울에서 수원에 이르는 중요 경유지에 과천행궁, 안양행궁, 사근참행궁, 시흥행궁, 안산행궁, 화성행궁 등을 설치하였다. 그중에서도 화성행궁은 규모나 기능 면에서 단연 으뜸으로 뽑히는 대표적인 행궁이라 할 수 있다. 화성행궁은 평상시에는 화성유수가 집무하는 내아로도 활용하였다. 정조는 1789년 10월에 이루어진 현릉원 천봉 이후 이듬해 2월부터 1800년 1월까지 11년간 12차에 걸친 능행을 거행하였다. 이때마다 정조는 화성행궁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렀다. 그뿐만 아니라 정조가 승하한 뒤 1801년 행궁 옆에 화령전을 건립하여 정조의 진영을 봉안하였고 그 뒤 순조, 헌종, 고종 등 역대 왕들이 이곳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화성행궁은 일제시기 이후 갖가지 용도의 건물로 이용되면서 그 모습을 잃게 되었다. 1995년부터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1996년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1997년 봉수당 상량식을 거행하였다. 2006년에는 행궁 앞 광장부지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져 명당수 호안석축과 신평교 교대지가 확인되어, 2007년에 새롭게 복원이 이루어졌다.

창성사에서 입적한 진각국사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한 비.

진각국사(1307~1385)는 13세에 출가하여 여러 절에서 수행하였고, 원나라에서 돌아와 치악산에서 은거하던 중 공민왕의 부름을 받아 관직을 받았으며, 부석사를 중수하는 등 고려 말에 활약하였다. 본래 광고산(상광고동 산41번지) 기슭의 창성사 폐사지에 있던 것을 1965년 6월 9일 화성의 방화수류정 곁으로 이전하고 보호각을 설치하였다.

비(총 높이 215cm)의 형태는 장방형 대석 위에 비신(높이 150cm, 폭 83cm, 두께 13cm)을 세우고, 그 위에 옥개석을 얹어 고려 말기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전면은 좌측과 하단의 마모가 심하며, 후면은 모두 마모되어 글자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전면 상단에 '증시진각국사비명(贈諡眞覺國師碑銘)'이라 전액을 올렸다. 비문은 이색(1328~1396)이 짓고, 글씨는 권주(미상~1394)가 썼으며, 해삼이 새겼다.

수원 화성의 4대문 중 남문.

사통팔달하여 배와 수레가 모이라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전체적인 구조는 하부에 옥축을 쌓아 가운데에 홍예문을 설치하고 상부에 중층 누각을 올렸으며, 이 앞으로 반원형의 웅성을 돌렸다. 웅성의 홍예문 상부에는 방화시설인 오성지를 만들어 적의 화공 시 물을 이용해 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옥축과 웅성은 벽돌과 돌을 섞어 쌓았으며, 상부는 여장을 돌렸다. 팔달문은 서울의 숭례문과 유사한 격식과 형태적 특징을 갖추고 있으면서 숭례문에 없는 웅성과 물을 저장해 두는 오성지, 성문 좌우에 적의 공격을 감시할 수 있는 적대를 설치함으로써 방어적인 면에서 발전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화성의 4대문 중 서문.

전체적인 구조는 하부에 옥축을 쌓고, 가운데에 홍예문을 설치하였으며, 상부에 단층 누각을 지었다. 바깥으로 반원형의 웅성을 설치하였는데 남쪽 끝을 개방시켜 통로로 삼았다. 통로를 한쪽에 치우치게 만들어 방어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옥축과 웅성 상부는 여장을 시설하였으며, 웅성에 현안을, 웅성 여장에는 근총안과 원총안·사혈을 뚫어 놓았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어린 부분만 1×1칸 크기의 마루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강회다짐 바닥이다.

초석은 방형으로 다듬었는데, 안에 원형주좌를 만들어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는 익공계로 촘촘이 있는 이익공이며, 기둥과 기둥 사이 창방 위에는 화반을 설치하였다. 가구는 무고주 오랑가를 결구하였다. 처마는 겹처마로 한식기와를 올린 팔작지붕으로, 용마루 양끝에는 취두를 쓰고 내림마루에 옹두와 잡상을 세우고 사래 끝에 토수를 끼었다.

일련번호	지정 번호	지정 일자	문화재명	소재지	시대	유적종류
7	보물 제1477-1호	2006.12.29.	채제공 초상화 (蔡濟恭肖像畫)	수원화성박물관	조선	초상화
8	보물 제1489호	2006.12.29.	박유명 초상화 (朴惟明肖像畫)	수원박물관	조선	초상화
9	보물 제1631-3호	2010.01.04.	영조어필 음궁진장첩 (英祖御筆 泣弓珍藏帖)	수원박물관	조선	어필첩
10	보물 제1675호	2010.10.25.	박태유 필적 백석유묵첩 (朴泰維筆蹟 白石遺墨帖)	수원박물관	조선	유묵첩

정조 대에 영의정을 지낸 채제공의 초상화.

채제공(蔡濟恭 : 1720~1799)이 73세가 되는 1792년에 그려진 작품으로, 시본본이다. 사모에 관대를 한 열은 분홍색의 관복 차림에 손부채와 향낭을 들고 화문석에 편하게 앉은 전신좌상이다. 우측 상단에 '성상 심오년 신해 어진도사후 승 명모상 내입 이기여본 명년 임자 장(聖上 十五年 辛亥(1791) 御眞圖寫後 承命摸像 內入 以其餘本 明年 壬子 粧)'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 '화자 이명기(畫者 李命基)'라고 밝혀 놓았다. 이어서 우측 상단에 채제공이 직접 쓴 자찬문이 있다. 시의 내용대로 정조로부터 부채와 향낭을 선물 받은 기쁨을 표시하기 위해서인 듯 손을 노출시켜 부채와 향낭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연출되었다. 수원시에 함께 소장되어 있는 유지 초본 3점 또한 중요한 자료이며, 향낭도 함께 남아 있다.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신인 박유명의 초상화.

박유명(朴惟明)은 1620년(광해군 12) 무과에 급제하고, 1623년에 인조반정에 참여하여 정사공신 3등에 책록되고, 그 뒤 당상선전관을 거쳐 오위장을 역임하였다. 박유명 초상화는 낮은 오사모를 쓰고 과장된 둥근 어깨를 하고 있으며 단령이 뒤로 뾰족하게 뻗친 모양, 바닥의 채진 등에서 17세기 공신 도상의 형상을 잘 보여 준다. 이 초상화와 함께 후대의 이모본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있다. 이 이모본은 거의 동일한 형상이며, 안료는 보다 선명하다. 박유명 초상화는 17세기 공신상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 주고, 호랑이 흉배의 무관초상화로써 주목된다.

영조의 어제어필을 모아 1첩 18장으로 만든 첩.

서첩의 표지에는 "영조어필 응궁진장(英廟御筆 泣弓珍藏)"이라 쓰여 있다. 내용 앞쪽에 "1761년 정월 16일 내의원(內醫院)에 답한다(辛巳正月十六日藥院批)."는 부전지(附箋紙)가 있는 비답(批答)을 비롯하여, 사언시고(四言詩稿) 등이 실려 있다. 특히 사언시고 중에 1770년(영조 46) 7월 11일에 쓴 '서시옥당(書示玉堂)은 총자(정조)와 옥당(玉堂 : 홍문관) 관원에게 내린 것으로 『임하필기』에 관련 내용이 보인다. 또 그때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학사관(學士館) 대자(大字)도 실려 있다. 규격은 세로 36.4cm이고 가로 23.7cm이며, 종이에 먹으로 글씨를 썼다. 이 어필첩은 영조어필을 모은 몇몇 서첩 가운데 수록 필적이 가장 정선(精選)되었고, 영조 노년인 1761년·1765년·1770년의 연대가 있으며, 조선 후기 궁중 장황으로 꾸며지고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어필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17세기 후반의 명필인 박태유의 필적.

박태유(朴泰維 : 1648~1746)는 본관이 반남(潘南)이며, 조선시대 대학사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아들이다. 1666년(현종 7) 사마시에 합격하여 1681년(숙종 7)에 음보로 관직에 올랐다. 효성이 지극하고 조선 숙종 대의 명필로 이름을 떨쳤으며 철원의 김응하묘비(金應河墓碑), 영상신경신비(領相申景慎碑), 해백박동열비(海伯朴東說碑), 길목박동망갈(吉牧朴東望碣)의 글씨를 남겼던 인물이다. 『박태유 필적 백석유묵첩(朴泰維 筆蹟 白石遺墨帖)』에는 다양한 크기의 여러 서체가 쓰여 있는데, 해서·행초·광초·예서·행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해서와 행서는 중국 당(唐)나라의 명필인 안진경(顏真卿) 서체를 좇아 써서 글씨가 중후하고 호방하면서도 박태유 특유의 맑은 기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박태유 필적 백석유묵첩』은 조선시대 서예 학습 교과서의 전형(典型)을 보여 주는 희귀한 예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련번호	지정 번호	지정 일자	문화재명	소재지	시대	유적종류
11	보물 제1709호	2011.03.03.	수원 방화수류정 (訪花隨柳亭)	팔달구 매향동 151	조선	성곽·정자
12	보물 제1710호	2011.03.03.	서북공심돈 (西北空心墩)	팔달구 장안동 332	조선	성곽
13	중요민속자료 제123호	1984.01.10.	수원 광주 이씨 월곡댁 (廣州 李氏 月谷宅)	장안구 파장동 383	조선	가옥
14	중요무형 문화재 제98호	1990.10.10.	경기도도당굿			민간신앙

수원 화성의 동북각루.

수원 화성의 동북각루인 방화수류정은 1794년에 건립되었으며 전시용(戰時用) 건물이지만 정자의 기능을 고려해 석재와 목재, 전돌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조성된 건물이다. 수원 방화수류정의 명칭은 송나라 정명도의 시(詩) "운담풍경오천(雲淡風景午天), 방화수류과전천(訪花隨柳過前川)"에서 인용하였는데, "꽃을 찾고 버드나무를 따라 노닌다."는 뜻이다. 평면은 'ㄱ'자형을 기본으로 북측과 동측은 '凸'형으로 돌출되게 만들어 사방을 볼 수 있도록 꾸몄으며, 1848년에 중수되었고, 일제강점기 이후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수리되었다. 주변감시와 지휘라는 군사적 목적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선시대 정자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고, 다른 정자에서 보이지 않는 독특한 평면과 지붕 형태의 특이성 등을 토대로 18세기 뛰어난 건축기술을 보여 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수원 화성의 시설물.

화성의 화서문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1796년에 건립되었다. 공심돈은 벽돌로 3면에 성돌을 쌓고 그 가운데를 비워 둔 군사용 시설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화성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성곽 시설물이다. 일종의 초소 구조를 하는 돈대(墩臺)로 높게 쌓아 공격용 시설물을 설치하였다. 수원 서북공심돈은 화성 서북측 성벽에서 돌출시켜 남측면의 일부만 성곽에 접하고, 나머지 3면이 돌출된 평면을 이루고 있다. 3층 구조로 하부 치성(雉城)은 방형의 석재를 사용하였고, 1층과 2층 외벽과 3층 하부는 전돌로 쌓았다. 수원 서북공심돈의 성제(城制)는 현성 성곽 건축에서는 화성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재료의 유연성과 기능성이 우수하며, 치성의 석재 쌓기 기법과 상부 공심돈의 전돌 축조 기법, 현안과 총안·전안 등의 중요한 시설 등 독창적인 건축형태와 조형미를 가지고 있다. 치성의 북측 면과 서측 면에는 각 2개소의 현안(懸眼)을 두어 성에 접근하는 적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부는 성벽의 석재를 오목하게 'U'자형으로 가공하여 상부 전돌 현안과 연결되게 하였다.

조선 말기에 지어진 살림집.

이 가옥은 조선 말기에 지어진 살림집으로, 뒤에는 낮은 산이 있고 주위로 나지막한 산이 둘러져 있으며 앞에는 광고산에서 흘러내리는 개울이 있어 풍수상으로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았다. 전체 건물은 안채, 사랑채, 헛간채, 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ㄱ'자형의 안채가 남서향으로 놓이고 그 앞으로 'L'자형으로 연결된 사랑채가 오른쪽으로 비켜 앉아 안마당을 감싸고 있다. 바깥마당 맞은편에는 5칸 규모의 헛간채가 마련되었는데, 사랑채는 담장으로 둘러쌌지만 바깥마당은 사방으로 트였다. 뒤쪽에는 우물이 있고 구석에 단칸의 광채가 자리하고 있으며 감나무 등이 심어져 살림집 뒤꼍의 모습을 잘 보여 준다. 부엌은 마당 쪽으로 반 칸을 더 내밀어 잡았는데 안방과 연결이 쉽도록 반 칸 너비의 툇마루를 두어 매우 기능적으로 처리하였다. 건넌방은 위·아래 2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쪽으로 약간 돌출되어 전체적으로 안채의 평면이 'ㄷ'자형에 가깝게 되었다. 지붕은 초가로 되어 있지만 부재의 치목이나 창호의 구성 등을 볼 때 매우 정성들여 지은 건물로 대청 상량문을 통해 1888년 3월에 건축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가옥은 공간 구성이 농가의 쓰임새에 알맞게 되어 있으며, 건축구조가 견실하고 평면이 기능적으로 처리되어 조선 말기 살림집의 특색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수원 일대에서 해마다 행해지던 굿.

도당굿은 서울을 비롯한 한강 이북 지방과 수원·인천 등지에서 마을의 평화와 풍년을 목적으로 매년 혹은 2년이나 그 이상의 해를 걸러 정월 초나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굿을 말한다. 경기도도당굿은 다른 지방의 도당굿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남자 무당인 화랭이들이 굿을 하며, 음악과 장단도 판소리기법을 따르고 있어 예술성이 뛰어나고 전통문화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기능보유자는 이수복이다.

일련번호	지정 번호	지정 일자	문화재명	소재지	시대	유적종류
15	중요무형 문화재 제120호	2007.09.17.	석장(石匠)			석공예
16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4호	1972.07.03.	지지대비 (遲遲臺碑)	장안구 파장동 산47-2	조선	비석
17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9호	1976.07.03.	팔달문동종 (八達門銅鐘)	수원박물관	조선	동종
18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1호	1994.10.29.	봉녕사 석조삼존불 (奉寧寺 石造三尊佛)	팔달구 우만동 248	고려	석불
19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2호	1994.10.29.	봉녕사 불화 (奉寧寺 佛畵)	팔달구 우만동 248	조선	불화

석조물을 제작하는 장인.

석장은 석조물을 제작하는 장인으로 주로 사찰이나 궁궐 등에 남아 있는 불상, 석탑, 석고 등이 이들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다채로운 석조문화재가 전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석조물 제작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석공예의 재료는 물론 석재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화강암이 있으며 이 밖에도 남석과 청석, 대리석 등이 활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석장들은 망치, 정 등 수공구를 사용하여 돌이라는 단단한 물질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수준 높은 석조문화를 탄생시키고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기계 도입 등으로 전통 석조물 제작 기법이 사라져 가게 되었다. 이에 사라져 가는 석조물 제작의 전통기법과 기능을 보존·전승하기 위하여 석장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게 되었다. 기능보유자는 이의상이다.

조선 정조의 지극한 효성을 추모하기 위해 1807년(순조 7) 화성에서 신현의 건의로 세워진 비.

정조가 능을 뒤돌아보며 이곳을 떠나기를 아쉬워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이르면 왕의 행차가 느릿느릿 하었다고 하여 한자의 느릴 지(遲)자 두 자를 붙여 지지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비의 비문은 홍문관제학 서영보가 짓고, 윤사국이 글씨를 썼으며, 화성유수 홍명호가 전액을 썼다. 비문을 통하여 정조의 부왕에 대한 사모의 정을 엿볼 수 있다.

수원 만의사에서 사용되다가 팔달문 누상에 설치되었던 동종.

고려 1080년(문종 34) 2월, 개성에서 주조되어 수원 만의사에서 사용되다가 1687년(숙종 13) 3월, 만의사 주지승 도화가 다시 주조하였다. 정조 때 화성축성과 함께 파루옹의 기능으로 전락하여 화성행궁 사거리(종로)에 종각 설치 후 이전되었으나, 1911년 일제에 의해 정오 및 화재경보용으로 팔달문 누상으로 다시 이전·설치되어 팔달문동종으로 불리게 되었다. 현재는 영동구 창릉문길 443번지 수원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봉녕사에서 출토된 불상.

석조삼존불은 대웅보전 뒤편 언덕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터를 닦던 도중에 출토되었다고 한다. 삼존불상은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입상을 배치하고 있다. 본존불의 얼굴 모습은 원만한 편이나 머리 부분이 파손되어 있고 눈, 코, 입이 마모되어 희미하다. 법의는 왼쪽 어깨에만 걸치고 오른쪽 어깨가 노출된 우견편단으로, 오른손은 무릎에 놓고 왼손은 가슴에 대고 있다. 좌·우 협시보살의 얼굴 형태는 원만한 편이나 각 부분은 마멸이 심하다. 법의는 두 어깨를 모두 가린 통견이며, 왼손은 가슴에 대고 오른손은 무릎 밑으로 내리고 있으며, 원추형의 대좌에는 연화문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각 부분의 형식과 표현 수법으로 보아 이 삼존석불은 고려시대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봉녕사 약사전 안에 모셔진 2폭의 탕화.

탕화란 천이나 종이에 그림을 그려 족자나 액자의 형태로 만들어서 거는 불화의 한 종류이다. 봉녕사 약사전 안에는 2폭의 탕화가 안치되어 있는데, 신중단에 모셔둔 신중탱화 1폭과 현왕단에 모셔둔 현왕탱화 1폭이 그것이다. 신중탱화는 가로 168cm, 세로 178cm의 크기로, 비단 바탕에 채색하였다. 그림은 위쪽에 제석과 범천이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아래쪽에 중앙의 위태천을 중심으로 팔부신장과 용왕·금강상 등을 그려 놓았는데, 각 상들의 배열과 채색이 우수한 조화를 이룬다. 제석과 범천은 석가불을 보좌하는 보살로,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의 성격을 띤다. 위태천은 남쪽을 지키는 여덟 장군 중 하나로 역시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이다. 그림의 내력을 적은 기록으로 보아, 조선 1891년(고종 28) 화사 광조가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왕탱화는 가로 131cm, 세로 104cm의 크기로, 역시 비단에 채색하였다. 현왕탱화는 주로 19세기 이후에 유행했던 그림으로서,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재판을 하는 현왕과 그 무리들이 묘사되며, 시왕도(十王圖)와 거의 비슷한 배열을 하면서 지옥 장면만 생략한다. 이 그림 역시 중앙에 현왕(염라대왕)을 중심으로 좌우에 판관·녹사 등을 배치하였는데, 약사전에 함께 걸려 있는 다른 탕화들과는 구도나 채색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화폭 아래쪽의 기록을 통해 1878년(고종 15) 화사 완선이 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련번호	지정 번호	지정 일자	문화재명	소재지	시대	유적종류
20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21호	2009.05.21.	청련암 영산회상도 (靑蓮庵 靈山會上圖)	장안구 조원동 474-1	조선	불화
21	경기도 기념물 제19호	1973.07.10.	노송지대	장안구 파장동· 이목동·송죽동· 정자동 일원	조선	기념물
22	경기도 기념물 제38호	1977.10.13.	김준룡 장군 전승지 (金俊龍 將軍 戰勝地) 및 비(碑)	장안구 상광교동 산1-1	조선	암각
23	경기도 기념물 제53호	1979.09.10.	심온선생묘 (沈溫先生墓)	영통구 이의동 산13-10	조선	묘역
24	경기도 기념물 제125호	1991.10.12.	팔달산 지석묘군 (八達山 支石墓群)	팔달구 교동 산3-1	청동기	지석묘군

청련암에 봉안된 불화.

영산회상도의 불화승은 19세기 전반 경기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경기도 지역의 불교회화와 불화승의 계보를 밝힐 수 있는 작품이다. 전각 내부를 꼭 차게 배치한 화면의 크기는 다른 사찰에서 볼 수 없는 중요한 특징이다.

정조 대에 식재된 노송이 생장하는 지대.

노송지대는 지시대비가 있는 지시대고개 정상으로부터 옛 경수 간 국도를 따라 노송이 생장하는 약 5km의 지대이다. 조선 정조가 생부 장헌세자의 원침인 현릉원의 식목관에게 내탕금 1,000냥을 하사하여 이곳에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심게 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대부분 고사하고 38주 정도의 노송만이 보존되어 있다. 낙락장송이 울창한 이 자연경관은 정조의 지극한 효성과 사도세자의 슬픈 역사를 함축하고 있어 길손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곳이다.

병자호란 때 광고산을 지킨 김준룡 장군의 전승지.

병자호란 때 광고산에서 청나라 군사를 물리쳤던 김준룡(1586~1642) 장군의 전승지에 비 모양으로 암반에 새긴 글자이다. 김준룡은 원주 김씨로 1609년(광해군 원년) 무과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쳐 전라도 병마절도사에 재임하던 중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병사를 이끌고 광고산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격전을 벌인 끝에 청 태종의 사위이며 적 장수인 양고리 등의 목을 베었다. 이에 조선군은 사기가 크게 높아져 청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 세상을 떠난 후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으며, 충숙이라는 시호도 붙여졌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정조 때 화성 축성에 필요한 석재를 구하려 광고산에 간 사람에게서 이 얘기를 들은 축성책임자 채제공이 그 사실을 새기게 했다고 한다. 암반을 갈아 충양공 김준룡 전승지(忠襄公俊龍戰勝地)라 새기고, 그 좌우에 “근왕지차살청삼대장(勤王至此殺清三大將) 병자청란공제호남병(丙子淸亂公提湖南兵)”이라는 전승의 내용을 새겨 놓았다.

세종의 국구인 심은의 묘.

심은(1375~1418)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청송, 자는 중옥이다.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의 국구(왕비인 소헌왕후의 아버지)로 청천부원군에 봉군되었으며, 시호는 안효이다. 공은 12세에 국가감 진사시에 급제 후, 1411년(태종 11)에 황해도 관찰사를 지내고, 대사헌이 되어서는 관의 기강확립에 힘썼다. 이후 형조·호조·공조·이조 판서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1418년(세종 원년)에 영의정이 되어 사은사로 명나라에 갔을 때 발생한 무술옥사에 연루되었다는 모함으로 귀국 도중에 의주에서 체포되어 수원에서 화를 입었으나, 이후 무고로 판명되어 1451년(문종 1)에 복관되었다. 묘역은 장대석을 이용해 상·하 2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위쪽에는 봉분을 중심으로 공의 외손자인 안평대군 이용이 글씨를 쓴 묘표와 상석이 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장명등이 있고, 그 좌우에 묘소를 수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문인석 1쌍이 있다. 한편 묘역 입구의 비각에는 신도비가 안치되어 있는데, 1731년(영조 7)에 공의 후손들에 의해 건립된 것이다.

팔달산에 위치한 청동기시대 무덤.

수원시립도서관의 동쪽 구릉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상부 쪽으로 약 70m 올라가면 화성 성곽이 위치하고 있다. 1·2호 고인돌은 7m 거리를 두고 비교적 낮은 구릉의 평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팔달산 정상의 화성이 있는 쪽을 향하여 50m 정도를 더 올라가면 오솔길의 왼편으로 3·4호 고인돌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같은 지석묘군은 경기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한강 유역의 선사문화를 밝히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일련번호	지정 번호	지정 일자	문화재명	소재지	시대	유적종류
25	경기도 기념물 제175호	2001.01.22.	아담스기념관	팔달구 매향동 110	근대	근대건축물
26	경기도 기념물 제200호	2005.10.17.	수원 축만제 (祝萬堤)	팔달구 화서동 436-1	조선	수리시설
27	경기도 기념물 제201호	2005.10.17.	수원 여기산 선사유적지	권선구 서둔동 256-1·3·4·5	청동기~원삼국	선사유물 산포지
28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호	1983.09.19.	수원향교 (水原鄕校)	팔달구 교동 43	조선	향교
29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2호	2009.03.11.	박유명 초상화 (朴惟明 肖像畫) - 모본	장안구 상광고동 산1-1	조선	초상화

삼일학교에 세워진 근대건축물.

1923년 6월 25일에 건립된 교사로 미국 아담스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아담스기념관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삼일학원은 1903년 미국인 선교사 스웨러(W. Swearer : 1871~1916, 한국명 서원보)가 15명의 소년들을 모아 시작한 교회부설학교로 처음에는 자체 건물 없이 종포산 기슭의 교회 건물을 빌려 사용했으며, 수원지방 감리사였던 목사 노블이 이 사정을 미국 아담스교회에 알려 교인들로부터 건립기금 2만 엔을 기부받아 건물을 지었다. 미국 아담스교회 선교부에서 설계하고, 공사는 중국인 왕영덕이 맡았다고 전해진다. 우진각 지붕의 2층 벽돌조 양옥으로, 현관은 건물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지하층은 거칠게 다듬은 돌로 쌓았고, 1층과 2층은 적벽돌로 벽체를 쌓았으며, 층간에 목조 마루틀을 설치하여 바닥을 꾸몄다. 지붕은 벽체 위에 목조 트러스를 올리고 널판을 깔아 천연슬레이트를 올렸다.

화성의 서쪽 여기산 아래 축조한 수리시설.

1799년(정조 23) 정조는 내탕금 3만 냥을 들여 축만제의둔의 관개시설로 축만제를 만들게 하고, 수문 2곳을 갖추었다. 몽리면적은 232두락으로 화성 주변의 인공 저수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으며, 과학 영농의 본보기 시설물이다. 만석기와 만년제에 이어 축조된 축만제는 천년만년 만 석의 생산을 축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화성 서쪽에 있어 일명 서호로 불리며, 서호에 비치는 낙조로 유명하다.

여기산에 위치한 청동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의 유적지.

여기산유적은 서호 서쪽의 구릉에 있다. 1979~1984년까지 4차에 걸쳐 숭실대학교박물관에서 유적의 일부를 발굴조사하였다. 이 유적에서는 구멍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청동기시대 집터와 경질무문토기와 두드림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원삼국시대의 집터가 확인되었다. 집터의 시설 중 특징적인 것은 온돌시설의 초기형태라 할 부뚜막이 있는 화덕자리 시설이 확인되었고, 서까래와 벧짚 지붕이 조사되어 당시의 가옥구조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생활용구인 토기류와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주거지 내부에서 검게 탄 벼씨가 출토되어 서호 일대 주변 저습지대에서 벼농사를 하며 생업을 이어 갔음을 알게 되었으며, 나아가 수원지방 벼농사의 기원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조선시대 세워진 교육기관이자 제향시설.

향교는 지방에 설립한 국립교육기관으로 공자와 여러 성현께 제사를 지내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동시에 담당하였다. 원래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에 있던 수원향교는 1795년(정조 19)경 현 위치로 옮겨 세우고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향교는 앞에 교육 공간인 명륜당을 두고 뒤에 제사 공간인 대성전을 둔 전학후묘의 배치를 하였다. 명륜당은 앞면 5칸과 옆면 2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에서 볼 때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이다. 앞면 가운데 3칸에 문을 달았고, 양쪽 2칸은 막혀 있다. 대성전은 앞면 5칸과 옆면 3칸 규모이고 동우와 서우는 앞면 3칸과 옆면 2칸 규모로, 공자와 그의 제자 등 중국과 우리나라 성현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제사 의례에 적합하도록 앞면에 개방된 마루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토지와 노비·책 등을 지원받아 학생을 가르쳤으나, 지금은 교육 기능은 없어지고 제사 기능만 남아 있다.

원본인 보물 제1489호 박유명 초상화를 이모한 초상으로 원본에 충실하며, 17세기 공신도상 중 정사공신상과 진무공신상의 특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일련번호	지정 번호	지정 일자	문화재명	소재지	시대	유적종류
30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6호	2009.05.21.	청련암 아미타회상도 (靑蓮庵 阿彌陀會上圖)	장안구 조원동 474-1	조선	불화
31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7호	2009.05.21.	청련암 신중도 (靑蓮庵 神衆圖)	장안구 조원동 474-1	조선	불화
32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8호	2009.05.21.	청련암 독성도 (靑蓮庵 獨聖圖)	장안구 조원동 474-1	조선	불화
33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49호	2009.05.21.	청련암 산신도 (靑蓮庵 山神圖)	장안구 조원동 474-1	조선	불화
34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50호	2009.05.21.	청련암 칠성도 (靑蓮庵 七星圖)	장안구 조원동 474-1	조선	불화
35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1991.10.19.	승무·살풀이춤			무용
36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1995.08.07.	소목장(창호)			목공예
37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8호	1999.10.18.	단청장			칠공예

## 비고

청련함에 봉안된 불화.

아미타회상도의 불화승은 19세기 후반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인물로 설채법과 색감 및 화면구성법 등 조선 후기 불화 양식을 잘 반영한 작품이다.

청련함에 봉안된 불화.

신중도 화기를 통해 동 사찰 내 아미타후불도와 같이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불화승의 활동 시기와 설채법 및 구도 등에서 19세기 후반 불교회화를 잘 반영한 작품이다.

청련함에 봉안된 불화.

독성도는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작품이다. 이 그림은 불화승의 활동 시기를 알 수 있고, 설채법 및 구도 등에서 19세기 후반 불교회화를 잘 반영한 작품이다.

청련함에 봉안된 불화.

산신도는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작품이다. 이 그림은 설채법 및 구도 등에서 19세기 후반 불교회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조선 후기 민화와의 유사성 등은 회화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작품이다.

청련함에 봉안된 불화.

칠성도의 화기를 보면 아미타후불도보다 4년 전에 그려진 작품이다. 불화를 그린 대허 체훈과 봉법은 19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불화승으로, 이 불화는 설채법과 구도 등에서 19세기 후반의 화풍을 반영한 작품이다.

전통 무용인 승무와 살풀이춤.

승무는 승복을 입고 추는 춤으로, 승복을 입고 춤을 추긴 하지만 불교의식에서 승려가 추는 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대한제국기 승려춤이나 살풀이춤·궁중무용의 영향을 받아 점차 발전하였는데, 나중에 광대나 기생들이 추는 춤이 되었다. 살풀이춤은 예로부터 액운을 물리치기 위해 무녀가 신내림을 받기 위해 추던 춤을 말한다. 후에 광대나 기생들에 의해 교방예술로 발전하였다. 고운 머리에 비녀를 꽂고 흰 치마저고리를 입으며 흰 수건을 들고 '살풀이'라는 남도 무악장단에 맞춰 춘다. 기능보유자는 김복련이다.

전통 가구나 목공예품을 만드는 장인.

목재를 다루는 장인 목수에는 궁궐이나 사찰 또는 가옥을 짓는 건축과 관계된 일을 하는 대목장과 장과 농·문갑·탁자·소반 등 실내에서 사용되는 가구들과 그 밖의 목공예품을 만드는 소목장이 있다. 기능보유자는 김순기이다.

전통 건축물이나 공예품 등에 무늬와 그림을 그려 아름답게 채색하는 단청 기술자를 가진 장인.

단청이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등 다섯 색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이나 공예품 등에 무늬와 그림을 그려 아름답게 채색하는 것을 말한다. 단청에 종사하는 사람이 승려인 경우에는 금어 또는 화승으로 불렸다. 단청의 종류에는 한두 가지 색으로 바탕색을 칠하는 가칠단청, 가칠 위에 검은색 데두리로 장식하는 굿기단청, 화려한 채색을 위주로 하는 금단청 등이 있다. 단청은 풀인 아교를 물에 타서 가칠을 하고 그 위에 종이로 그려진 무늬를 따라 돛바늘로 구멍을 낸 그림본을 올려놓고 흰 가루가 든 주머니를 두드려 가칠바탕 위에 흰무늬가 나타나게 한다. 흰무늬를 따라 각기 맞는 색으로 칠하여 마무리한다. 단청은 아름다움 이외에 도료를 통해 건물의 부식과 습기를 방지하고 재질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며, 특수한 권위나 종교적 신비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단청장은 전통적인 공예기술로서, 기능보유자는 김종욱이다.

일련번호	지정 번호	지정 일자	문화재명	소재지	시대	유적종류
38	수원시 향토유적 제1호	1986.04.08.	항미정(杭眉亭)	권선구 서둔동 251	조선	정자
39	수원시 향토유적 제2호	1986.04.08.	거북산당	팔달구 영동 43-2	조선	도당 민간신앙
40	수원시 향토유적 제3호	1986.04.08.	수원 역대 목민관 송덕비군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조선	비석
41	수원시 향토유적 제4호	1986.04.08.	창성사지(彰聖寺址)	장안구 상광교동 산41	고려	사지
42	수원시 향토유적 제5호	1986.04.08.	미륵당(彌勒堂)	장안구 파장동 23-11	조선	민속문화재
43	수원시 향토유적 제6호	1990.01.04.	정유선생묘 (鄭裕先生墓)	영통구 하동 408-1	조선	묘역

축만제(서호)에 위치한 정자.

1799년(정조 23) 농업용 관개수원으로 축조된 것이 축만제인데, 이 인공호수는 당시에 축조된 호수 중 서쪽에 위치해 있다 하여 서호로 불리어 왔다. 서호는 예로부터 낙조와 잉어가 유명했고, 특히 잉어는 약용으로 쓰여 궁중에 진상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서호의 경관과 풍치를 한층 아름답고 돋보이게 하는 명물이 바로 향미정이다. 이 정자는 1831년(순조 31) 당시의 유수인 박기수가 건립한 것이며, 중국 시인 소동파의 시구에 “서호는 항주의 미목 같다.”고 읊은 데서 그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그 이름은 석양에 비치는 그림자가 마치 미인의 눈썹과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영동시장의 변영과 상인들의 평안을 빌기 위하여 건립한 도당.

건물은 팔작지붕에 한식 골기와를 얹었는데 규모는 정면 4.9m, 측면 2.5m 정도이다. 당집 내부에는 제단과 거북산당 도당 할아버지와 할머니, 염라대왕의 채색벽화가 있다.

수원의 역대 목민관들의 불망비 및 선정비.

1986년 4월 8일 이재원 불망비만 향토유적으로 지정하였으나, 수원에 있는 수원부사·수원유수·관찰사·판관·중군을 역임한 인물들의 모든 선정비·불망비 등으로 확대하여 1998년 9월 17일 37기를 일괄 지정하였다.

수원시 상광교동 광고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지.

광고산의 주봉인 비로봉 남동쪽 자락에 있다. 현재는 폐사되었으며, 언제 누가 창건하였는지 알 수 없다. 진각국사 탐비에 고려 1382년(우왕 8) 국사를 지낸 천희가 이 절에서 입적하였다는 사실만 알려질 뿐 연혁은 전해지지 않는다. 1951년까지 민가 형태의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소실되었다. 절터에는 건물기단과 주춧돌, 옥개석, 기와조각, 석축 등이 남아 있다. 1963년 1월 21일 보물 14호로 지정된 이 비는 1965년 6월 9일 창성사지에서 팔달구 매항동 13-1번지로 이전되었다.

마을 수호신으로 믿어지던 미륵불이 모셔져 있는 집.

1960년에 증축하여 법화당이라 개명되었다. 사방 1칸, 주칸 3.1m의 벽돌로 축조된 작은 건물이며, 지붕은 맞배이다. 미륵당 안의 미륵입상은 총 높이 249cm, 가슴 폭 107cm, 머리 높이 114cm 정도이며 화강암으로 조성되었다. 전체적으로 신체에 비해 큰 머리, 세밀한 옷주름, 생동감 없는 얼굴표현 등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 민간신앙과 결합된 미륵불상에서 보이는 공통된 특징으로, 조선 중기 이후의 불상으로 추정된다.

조선 명종대 문신인 정유의 묘.

정유(1503~1566)는 본관이 온양, 자는 공탁, 호는 양진당·보진당으로 정수강의 아들이다. 옛 석물로는 묘갈, 혼유석, 상석, 축대석, 향로석, 망주석 1쌍, 문인석 1쌍이 있다. 문인석은 복두공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아담하고 균형감을 갖추고 있다. 묘갈은 방부원수 양식이며, 방부에는 복련과 연주 등을 짜임새 있게 잘 장식하였다. 대리석 비신의 전면에 “가선대부사헌부대사헌정공유지묘(嘉善大夫司憲府大司憲鄭公裕之墓) 정부인청주한씨(貞夫人淸州韓氏)”라 새겨져 있다. 비신 상단에 “대사헌정공묘갈명(大司憲鄭公墓碣銘)”이라 전액을 새 놓았다. 묘갈문은 유성룡이 짓고 한호가 글씨를 쓰고 김응남이 전액을 올린 것으로 축보에 기록하고 있다.

일련번호	지정 번호	지정 일자	문화재명	소재지	시대	유적종류
44	수원시 향토유적 제7호	2006.12.26.	이목동 출토석곽묘 (梨木洞出土石槨墓)	수원박물관	통일신라	석곽묘
45	수원시 향토유적 제8호	1998.09.17.	꽃뫼 제사유적지	팔달구 화서동 688-4	청동기	선사유적
46	수원시 향토유적 제9호	2003.11.27.	고색동 코잡이놀이 및 도당	권선구 고색동 381-4, 13		민속놀이 민간신앙
47	수원시 향토유적 제10호	2003.11.27.	이의동 길마재 줄다리기	영통구 이의동 길마재 지역		민속놀이 민간신앙
48	수원시 향토유적 제11호	2003.11.27.	버드내 산제당	권선구 세류3동 156-62		제당 민간신앙
49	수원시 향토유적 제12호	2003.11.27.	별말 도당굿 및 도당	권선구 평동 31-14		민속문화재 도당
50	수원시 향토유적 제13호	2006.12.26.	동래 정씨 약사불 (東萊 鄭氏 藥師佛)	수원박물관		불상

## 비고

장안구 이목동에서 발굴된 통일신라시대 무덤.  
이목동유적에서는 청동기시대 집터 2기,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2기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청동기시대의 구멍무늬토기·그물추·가락바퀴·돌칼 등과 통일신라시대의 굽다리완·뚜껑 달린 굽다리접시·병·완 등이 출토되었다.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하는 유적지.  
수원대학교박물관에서 1997년 조사하였다. 청동기시대의 구멍무늬토기편과 삼국·조선 시대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2000년 지표조사 중 빗살무늬토기편이 채집된 바 있다.

권선구 고색동에서 행해지는 전통 민속놀이.  
고색동 코잡이놀이의 유래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신라시대 이전부터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1796년 수원 화성 축성 이후 양반계층과 평민계층인 농민이 모두 모여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일년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고 액을 막으며 동네의 평안과 마을의 풍년을 기리는 줄다리기로, 일제강점기 및 1980년대까지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1994년까지 명맥이 끊겼다가 1995년 동민 및 청년회를 중심으로 복원하여 현재는 '코잡이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 오고 있다.

영동구 이의동 길바재마을과 용인시 수지면 상현리 독바위마을에서 전승되던 민속놀이.  
3년에 한 번씩 정월대보름 다음날 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 어른 남자는 동쪽 줄(솜줄)에, 여자나 총각 및 어린이는 서쪽 줄(암줄)에 자리 잡고 줄다리를 시작한다. 결과는 항상 서쪽 편이 이기게 되는데, 그래야 풍년이 들고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표적인 줄다리기로서 보존가치가 크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마을 제당.  
윗버드네(세류3동)의 산제당에서 벌어지는 마을 공동의 제의는 '당제', '당제사', '산신제', '산제사' 등으로 불린다. 본래 당집의 형태는 전하는 바가 없으나, 흉벽에 기와지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집의 훼손이 심하여 1956년과 2007년 7월 10일 현재의 모습으로 중건되었다. 당제는 매년 음력 시월 초하루 저녁에 벌어지며, 마을의 평안과 마을 사람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벌말에서 행해지는 굿과 그 제당.  
벌말 도당굿에서는 신라 경순왕인 김부대왕과 안씨부인을 모신다. 200년 이상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대동굿으로 전승되었으며, 음력 정월 11일에 마을에 있는 도당에서 당주굿을 한 후 서낭모시기와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돌돌이 후 당 안으로 들어가서 도당굿을 한다. 벌말 도당은 추가로 되어 있었으나 한국전쟁 시에 파괴된 것을 후에 보수하였다.

속지산 동래 정씨 세장지에 있었던 약사불.  
석불은 가운데 약사여래상과 양 옆으로 시동이 좌우로 새겨져 있다. 삼존상이 동일석으로 조각된 것으로, 본존은 연화대좌 위에 좌상으로 새겨져 있고, 양쪽에는 협시상으로 동자상을 입상으로 조각하고 있다. 본존의 높이는 120cm로 두광, 육계, 이마 중앙에 백호, 삼도, 통견의 표현을 하고 있다. 동자상은 높이 100cm로 흔히 동자상이 민머리인 데 비해, 이들 동자상은 앞머리가 내려진 머리칼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법의는 통견이며, 수인은 미숙한 조각수법을 보이고 있다. 화서동 속지산의 동쪽에 자리한 동래 정씨 세장지 아래쪽에 자리하던 것을 2008년 이전하였다. 지금은 수원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일련번호	지정 번호	지정 일자	문화재명	소재지	시대	유적종류
51	수원시 향토유적 제14호	2006.12.26.	만석거 (萬石渠)	장안구 송죽동 239-2 등	조선	수리시설
52	수원시 향토유적 제15호	2006.12.26.	속지산 화성 체석장	팔달구 화서2동 산41	조선	체석장
53	수원시 향토유적 제16호	2006.12.26.	화성 관련 표석 일괄	수원시 일원	조선	비석
54	수원시 향토유적 제17호	2006.12.26.	전주 류씨 효자정문 (全州 柳氏 孝子旌門)	수원박물관	조선	정려문
55	수원시 향토유적 제18호	2006.12.26.	옛 수원문화원 건물	팔달구 교동 74-1	근대	근대건축물

장안문 북쪽의 대유평단에 농업용수를 대기 위해 축조한 수리시설. 만석거는 장안문 북쪽의 황무지를 개간하고 안정된 농업경영을 위한 수리시설로서 1795년(정조 19) 축조되었으며, 일왕저수지나 조기정방죽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조대왕의 화성능행차 시에는 이곳을 경유하여 장안문을 통과하고 현릉원으로 원행이 이루어졌다. 저수지 가운데에는 작은 섬을 두어 화목을 조화롭게 심고, 호수에 연꽃을 심었으며, 호수 남단의 약간 높은 곳에는 영화정을 세워 정자에서 만석거 부근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만석거 옆에 건립되었던 영화정은 『화성성역의궤』, 『영화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영화정은 1996년에 원래의 자리에서 동쪽으로 이전하여 복원하였는데 송죽 초등학교와 만석거 사이에 있다. 당시에 세워졌던 만석거 표석은 유실되었고, 현재의 것은 최근에 세운 것이다.

수원 화성 건설 시 사용된 돌을 채석하던 장소. 화서전철역 부근 구연초제조장의 건너편 속지산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화성을 축조하기 위한 성돌의 채석이 이루어졌던 유적으로 팔달산과 함께 중요한 성돌의 공급원이었던 곳이다. 이곳에서 솥돌같이 판판한 치도(治道)를 통하여 수레를 이용, 화성 축성 장소까지 성돌을 운반하였다. 채석 당시의 썰기 자국이 여러 곳에 남아 있어 역사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유적이다.

수원 화성과 관련된 시설물들의 표석. 정조의 현릉원 원행길에 이정표로 세운 상류천, 하류천, 괴목정교 표석과 축만제의 독에 세워진 축만제 표석, 정조 대의 원행길에 들어 있지 않아 1834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창교 표석 등 5기가 일괄 지정되었다.

전주 류씨 사호공파에 내려진 효자 정문. 상촌의 전주 류씨 사호공파의 종가인 류원상 씨 덕 대문 옆에 있었으나 2008년 수원박물관으로 이전·설치하였다. 정려각 안에는 류태명과 류의의 효자정려가 상하로 걸려 있다. 류태명(1666~1716)의 자는 도휘, 호는 현산옹, 본관은 전주이다. 1743년 효자정려가 내려졌다. 정려에는 "효자통정대부승정원 우승지검경연참찬관추관수선관류태명지문(孝子通政大夫承政院右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柳泰明之門) 상지십구년계해윤사월일 명정(上之十九年癸亥閏四月日 命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묘소는 금촌 검산리 선영에 있다. 류의(1734~1799)의 자는 의지, 호는 운송·추범이다. 류태명의 증손으로 대사간 선양의 아들이다. 1812년 효자정려를 받았으며, 정려에는 "효자가선대부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류의지문(孝子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管副摠管柳誼之門) 상지십이년임신삼월일 명정(上之十二年壬申三月日 命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묘소는 안양 석수동 선영에 있다.

일제시기 무진회사로 사용되다가 수원문화원 건물로 사용되던 근대 건축물. 1956년 당시 역전동(현 매산로) 가로변의 수원읍사무소 자리에 신축했던 옛 수원시청사로, 지상 2층 규모의 벽돌조 건물이다. 평면은 거의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지붕은 모임지붕 형태로 되어 있고 시멘트 기와를 이었다. 가로에 면한 정면 중앙의 현관 상부에 캐노피를 설치했으며, 현관 포치는 만들지 않았다. 현재는 캐노피 아래에 다시 목조로 눈썹지붕을 만들고 기와를 얹은 작은 처양을 설치하였다. 상·하층의 창문은 가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를 하였고, 돌출된 상·하인방 및 좌우 샅들은 절근 콘크리트조로 만들어 벽체와 구분하였다. 특히 1층 창호의 상인방에는 꽃봉오리 모양의 장식을 만들고, 2층 창호의 상인방에는 상·하면에 수평 돌림띠를 돌려 장식하였다.

일련번호	지정 번호	지정 일자	문화재명	소재지	시대	유적종류
56	수원시 향토유적 제19호	2006.12.26.	옛 부국원 건물	팔달구 교동 93-7	근대	근대건축물
57	수원시 향토유적 제20호	2007.06.03.	화성문화제 '능행차연시'	수원시청		
58	수원시 향토유적 제21호	2007.06.03.	조선의 무예 '무예 24기'	팔달구 남창동 67	조선	전통무예
59	수원시 향토유적 제22호	2007.06.03.	이고(李暉) 묘역	장안구 하광교동 산51-1	조선	묘역
60	수원시 향토유적 제23호	2007.06.03.	안동 김씨 참의공파 세장묘역	영통구 이의동 산34-1, 42-1	조선	묘역

## 비고

일제시기 부국원 건물로 사용되던 근대 건축물.

교동사거리에서 수원향교 방향 골목길에 있다. 부국원은 1916년 설립된 회사로 주로 농작물 종자와 농기구 등을 판매하였다. 지상 2층에 벽돌 조적조로 구조부를 만들었으며, 2층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고, 건물 정면과 후면에 3층 높이의 박공벽을 세웠다. 현재 내부 지붕층을 개조하여 3층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건물이 많이 노후되었으나 그 외에는 특별한 개보수 등을 하지 않고 있다.

화성문화제 때 행해지는 정조대왕 능행차.

정조대왕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으로 옮긴 후 13차례나 행차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위한 능행차로서 대략 6,000명이 서울을 출발하여 7박 8일간의 퍼레이드 및 회갑연, 군사훈련, 양로연 등 수많은 공식행사를 치러 민정사찰과 사도세자의 능 봉심은 물론 음악, 무용, 음식 등 18세기 궁중 문화 및 서민 문화를 총체적으로 알 수 있다.

조선 정조 대에 장응영에서 펴낸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24가지 기예.

맨손무예 1가지, 도검무예 10가지, 창봉무예 7가지, 마상무예 6가지 등 총 24가지의 종합무예로, 조선조 무과시책의 과목으로 대한제국기 구식군대가 해체될 때까지 조선의 무사들이 익혔던 군사무예이다.

고려 말 충신인 이고의 묘역.

이고(1338~1420)의 본관은 여주이고, 호는 망천이며, 사온령공 이윤방(1310 ~ ?)의 아들이다. 고려 말 관직에 나아가 한림원학사에 올랐으나 고려가 쇠망해 가자 수원으로 내려가 은거하였다. 수원에서 널리 알려진 팔달산·관선구 등의 지명은 모두 이고와 관련된 것이고, 1795년 정조가 묘역에 치제하면서 '팔달산주인'으로 일컬어 수원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다. 묘역에는 후대에 마련한 것으로 추정되는 혼유석·상석·향로석과 1733년(영조 9)에 건립한 묘표가 있다. 대리석의 비신 앞면 중앙에 큰 글씨로 "고려한림원학사이고지묘(高麗翰林院學士李龜之墓)"라고 하여 무덤 주인의 신원을 밝힌 후, 뒷면에는 그 행적에 대해 12대손 이봉익이 지은 글을 11대손 이량이 써서 새겨 놓았다. 이고 묘역은 수원을 대표하는 인물의 묘역으로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으로 평가된다.

수원 지역의 대표적 성씨인 안동 김씨 참의공파의 묘역.

형조참의를 지낸 김언침(1514~1584)과 그 후손의 묘역으로 크게 2개 지역으로 나뉘어 분포되어 있다. 묘역과 석물양식이 거의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어 조선시대 묘제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 제1부 전설과 신앙을 따라서

## 01 | 태초부터 있었던 그곳, 수원의 진산 광교산

- 1) 수원시, 『수원지명총람』, 1999, 136쪽.
- 2)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 산천.
- 3) 『신증동국여지승람』, 「용인현」, 산천.
- 4)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 산천. “在府北三十里 源出光教山 又東流入大川”(부 30리 지점에 있다. 근원은 광교산에서 나와서 또 동쪽으로 흘러 대천으로 들어간다.)
- 5) 김정호 저, 『대동지지』, 「수원부」, 산수(치악산, 서 20리 화산주간, 중악, 서 13리).
- 6) 신경준 지음, 박용수 해설, 『산경표』, 푸른산, 1990, 17쪽.
- 7) 장백, 마천령, 함령, 낭림, 강남, 적유령, 묘향, 언진, 멸악, 마식령, 태백, 추가령, 광주, 차령, 소백, 노령 산맥 등이 이때 등장하는 것이다.
- 8) 신경준 지음, 박용수 해설, 『산경표』, 푸른산, 1990, 17쪽. 작고한 재야 지리학자 이우 형도 같은 의견이다.
- 9) 이러한 광주산맥은 태백산맥 중의 철령(鐵嶺) 부근에서 갈라져 서울 부근까지 이르는 산맥이 된다. “높이는 동북부의 가평(加平)·포천(抱川) 일대가 1,000m 이상이고 서남 쪽 서울 부근이 300m 안팎이다. 산맥 중 최고봉인 명지산(1,250m)을 비롯하여 북한 산(836m)·관악산(629m) 등이 솟아 있고, 지질은 편마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강부터는 100m 이하의 구릉지가 이어지고 평야로 이행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 10) 『산경표』는 여암(旅庵) 신경준이 동국지도류의 산줄기 흐름을 토대로 『문헌비고』의 「산수고(山水考)」를 집필한 내용을 누군가가 찬한 것이다.
- 11) 『연려실기술』 별집 제16권, 지리전고(地理典故), 총지리.
- 12) 수원시, 『수원지명총람』, 1999, 136쪽.
- 13) 수원시, 『수원지명총람』, 1999, 137쪽.
- 14)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1월 5일(을사).
- 15) 『선조실록』 권47, 선조 27년 1월 24일(계묘); 『선조실록』 권48, 선조 27년 2월 14일(계해).
- 16) 『정조실록』 권48, 정조 22년 2월 6일(경자).
- 17) 『성종실록』 권141, 성종 13년 5월 22일(경인).
- 18)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2월 18일(경오).
- 19)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2월 18일(경오).

## 02 | 수원향교 이야기

- 1) 『수원부읍지』, 건치연혁.
- 2) 이준희, 『조선시대지방행정제도 연구』, 일지사, 1990, 30~42쪽.
- 3)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 학교.
- 4) 『순조실록』, 순조 21년 4월 21일.
- 5) 『수원부읍지』, 문묘.
- 6) 『수원부읍지』, 문묘.
- 7) 화성시 안녕동 까치동산 부근으로 추정된다.
- 8) 『수원하지초록』 2권, 기유 8월 초5일; 『정조실록』, 정조 13년 8월 7일; 『일성록』, 정조 13년 8월 7일.
- 9) 『정조실록』, 정조 13년 9월 13일.
- 10) 『수원하지초록』 3권, 기유 9월 24일.
- 11) 『수원하지초록』 2권, 기유 9월 26일 및 9월 29일.
- 12) 『수원하지초록』 2권, 기유 9월 26일.
- 13) 『수원하지초록』 1권, 경술 5월 초7일.
- 14) 『수원하지초록』 1권, 경술 5월 초7일 및 5월 초8일.
- 15) 『화성지』, 유임(儒任).
- 16) 『잡동산이(雜同散異)』, 「향교약령(鄕校約令)」.
- 17)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1910.
- 18) 『매일신보』, 1938년 3월 12일.
- 19) 『태종실록』, 태종 12년 11월 5일; 『태종실록』, 태종 13년 1월 21일. 품계에 따라 하마하는 거리에 차이를 두었는데, 1품 이하는 10보(步), 3품 이하는 20보, 7품 이하는 30보로 규정하였으며, 처음에는 표목(標木)을 세웠으나 후에 석비(石碑)로 바뀌었다.
- 20) 『승정원일기』, 숙종 2년 3월 3일(을유).
- 21) 『원행음묘정리의례』 권2, 의주(儀註), 화성성묘전배의(華城聖廟展拜儀).
- 22) 『증보문헌비고』 204권, 학교고 3.
- 23) 『唐朝封孔子爲文宣王, 稱其廟爲文宣王廟, 元明以後省稱爲文廟』(『한어대사전』, 문묘).
- 24) 『증보문헌비고』 204권, 학교고 3.
- 25) 『증보문헌비고』 203권, 학교고 2.
- 26) 『대전속록(大典續錄)』 권3, 예전(禮典), 제례(祭禮).
- 27) 『국조오례의』 기준.
- 28) 이정원은 1727년 명륜당 중건 당시 전라좌도경시관(全羅左道京試官)으로 있다가 다음 해 8월 공산현감(公山縣監)으로 체직되었는데, 이 중수기를 작성하게 된 정확한 연유

- 는 확인할 수 없다(『승정원일기』, 영조 2년 7월 12일 및 영조 3년 8월 23일).
- 29) 『수원부읍지』, 문묘.
  - 30) 김려는 1725~1726년, 조정만은 1726~1727년에 수원부사로 재직하였다(『수원부읍지』, 부사선생안).
  - 31) 수령 7사는 농상성(農桑盛)·학교흥(學校興)·사송간(詞訟簡)·호활식(好猾息)·군정수(軍政修)·호구증(戶口增)·부역균(賦役均)으로 그 성과를 수령의 인사고과에 반영하였다. 그중 ‘학교흥’의 평가 기준은 “학교를 수명(修明)한 것으로, 학교 몇 간(間) 내에서 수리(修理)한 것이 몇 간이며, 생도 몇 사람 내에서 독서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경서(經書)에 통한 사람은 몇 명인가?”였다. 즉, 향교교육의 성과뿐만 아니라 건물의 수리까지 수령 7사의 내용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태종실록』, 태종 6년 12월 20일).
  - 32) 『국역 수원부·남양부읍지』에는 병오년이 1666년으로 기록되었으나 읍지의 부사선생안에 따르면 조정만이 수원부사로 재임한 것은 1726~1727년이므로 병오년은 1726년이 맞다(화성시, 『국역 수원부·남양부읍지』, 2006, 27쪽).
  - 33) 향음주례에서 주인을 보조하는 자이다. 고을 사람 중 벼슬하여 대부에 이른 자를 개선으로 삼았다고 한다(『사계전서』, 「경서변의(經書辨疑)」, 향음주의(鄉飲酒義)).
  - 34) 『수원하지초록』 1권, 경술 5월 초7일.
  - 35) 『원행을묘정리의괘』 권1, 전교(傳敎), 을묘 윤2월 11일.
  - 36) 『화성성역의괘』, 추택일시(推擇日時).
  - 37) 『승정원일기』, 고종 29년 3월 30일.
  - 38) 『신증동국여지승람』, 경기 수원도호부, 관원.
  - 39) 『수원군읍지』, 유임(儒任).
  - 40) 『화성지』, 유임.
  - 41) 『수원부읍지』, 문묘.
  - 42) 『과암집(果菴集)』 권9, 서(序).
  - 43) 『과암집(果菴集)』 권14, 부록, 연보. “與諸生會萬義寺講小學.”
  - 44) 『정조실록』, 정조 5년 9월 14일.
  - 45) 『일성록』, 정조 15년 1월 17일.
  - 46) 『일성록』, 정조 19년 윤2월 11일.
  - 47) 본래 거주 기간을 3식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신읍치가 조성된 기유년(1789) 이후 2식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신도시 이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조의 모민책의 일환이었다(『석재고(碩齋稿)』 권4, 계사(啓辭). “今此華城文武科試取時 舉子捧單 當以三式爲準 而庚戌試取時 挾戶居生之類 雖未滿三式 既有許赴之例 今番則何以爲之乎 敢稟. 答曰 今番則慶科也 己酉以後 姑未準三式 以二式爲準事 分付留守處可也.”).
  - 48) “李益運曰 入庭者合爲三十六人 而其中二人居在龍仁 其餘則俱在本府 而以築室年淺 未

準三式 不得赴舉云矣.”(『일성록』, 정조 19년 윤2월 11일).

- 49) 『일성록』, 정조 19년 윤2월 11일.
- 50) 『원행음묘정리의궤』 권1, 전교(傳敎), 을묘 윤2월 11일.
- 51) 『원행음묘정리의궤』 권2, 의주(儀註).
- 52) 『원행음묘정리의궤』 권1, 전교, 을묘 윤2월 11일.
- 53) 이때 지급한 무도면세 5결은 실제 토지를 소유하여 경작하는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그 5결에 대해 향교에서 지불해야 할 세금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준 것이다.
- 54) 『원행음묘정리의궤』 권2, 계사(啓辭), 을묘 윤2월 13일.

### 03 | 봉녕사 불화에 담긴 불심(佛心)

- 1) 수원 지역의 포교활동과 교육을 담당하는 봉녕사 경내에는 주불전(主佛殿)인 대웅전을 비롯하여 약사전·종각·금강율원·육화당·소요삼장원 등 수많은 전각과 당우들이 건립되어 있다. 이러한 도량(道場)은 1971년 주지로 부임하였던 비구니 묘전(妙典 : 1943~2003) 스님과 1979년에 주지 소임을 맡았던 묘엄(妙嚴 : 1931~2011) 스님이 발원(發願)하여 만든 것이다. 묘전·묘엄 스님의 생애와 행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곽철환,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2003, 249쪽; 봉녕사승가대학, 『세주묘엄(世主妙嚴) 주강 오십년기념논총(主講五十年記念論叢)』, 2007; 정인영, 『한계를 넘어서-묘엄스님 생애와 한국 비구니 승단』,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 2) 조선 중기에 활동한 승려 신미(信眉)는 간경도감의 경전연해 및 월인석보 편찬과 같은 국역 사업에도 활발하게 참여하였던 인물로, 세조(1455~1468)에게 극진한 스승의 예우를 받았다. 사호(賜號)는 혜각존자(慧覺尊者)이며,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法住寺)에 부도(浮屠)가 남아 있다(용주사 편저, 『효심의 사찰 용주사』, 사찰문화연구원 출판부, 1993, 129쪽).
- 3) 봉녕사에 소장된 불화 가운데 「현왕도」와 「신중도」는 「봉녕사 불화 현왕정화」, 「봉녕사 불화 신중정화」라는 명칭으로 1994년 10월 29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52호로 지정되었다.
- 4) 조선 후기 불화는 양식 변천에 따라 임진·병자 양난을 겪은 후 전국의 사찰이 재건되었던 제1기(1620~1720), 재건된 사찰 건물이 노후되어 중창하였던 제2기(1720~1800), 그리고 조선의 국운이 다하는 마지막 제3기(1800~1910)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봉녕사 소장 불화는 제3기에 해당된다. 양식 변천에 따른 조선 후기 불화의 구분법은 문명대, 「조선조 후반기 불화양식의 고찰」, 『불교미술』 12, 동국대학교 박물관

- 관, 1994, 27~50쪽 참고.
- 5) 임자생 이씨는 고종(1852~1919), 신해생 민씨는 명성왕후(1851~1895), 갑술생 이씨는 순조(1874~1926)이다.
  - 6) 증명비구(證明比丘)는 제작된 불화가 정해져 있는 도상과 법도에 알맞게 그려졌는지 확인하는 소임을 맡은 자이며, 송주비구(誦呪比丘)는 불화가 그려지는 동안 염불을 외우는 승려이다. 지전비구(持殿比丘)는 해당 불화가 봉안되는 전각의 주임자이며, 조반비구(造餅比丘)는 작업 기간에 식사를 담당한 승려이다.
  - 7) 영명당 천기는 금곡당(金谷堂) 영환(永煥), 한봉당(漢峯堂) 창엽(瑯燁), 경선당(慶船堂) 응석(應釋), 덕월당(德月堂) 응륜(應崙), 허곡당(虛谷堂) 금순(巨巡), 금하당(錦荷堂) 기형(機炯), 금성당(錦城堂) 성진(性詮), 범화당(梵華堂) 윤익(潤益) 등과 함께 조선 후기 불화계(佛畵系)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금어(金魚)이다.
  - 8) 1878년 「봉녕사 영산회상도」에 서열 2위 화사(畵師)로 이름을 올린 금호당 약효는 이 작품을 시작으로 1882년 용주사 「오여래도」, 「사보살도」, 「팔금강도」를 조성하는 등 1924년 서산 부석사 「칠성도」를 마지막으로 절필(絶筆)할 때까지 전국을 무대로 삼아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였다. 약효 스님이 조성한 불화는 「신중도」 18점을 비롯하여 약 133점이 남아 있다. 약효 스님의 생애와 작품 활동, 사승관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김소의, 「금호당 약효의 불화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이동명, 「금호당 약효의 신중도 연구」, 한서대학교예술대학원 문화재보존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참고.
  - 9) 16세기 이후 조선 후기 불교계는 역불정책으로 피폐화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민간의 여러 신앙들을 차례대로 흡수하여 기층화·토착화하였고, 현세구복적인 성격의 신앙들도 적극 수용하였다. 그 결과 15~16세기를 거치면서 불교사회의 영향력과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오히려 종교로서 불교가 담당했던 신앙적 역할과 신앙계층의 저변은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어준일, 「16세기 조선시대의 불교조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6쪽).
  - 10) 「阿娑縛沙」 第58 熾盛光卷(澤本實, 『망월불교대사전(望月佛敎大辭典)』, 세계성전간행협회(世界聖典刊行協會), 1933, 1846쪽).
  - 11) 북극성을 불격화한 칠성광여래의 권능을 설한 경전에는 『불설북두칠성연명경(佛說北斗七星延命經)』, 『북두칠성호마비요의궤(北斗七星護摩秘要儀軌)』, 『북두칠성염송의궤(北斗七星念誦儀軌)』, 『불설대멸덕금륜불정칠성광여래소제일체재난타라니경(佛說大滅德金輪佛頂熾盛光如來消除一切災難陀羅尼經)』, 『대성묘길상보살설제교령법륜(大聖妙吉祥菩薩說除災教令法輪)』, 『북두칠성호마법(北斗七星護摩法)』 등이 있다. 조선 후기 「칠성도」의 전개 및 신앙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차재선, 「조선조 칠성불화의 연구」, 『고고미술』 186, 한국미술사학회, 1990, 57쪽 참고.
  - 12) 동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동두칠성은 조선 후기 새롭게 등장하는 도상으로 「통도사

서운암 칠성도(1861년, 견본채색, 187.5×154cm)에서 정확한 존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동자형의 동두칠성이 그려진 배경에는 남자아이를 선호하였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13) 조선 후기 불화에서 음영법이 사용된 대표적인 작품에는 화성 용주사에 봉안된 「용주사 대웅보전 후불정화」(조선 후기)와 「신중도」(1913년), 강화 전등사에 소장된 「신중도」(1916년) 등이 있다.
- 14) 「칠성도」 제작에 시주한 인물 가운데 동자 김준석과 관련된 유력한 인물은 시주자명 중 7번째에 기록된 건명경인생(乾命庚寅生) 김성만(金性萬)이다. 화기에 기록된 출생연도에 의하면 1887년 당시 김성만(갑인년, 1854년생)은 33세였으며, 정축생 김준석은 11세이다.
- 15) 현왕이란 세존(世尊)에게 보현왕여래(普賢王如來)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은 염라대왕(閻羅大王)의 별칭으로, 현왕제에서 심판을 주재하는 명간교주이다. 현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용윤, 「조계사 직할사암의 불화(III)」, 『한국의 불화』 36, 정보문화재연구원, 2005, 188쪽; 김정희, 『조선시대 불화연구』, 지식산업사, 1986, 115쪽 참고.
- 16) 적색·녹색·청색 안료 가운데 등장인물의 복식(服飾)과 배경색에 사용된 짙푸른 청색의 안료는 흔히 ‘코발트’라 불리는 광물질로, 도자기나 유리 등에 푸른색을 내는 화합물로 알려져 있다.
- 17) 조선 후기 신중신앙의 전개와 신중도에 나타난 호법신중의 도상에 대해서는 정병국, 「조선 후기 신중탱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김정희, 「조선시대 신중탱화의 연구(III)」, 『한국의 불화』 5-해인사 본·말사편 하, 1997, 231~241쪽; 권지은, 「19세기 신중탱화의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영희, 「한국 신중탱화의 도상학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3쪽 참고.
- 18) 1800년대 이후 제작된 조선 후기 불화에서는 이전 시기에 비해서 면의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19세기 중엽 이후 동인도회사에서 대량 생산된 면제품이 청나라를 경유하여 조선에 수입되었던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19) 19세기 후반 서울 지역을 주요 무대로 활동한 현조 스님이 1891년 「수원 봉녕사 신중도」 조성에 참여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1885년 「서울 봉국사 명부전 지장시왕도」 공동작업을 통해 천기 스님과 맺었던 인연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은 현조 스님이 참여한 불사에서 화기 중 금어질을 정리한 것이다. 1879년 「서울 개운사 괘불」 “…… 慶船應釋 萬波頓照 德海道儀 大虛體訓 比丘復輝 比丘奉法 比丘法常 比丘奉業 沙彌現照”; 1885년 「서울 봉국사 명부전 지장시왕도」 “…… 金魚 金谷永煥 比丘天機 片手 大虛體訓 比丘現照 比丘頓照”; 1892년 「남양주 홍국사 영산전 석가모니불도」 “…… 金魚比丘 金谷永煥 比丘 漢峰瑄曄 片手比丘 慶船應釋 比丘明應允鑑 比丘錦華機爛 比丘虛谷巨順 比丘東芸明奎 比丘普庵肯法 比丘義庵現照 比丘蓉潭奎祥 比丘梵華閏益 比丘亘照 比丘彰仁 比丘在悟 比丘戒賢 比丘彰悟 比丘慧寬 比丘性坦 比丘忠賢

比丘尙奎 比丘忠林 沙彌靈昱 沙彌致衍 沙彌奉安 沙彌太洽”

- 20) 1869년 「남양주 흥국사 팔상도(비람강생상)」 화기 중 금어질 “…… 片手 慶船堂 比丘應釋 比丘頓照 比丘自閑 比丘斗三 比丘在根”; 1873년 「서울 미타사 대웅전 신중도」 “…… 金魚片手 出草比丘 慶船堂 應釋 彩畫比丘 龍溪堂 瑞翊 東化堂 比丘斗欽 萬波堂 比丘頓照 比丘奉口 比丘應口 比丘奉洽 春口 亘仁 比丘奉口”; 1878년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지장십왕도」 “…… 金魚片手 金谷永煥 櫟庵勝宜 比邱應崙 比邱頓照 比邱自間.”; 1885년 「서울 봉국사 명부전 지장시왕도」 “…… 金魚 金谷永煥 比丘天機 片手 大虛體訓 比丘現照 比丘頓照”; 1888년 「안성 칠장사 지장시왕도」 “…… 金魚 金谷永煥 漢峰瑄擘 影性嚴爽 影明天機 翠庵勝宜 德月德崙 德松侈亨 明應幻鑑 虛谷巨巡 東昊震徹 華菴妙洽 比丘璋典 奉碩奉順 奉法 昌秀 赫滿 頓照 頓荷 智明 竺潭 妙寬 慧寬 等閑 尙奎 鶴成 性芸.”
- 21)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인천광역시·경기도』, 2012.

#### 04 | 전설을 따라 수원을 걷다

『화성성역의궤』.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86.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중, 1997.

설성경·김용국, 『수원 문화의 뿌리-설화·제당편』, 수원문화원, 2000.

『수정 국역 화성성역의궤』, 경기문화재단, 2001.

홍길주 저·박무영 외 역, 『표룡을침(縹龍乙幟)』 상, 태학사, 2006.

- 1)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수원시사』, 1998; 오세경 엮음. 『한 권으로 읽는 한국의 민담』, 석일사, 1998, 24쪽.
- 2) ‘하정범익’의 장소가 만석거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화성성역의궤』 등의 전적을 살펴보면 현재 만석공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판단한다. 한편 익조(鷓鴣)는 우순풍조(雨順風調)를 기원하는 새이다.
- 3) 홍길주 저·박무영 외 역, 『표룡을침(縹龍乙幟)』 상, 태학사, 2006.
- 4) 華民太平之娛, 今復如此否. 願而此畫揭者守華土牧華民者座側. 【大有農歌】
- 5) 八幅之中, 屬游賞者厘二三, 而惟梅菊與焉, 烏虜, 成人之意, 可見矣. 【間亭品菊】
- 6) 先王不遊, 民何而休, 先王不豫, 民何而助. 一遊一豫, 爲華民度. 【新豐社酒】

## 제4부 수원 인물을 기억하다

## 03 | 근대 음악의 선구자 흥난파

난파연보공동연구위원회, 『새로 쓴 난파 홍영후 연보』,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 민족문제연구소, 2006.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 『도산안창호전집』 제9권, 2000.

민경찬,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양악편』, 두리미디어, 2006.

민경찬, 『흥난파 자료집』, 한국예술연구소, 1995.

재동경조선유학생악우회, 『삼광(三光)』 창간호, 1919.

흥난파, 「나의 1년 총결산 : 정원의 실패」, 『조광』, 1937년 12월.

흥난파, 「첫 무대의 기억」, 『조광』, 1939.

- 1) 이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9일이 된다. 현재 흥난파의 탄생일을 4월 10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난파연보공동연구위원회에서 편찬한 『새로 쓴 난파 홍영후 연보』,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 민족문제연구소, 2006, 21쪽 참조.
- 2) 1898년 당시의 지명으로, 현재는 화성시 활초동으로 개칭되었다. 난파연보공동연구위원회, 『새로 쓴 난파 홍영후 연보』, 한국음악협회 경기도지회·민족문제연구소, 2006, 21~22쪽 참조.
- 3) 동경예술대학의 전신으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우에노(上野)음악학교라 불렀다.
- 4) 재동경조선유학생악우회, 「창간사」, 『삼광(三光)』 창간호, 1919.
- 5) 원래의 곡 이름은 「봉선화」였지만, 광복 직후 국어 맞춤법에 의거 「봉숭아」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6) 흥난파, 「첫 무대의 기억」, 『조광』 12월호, 1939, 322쪽.
- 7) 구니타찌(國立)음악대학의 전신이다.
- 8) 일본을 대표하는 NHK교향악단의 전신이다.
- 9) 민경찬, 『청소년을 위한 한국음악사-양악편』, 두리미디어, 2006, 93~95쪽.
- 10) 흥난파, 「나의 1년 총결산 : 정원의 실패」, 『조광』 12월호, 1937, 32~33쪽.
- 11) 도산안창호선생전집편찬위원회가 2000년에 편찬한 『도산안창호전집』 제9권, 642쪽의 「검거표」를 보면 “석방 또는 송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석방이 되었는지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 12) 홍영후, 「思想轉向に關いての論文」, 경성총로경찰서 고등계비밀문서 제14868호(『도산안창호전집』 제9권, 815~819쪽).
- 13) ‘가곡’을 북한에서는 ‘예술가요’라고 부른다.
- 14) 북한에서는 「봉숭아」를 원 제목 그대로 「봉선화」라 하고 있다.



**집필위원** (가나다 순)

구자옥	전 서울대학교 교수
김용국	(사)동아시아전통문화연구원장
김자운	공주대학교 강사
김중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김준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현미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민경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철상	고문헌연구가
상대영	(사)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교육전임교수
성주현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아연구소 연구교수
어준일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
염상균	역사탐방연구회 이사
이달호	전 수원화성박물관 관장
이동근	수원박물관 학예연구사
정수자	시인

**수원시사 16**

**이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발행일**

2014년 6월 25일

**발행처**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031-228-3475 / [www.suwon.go.kr](http://www.suwon.go.kr)

**디자인·인쇄**

**홍익문화사**

서울 중구 을지로 12길 28  
02-2274-8110 / [www.hongeeg.com](http://www.hongeeg.com)

---

**발간등록번호**

ISBN 978-89-87738-76-5

ISBN 978-89-87738-60-4(전 20권)

